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인제 옛 이야기



인제문화원·강원도문화원연합회

인제 옛이야기



인제문화원·강원도문화원연합회





인제인의 마음, 소박한 이야기

올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고 날씨도 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화로가 생각납니다. 어렸을 적,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두었던 물그릇이 콩콩 열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방바닥은 온돌이라 따뜻했지만, 위풍은 무척 심했지요. 흙벽과 문종이가 바깥바람을 막아주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람이 심한 날이면 문풍지 떼는 소리가 더욱 싸늘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면 가족들은 대부분 따뜻한 화롯가로 몰려들었습니다. 화롯불을 뒤편이며 밤, 감자, 고구마를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화롯불에 묻어 둔 먹거리가 익어가는 동안 아주 자연스럽게 가족들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텔레비전이 있던 시절도 아니니 화롯가에 모인 가족들은 다들 이야기솜씨를 뽐냈지요. 아는 이야기를 몇 번씩 했지만 알면서도 새롭게 귀를 세우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는 참 다양했습니다. 조상이야기, 전쟁 이야기, 살아온 무용담, 지명이야기, 귀신 이야기, 도깨비이야기, 호랑이 이야기 등등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화롯가에서 이뤄졌습니다. 굳이 이름을 짓는다면 ‘화롯가이야기’라고 할까요. ‘사랑방이야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때 나눴던 가족 간의 이야기는 교육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인성교육의 장이라 할까요. 손주에게 뜨거운 고구마껍질을 까주시며 사랑을 듬뿍 주시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지금은 기일에만 만나 뵙지만 참 그분들의 사랑이 그림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화롯가이야기에서 우리는 지금 모습으로 컸습니다. 그때 들려주시던 옛이야기와 삶의 이야기는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을 결정짓는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인성교육에만 해당할까요. 공동체사회를 이루는 기초를 만들어 주셨지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해야 된다고 했던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불특정 다수의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라 하셨습니다. 끼니꺼리가 없는 이웃에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심부름은 항상 어린 내 몫이었지요. 왜 그랬을까를 지금 저는 생각하게 합니다. 이웃 공동체의 삶을 일깨워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사람의 일생을 산교육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묻지 않고 물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장을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옛날 그 시절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왜냐면 오늘의 내가 있는 과거이니깐요.

이번에 '인제 옛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인제인의 이야기 참 많습니다. 각자 하나의 이야기만 실어도 수만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어찌 책으로 다 낼 수 있을 까요. 각자 살아오고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한 권의 책이지요. 그 이야기들이 언젠가는 다 출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인제에서 공유되고 채록된 이야기는 한정돼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공유하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를 묶어서 이번에 책으로 출간합니다. 이 책에 실지 못해 아쉬운 이야기는 다음으로 기약합니다. 이야기를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책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작은 지원이 지역문화발전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니까요. 아울러 이 책이 나오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집필자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자료를 모으고 쓰고 정리하고, 그리고 쉽게 읽히고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순간은 힘들었지만 기쁨은 오래가겠지요.

고맙습니다.

2018.01

인제문화원장 남 덕 우

발간사 / 004

제1부 인제 옛이야기, 그 전말

갓싹동이의 전설 / 013

개로 환생하여 대접 받은 할머니 / 019

과거에 급제한 가난한 외톨이 / 023

곽 씨의 행패를 막기 위해 추 씨네가 쌓은 토성 / 031

구두쇠 며느리 / 035

김부리와 군량리 / 041

피 많은 학동 / 045

남의 복주머니 덕으로 잘 산 사람 / 048

딸의 지혜로 범인 잡은 이야기 / 052

또 닭아라, 똥꼬아 / 058

명재판 / 062

뿔자리 지키기 위해 현몽한 박대감 / 067

묘터 파내기 / 071

무릉도원을 찾은 권진사 / 076

물고기를 놓아주고 용왕의 딸과 결혼한 사람 / 083

미륵 이야기 / 089

바로 대고, 거꾸로 댄, 엄선달의 재치 / 093

박대감 서낭 / 098

방동약수와 금부터의 심마니 / 102

백담사의 유래 / 107



백운과 제후	/ 111
뱀의 원한을 사서 과거급제 못할 뻔한 사람	/ 116
복을 받는 방법	/ 121
붕이 김선달보다 더한 차소백	/ 126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해야 하는 효도	/ 131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간 허복신	/ 137
빈 마음	/ 143
빌어먹을 팔자	/ 147
색시로 둔갑한 꼬리 열두 개 달린 여우	/ 152
설악산과 길 두목	/ 156
설악산의 팔기	/ 160
설악산의 팔경	/ 164
성급한 총각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한 뱀 색시	/ 168
송도령	/ 173
술이 생긴 내력	/ 178
시어머니 길들이기	/ 184
시험에서 통과해 하늘에서 살게 된 나무꾼	/ 189
신랑을 살리고 부자 된 머슴	/ 199
아기장수	/ 204
아버지 원수 갚기 위해 호랑이 가족을 뒤집어 쓴 아들	/ 209
어사 박문수에게 바른 말 한 사람	/ 214
여우각시 죽이고 부자 된 사람	/ 219
오세암	/ 224
요술부채	/ 229



은혜 깊은 구렁이	/ 238
은혜 깊은 두꺼비	/ 242
이성계의 득국으로 형을 살해하지 않은 아우	/ 246
장수터	/ 251
재빠른 행동으로 재주 있는 색시 얻은 사람	/ 255
제사를 지내라고 현몽한 여자 산신령	/ 263
제왕터	/ 268
죽은 후 철이 되어 맺은 사랑	/ 273
처음으로 효도하려다 명당자리 놓친 아들	/ 277
추갑산과 구미호	/ 281
친구에게 색시 뺏기고 문둥병 나은 사람	/ 285
친정의 명당자리 빼앗아 시집에 쓴 딸	/ 292
토끼봉의 전설	/ 296
특티기	/ 300
팔도강산의 호랑이를 다 잡은 오형제	/ 305
하마로와 박대감 이야기	/ 310
학칠령 골	/ 315
형관 스님의 현몽	/ 319
호랑이가 머리 빗긴 여인	/ 323
호환에 간 여자의 울음소리	/ 327
황조막과 박진사 이야기	/ 331



제2부 인제 옛이야기, 그 어울림

갓 마흔에 버선	/ 337
개인약수	/ 339
고곰(학질)을 얹지 않게 해주는 덩불할머니	/ 341
구대 뒤를 내다 본 조상의 유서	/ 343
피 많은 돌이와 두꺼비	/ 347
내린천의 수진암	/ 351
노루가 잡아 준 자리에 묘 쓰고 부자 된 마서방네	/ 353
대국 천자 옥새 찾은 소년	/ 355
대승폭포	/ 358
도깨비 이야기	/ 360
도깨비 항아리	/ 363
도술을 부리다 소가 된 사람	/ 364
돈을 벌면 떠나야 하는 신평리	/ 366
동자심의 허리에 명주 끈을 매어 부자 된 사람	/ 368
물둥이를 채우지 못하고 죽은 고 씨네	/ 370
뒗자리에 자고 팔자 고친 사람	/ 372
미륵불암과 보살암	/ 375
미산의 용바위와 용마	/ 379
미산의 파리먹이	/ 380
방동리의 용각석	/ 382
방울이와 개구리	/ 384
백담사와 100인의 도적떼	/ 388
버섯 따다가 아들의 환청에 죽은 아버지	/ 391



보명사와 개인약수	/ 393
본부인 버리고 누에가 된 사람	/ 394
부자가 망한 대흥동	/ 398
사람으로 둔갑해서 태어난 여우	/ 400
산 김가 셋이서 죽은 죄가 하나 당하지 못하다	/ 403
삼척 김 씨 기일제	/ 406
상남 수동의 황룡등천	/ 408
설퍼덩과 머슴	/ 410
신남의 닭바위와 망한 부자	/ 412
신랑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한 여우각시	/ 414
십이선녀탕	/ 416
아니오니의 유래	/ 417
엉덩이로 나팔 부는 호랑이	/ 418
오개탕과 빗적바위	/ 420
옥녀탕	/ 421
왕이 된 재복덕이	/ 423
용대1리 꼬부랑 할머니에 대한 제사	/ 434
제사를 모셔 잘 살게 된 형제	/ 436
조룡동서생과 장흥노	/ 438
주인을 구하고 죽은 개	/ 440
천도리	/ 442
풍년을 점치는 합강수	/ 443
하우고개	/ 445
행복한 아기장수 사랑이	/ 446
효자와 호랑이	/ 452

제 1 부

인제 옛이야기,
그 전말



갯쑤 동이의 전설

◆ 연개소문 : 603-665년 고구려 장수이자 정치가로 활동한 인물이다. 고구려 최고의 직인 대막리지까지 올랐으며, 당 태종을 벌벌 떨게 한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의 경극에 무서운 장수로 등장하며, 당나라 때 쓰인 전기소설 <규염객전(虬髯客傳)>의 주인공이고, 중국과 우리나라 일대에 전승하는 <갯쑤동전>전설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연개소문의 고향은 산서성 고려산, 강화도, 원주, 인제 등으로 다양하게 주장하고 있다. 신채호는 원주 학성동 유 장자집에 버려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인제군의 설화도 같은 내용이다.

◆ 설화의 내용 : 고구려 때 연국혜(淵國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 50이 되도록 후사를 얻지 못하여 항상 슬하에 혈육이 없음을 한탄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부부는 항상 부처님께 아들 하나를 점지해 달라고 빌었다. 이들의 정성에 부처님도 감동했음인지 그의 나이 50

이 되던 해에 마침내 귀여운 옥동자를 하나 낳았다.(갓선동이라는 명칭은 아버지 갓선에 낳았다고 하여 붙여진 것임)

갓 선동이가 일곱 살 되던 해 봄, 행각승 한 사람이 뒤뜰에서 놀고 있는 갓 선동이를 보고

“아까운 지고 정녕 아깝고려.”

하고 한탄하는 것이다. 이 소리를 들은 연 대감은 그 연유를 행각승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그 행각승은 갓 선동이는 장성하면 반드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나 타고난 수명이 짧아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행각승은 갓 선동이의 명을 길게 해주려면 15년간 부모의 슬하를 떠나 집을 그리워하게 되면 그 액을 때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연 대감은 즉시 하인을 불러 곱게 키워 온 갓 선동이를 두메산골로 보내고 뒷날 아들을 찾기 위한 표적 삼아 먹실로 등 위에 갓 선동이란 석자를 새겨 두었다.

갓 선동이를 잃어버린 곳은 인제 땅 두메산골이었는데 그 동리에 큰 부자인 유 씨가 살고 있었다. 유 씨는 갓 선동이가 버려지던 날 이상한 꿈을 꾸었다. 커다란 황룡이 구름을 타고 자기 집 우물가에서 하늘로 나는 것을 보았다.

유 씨는 당장에 우물가로 달려가 주위를 살펴보고 또 한 번 놀랐다. 한 사내아이가 우물가에 기대서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유 씨는 이 아이를 집에 데려다 귀엽게 여기고 키우기 시작했다. 갓 선동이는 자랄수록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영특했으나 그의 내력이 알려지지 않아 천인 대접을 받고 있었다.



갓 싼동이가 머슴으로 일하고 있던 어느 날 하루는 뒷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청아한 통소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빈 지게를 내려놓고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백발의 도사가 통소를 불다가 갓 싼동이를 보고

“너는 언제까지나 남의 머슴살이를 할 것이냐? 사내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기세를 펴지 못하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니라”
고 나무라고, 자기에게 와서 공부하라고 일러주었다.

갓 싼동이는 그날부터 도사에게서 글과 무술을 배웠다. 해가 질 무렵 갓 싼동이는 나무를 하지 않은 것이 걱정이 돼 지게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랬더니 지게에는 누가 해 주었는지 이미 나무가 한 짐 지워져 있었다. 갓 싼동이는 도사에게 감사하며 나무를 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부터 갓 싼동이는 매일 도사를 찾아가 공부를 했으며 공부 끝나면 누가 해주었는지 지게에 한 짐 실려 있는 나무를 지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원래 주인 유 씨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셋(문희 경희 영희)이 있었는데 그 중 셋째 딸인 연화(규영객전에는 영희로 나옴)라는 아가씨가 제일 아름답고 착했다. 연화와 갓 싼동이 사이에는 어느 덧 사랑이 움텄다. 갓 싼동이는 연화의 격려에 힘입어 사내로서의 포부를 세상에 펴려고 주인 유 씨의 집을 슬그머니 빠져나왔다. 연화는 지니고 있던 패물을 팔아서 갓 싼동이의 여비를 마련해 주었다.

그때 고구려는 달달국의 침입에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 갓 싼동이는 달달국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비복이 되었다. 갓 싼동이는 그 나라에서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 나라의 문물을 몸소 익혀 가지고 그 나라를 벗어나 다시 고국에 돌아왔다. 고국에 돌아온 갓 싼동이는 연화 아씨의 내조에 힘을 입어 부모를 다시 찾고 벼슬을 얻었다.

그는 연화 아씨와 결혼한 이듬해 달달국을 쳐 들어가 크게 승리하여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 한다.(『태백의 전설』, 『麟蹄郡 遺蹟·지명·전설』)

◆ **설화의 의미** : 사람의 운명을 이야기 할 때 우리는 사주팔자를 말한다. 사주팔자(四柱八字)는 그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이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평생을 어떻게 살지를 타고 난다는 것이다.

평창 진부에는 <봉두군(蜂頭君)>이라는 설화가 있고, 봉두구니라는 마을이 있다. 말 그대로 벌 임금이라는 뜻이다. 태조 이성계가 임금이 된 후 정말 사주팔자가 있다면 자신과 한날한시에 태어난 사람은 무엇을 하고 살까를 생각했다. 그래서 조선 팔도에 찾으니 평창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를 불러 물으니 정말 사주팔자가 태조 이성계와 같았다. 무엇을 하냐고 물으니 벌을 친다고 했다. 그가 치는 벌의 수를 헤아리니 조선의 백성 수와 비슷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팔자를 속일 수 없다며 한 나라에 두 임금이 있을 수 없으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벌 임금이 되게 했다고 하며 봉두군이라는 작위를 내렸다는 설화이다. 마을이름이 봉두군이라 회자된 설화일 게다.

위의 연개소문 설화는 그의 운명론을 말하고 있다. 그는 운명에 따라 힘들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갔다. 그를 도운 스님도 도사도 유 씨의 셋째 딸도 어쩌면 운명에 따른 삶의 단면들이다. 그가 나중에 고구려의 대막리지가 된 사실도 운명일 게다. 이처럼 사람은 모두 제 팔자를 타고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람은 사람마다 운명이 있듯이 그 사람의 고유한 삶이 있다고 말이다. 그러니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사람마다 운명에 따른 삶의 즐거움과 행복이 따로 있을 테니, 주어진 운명대로 삶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가진 것이 많아도 걱정이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

다. 주어진 운명에 맞추어 행복을 느끼고 구가하면 된다. 남의 대궐
같은 비싼 집이 어찌 나의 오막살이보다 나에게 더 좋을 수 있겠는
가.

개로 환생하여 대접 받은 할머니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서 1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환생담이다. 할머니가 죽어서 개로 태어나 손주를 도와 잘 살게 해주려는데, 손주며느리가 워낙 못 돼서 개를 팔시하자, 꿈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알린 내용이다. 설화에 서는 환생담과 함께 조상과 후손으로 이어지는 정을 엿볼 수 있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어떤 할머니가 죽어서 강아지로 환생을 했다. 그것도 자신의 손주 집에 있는 강아지로 환생을 한 것이다. 개가 되어서 그 집에 환생을 했는데, 손주며느리가 밥을 주지 않았다. 손주며느리는 강아지가 밥을 먹는 것이 무척 아까웠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강아지는 무척 배가 고팠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며느리는 자신의 남편하고 나중에 밥을 먹으려고 부뚜막 위 따뜻한 곳에 밥상을 차려 놓았다. 그 밥상을 본 강아지는 배가 고평 나머지 그만 모두 먹어치웠다. 그걸 본 손주며느리는

강아지한테 욕을 하면서 때려 강아지 주둥이를 묵사발을 내 놔다.



그날 저녁 손자의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서 자신이 죽어 개가 되어 환생했다고 알렸다.

“얘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네 할머니 죽은 혼인데, 너를 도와주려고 내가 죽어서 개가 되었다.

개가 되어 직접 도둑을 지켜주려고 너에게 이렇게 직접 왔다. 죽어서 개가 되어 왔다.”

라고 하였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내가 너에게 와서 도둑 들어오는 것을 지켜주려고 왔더니, 손주며느리가 그냥 너 밥 먹을 것을 먹었다고 내 주둥이를 이리 때려서 묵사발이 되었구나.”

라고 꿈에 나타나서 말을 했다. 그래 손자가 깨어보니 꿈인데, 아주 생생하였다. 그래 얼른 부엌으로 나가서 강아지를 부르니,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쫓아왔다. 그래 강아지가 왔는데 보니 정말 강아지 주둥이가 터지고 피가 나 있었다.

집안으로 들어온 손자는 자기 아내를 불러 왜 강아지를 이렇게 때렸냐며 야단을 쳤다. 그러니 손주며느리는 손자에게

“아니, 당신 주려고 밥을 차려놓았는데 먹으니 그렇지요.”

라며 대답을 했다. 그러자 손자는 자기의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했

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강아지에게 밥을 잘 주라고 부탁을 했다. 그렇다고 강아지를 상에다가 밥을 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손자는

“이제 땅에 강아지 밥그릇에다가 바쳐서 우리 먹는 것과 똑 같이, 그냥 대접을 하시오.”

하고 자신의 아내에게 부탁을 했다.

그 이후 손주며느리는 강아지에게 자신들이 먹는 것과 같은 밥과 반찬을 주고, 고기도 사다 주고 하니 강아지가 잘 먹었다. 그 이후 그 집은 아주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 (『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 우리는 죽으면 무엇이 될까? 죽으면 정말 모든 기운이 흩어져서 아무런 실체가 없을까?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태어날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정말 많이 품게 된다.

그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엇이 되어 가는지 보려고 후생점치기 또는 환토라는 민속행위를 해서 알아보곤 하였다. 그 방법 중 하나는 곡식을 까부는 키에 다가 고운 재를 체를 쳐서 놓고, 그 위에 시루를 얹어 놓았다. 그리고 그 위로 판이나 상여가 지나가게 한다. 그러면 곱게 체로 쳐 놓은 재 위에 발자국이 남는다. 그 발자국은 뱀, 개, 새, 소, 사람 등의 발자국이다. 아주 선명하게 자국이 남는데, 그 자국은 망자가 후생에 환생한 무엇이다. 간혹 사람의 발자국이 남기도 하고, 아예 아무 것도 없는 경우도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아무 자국도 남지 않는 것이다.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이 중에 사람으로 태어난 경우도 좋으나, 개로 태어나도 좋다고 한다. 개는 빨리 사람에게 잡아 먹혀서 금방 다른 것으로 환생을 하

기 때문이다.

설화에서 할머니가 죽어서 개로 환생을 했는데, 그 할머니는 또 자신의 손자집의 개로 환생을 했다. 죽어서도 후손들을 보살피겠다는 조상의 끈끈한 정을 볼 수 있는 설화이다.

과거에 급제 한 가난한 외톨이

◆ **설화의 위치:** 인제군 기린면 서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이야기는 가난한 집 아들이 지혜를 발휘하고 도움을 받아 과거에 급제해서 잘 살았다는 내용이다.

◆ **설화의 내용:** 옛날에는 공부를 해서 과거를 보아 급제를 해야만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다. 한문 공부를 한 십 년만 하면 모두 과거시험을 치르러 서울로 올라갔다.

그래 한 동네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모셔다가 공부를 하는 데 한 십 년 되었다. 이제 서울에 가서 과거를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는 아주 못 사는 집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혼자서 아들 공부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다. 얼마나 없는지 그의 어머니는 머리가 자라면 잘라서 근근이 학비를 대었다.

그 집 아들은 비록 집안은 가난하지만 공부는 아주 잘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서울로 가게 되었는데, 못사는 집 아들은 차비도

없고 해서, 잘 사는 집 아들이 가는 뒤통무니에 붙어서 서울을 향해 가기로 하였다.

서울로 가려면 길이 워낙 험악하고 가는 길도 알지 못해서 혼자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었다. 서울까지는 한 달 이상 가야 하고, 주막에서 자면서 힘들게 가야 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부잣집 아들에게



“야, 너희들 우리 애를 좀 잘 데리고 가다오.”

라 부탁하자, 아이들은

“예, 예.”

대답을 건성으로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 동네 아이들은 서울에 과거보러 떠나게 되었다. 그때가 마

침 가을인데, 얼마를 가다가 보니 목화밭에서 어머니와 딸이 목화를 따고 있었다. 그것을 본 부잣집 아이들은 갑자기 장난기가 생겼다. 그래서 앞서 가던 부잣집 아이들은 뒤따라오는 가난한집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기다리다 가난한집 아이가 오자

“야, 너 저기서 목화 따는 처녀 봤지?”

라고 묻자, 그 아이는

“봤지.”

라 대답했다. 그러자 부잣집 아이들은

“너 저 목화 따는 처녀에게 가서 양쪽 귀를 잡고 입을 맞추고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데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여 버릴 것이다.”

라며 아이에게 으박질렀다. 그래 아이가 생각하니 큰일이었다. 잘 못하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연구를 해서 그 처녀와 입을 맞추기로 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처녀가 목화를 따는 곳 가까이 가서 갑자기 죽겠다고 막 내굴렀다. 아이가 그렇게 죽겠다고 하니, 목화를 따던 어머니와 딸이 가까이 왔다. 처녀의 어머니가 아이를 보고는

“아 총각 왜 어디가 아파서 죽겠다고 야단이야.”

라고 묻자, 그 아이는

“아, 여기 오다가 흙이 발에 걸려 튀었는데 그만 눈에 들어가서 아파 죽겠어요.”

라며 막 눈을 감싸고 죽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처녀의 어머니가 급하니까 아이의 눈을 보려고 가까이 가 보았으나, 볼 수 없었다. 아이가 눈에 들어간 것도 없는데 억지로 떼를 쓰니 눈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 와중에도 아이는 죽겠다고 영영대고 있었다. 그렇게 아이의 눈을 보던 어머니는

“아이, 나는 눈이 어두워서 아무 것도 안 보이네. 이거 안 되겠다. 젊은 사람이 봐야 되겠구먼.”

하고는 딸을 불렀다. 그러고는

“이거 내가 눈이 어두워 그러니까, 네가 좀 봐라. 눈에 뭐가 들어갔

는지 말이다.”

라며 그 처녀에게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도록 했다. 그래 그 처녀가 그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려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자, 그 아이는 처녀의 귀를 잡고는 처녀와 입술을 맞췄다. 부잣집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처녀와 입을 맞춘 것이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부잣집 아이들에게 맞아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 아이는 부잣집 아이들 가까이 따라가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거리를 많이 두고 뒤를 따라가서 마침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다. 서울에 가서 과거를 보기 위해서는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곳을 지키는 보초들이 사람을 막 들여보내지 않았다. 부잣집 아이들은 뒷돈을 주고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아이는 가진 돈이 없으므로 들여보내 주지를 앓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과거를 보러 왔다고 했으나, 남루한 옷차림을 보고는 문을 막고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 아이는 방법이 없음을 알고 몰래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도 여의치 않았다. 몰래 들어가다가 잡히면 큰 망태기에 넣어서 메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었다. 그래도 그 아이는 꼭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보초 몰래 들어가려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보초에게 잡히고 말았다. 아이는 보초에게 잡혀서 망태기에 넣어진 채로 보초들의 어깨에 메어 감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초들이 그 아이를 메고 감옥으로 가는 길에는 정승들의 집이 몰려있는 길을 따라 가야했다. 마침 그곳에는 정승들의 딸이 별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 중 이정승 딸이 별당에서 내려다보니 얼굴은 흰칠하게 잘 생겼으나 옷은 남루하게 입은 한 총각이 망태기

에 담긴 채 보초꾼들이 메고 가는 것이었다. 망태기에 담긴 아이가 자신을 메고 가는 보초에게 과거보러 온 사람이라고 몇 번이고 말하며 내려달라고 하는 말을 이정승의 딸이 들었다. 이정승의 딸이 보니 멀쩡한 사람 괜히 망가뜨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망태기에 넣어 감옥으로 가는 충각을 살리기로 하였다.

이정승 딸은 얼른 주변에 있는 김정승 딸과 박정승 딸을 하인을 시켜서 기별을 하도록 했다. 그래 3개 정승의 딸이 모이자, 그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이정승 딸이

“야, 너희들 잘 들어봐라.”

라 하자, 김정승과 박정승 딸은

“언니, 왜?”

하고 물었다. 이정승 딸은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있다. 그러니 이따가 내 별당으로 모이 거라.”

라고 했다. 그래 저녁이 되어 3정승 딸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정승의 딸들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는가 생각하고 그러기로 했다.

저녁이 되어 약속한 시간이 되자 3정승 딸들은 모두 약속한 장소에 모이게 되었다. 그때 이정승 딸이 김정승과 박정승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시골에서 아주 잘 생긴 충각이 과거보러 오다가 시간을 놓쳐서 보초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대. 그 사람은 과거를 봐야 하는데, 감옥에 갇혔으니, 과거시험은 볼 수가 없는 것이지. 너희들 같으면 이 사람을 살리겠니, 죽이겠니?”

라고 했다. 그러자 김정승과 박정승 딸은 이구동성으로

“아, 그런 아까운 총각을 살려야지.”

라 했다. 이정승 딸은

“정말이야.”

라고 다짐을 하자, 김정승과 박정승 딸은

“정말이지. 당연히 살려야지.”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서 3정승 딸은 그날 저녁 의금부 감옥으로 향해 가서 그 총각을 빼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감옥으로 바로 가서 아버지 정승의 이름을 대고는 그 총각을 감옥에서 빼내어서 자신의 집 벽장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정승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다음 날 있을 과제를 물어 와서 그 총각에게 모두 알려주었다.

다음 날이 되어 드디어 과거시험을 보게 되었다. 과거시험장에는 정승들이 모두 모여 있고, 드디어 과제가 붙었다. 그 총각이 보니 어제 저녁 정승의 딸들이 알려주던 것과 같았다. 총각은 워낙 머리가 좋은데다 필체까지 뛰어나서 일필휘지로 시험을 치고, 제일 먼저 답안을 냈다. 총각은 머리로 좋은 데다 미리 과제를 알았으니 답안은 정말 좋았다. 그것을 지켜보던 정승들은 서로 사위를 삼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과거를 보러 갔던 부잣집 아들들은 모두 낙방을 하고, 가난한 집 아들만 장원급제를 하였다.

부잣집 아들들은 낙방을 했으니 먼저 고향으로 내려왔다. 장원급제를 한 아이는 며칠 지체하면서 채비를 차리다보니 조금 늦게 고향으로 오게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다른 집들 아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아들은 오지 않으니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자식 하나 보고 여태 살았는데, 서울에 간 아들이 오지 않으니 가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래서 부잣집 아들들에게

“너희들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하고 너희들만 왔느냐?”

라 묻자, 부잣집 아들들은

“몰라요. 그 새끼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레 갔다 왔어요.”

라며 모른 체하였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마을 입구에 아주 큰 꽃가마가 오고 가마 뒤에는 많은 사람이 따르고, 널리리쿵덕쿵 널리리쿵덕쿵 음악을 울리면서 산이 들썩하게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그게 아들인지 모르고

“남의 아들은 저렇게 과거에 급제해서 금의환향해서 오는데, 우리 애는 어디 가서 죽었는지 소식이 없나.”

라며 눈물을 막 흘리며 울고 있었다. 그런데 그 꽃가마가 꿈도 아닌데 자기 집으로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 자세히 보니 바로 자기 아들이 급제를 해서 오고 있는 것이었다.

역시 크게 될 사람은 다른지, 그 아들은 나중에 벼슬을 해서는 마을에서 같이 공부하던 부잣집 아들들에게 자기를 죽이려던 것을 용서하고 작은 벼슬을 줘서 살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입맞춤을 한 목화 따던 처녀를 본처로 맞아들이고, 3명의 정승집 딸들도 저들의 원으로 모두 처첩으로 맞아들여서 잘 먹고 살았다고

한다. (『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 이야기 끝이 아주 멋지게 끝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을 죽이려던 아이들을 용서하고 베틀을 시켜준 것이라든지, 얼떨결에 입맞춤을 당한 처녀를 과거급제 후에 처로 맞아들인 것 등은 정말 멋진 행동이다. 그리고 가난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보여준, 희망을 주는 설화라 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노력하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설화는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끝까지 희망을 갖고 노력할 일이다.

곽 씨의 행패를 막기 위해 추 씨네가 쌓은 토성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마을에 있는 토성의 유래를 따져 전해 내려오는 설화이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인제군 방동리에서 있었던 이야기이다. 방동리에는 가을 추(秋)자를 쓰는 추 씨네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 그 증거로 지금도 그곳에는 추 씨네의 산소가 많다. 추 씨네가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도 도둑질을 하니까 추 씨네 성끼리 모여서 마을을 둘러 성을 쌓았다.

그런데 그곳에는 돌도 없어서 진흙을 이겨 가지고 토성을 쌓았다. 토성을 쌓는데 무려 그 길이가 오 리에 해당될 정도로 길게 쌓았다. 그렇게 열심히 성을 쌓아도 도둑을 방어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추 씨네는 누가 도둑질을 해 가는지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 도둑은 다름 아닌 고갯마루에 살고 있는 곽 씨였다. 곽 씨는 덩치가 황소만 한데다 힘도 천하장사여서 아무도 함부로 그를 건드리

지 못했다. 그래 지켜보니 바로 그 곱 씨가 필요할 때 마다 와서 도둑질을 해 가는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의논을 해 봐도 그 곱 씨를 가둘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기운이 천하장사니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마을에는 그 곱 씨의 처가가 있었다. 몰래 모의를 해도 처가를 통해서 이미 정보가 다 새나가니 따로 작전을 짤 수도 없었다. 그러니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없고 힘으로 잡을 수도 없어서 여간 고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토성을 오 리나 쌓아도 한 동네 사람이니 마을에 드나들지 못하게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곱 씨는 마을에 드나들다가

“이놈의 새끼들 내가 먹을 거 다 떨어졌다고.”

하면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강제로 곡식을 뺏어가는 것이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추 씨네 집성촌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으로 작전을 짜서 곱 씨를 없애는 방도를 내었다. 옛날에는 겨울에 감자를 보관해서 먹기 위해서 집집마다 감자 구덩이를 팠다. 감자구덩이를 파서 땅에 묻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구덩이에 있는 감자를 꺼내서 먹곤 하였다. 그런데 하도 곱 씨가 집집이 다니면서 가져가니 동네에서 공동으로 감자 구덩이를 파고 감자를 보관하기로 한 것이다. 동네에서 공동으로 감자 구덩이를 파니 감자구덩이는 엄청나게 컸다. 동네사람들은 굶어도 같이 굶고 먹어도 같이 먹자며 농사한 감자를 몽땅 한 구덩이에 넣고 나눠먹기로 하였다.

그렇게 겨울이 왔다. 겨울이 오니 고갯마루에 살고 있는 곱 씨가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였다. 동네사람들은

“우리는 감자 밖에 없다.”

라며 감자를 묻은 감자 구덩이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괄 씨는 그곳에 들어가서 감자를 꺼내갔다. 괄 씨는 제 먹을 것이 떨어지면 와서 제 것인 양 계속 감자를 꺼내가서 먹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냥 꺼내가서 먹도록 놔두었다. 그렇게 감자를 꺼내 먹다 보니 감자 구덩이는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갔다. 감자를 꺼내기 위해서는 깊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다.

그날도 괄 씨는 커다란 지게를 지고 와서는 제 것인 양 감자를 꺼내기 위해서 감자 구덩이로 들어갔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 저 놈을 잡자.”

라며 모여들어서 감자 구덩이 입구에 돌을 잔뜩 가지고 와서 감자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감자를 꺼내 담고 있는 괄 씨를 향해서 던지기 시작했다. 얼마나 돌을 많이 던졌는지 괄 씨는 돌에 맞고 묻혀서 그만 나오지 못하고 감자구덩이에서 죽고 말았다.

그렇게 괄 씨를 죽이고 나니 다시는 동네에 도둑이 없었다. 그래 추 씨네가 그 괄 씨를 진작 잡았더라면 흙으로 오 리나 되는 성을 쌓지 않아도 될 것인데, 도둑을 잡기 위해서 오 리나 되는 성을 쌓았으니, 힘이 무척 들었을 것이다. 그때 쌓은 성터가 지금도 논둑 크기보다 더 크게 남아있다.(『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 이 설화는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하지만 한편으로는 통쾌하게 느껴지고 있다. 곽 씨의 죽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살길을 찾아야지, 힘으로 다른 사람의 곡식을 뺏어 먹는 데만 쓴 것이다. 이를 동네 사람들은 보다보다 못해서 결국 힘을 합해서 죽이고 만 것이다. 이 이야기는 토성 같은 독이 있는 것을 빗대서 이야기를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힘만 믿고 일은 안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곡식을 뺏어먹는 곽 씨는 탐관오리의 비유이다. 관리랍시고 백성들을 보살필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편익만 위해서 백성의 고혈을 뺏 탐관오리를 빗대서 구성된 이야기이다. 아무리 먹을 것을 줘도 더 달라고 와서 가져가는 못된 관리를 백성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감자구덩이에 묻어 죽인 것이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어느 정도 해야 한다. 힘없고 약한 백성이라고 언제까지나 함부로 막대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더 이상 당할 수 없을 때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다.

구두쇠 며느리

◆ **설화의 위치** : 이 설화는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1989년에 채록한 것으로 전국에 전승하는 구두쇠 이야기의 한 유형이다. 내용은 참신하여 배꼽을 잡고 웃을 수 있는 소화의 일종이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인제군에 ‘달라깍데기’라고 소문난 한 집이 있었다. 달라깍데기란 ‘너무 써서 다 닳아빠지다’라는 뜻이다.

그 집에서 나이가 찬 아들이 있어서 장가를 들였다. 장가를 들이니, 며느리가 새로 온 것이다. 달라깍데기다 보니 여간 알뜰한 것이 아니었다. 살림을 쥐어짜서 아끼고 또 아끼는 집이었다.

며느리가 시집을 여름에 갔는데, 조석 문안이 끝나는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놓고 며느리 앞에 부채 하나를 내어놓고 물었다.

“너흰 이런 부채를 하나 사면 얼마나 쓰느냐?”

그러자 며느리가 도로 시부모에게 물었다.

“아버님 어머님은 부채 하나로 얼마를 씁니까?”

그러자 시부모는

“우리야 열두 칸 부채는 십이 년을 쓰지? 부채를 한 칸씩 펴서 1년에 한 칸만 쓰니 12폭 부채니 12년을 쓰지?”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며느리는 시부모의 대답을 듣고는

“아이구, 어쩐지 시집와 보니 살림살이가 대단치 않더라고요. 너무 헤피 써서 그런 거지요?”

라고 얘기를 했다. 1년에 한 칸씩 쓰는 것인데도 너무 많이 썼다는 것이었다. 시부모는 며느리의 대답을 듣고는 의아했다. 자신들은 정말 아껴 쓴다고 쓰는데, 며느리는 그걸 대단치 않다고 하는 것이었다.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물었다.

“그럼 네 집에서는 부채를 어떻게 쓰느냐?”

며느리는 바로

“그야 대번에 펴서 쓰지요.”

라고 답했다. 시부모는

“야, 그게 되느냐? 한 칸씩 쓰는 것도 12년 밖에 못쓰는데 한꺼번에 펴서 쓰면 1년에 다 쓸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집안이 엉망이 되고 말거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한꺼번에 펼쳐서 쓰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며느리는

“제가 하는 걸 잘 보세요.”

라며, 시범을 보였다. 부채를 짹 펴더니 실을 꿰어서 천장에 매달았다. 그리고는 부채를 향해서 고개를 아래위로 흔들었다. 그러면서

“부채를 이렇게 쓰면 백 년도 쓰지요. 무슨 한 칸씩 써서 12년만 쓰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부채가 고조할아버지가 쓰던 것인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라는 것이었다. 부채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머리를 흔들어 대니 부채가 망가질 리가 없는 것이었다.

또 시부모는 짚신을 꺼내놓고

“이것은 너흰 어떻게 신느냐?”

라 하자, 며느리는

“뭇 어떻게 신어요. 막 신죠.”

라 했다. 시부모는

“그렇게 막 신으면 얼마나 신겠느냐?”

라 하니, 며느리는

“그럼 아버님은 짚세기를 어떻게 신으세요?”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나는 짚신을 손에 들고 가다가 사람이 오면 신고 걸어가지.”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러자 며느리는

“그러니 집안 꼴이 어떻지요.”

라 했다. 시아버지가

“너흰 어떻게 신냐?”

라고 물었다. 며느리는

“아, 신을 왜 신고 걸어가요. 손에 들고 가다가 사람들이 오면 신을

놓고 잠시 서 있지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다시 들고 걸으면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짬신 한 켄레면 30년은 신지요.”

라고 했다.

시부모는 도저히 며느리에게 이길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고추장을 종지에 떠서 상에 올렸다. 그래서 며느리가 보고는 ‘이놈의 집 버릇을 좀 들여놓아야 겠구나’하고 다음에 고추장을 대접에다가 푹 떠서 상에다 올려놓았다. 그것을 본 시부모는 며느리가 집안 살림 다 털어먹을 것 같아서 까무러칠 정도였다. 저렇게 헤픈 며느리를 들었으니, 한 3,4년 먹을 고추장을 한 서너 달 먹으면 없앨 것 같았다. 그래서 시부모는 아침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장을 너무 많이 떠놓는 바람에 기가 질려서 며느리를 그냥 두면 며칠이면 살림을 다 털어먹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밥을 먹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으니, 며느리가

“아, 왜 다들 조반 식사를 안 하세요.”

라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장 이야기가 나왔다. 시어머니가

“야, 살림살이를 이렇게 헤프게 해서 되겠니?”

라 하자, 며느리는

“글쎄 어쩐지 시집 와 보니까 이 집이 못 살데요.”

라고 또 그러는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그럼 너희는 장을 어떻게 먹느냐?”

라 하자, 며느리는

“우리는 사발로 퍼서 놓고요, 아끼고 싶으면 보기만 하고 먹지는

않지요. 그래 제가 시집을 와서 보니 숟가락이 다 닳은 것이예요. 장 조금 묻은 것 굵어먹으려고 굵으니 다 닳은 것이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했다. 그래 시어머니가

“너흰 숟가락을 어떻게 쓰냐?”

라고 물었다. 그러자 며느리는

“아, 숟가락은 쓰지 않고요, 젓가락을 쓰지요. 젓가락으로 쿡 찍어서 한번 만 먹지요. 그러면 굵지 않으니 젓가락 숟가락은 닳지 않는 것은 물론이니,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지요. 어떻게 숟가락을 굵어서 이렇게 망가뜨려요.”

라고 했다. 그러자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앞발 다 들고 항복을 하고 말았다. 며느리에게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시부모는

“아이고, 저 며느리한테는 아무 것도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는 달라깍데기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며느리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라며 그날부터는 며느리 시키는 대로 해서 달라깍데기 집안은 부유하게 돈을 모아 잘 살았다고 한다. (『인제군 학술답사보고서』)

◆ **설화의 의미** : 정말 대단한 구두쇠이다. 이런 구두쇠 이야기는 많이 전하고 있지만, 인제군의 구두쇠 이야기는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보통 이야기는 며느리의 구두쇠 기질이 덜하다고 나무라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 이야기는 며느리가 더한 구두쇠로 나오고 있다.

어찌 되었건 생각의 차이이겠지만 우리가 아껴 쓰는 습관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속담에

“버는 자랑 말고, 쓰는 자랑 하라.”

고 한다. 버는 것이야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명심보감에 보면

“荀子(순자)왈 大富(대부)는 由天(유천)하고 小富(소부)는 由勤(유근)이니라.”

라고 하였다. 곧,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분수 밖의 너무 큰 것을 바라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쓸 일이다. 그러면 최소한 작은 부자는 될 것이 아니겠는가?

김부리와 군량리

◆ **설화의 위치** : 이 설화는 현재 인제군과 양구에 걸쳐 전하는 것이다. 지역 간의 거리는 멀지 않지만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인제군 남면에서 양구군 북면으로 향하는 길로 연결되어 있다. 그 때문에 설화가 연결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설화의 내용은 신라의 마지막 태자인 마의태자에 얽힌 것이다. 나라를 잃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나다가 이곳에 머물러 재기를 노렸으나 결국 실패하고 한 많은 삶을 마무리한 것이다.

◆ **설화의 내용** : 신라가 고려에 항복한 뒤의 일이다. 김부왕(金富王, 마의태자)은 천추의 원한을 가슴에 품은 채 수십 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향하여 왕도인 경주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김부왕은 경주를 떠나 충주, 제천, 원주, 양평, 홍천을 거쳐 강원도 인제 땅에 이르렀다. 그때 김부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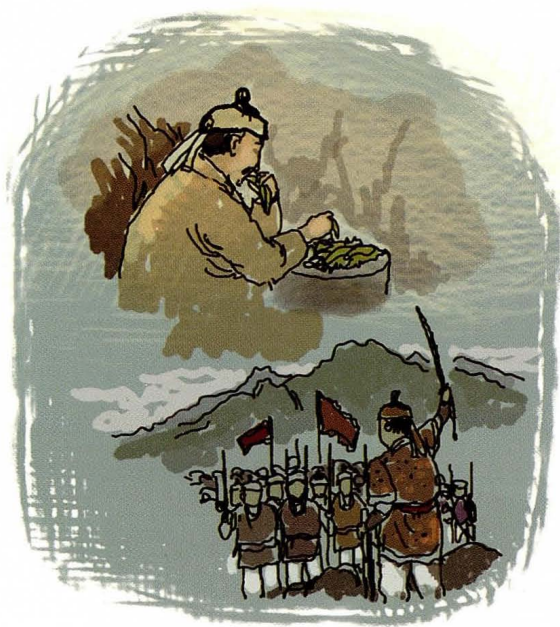
“내 몫시 피곤하니, 좀 쉬었다 가자.”

하고 말했다. 호위병들은 왕의 말대로 마을에서 쉬게 되었다. 그곳은 산수가 빼어나다. 그래서 김부왕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머물며 심신의 피로를 말끔히 씻었다. 이렇게 김부왕이 머물러 신 곳이라 하여 사람들은 마을 이름을 김부리라 불렀다. 김부리는 인제군 남면에 있었는데, 198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상남면으로 옮겨갔다.

김부대왕이 인제군 김부리에 머물러 있을 때였다. 호위병 중에 가장 충성스런 맹 장군이 있었다. 맹 장군은 김부대왕에게 간청을 했다.

“폐하,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의병을 모아서 왕건의 군사를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언을 했다.



맹 장군의 얘기를 들은 김부왕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장군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하고 찬성을 하였다.

여러 신하들은 각 고을로 가서 신라를 되찾고자 의병을 모았다. 신체가 건장한 젊은이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였다. 그렇게 의병을 모은 맹 장군은 넓은 들을 골라 의병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켰다. 칼 쓰는 법, 활 쏘는 법은 물론 말 타는 법까지 일일이 일러 주었다. 계획대로 아주 차근차근 일이 잘 풀려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훈련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의병들이 먹을 식량을 조달하는 것이었다. 잠은 들판에서 막사를 지어놓고 자고, 옷은 각자 가지고 온 것으로 번갈아 빨아 입으면 되었지만, 그들이 먹는 그 많은 식량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다.

맹장군은 생각다 못해 군량미를 쌓아두는 군량고(軍糧庫)를 지어서 군량을 비축해 두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틈틈이 의병들을 시켜 식량창고를 짓기 시작했다. 의병들은 의기에 차 있었으므로 훈련은 물론이려니와 군량고를 짓는데도 적극적이었다. 그래서 그 큰 군량고도 금방 지어졌다.

식량창고인 군량고가 다 지어지자, 맹 장군은 인근의 마을 유지들을 설득시켜 군량미(軍糧米)를 거둬들였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군량미를 내놓았다. 금방 큰 군량고는 가득 채워졌다. 그 때문에 맹 장군은 물론 의병들도 마음 놓고 군사훈련을 익힐 수가 있었다.

군사들의 무예는 날로 달라졌고, 군사들의 사기도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다. 김부왕은 매우 흡족했다. 얼마 안 되어 왕건을 쳐부수고 잃어버린 신라를 되찾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하늘은 김부왕을 돕지 않았다. 갑자기 청천벽력이 떨어진 것이었다.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그렇게 건강하던 맹 장군이 과로한 탓인지 갑자기 자리에 눕더니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장군을 잃은 수 백 명의 의병들은 비통한 나머지 가슴을 치고 눈물을 삼키며 울었다. 맹 장군이 죽고 나자 의병을 이끌만한 장수가 없었다. 의병들은 시름에 차 훈련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군량미가 떨어지자 모두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훈련장은 맹 장군의 무덤과 덩그런 군량고가 있을 뿐 허허벌판 그대로였다.

사람들은 군량고가 있던 마을을 군량리라 불렀는데, 이 군량리는 지금 양구군 북면 군량리(軍糧里)이다.(『월간소년』)

◆ **설화의 의미:** 이 설화는 지명설화인데, 지명유래를 신라의 마지막 태자인 마의태자가 인제군 남면 김부리와 갑둔 일대에 터를 잡고 의병을 모아 신라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다가 한 많은 삶을 마무리 한 내용으로 처리했다. 설화의 사실화를 떠나서 설화적 진실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라를 잃었을 때의 설움과 나라를 잃고 나면 다시 찾기 어렵다는 교훈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피 많은 학동

◆ **설화의 위치** : 이 설화는 인제읍 남북리에서 채록하였다.

◆ **설화의 내용** : 남을 골탕 먹여서 재미있다는 것 보다는 나이가 먹든 어리든 피가 있어야 한다. 옛날 한문서당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서당에는 훈장과 몇몇의 학동이 있었다.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났더니 식곤증이 왔다. 그래서 그 학동이 꾸벅꾸벅 졸았다. 훈장은 학동이 조는 걸 보고는 긴 담뱃대로 학동의 머리를 톡톡 쳤다.

“요 녀석! 너 왜 자느냐!”

아 그러니 담뱃대의 쇠끝에 맞으니 엄청 아팠다. 학동은 얼마나 아픈지 그냥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졸더라도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마침 그때였다. 훈장어른도 점심을 잡숫고 난 터라 꾸벅꾸벅 졸고 계셨다. 그래서 이 녀석이 피가 났다. 얼른 훈장어른을 깨웠다.

“훈장 선생님.”

훈장은 잠결에 깜짝 놀라 깨면서 대답을 했다.

“왜, 그러느냐?”

그러자 학동이 당돌하게 선생님께 말했다.

“선생님도 주무신 것 아닙니까?”

훈장은 대답이 궁해지자 갑자기 이렇게 둘러댔다.

“이 녀석이 선생님이 자길 어딜 자느냐. 내가 지금 방금 가서 공자님을 만나 뵈고 왔느니라.”



학동은 선생님의 말씀에 그냥 넘어갔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학동이 또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이 녀석 또 조냐?”

훈장이 학동에게 꾸지람을 했다. 그러자 학동은 먼저 선생님이 말한 것이 생각났다.

“아닙니다. 저도 가서 공자님을 뵈고 왔는데, 선생님이 안 왔다 가셨다고 그러합니다.”

“...”

훈장 어른은 학동에게 당하고 할 말을 잃었다. 스승이 거짓말을 했다가 제자에게 당한 것이었다. (『인제군지』)

◆ **설화의 의미:** 이런 설화를 우리는 지혜담이라 한다. 설화를 통해서 인간의 지혜를 배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화는 구성되었다. 설화의 서두에서

“골탕 먹여서 재미있었다는 거 보다는 나이가 먹어서든지 어려서든지 껌이 좀 있어야 된 다는 걸 알고 있어요.”

라고 했듯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는 부래산(浮來山) 설화라든가, 상전이 겨울철 딸기를 따오라고 시켜서 아이가 해결했다는 식의 설화에 많이 나온다.

부래산설화 등에서 보여주는 교훈은 변화에 있다. 어른들의 고정된 지식체계로는 풀 수 없는 지혜와 재치를 아이들의 열린 사고로 해결하고 있다. 과거의 경직된 경험체계가 현재의 열린의식을 따라갈 수 없으며, 경직된 고집보다는 변화를 추구하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기를 은근히 나타낸 교훈이 담겼다.

남의 복주머니 덕으로 잘 산 사람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서2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운명론에 관한 것으로 사람마다 타고난 팔자가 있어서 팔자대로 살지만, 복을 타고 나지 않았더라도 팔자가 좋은 사람의 덕을 입으면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 **설화의 내용** : 팔자가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잘 살 수 없다. 절이든 교회든 어디 가서 기도를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다 평생 팔자대로 사는 것이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하도 가난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런데 아무리 일을 해도 못 사는 것은 여전했다. 겨우 제 밥이나 얻어먹고 살 정도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결심을 했다.

“내가 이렇게 못 살 바에는 돈은 못 모으더라도 그 흔한 나무나 실컷 갖다 놓고 때 보자.”

라고 결심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날부터 열심히 산에 가서

나무를 했다. 아침 일찍 산에 가서 죽도록 나무 단을 크게 묶어서 나뭇가리에 쌓아놓았다. 하루 종일 그렇게 나무를 해서 쌓아 놓으니 나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이었다. 하루 종일 열심히 나무를 해서 쌓아두고 하룻밤 자고 나면 나무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어디로 간 곳이 없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렇게 나무를 해 놓으면 사라지기를 한 열흘 쯤 지난날이었다. 훔쳐 간 사람도 없는데 나무가 없어지니 밤새 나무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는 나뭇가리 가운데 올라가서 도대체 나무가 왜 없어지는지를 보려고 앉아 있었다. 그렇게 나뭇가리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밤 12시 쯤 되자 하늘에서 웬 갈고리가 내려와서 나무를 달아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나무를 끌고 올라가는 갈고리를 붙잡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로 다 올라가니 하늘 신선이

“너 어떻게 올라왔냐?”

라며 물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 올라왔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면서 조금 틈을 들었다가 그 사연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사실 제가 하도 못 살아서 이렇게 나무나 실컷 해서 때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나무가 없어져서 하도 딱해서 지키다가 올라오는 나무를 잡고 올라왔어요.”

라고 했다. 그랬더니 하늘의 신선이 하는 말이

“응 그래, 그런데 너는 원래 복을 타고 나지 못했다. 그걸 알려면

하늘을 쳐다보라.”

라 하여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에는 사람 하나에 복주머니 하나씩 배정되어 있었다. 잘 사는 사람의 복주머니는 크고, 못사는 사람의 복주머니는 작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신선에게 물었다.

“그럼 제 복주머니는 어디에 있지요?”

라 하니, 신선은

“있기는 있다. 그런데 저기 수천만 개 달린 저 구석에 제일 쪽정이 조그마한 것이 네 것이다. 네가 이렇게 쪽정이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 사는 거야.”

라 했다.

그러면서 신선은

“네가 내 시키는 대로 하면 너 그래도 밥이나 먹고 살 수 있다.”

라 하면서 여러 복주머니 가운데 있는 아주 커다란 복주머니를 가리켰다. 그 사람은 궁금해서

“저건 누구 겁니까?”

하니, 신선은

“아직 그 복주머니의 주인은 태어나지 않았다. 내일 모래 태어날 사람의 복주머니인데, 네가 내려가서 그 집에 가서 무조건 같이 살아라. 그러면 네 평생 밥걱정하지 않고 살 것이다.”

라 일러주었다.

그 사람은 하늘의 신선이 시키는 대로 지상에 내려와서 그 복주머니의 주인공 집을 찾아갔다. 정말 그 집에 갔더니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틀이 지나자 아기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집의 복에 얹혀서 살기로 하였다. 정말 아기가 태어나고 그 사람은 그 집과 같이 한평생 잘 살았다. 남의 복주머니 덕으로 가난한 팔자로 타고난 사람이지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러니 세상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제 팔자를 타고 나야 하는 것이다. (『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 이런 운명론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따라 다니면서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운명을 다른 말로 그 사람의 타고난 연월일시를 일컬어 사주팔자(四柱八字)니,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라고 해서 천정(天定)이라느니 해서 일컫고 있다. 어떨 때는 정말 제 타고난 팔자에 따르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제 노력에 따라 인생의 복락이 정해지는 것 같다. 그러나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언제나 운이라는 것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 사회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 집단을 이뤄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제 아무리 타고난 복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다.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해 살 때 타고난 복도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말을 쓴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각자 제 할 일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제때 써 가며 편히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설화에서 큰 복을 타고난 사람과 함께 하면 아무리 복을 타고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공동체 사회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다.

딸의 지혜로 범인 잡은 이야기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사또의 어린 딸이 지혜를 내서 살인죄를 저지른 범인을 잡은 지혜담이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인제군 상남에서 있었던 일이다. 상남에 살고 있는 어느 농부의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은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아들을 가르치지 못해서 거지처럼 얻어먹고 다녔다. 어느 날 아이가 얻어먹으면서 다니다 보니 날이 무척 추웠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터라 추위를 더욱 탈 수밖에 없었다. 그래 추위를 피하려고 보니, 마침 동네 서당이 열린 방에 아침에 일찍 군불을 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서당방에 때는 군불을 쪼려고 그곳에서 앉아 있었다. 그 아이는 그곳에 앉아서 아이들이 서당에서 글을 읽는 것을 어깨너머로 듣고 배웠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지 않는 천재였다. 그 아이는 마땅히 갈 곳도 없고 해서 매일 그곳에서 불을 때 주면서

어깨 너머로 글공부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당에 있는 아이에게 훈장이 글을 읽으라고 하니까 아이가 읽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엌에 있던 천재아이가 대신 글을 읽었다.

그래서 훈장이 불러서

“너 어디서 왔느냐?”

라며 몇 마디를 건넸다. 그런데 아이의 옷도 남루하고 머리와 옷에는 이가 바글바글 거리는 데도 아이의 눈빛이 살아있고 머리 또한 좋은 것이었다. 서당의 아이들은 그 아이를 더럽다고 밀치고 막 그랬다. 그런 사연을 그 동네에 사는 부잣집이 알게 되었다.

마침 그 부잣집에는 아들이 없는 터라 이 천재 아이를 데려다 양자로 삼고자 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옷을 새로 해 입혔더니 아이가 인물도 있고 아주 잘 났다. 게다가 아이가 천재니까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지를 않았다. 그래 기르다 보니 공부도 잘 하고, 키도 훗날하게 커서 아주 빼어났다. 서당에서는 공부를 잘 하니까 선생 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접장을 맡고 있었다.

이 아이는 이제 커서 어느 덧 열대여섯 살이 넘었다. 마침 같은 동네에 부잣집 외동딸로 자란 그 아이 또래의 처녀아이가 있었다. 그 처녀 아이도 글공부를 해서 문장깨나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집 앞을 오고가는 그 총각아이가 맘에 들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단둘이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서당의 아이들을 인솔해 가다가 없어졌기에 물어보니 변소를 갔다고 하였다. 처녀 아이는 얼른 편지를 써서 접어 하인아이에게 주어 변소에 들어간 아이의 앞에다가 편지를 던지도록 하였다. 아이는 난데없는 편지가 변소에

떨어지니 펼쳐서 보았다. 그곳에는 할 얘기가 있으니 며칠 몇 시에 담 너머로 밧줄을 넘겨 놓을 테니 그것을 타고 올라오라는 내용이었다. 글썽도 고와서 총각아이는 아주 신이 났다.

그래서 총각아이는 그 편지를 다시 접어서 자신이 보는 책 사이에 꽂아두었다. 그러면서 처녀가 보낸 그 편지내용을 보고 좋아서 글을 읽어도 머리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하여 서당을 들락날락 하면서 싱글벙글하고 있었다. 그 총각아이가 책 사이에 꽂아두고 가끔 펼쳐 보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훈장이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아이가 또 서당에서 나가기에 책 사이에 꽂아둔 편지를 훈장이 보게 되었다. 그 편지를 훑쳐 본 훈장은 나쁜 마음이 생겼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날씨는 더운데 고역스러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낮잠을 자라고 일렀다. 아이들은 선생이 시키니까 아무 생각 없이 모두 낮잠을 잤다. 훈장은 그 틈을 이용해서 편지에서 읽은 대로 그 처녀의 집으로 갔다. 가보니 담장 너머로 밧줄이 늘어져 있었다. 밧줄을 타고 담을 넘으니 마침 처녀 혼자서 글공부를 하고 있었다. 처녀는 그 총각이 올 줄 알았는데 서당 훈장이 온 것을 보고는 기겁을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훈장은 자신이 온 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반항하는 처녀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처녀는 그런 훈장이 더 무서워서 발버둥을 쳤다. 그러다가 그만 훈장은 처녀의 반항을 어쩔 줄 몰라서 옆에 있던 칼로 처녀를 찔러 죽이고는 시체를 치운 후 얼른 도망을 쳤다.

총각아이는 훈장이 자라고 해서 자다가 보니 처녀와 약속한 시간이 넘어 있었다. 얼른 일어나서 처녀의 집으로 가보니 밧줄이 담장

너머로 내려와 있었다. 얼른 밧줄을 타고 올라가 보니 아주 조용하고 아무도 있지 않았다. 총각아이는 실망을 하고 터덜터덜 서당으로 돌아왔다. 그때 훈장은 담장 너머에서 총각아이가 왔다 가는 것을 보고는 서당에 놓여있는 총각아이의 신발을 가져다가 처녀의 집 담장 안으로 던져 놓았다. 그러고는 모른 체하고 서당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처녀아이의 집에서는 처녀가 보이지 않아 찾다 보니 죽은 시체를 찾게 되었고, 곧바로 관가에 알려 범인을 찾아 달라고 하였다. 관가에서는 신발의 주인공을 찾다가 보니 그 총각아이의 신발임을 알고 그 아이를 살인범으로 감옥에 가두었다. 총각아이는 억울함을 하소연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한편 처녀의 집에서는 외동딸을 잃고 상심에 젖어 있는데, 아침에 난데없는 까치가 와서 한참을 울더니 입에 물고 있던, 가운데 구멍이 뚫린 버드나무 잎을 떨궈 놓고는 갔다. 그래서 그 집에서는 그 버드나무 잎을 주워보니 이상하였다. 까치가 물어다 놓은 것도 버드나무에 구멍이 뚫린 것도 흔치 않는 이상한 일이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뜻을 풀 수가 없어서 그 버드나무 잎을 관가에 들고 가서 주었다. 분명히 무슨 곡절이 있는 버드나무라면서 자신의 딸이 죽은 사연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구멍 뚫린 버드나무 잎을 받아든 관가에서는 고을원도 육방관속도 모두 그 뜻을 풀지 못하고 끔끔대고 있었다. 마침 처녀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안 임금님은 반드시 진범을 잡으라고 명이 내린 터라 더욱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고을에 영을 내려

서 처녀를 죽인 진범을 잡지 못하면 다들 크게 혼낼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때 고을원의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다. 그 딸은 아버지가 구멍 뚫린 버드나무 잎을 상에 놓고 밥도 먹지 않고 고민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그 딸은 아버지에게 가서 왜 고민 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고을원은 어린 계집애가 별 걸 다 참견한다면서 가라고 하였다. 딸은 아버지의 핀잔에도 가지 않고 계속 왜 고민하느냐고 물었다. 고을원인 아버지는 어린 딸이 하도 치근대며 묻자 그 사연을 말해 주었다. 그리고 구멍 뚫린 버드나무 잎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서 생각 중이라고 했다.

그러자 그 딸은 아버지께서 아침밥을 잡수시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고 하였다. 며칠 동안 밥을 굶어가면서 고민하는 아버지가 안타까웠던 것이다. 그래서 고을원은 어린 딸이 아버지를 근심해서 그런 다면서 딸이 보는 앞에서 밥을 먹었다. 밥을 다 먹고 상을 물리자, 아버지 옆에서 지키고 있던 딸은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아버지, 잘 들어보세요. 여기 버드나무는 한자로 버들 유(柳)자이니 성이 유 씨이고, 버드나무 잎이니 잎사귀 엽(葉)자를 쓸 것이고, 구멍이 뚫렸으니 구멍 공(孔)자를 쓰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울부짖던 까마귀는 처녀의 영혼일 겁니다.”

라는 것이다. 그래 고을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니 바로 처녀가 살던 마을에서 훈장을 하고 있는 유공엽이 있었다. 그래서 유공엽을 잡아 심문을 해서 진범을 잡게 되었다. 억울하게 갇혀있는 충각을 구하려고 죽은 처녀의 혼이 까치가 되어 짓고 범인의 단서를 준

것이었다. 그래서 그 총각은 살인범의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인제군
학술답사 보고서』)

◆ **설화의 의미:** 이 이야기는 참으로 많은 화소가 개입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었다. 설화 중에서도 꽤나 복잡한 설화인데, 그 핵심은 범인을 잡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또의 어린 딸이다. 사또의 어린 딸은 날카로운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린 아이의 지혜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도 시골 마을의 훈장이라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믿고 존경하는 인물 중의 하나이다. 그런 사람이 어린 학동의 여자 친구를 탐내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그 행각을 숨기려고 자신의 제자인 학동을 범인으로 몰고자 하였다.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런 훈장의 범행이 미궁에 빠져 완전범죄가 될 뻔 했는데, 사또의 어린 딸이 지혜를 발휘해서 범인을 잡게 된 것이다. 결국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함을 잊지 말아야겠다.

또 닭아라, 똥꼬야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서2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이 이야기는 웃음을 주는 소화담인데, 소금장수의 무거운 짐과 똥과 뼈다귀와 도깨비를 잘 연결시켜서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만들었다.

◆ **설화의 내용** : 옛날에 소금장수가 있었다. 소금장수가 소금을 팔기 위해서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렇게 시골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소금 값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소금장수는 무거운 소금가마니를 지고 고개를 넘어서 소금을 팔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한 고개, 두 고개, 세 고개를 아주 힘들게 소금을 지고 넘어갔다. 그렇게 고개 셋을 넘으니 한 동네가 나타났다. 그 동네에 가니까 농사꾼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소금을 지고 고개를 세 개나 힘들데 넘다보니 갑자기 똥이 마려웠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여기, 변소 어디 있소.”

라고 물으니, 한 농사꾼이

“여가 밭인데 뭘 변소가 따로 있소. 거 아무 데나 누고 싶은데 누시오.”

하고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소금장수는 소금 지게를 내려놓고 풀숲에 들어가서 똥을 누었다. 그런데 똥을 누고 나니 마땅히 밭을 닦을 것이 없었다. 급히 똥이 마려워서 종이를 따로 마련한 것도 아니고, 옆에 밭 닦을 만한 나뭇잎도 없었다. 반반한 돌이라도 있으면 닦을 수 있을 것인데, 그것마저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밭 닦을 것을 찾다가 보니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 보니 웬 송장 뼈다귀였다. 허연 것이 밭 닦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 남자는 아무 생각 없이 송장 뼈다귀를 들고

“스으”

밭을 닦았다. 그러자 갑자기 뼈다귀가 말을 하는 것이었다.

“또 닦아라, 똥꼬야. 또 닦아라, 똥꼬야.”

라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소금장수는 기겁을 하고는 바지를 얼른 추스르고는 소금지게를 지고 줄행랑을 놓았다. 정말 걸음아 나 살려라고 소리를 치면서 도망을 갔다. 그렇게 한 참을 도망하다 보니, 배가 몹시 고팠다.

“또 닦아라, 똥꼬야.”

라고 소리치며 따라오던 뼈다귀도 따라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소금장수는 어느 한 집에 들어갔다. 그 집에 들어서

“지나가는 소금장수인데, 배가 몹시 고파 그러니 밥 좀 주세요요.”

하고 부탁을 했다. 마침 그 집에는 하얀 앞치마를 하고, 그 안에는 빨강치마에다 노랑저고리를 입은 어떤 젊은 여자가 있다가 밖으로 나왔다. 그래 소금장수가 그 젊은 여자에게

“밥 좀 얻어먹고 갈 수 없소.”

하니, 그 여자는 순순히 밥을 해 주는 것이었다. 방에 소금장수를 들어오라 하고는 부엌에 나가서 밥을 차렸다. 있는 것 없는 것 잔뜩 해서 밥상에 가득 음식을 차려 내왔다.

소금장수는 젊은 여자가 차려주는 밥을 마침 배가 몹시 고프던 터라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다. 그렇게 밥을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보니, 밥상을 차려준 여자가 재주를 넘고 있었다. 세 번을 훌쩍훌쩍 재주를 넘더니 어느새 도깨비로 변해 있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방망이를 들고는 밥을 먹고 있는 소금장수에게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아까 밀을 닦았다가 쫓아오면서 소치리던 뼈다귀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다.

“또 닦아라, 똥꼬야. 또 닦아라, 똥꼬야.”

라며 소금장수에게로 슬슬 다가왔다. 소금장수는 밥을 먹다 말고 얼른 손가락을 놓고는 또 그 무거운 소금지계를 지고 뛰기 시작했다. 뼈다귀에 소금장수가 똥을 닦자 그 뼈다귀가 도깨비로 변한 것이었다. 도깨비는 소금장수가 소금지계를 지고 고개 몇 개를 넘을 때까지 쫓아오면서

“또 닦아라, 똥꼬야.”

라고 계속 말을 했다.

소금장수는 실수로 뼈다귀로 밀을 닦았다가 아주 큰 봉변을 당한

것이다.(『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아주 오랜만에 신나게 한 번 웃어본다. 뼈다귀가 말을 하고 쫓아오고, 또 도깨비로 변해서 같은 말을 하면서 쫓아올 때의 소금장수 심정을 알만 하다. 똥을 누고 밭 닦을 것이 없을 때의 황당한 심정과 뼈다귀로 밭을 닦을 때의 황당함, 게다가 도깨비로까지 변해서 따라올 때의 황당함은 그야말로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이런 황당함을 통해서 청자들에게 웃음을 주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 곳에서 똥오줌을 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똥오줌도 못 가린다.”라는 말이 있다. 아주 어린아이를 두고 하는 말이며, 제 분수를 모르고 아무 데나 덩비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하게 있다. 특히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말 한 마디도 가려 해야 한다. 아무 말이나 툭툭 내 뱉고, 아무 행동이나 했다가 나중에 곤혹을 치르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게다가 그렇게 일을 저질로 놓고는 정말 핑계 같지 않은 핑계까지 대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많이 본다. 제발 똥오줌 가리는 사람이 돼 주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에게는 나중에 뼈다귀가 “또 닦아라, 똥꼬야.”하며 끝까지 쫓아갈 것이다.

명재판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기름장수가 잊어버린 돈 때문에 재판이 걸렸는데 사또의 지혜로 도둑을 잡은 이야기이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어떤 사람이 참기름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모았다. 참기름 장사는 참기름을 팔아서 엽전을 받으면 꾸러미에 하나씩 끼우고 해서 자신이 제일 많이 질 수 있는 천 냥 꾸러미의 엽전을 지고 갔다.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지게에다 엽전꾸러미를 올려놓고 바위위에 올라가서 낮잠을 잤다. 그렇게 자고 있는데, 어떤 도둑이 와서 기름장사의 돈을 들고 갔다. 그래서 기름장사는 자다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훔쳐갔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기름장사는 그 당시 재판관부터 모든 고을 일을 맡고 있던 고을 원인 사또에게 돈을 찾아달라고 하소연을 했다.

그러니

“기름장사 아무개가 어디에서 이렇게 자다가 돈을 잃어버렸으니 그 돈을 찾아주시오.”

하고 부탁했으니, 거참 애매한 노릇이었다. 바위에서 혼자 잠을 자다가 잃어버린 돈을 어떻게 찾겠는가 말이다. 그래서 사또는 지방의 군수며 육방관속들에게 명을 내려서 그 일을 해결하라고 했다. 그러니 다들 증거가 없으니 찾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모두들 그 돈은 찾을 수 없다고 말을 했다. 그러자 사또는

“너희들이 그런 일도 해결 못하면서 녹봉을 받고 있느냐?”

며 호통을 쳤다.

그러면서 사또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며 고을 이곳저곳에다 방을 붙이라고 하였다 방의 내용은 바위를 불러 재판할 한다는 것이었다. 곧, 기름장사가 돈을 바위위에서 자다가 잃어버렸는데, 돈을 훔친 원인은 바위가 아니냐. 그러니 그 바위를 불러 재판을 해야 되겠다. 고을원이 기름장사 대 바위를 상대로 재판을 한다는 것이다. 바위를 도둑으로 하여 재판을 한다고 방을 써 붙이라고 하였다. 그렇게 해서 방을 사방에 써 붙였다.

도둑놈이 그 방을 보니 아주 실감나는 얘기였다. 아무리 제가 똑똑하다고 해도 돌이 얘기를 해서 어느 놈이 돈을 가져갔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 돈은 자기가 훔쳐왔지만 감히 자기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방에 써진 낱씨를 잘 기억해서 재판 구경을 가기로 하였다. 여하튼 재판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도둑은 재판구경을 갔다.

고을 원이 있는 동헌을 들어서는데 보니 방청객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한자로 들 입(入)자를 쓰고 나오는 곳은 날 출(出)자를 써놓았다. 도둑은 들 입자를 쓴 곳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무슨 굴처럼 캄캄한 통로를 지나게 만들어놓았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자 입구를 지키는 관속이

“옛날에는 그냥 돈을 안 받고 재판을 했지만, 이번은 하도 어려운 재판이라서 입장료를 내고 이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입장료가 얼마냐고 그러니

“한 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돈을 받아도 워낙 재판이 재미있을 것 같으니 웬만한 사람은 돈을 한 푼 내고 재판 구경을 하러 들어갔다. 바위가 도둑이 되어 재판을 한단데 그런 구경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방청객이 수천 명이나 줄을 서서 동헌으로 들어갔다.

그때 돈 받는 그릇이라며 물을 가득 채우고 돈을 받았다. 물그릇 위에는 불을 밝히고 엽전을 그 위에 떨어뜨리면 관속들이 그곳을 유심히 보았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돈을 떨어뜨려도 멀쩡한데 한 사람이 돈을 떨어뜨니까 물 위에 기름이 둥둥 떴다. 기름장사니까 돈에 기름이 묻은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때 그곳을 지키던 사령이 나서면서 돈을 떨어뜨린 사람을 붙잡았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에게

“이제 재판은 끝났습니다.”

라며 그 도둑을 잡아 동헌에 꿰어앉히었다. 그리고 문책을 하니, 그 도둑은

“아유, 전 죄가 없습니다.”

라며 발뺌을 했다. 그때 사또가

“야! 지금껏 네 앞에 백 명 이상 돈을 내고 들어갔어도 아무도 기름이 뜨지 않는데, 왜 네가 던진 엽전에만 기름이 뜨느냐. 네가 기름장사의 돈을 가져간 것이 확실하다.”

라고 했다. 그러자 도둑은

“과연 죽을죄를 졌습니다.”

라며 도둑질을 실토했다.

결국 사또의 지혜로 기름장사의 돈을 훔친 도둑을 잡았다고 한다.

(『인제군 학술답사보고서』)

◆ **설화의 의미:** 이야기에서 초점은 사또의 지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으로 실오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재판을 열었을 것이다. 재판이라기보다는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아무리 난감한 일이라도 머리를 쓰라는 것이다. 마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이야기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해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속담에 ‘지계질 잘하는 사람은 면사무소에 가도 지계질 한다.’고 한다. 힘으로 일을 해결하려면 남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다. 모름지기 머리를 써서 일을 해야만 남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직위가 오르고 녹봉을 많이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 뇌물을 받고 국비로 외국여행이나 하고 성 접대나 받으면서 골프나 치면서 눈치나 보아 유흥을 즐기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자자손손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설화의 사또와 같은 행위는 본받을 만하다. 그렇다고 잔피나 잔머리를 쓰라는 것은 아니다. 넓고 깊게 보아 지혜를 내라는 것이다. 모름지기 공부하고 연구할 일이다.

뫓자리 지키기 위해 현뫓한 박대감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제 보자는 원래 기린면 현리의 박 대감 사당이 있던 곳에 살던 사람인데, 상동으로 이사를 해서 살고 있다가 전해준 설화이다. 묘의 주인공 박원굉은 고려시대 때 평장사를 지낸 인물로 말년에 인제군 기린에서 왜구를 방어하다가 죽은 인물로 설화에 등장 한다. 춘천 박 씨의 시조인 박항의 맏아들이며, 현재 무덤은 기린면사무소 뒤에 있으며 사당도 묘 앞에 같이 있다. 박원굉은 죽은 후 그가 살아서 치적 때문에 기린면 현리의 서낭신으로 좌정해 있었으며, 하마로를 비롯한 그로 인한 여러 전설이 전하고 있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박원굉 대감이 기린면 현리에 죽어 묻힌 후 세월이 한참 된 뒤의 일이다. 그의 후손들이 묘가 오래되다보니 잘 보살피지 못해서 풀이 나고 해서 묘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박원굉 대감의 묘는 잡초에 묻혀서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내고 있었다. 그

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춘천 박 씨의 후손 중 한 사람이 박원굉 대감의 꿈을 꾸게 되었다.

꿈에 하얀 눈이 내리는데 박 대감이 나타나서

“어디 어디에 내 옛날 집이 있는데, 집이 낡아서 그러니 집수리를 좀 해다오.”

라고 하고는 사라졌다. 그렇게 현몽을 하기에 후손은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지금은 묘를 면사무소 뒤로 이전을 했는데, 이전하기 전의 무덤 위에 엄 씨네의 묘가 있었다. 영월 엄 씨네의 묘가 박 대감의 무덤 위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월 엄 씨네가 그곳에 무덤을 쓴 것은 그곳이 가시밭이고 짚레닝쿨이 잔뜩 있어서 묘가 없는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황량한 산속에 짚레닝쿨이 잔뜩 있으니 남의 묘가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그 때문에 엄 씨네는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묘를 쓴 것이다.

꿈을 꾸는 박 씨 후손은 박대감이 현몽한 위치로 찾아가 보게 되었다. 그곳에 가보니 순 가시밭 덩굴인데 묘가 있을 리는 없지만 기분은 이상하였다. 정말 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이다. 그래서 그 후손은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서 보니, 정말 어떤 밋자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박 대감의 후손은 영월 엄 씨네 집에 가서 문중의 대표를 만나서 사실을 이야기 했다.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산에 있는데, 내 꿈에 현몽을 했습니다. 그러니 묘를 찾아야 하겠으니 협조해 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 그 옛날에는 남의 묘소를 쓰거나 하면 그 부근

에는 타인이 근접을 못했다. 남이 묘를 쓰면 위에도 아래도 아무도 못 쓰게 되어 있었다. 뭇자리도 기득권이이라는 게 있어서 누가 묘를 쓰면 그 부근에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영월 엄 씨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었다. 그랬더니 영월 엄 씨들이

“무슨 소리냐?”

고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꿈을 꾸 박 대감의 후손은

“그럼 내기를 하자, 그 묘를 파보면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소?”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집안은 약속을 했다. 만약 박 씨네 무덤이라는 무슨 증거가 나오면 엄 씨네가 묘를 파 옮기기로 하고, 무슨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박 씨네가 동네에서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두 집안은 그곳의 묘를 파 보기로 하였다. 그렇게 묘를 파더니 박원굉의 묘비가 나온 것이다. 세월이 오래돼서 쓰러진 묘비가 땅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박원굉 대감의 묘비가 땅에서 나오자 영월 엄 씨네는 박 씨네한테 타협을 요구했다. 엄 씨네도 조상의 묘를 함부로 팔 수 없으니 묘를 그대로 놔두고 대신 박대감의 묘 주변 땅은 모두 박 씨네에게 주기로 한 것이다. 두 집안은 그렇게 타협을 보고, 산소를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박 씨네는 조상 산소인 박원굉의 묘를 다시 일으켜 잘 다듬어서 보존을 하였다. 그래서 그곳에 3군단 본부가 들어와서 묘를 옮기기 전까지는 그곳에 박 대감의 무덤 위에 엄 씨네의 조상무덤이 하나 있었다.(『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우리는 가끔 이런 불가사의한 일을 겪게 된다. 현실적으로 그 실체를 모르니 불가능한 일일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일 외에 많은 다른 일들이 존재함을 보게 된다. 우리는 이런 일을 환상과 같은 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하지만, 그런 일은 실재도 환상도 아닌 그 중간의 사실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공자님께서도 “자불어(子不語) 괴력난신(怪力亂神)”이라고 괴력난신을 말씀하지 않았을 뿐이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 때문에 동양철학의 근원은 귀신으로부터 비롯한다고 한다. 귀신의 유무와 실체의 증험을 사유하고 고증해 내는 단계에서 이기론(理氣論)이 등장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실로 볼 때 조상과 후손으로 이어지는 끈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있게 한 조상들에게 보다 더 공경을 다하고 보살필 일이다.

묘터 파내기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이 이야기는 뫇자리에 관한 풍수담인데 일상적으로 전승하는 설화인 ‘딸이 흙쳐간 뫇자리이야기’의 변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나중에 딸이 흙쳐간 묘를 파내고 시아버지를 묻었더니, 손자가 다시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인제 기린에 유명한 풍수가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아들을 일찍 잃고 며느리와 손주와 같이 살고 있었다. 그 풍수는 아주 유명해서 인근에 소문이 자자했다.

그러던 중 풍수는 나이가 들어서 병을 얻었다. 병을 얻어서 시름시름 앓는데, 며느리가 보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런데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은 다 뫇자리를 봐주면서 정작 자신의 뫇자리는 봐 놓은 것이 없는 것 같았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디 뫇자리를 잡아 묻어야 하는데 마땅히 묻을 곳이 없는 것

이었다. 그래서 며느리는

“아버님, 아버님은 그렇게 유명한 풍수이시면서 아버님 뒤통자리는 하나도 봐두지 않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세요.”

하고 시아버지께 여쭙었다. 그러자 병석에 누워 있던 시아버지는 며느리 보고

“이 방에 누가 있느냐. 있으면 다 나가라고 해라. 그리고 너만 남아라.”

라며 방에 있는 사람을 모두 나가게 했다. 방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 자식들이 와 있었던 것이다. 그때는 마침 방에 아이의 고모가 와 있었다. 그러니 시아버지의 딸인 것이다. 딸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 병문안을 온 것이었다. 며느리는 시누이인 아이의 고모에게 밖으로 좀 나가 있으라고 하였다. 그렇게 방에서 다 나가자,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가까이 오게 하였다.

그리고 며느리보고

“내가 저 아래에 뒤통자리를 하나 해놓고 돌곽을 해 놓았으니, 나중에 내가 죽거든 그곳에 묻어라. 그곳에 나를 묻으면 3년 안에 땅의 명기를 받아서 너희들이 잘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손주를 하나 키우는데 가가 잘 돼서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일러 주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밖으로 다 나가라고 하자, 의아하게 생각한 문병 온 딸이 그것을 엿 들었다. 멀리 가지 않고 문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가 이야기 하는 것을 다 들었던 것이다. 그걸 들은 딸은 올케 몰래 자신의 시아버지를 그곳에 묻기로 하였다.



마침 풍수인 시아버지는 그 길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다. 옛날에는 장사를 오랫동안 치렀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렸다. 아버지 상을 당해서 같이 장사를 치르던 딸이 갑자기 밤에 집에 갔다 온다하고는 나갔다가 그 이튿날 왔다. 딸은 올케 몰래 밤에 시아버지 무덤을 파서 아버지가 묻힐 좋다는 밋자리에 갖다가 묻었다. 그러고는 시침을 뚝 떼고는 모른 척하고 아버지 장사를 같이 봤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묻을 날이 다가오자 동네사람들을 시켜서 묘혈을 파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곳에 묘혈을 파려고 가자 이미

누군가 묘를 썼던 것이다. 그래서 며느리는 생각다 못해서 다른 곳에 시아버지를 묻기로 하였다. 그렇게 장사를 치르고 세월이 흘렀다. 세월이 지날수록 못살던 시누이는 점점 잘 살게 되고, 밋자리를 빼앗긴 올케는 점점 못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밋자리 이야기 할 때 누가 엇들은 사람 있어요?”

라고 아들이 묻자,

“글쎄, 그때 온 사람은 네 고모 밖에 없었는데.”

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자 아들은

“그럼 고모군요. 고모가 그 소리를 엇 듣고 자기 시아버지를 그곳에 이장했어요. 어머니 우리 다시 그 무덤을 파내고 우리 할아버지를 묻읍시다.”

라 하고는 당장 그곳에 가서 무덤을 파고 할아버지 뼈를 추려서 이장을 했다. 그리고 파낸 무덤의 뼈는 다른 곳에 잘 묻어주었다.

그렇게 할아버지 무덤을 좋다는 그곳에 이장을 한 후 얼마 있다가 보니 정말 못살던 손자는 살림이 점점 불며 출세를 해서 잘 살게 되고, 잘 살던 고모는 점점 가난해 졌다. (『인제군 학술답사 보고서』)

◆ **설화의 의미:** 이 이야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수담에 빗대어서 시집간 딸의 욕심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시집간 딸이 친정이 잘 살게 되는 것보다 자신이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친정아버지가 묻힐 밋자리를 빼앗는 비정함을 보이고 있다.

물론 설화에서는 원래대로 그 자리의 주인공을 묘에 써서 복구되었지만,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시집을 가든 안 가든 같은 자식이고 형제고 한데 서로 돕지는 못할망정, 자신만 잘 살겠다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비정함을 보인 것이다. 모름지기 서로 돕고 살 일이다.

무릉도원을 찾은 권 진사(訪桃源權生尋眞)

◆ **설화의 위치** : 이 설화는 인제군 기린면을 배경으로 전하고 있다. 인제 기린의 어느 지역을 무릉도원으로 보고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제목 자체가 도원을 찾은 권진사로 되어 있다.

◆ **설화의 내용** : 백문 밖에 사는 권 진사는 어린 나이에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공부에는 뜻이 없고 오로지 놀러 다니기만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사마천처럼 세상을 유람하는 풍취가 있다고 자부하였다. 그는 전국을 두루 돌아다녀 안 가본 곳이 없었으며, 명산대천과 경치 좋고 조용한 곳은 모조리 찾아갔고 어떤 곳은 두세 번 가기도 하였다.

그가 어느 날 춘천 기린창에 갔는데, 그 날은 마침 장날이었다. 권진사가 주막에 앉아 있는데 약립을 쓰고 소를 탄 어떤 사람이 주막에 오더니 그 곳의 주모에게 물었다.

“저 방 손님은 어떤 양반이요?”

주모가 말하였다.

“저 분은 서울에 사시는 권 진사님입지요. 전국 팔도를 두루 돌아다니며 유람하지 않은 곳이 없는데, 저희 집에도 3번이나 오셨기에 편히 지내고 계십니다.”

“저 양반이 잘 아는 게 있소?”

“풍수지리학에 꽤 통달하셨지요.”

“그럼 내가 혹시 저 분을 좀 모셔갈 수는 없겠소?”

“아마 괜찮을 겁니다.”

잠시 뒤 주모가 방에 들어가 권 진사에게 고했다.

“어느 마을에 사는 첩지가 진사님의 재주를 듣고 지금 진사님을 모셔가겠다고 청하고 있습니다. 진사님께서서는 의심하지 마시고 잠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권 진사는 주막에만 며칠을 있어 심심했기에 바로 대답했다.

“이곳에서 멀지만 앎으면 한 번 놀고 오는 것을 내 어찌 마다하겠소?”

이에 첩지라는 자가 와서 권 진사를 뵈고 말하였다.

“제가 진사님의 명성을 들은 지 오래입니다. 제가 지금 소를 타고 왔으니 잠시 누추한 제 집으로 가시는 게 어떠실지요?”

권 진사가 물었다.

“첩지의 집이 이곳에서 몇 리나 되오?”

“이곳에서 30리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소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첩지는 고삐를 잡고 뒤에 있었다. 때는 바야흐로 정오 무렵이었다. 타고 있던 소는 빠르

지도 느리지도 않게 걸었다. 대략 3, 4리쯤 갔을 때 권 진사는 침지에게 물었다.

“영감께서 사시는 마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려.”

“제가 사는 곳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몇 리쯤 온 것이요?”

“80리 정도 왔습니다.”

권 진사는 몹시 이상히 여기며 말했다.

“지금 이곳까지 거의 100리를 왔는데도 마을이 아직도 멀리 있더니요? 그럼 어째서 처음에 30리라고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영감은 나를 속여 데려가서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막 주인은 내가 30리쯤 되는 마을에 산다고만 알지, 내가 진짜 사는 곳은 알지 못합니다.”

권 진사는 마음속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와버린 터라 그냥 가기로 했다. 마을로부터 30리 정도 나오자 그 후에는 계속 깊은 산과 골짜기였다. 낙엽은 사람 정강이까지 차올라 있는데, 그 사이에 단지 작은 길 하나만 나 있었다.

오후 세네 시쯤 되자 침지가 소를 멈추며 말했다.

“잠시 내려서 요기나 하고 가시지요.”

권 진사는 소에서 내려 물가에 가서 앉았다. 미리 가져온 도시락을 먹고 물을 떠서 마신 뒤 다시 소를 타고 갔다. 해는 이미 서산에 지고 시간은 황혼으로 향하고 있었다. 잠시 뒤 멀고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이 부르는 소리가 나자 침지가

“왔네!”

라고 크게 소리쳐 대답했다.

권 진사가 소의 등 위에서 보니 수십 명이 횃불을 들고 고개를 넘어오는데, 모두 젊은이들이었다. 이들이 횃불을 가지고 권 진사와 침지가 가는 길을 인도했다. 고개를 넘어 내려가자 어렵פות한 가운데 한 큰 마을이 있고, 닭과 개 짖는 소리, 다듬이 방망이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곧 어떤 집에 도착해 소에서 내려 문 안으로 들어가니, 방과 창이 정교하고 깨끗하였으며 용마루와 처마가 앞이 탁 트여 널찍하였으므로 산골 촌사람들이 사는 곳 같지 않았다.

그 다음날 마을을 두루 살펴보니, 인가는 200여 호 되는 것 같았고 앞에 펼쳐진 평야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모두가 기름진 땅이었다. 그 둘레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자 20여리라고 하였으니, 이곳 은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 밖 무릉도원이었다. 또 벽을 사이에 둔 대 여섯 간의 방에서는 밤마다 책 읽는 소리가 들려 물어보니, 마을의 젊은이들이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며 놀지 않고 주경야독하며 모여서 공부한다는 것이었다. 권 진사가 팔도를 두루 유람하면서 소원이 무릉도원을 한 번 보는 것이었기에 너무 기쁜 나머지 침지에게 무릎을 꿇고 물었다.

“주인께서는 신선이십니까, 귀신이십니까? 이 마을은 무슨 마을 입니까?”

침지가 놀라서 말했다.

“진사님! 어쩌서 갑자기 존댓말을 하십니까! 나는 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대에는 경기도 고양에 살았는데, 우리 증조부께서 마침 이 곳을 찾아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 때 친가 외가 친척을 통틀어 따

라오고 싶어 했던 30여 호가 따라왔지요. 일단 이곳에 온 후에는 세상과 연을 끊기로 하고 경서 몇 권과 소금, 양념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땅을 개간하고 논을 만들어 먹을 것을 해결하였고, 결혼은 이 안에서 해결해서 우리끼리 살고 있습니다. 자손이 번성하여 이제 마을에 집만 200채 가까이 됩니다.”

“먹고 입는 것이여 이 안에서 농사짓고 베 짜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도, 소금 같은 것은 어찌 하십니까?”

“진사님께서 어제 타셨던 소는 하루에 200여 리를 갑니다. 저희 증조부께서 이곳에 오실 때 데려온 소가 새끼를 낳은 것인데, 이처럼 잘 걷는 소가 매년 한 마리씩 태어납니다. 이웃 마을에 다닐 때는 이 소를 타고 가서 소금을 사옵니다. 산에 노루, 사슴, 멧돼지, 산양이 있으니 그 고기를 먹고, 산 주변에 벌꿀 통 300여개를 치고 있는데 주인이 없이 서로 양보하며 쓰고 있습니다.”

하루는 침지가 소년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권 진사님을 모시고 물고기나 좀 잡아 오거라.”

그 소년들 중 어떤 소년은 겨와 쪽정이를, 어떤 소년은 뽕죽하게 깎은 막대기를 가지고 일제히 한 연못에 모였다. 물속에 겨를 풀어 넣고 그것이 아래로 가라앉자, 소년들은 일시에 몽둥이를 가지고 수영하며 내리쳤다. 조금 지나니 한 자나 되는 물고기들이 물 위로 떠올랐다. 무슨 고기냐고 묻자

“목떡어”

라고 하였는데, 붕어와 비슷하였으나 흰 비늘이 있었다.

권 진사는 한 달 가량 그 마을에 머물며 모든 것을 구경하였다. 그 마을을 떠날 때 침지는 거듭 부탁했다.

“이 마을은 춘천도, 또 낭천도 아닙니다. 이 너른 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몇 리나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다 사람들이 이곳에 온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진사님이 이곳에 오셨던 것도 다 인연이니, 이 산을 나가신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마십시오.”

권 진사가 말했다.

“나도 집에 돌아가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침지가 말했다.

“쉽지 않을 것이요. 쉽지 않을 것이요.”

권 진사는 산을 나온 이후 늙도록 집에서 머물며 매일 탄식하였다.

“내 평생에 한 번 진짜 무릉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만 속세 일을 완전히 벗어나버리지 못한 까닭에 집안사람들을 데리고 그 곳에 가지 못하였구나!”(『청구야담』)

◆ **설화의 의미** : 우리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이상향일 것이다. 과연 우리의 이상향은 어디 일까요? 빠른 시일 내에 독자 여러분도 이상향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도화원기>와 같은 발상으로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는 곳곳에 아주 많이 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실이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도원 사상이 깊게 뿌리내려서 사람들에게 그곳에 가고 싶은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현실이 살기 좋다면 굳이 이상향을 생각하지 않을 것은 뻔하다.

그런데 이런 <도화원기>류의 이상향을 설정한 설화는 모두 한 번 갔다 온 후에는 다시 가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곳에 다녀 온 후 다시 가는 길을 잃게 되며, 그 때문에 영영 무릉도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회고담으로만 옛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회고담으로만 남는 것은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도저히 그런 무릉도원을 만들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실의 정치나 행정을 비롯해서 삶의 제반 여건으로 볼 때 무릉도원은 하나의 꿈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꿈의 세계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언젠가는 꼭 그런 곳에서 살기를 바라는 희망은 저버리지 말고 살기를 바란다. 어쩌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무릉도원일 수 있다.

물고기를 놓아주고 용왕의 딸과 결혼한 사람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서2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우리의 용궁인식을 잘 보여주는 설화인데, <우렁각시>설화와 연계해서 설화 화자가 새롭게 이야기를 각색하였다.

◆ **설화의 내용** : 옛날에는 용궁과 인간세계 간에 서로 교유를 하였다. 용궁에도 인간세계와 같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했다. 벌을 받으면 바다로 나와서 고기가 되든가 인간세계로 나와서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죄 값을 치러야 했다.

그런데 용왕의 딸이 용왕에게 벌을 받아서 고기가 되어 바닷가에 나와 놀고 있다가 어떤 총각에게 잡히게 되었다. 그 총각이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살펴보니 고기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고기를 도로 바닷물에 놓아주었다. 용왕의 딸이 바다에 들어가 용왕께 가니

“네가 인간세계에 잡혀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도로 살아 돌아왔

느냐?”

라고 물었다. 용왕의 딸은

“어떤 도령님이 날 불쌍하다고 살려 주었어요.”

라 하자, 용왕은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의 신세를 갚아야 한다. 그러니 도로 나가 그 사람을 데려오너라.”

라 했다.

총각은 다음 날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다시 나가게 되었다. 바닷가에 도착해 보니, 어떤 거북이가 바닷가에 나와서 자꾸 꼬리를 흔들면서 따라오라는 몸짓을 했다. 그래서 그 총각은 거북의 등에 매달렸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있으니, 거북은 총각을 용궁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곳에 가니 음식이 아주 잘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용왕이 앉아 있었다.

용왕은 총각에게

“너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다. 그러자 총각은

“예, 저는 나이가 됐는데도 장가도 들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가를 드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라고 했다. 용왕은

“장가보다도 네가 원하는 물건을 하나 주겠다.”

라 했다.

그 옆에 용왕의 딸이 강아지로 변해 있다가

“다른 것은 말고 강아지를 달라고 하세요.”

라며 귀에 대고 일러주었다. 용왕이 다시

“뭐가 가지고 싶으냐?”

라고 하자, 총각은

“난 다 싫고, 저 강아지만 하나 주세요.”

라 했다. 용왕은 바닷가에서 살아온 딸이 강아지로 변해 있는 것을 알고 어이가 없었으나 이미 약속을 한 터라 어쩔 수 없었다. 그래 용왕은

“소원대로 해주마.”

하고 강아지를 주었다. 총각은 강아지를 데리고 인간세상으로 나왔다.

강아지가 인간 세상에 나온다고 해서 바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인간 세상에 나와서도 몇 달 동안 도가 차야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총각은 강아지만 집에 두고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하였다. 그렇게 밭에서 온종일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누군가 진수성찬을 상에다 가득 차려 놓았다. 총각은

“이상하다. 이상하다.”

고 하면서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주위에는 강아지만 꼬리를 흔들면서 서성댈 뿐이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나니 총각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며칠만 더 참았으면 좋았는데, 총각은 참지 못하고는 누가 밥을 그렇게 차려놓는지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날도 밭에 일을 간다고 하고는 숨어서 부엌 주변을 지켜보았다. 숨어서 지켜보니 글썽 강아지가 예쁜 색시로 변하더니 밥을



하는 것이었다. 총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만 들어가서 색시를 끌어안았다. 며칠만 더 참았으면 색시가 완전히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며칠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했다. 벌은 색시를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었다.

마침 서울에 있는 고관대작들이 색시가 사는 동네에 사냥을 왔다. 사냥을 와서 보니 아주 예쁜 색시가 있으므로 그 색시를 뺏아가려고 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관리들은 제 욕심만 채기려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는 법이다. 그래 고관대작들은 사냥이 끝나면 색시를 데려가겠다고 통고를 해 놓은 상태였다. 색시와 같이 살게 된 색시의 남편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용궁에서 온 색시에게 바른 대로 말을 하기로 했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오래오래 살려고 했는데, 지금 사냥을 온 고관대작들이 당신을 뺏어 가려고 하오.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없소.”

라 하자, 색시는

“그 사람들이 아무 날 날 데리러 올 것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지금 바닷가에 가서 ‘처남’하고 부르세요. 그러면 제 동생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처남에게 사삼목침을 달라하세요.”

라 했다. 이에 색시의 남편은 색시가 시키는 대로 바닷가에 가서 “처남, 처남.”

하고 불렀다. 그랬더니 정말 물속에서 처남이 나왔다. 그래서 색시가 시킨 대로 처남에게 말을 했다.

“처남, 서울에서 온 고관대작들이 내 색시를 뺏으려하니 빨리 사삼목침을 주시오.”

라고 하였다. 처남은 다시 바다 속으로 들어가더니 사삼목침을 가지고 돌아왔다.

처남이 가져온 사삼목침을 문지방에 설치해 두었다. 그랬더니 그 목침이 색시를 뺏으려는 고관대작들을 모두 물리쳤다. 돌이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하면서 모든 공격을 다 막아냈다. 결국 서울의 고관대작은 색시를 뺏어가지 못하고, 모두 물러났다. 그래서 용궁에서 온 색시를 아내로 맞아 그 사람은 아들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아주 재미있는 한 편의 설화이다. 인간 세상과 용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야기는 우리의 전통적인 용궁설화에 우렁각시 설화를 접목하여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 때문에 더 흥미롭게 이야기는 진행된다. 게다가 사삼목침이라는 신비의 물건을 끌어와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다만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금기를 지키지 못한 아쉬움이다. 며칠만 참았으면 고관대작의 횡포가 없이 순탄하게 살 수 있었는데, 금기를 어겨서 고관대작의 횡포를 겪어야 했던 것이다. 이는 일이란 반드시 때가 되어야 순조롭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는 것이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륵 이야기

◆ **미륵의 위치와 합강정** : 이 미륵은 현재 인제군 합강2리 합강정 옆 강변 쪽에 세워져 있다. 누가 떼어갔는지 코는 하나도 없으나 미륵의 형상은 뚜렷하다. 인제의 합강정은 강원도의 정중앙이라고 하여 옛날부터 강원도의 각 시군 수령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제를 올리던 곳이며, 강원도에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대대적으로 올려 비를 뿌리게 했던 아주 유서 깊은 곳이다. 합강이란 내린천과 인북천이 합하는 곳이라 하여 명명 되어진 곳이다. 지금은 이곳에서 인제군민의 축제인 합강제를 할 때 인제군수를 주축으로 제사를 올리고 축제를 시작한다. 이런 곳에 미륵이 세워져 있으니, 그 영험성이 또한 대단했다고 볼 수 있다.

◆ **설화의 내용** : 인제읍 합강 2리 합강정에 가면 돌미륵이 있다. 이 미륵에는 아주 많은 이야기가 전하고 있어 흥미롭다.

첫 번째는 미륵이 세워진 유래를 간직한 것이다. 1900년도 초 한

일합방이 되기 전의 일이다. 이곳에 박명천(朴名天)이라는 목상이 있었다. 일설에는 신(申)씨라고도 한다. 어쨌든 박 목상은 항시 목재를 합강리 앞을 흐르는 강으로 운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었다 꿈속에 도포를 입은 백발노인이 나타나

“내가 이 강물 속에 묻혀 있어 갑갑하기 짝이 없으니 나를 건져내 달라.”

고 하였다. 마치 깨어있을 때와 같이 아주 뚜렷하게 꿈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박 목상은 기이히 여겨 잠수 잘 하는 김성천(金聖天)으로 하여금 꿈에 본 장소의 물속에 들어가 보게 하였다. 김성천이 그곳 물속에 들어가 보니 6척이 넘는 석주(石柱, 돌기둥) 같은 것이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김성천은 물밖에 나와서 박 목상에게 물속에서 본 대로 이야기 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박 목상은 그 돌기둥을 건져내게 하여 석공을 불러 미륵불을 조각하게 하였다. 미륵불이 완성되자 박 목상은 작은 누각을 세우고, 그 안에 미륵을 안치 하였다. 그 후 박 목상은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당시 인제군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한다. 미륵불이 자신을 물속에서 건져내어 빛을 보게 해 준 보답을 한 것이다.

그 후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곳 인제군에 어떤 부부가 살았다. 그런데 나이 늦도록 자식이 없어서 매일 한탄을 하면서 살았다. 그러던 중 합강정에 있는 미륵불이 영험하다는 소리를 듣고, 노부부는 이곳에 와서 자식을 기원하였다. 미륵불 앞에서 자식을 기원하면서

“자식 없는 것이 한이오니, 그저 병신자식이라도 좋으니 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식을 잉태하여 출산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기원한 것처럼 정말 한쪽 다리가 불구인 병신자식을 얻었다. 병신이기는 하지만 얼굴 모습이 미륵과 닮았으며, 두뇌가 무척 명철하기로 누구한테 비할 바 없었다. 그러더니 자라서 의술에 능통한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가 되었다. 그래서 근방 일대는 물론이려니와 경향각지에 그 명성이 펼쳐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한다. (『태백의 설화』)



또 이런 일화가 있다. 세월이 흘러 일제 강점기 때의 일이다. 흥천에서 간성까지 신작로를 닦게 되었다. 그때 일인이 미륵을 무시하고 미륵 옆에서 암석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였다. 그런데 폭파된 돌이 난데없이 튀어서 미륵의 목을 깨뜨리게 되었다. 그러자 도로공사를 하는데 매일 같이 사람이 다치게 되어

사실상 공사는 중지되고 말았다. 그래서 일인은 하는 수 없이 미륵의 목을 주워 붙이고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공사가 순조롭게 되어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한 노승이 이곳에서 작은 암자를 지어 놓고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6.25한국전쟁 때 암자는 폭격으로 무너졌으나 노승은 무

사했다고 한다. 그때 머리 한쪽이 깨어진 미륵만이 이곳에 남아 있었다. 그때까지 암자를 지키고 있던 백발노승은 이곳을 떠나 백담사에서 남은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또 1995년 4차선 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 미륵을 부득이 하게 군청 마당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옮기기 바로 전날 어떤 무당이 찾아왔다. 그러면서 꿈에 현몽을 했다면서 굿판을 벌리고 말하기를,

“공사 기간 동안 미륵의 자리를 옮겨 놓더라도 미륵을 모시는 자리 밑에 한자로 임금 왕(王)자를 새겨 넣고 모시고, 공사가 끝나면 반드시 현 위치로 옮겨 모셔야 합니다.”

라고 일러주면서 만일 이를 어길 경우 큰 재앙을 입을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당시 군청에 근무하던 문화재 전문위원인 윤평선(尹平善) 씨가 말했다고 한다.(『인제군사』, 『인제군 유적·지명·전설』)

◆ **설화의 의미:** 아주 전형적인 미륵신앙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이함이 깃들어 있고 영험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된다. 또한 모든 종교적인 것을 초월해서 누구나 믿음을 가진 우리 전통 신앙의 일종이라고 한다. 그래서 박 목상은 미륵을 건져 조각해 세움으로써 거부가 되고, 아이가 없는 부부는 아주 훌륭한 자식을 얻게 되고, 미륵을 무시한 일인은 벌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야기 되는 것이다. 이처럼 아주 오랜 세월 우리민족의 삶과 같이한 미륵신앙의 전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조심성 있게 살아서 해될 것은 없는 것이다.

바로 대고, 거꾸로 댄, 업선달의 재치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진동리 갈터 또는 추대리라고 하는 곳이다. 우리가 보통 아침가리라고 부르는 곳이다. 이곳은 여름이면 피서 인파로 계곡을 가득 메우는 곳이다. 이곳에는 물고기가 많은데 오늘날 이야기는 이 물고기에 얽힌 것이다.

◆ **설화의 내용** : 진동리 추대리는 가을 추(秋)자에 터 대(臺)자를 써서 추대라 하는데, 가을 터라고 해서 줄여 갈터라 하기도 한다. 갈터에서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경치가 좋기로 유명한 아침가리라는 곳으로 간다. 아침가리에서 넘어가면 홍천군 내면 명지거리가 된다.

그런데 이곳은 골물이 많지는 않지만 물고기가 많기로 아주 유명하다. 물고기 종류도 많지만 물이 맑고 깨끗해서 그 맛도 아주 일품이다.

옛날 어느 땐지는 잘 모르지만, 이곳의 물고기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진상을 했던 적이 있다. 진상은 임금님께 올리는 것을 말하는 데,



하여튼 이곳의 물고기를 진상하라고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살짝 말려 진상을 했다. 그런데 진상을 하라는 양이 너무 많았다. 지금으로 치면 하루에 몇 톤 분량의 물고기를 진상하라는 것이었다. 진상을 하지 않으면 인제현에서 관리를 보내서 독축을 일삼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곳 갈터 사람들은 모두 진상할 물고기를 잡아 말리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 그렇게 매일 물고기를 잡다가 보니 이곳 사람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물고기 잡느라고 농사를 지을 시간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갈터 사람들이 매일 잡아 진상하는 물고기는 사실 임금님께 올라가지 않았고, 중간에서 모두 갈취해 먹고 말았다. 말하자면 인제현감과 춘천부사와 강원감사가 중간에서 모두 먹어치우고 말았던 것이다. 진상이란 명목으로 임금의 물건을 갈취한 것인데, 그 때문에 점점 더 진상하라는 물고기의 양은 늘어가고, 농민들의 생활은 그에 비례해서 점점 더 궁핍해졌다.

그때 이곳 갈터에 엄 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엄 씨는 말주변이 탁월해서 갈터에서는 소문이 자자했다. 엄 씨가 생각해 보니,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갈터 사람들이 모두 물고기 잡는데 지치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엄 씨는 임금님께 가서 이 사실을 고하고 개선해 줄 것을 아뢰기로 하였다.

엄 씨가 대궐에 가서 임금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 궁궐지기들이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엄 씨는 매일 대궐에 가서 임금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시위를 하였다. 계속 그러니 어느 덧 시골 선비가 매일 대궐 앞에서 시위를 한다는 소문이 임금님한테까지 들렸다. 임금님이 그 소리를 듣고 엄 씨를 들여보내라 했다. 임금님은 엄 씨를 보고

“그래 무슨 소원이 있어서 그러는가?”

라고 물었다. 그러자 엄 씨는 고향에서 벌어지는 일을 조목조목 아뢰었다.

“매일 임금님께 진상한다고 물고기를 몇 톤씩 잡아 올리라 하니,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어 갈터 백성들이 모두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진상하는 물고기 양을 줄여주시든가. 아예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께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였다. 얼마 후 신하가 와서 아뢰었다.

“엄 씨의 말이 사실입니다.”

임금님은 갈터에서 잡아 올린 물고기를 맛도 본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며, 도대체 그곳에 어떤 물고기가 그렇게 많은지 그 이름이나 대보라고 했다.

엄 씨가 생각하기를 물고기 이름을 몇 개만 대면 안 될 것 같아서 같은고기 이름을 조금씩 바꿔서 막 읊기 시작했다.

“꼭지, 덕지, 미유기, 미애기, 비애기, 옛미기, 덧미기, 탕가리, 통가리, 텅가리, 쉬리, 세리.....”

하면서 비슷한 이름을 대고 또 거꾸로 대고 하면서 한참을 그렇게 읊었다.

그랬더니 임금님께서

“그렇게 많은 고기를 농민들이 잡아 올리려면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네가 여기까지 와서 그런 사실을 알렸으니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다. 너에게 선달의 벼슬을 줄 터이니, 고향에 돌아가서 폐단을 없애고 농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하였다.

이런 사실이 갈터에 가면 비석에 새겨져 있다. (『강원의 실화』)

◆ 설화의 의미 : 아침가리의 강에 고기가 많다는 것을 말하면서 탐관오리들의 행패를 고발하는 설화이다. 그리고 억울함이 있을 때는 그냥 참지 말고 그 억울함을 알려야 한다는 교훈도 주고 있다. 엄선달이 갈터의 실상을 임금님께 알리지 않았다면 탐관오리의 행패는 더욱 심했을 것이고, 억울하게 임금님만 욕을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갈터의 주민들은 더욱 힘든 생활을 했을 것이 뻔하다. 이처럼 억울함과 비리와 불합리가 있을 때는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실천에 옮겨서 해결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설화이다.

박 대감 서낭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설화의 주인공 박대감은 인제군 현리에 전승하는 박원굉 대감이 아닌 다른 대감 서낭이다. 설화 화자는 하마로에 있는 박원굉 대감이 분명 아니라고 했다. 박원굉 서낭의 또 다른 것이거나, 아니면 진짜 또 다른 인물의 박 대감 서낭일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서낭신의 영험담으로 이뤄져 있다.

◆ **설화의 내용** : 예전에 이곳 현리 개울가에 박 대감 서낭이라고 있었다. 하마로 박 대감 말고 다른 박 대감이다. 그 박 대감 서낭이 아주 용했다. 그 서낭의 용함은 항상 보는 일이다.

예전에 현리 개울가 이곳 부대 앞 들판에 소나무도 있고 집이 20채 정도 있었다. 그곳에서 모시는 서낭인 박 대감 서낭이 있었다. 서낭 주변에는 몇 천년된 소나무가 죽어 있었고, 그 뒤엔 아릅드리가 넘은 엄나무가 있었다. 엄나무라고 가시가 많은 나무인데 그렇게 큰 나무

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물난리가 나서 그곳에 있던 20여 채의 집들이 모두 물에 떠내려갔다.

바로 물난리를 만났을 때의 일이다. 그곳에 살던 20여 채의 집들은 갑자기 쏟아지는 빗줄기에 물이 왈각 불어서 막 집을 들어 떠가고 있었다. 그때가 날이 어둡기 전이니 아마도 밤 8시쯤 정도 되었을 것이다. 물이 위에서 왈각 밀려오면서 막 나가면서 바다 같은 물이 내려가는데 집을 둥둥둥 떠서 펄쩍 자빠뜨리고 자빠뜨리곤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갑자기 어디로 피할 곳이 없었다. 물이 차서 버텨서 나갈 수도 없었다. 눈에 띄는 곳이 서낭이 있는 곳의 나무였다. 그렇다고 죽은 소나무로 올라갈 수는 없고 아름드리 엄나무로 모두들 기어 올라갔다. 그 술한 사람들이 임시로 어떻게 살까하고 엄나무로 올라간 것이다. 엄나무에는 뽕뽕하게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다. 엄나무 밑으로는 살던 집이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매달려 있었다.

그런데 또 이번이 생겼다. 몇 천 년 묵은 죽은 소나무가 옆으로 누우면서 엄나무 옆 가지에 가로 놓인 것이다.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밟고 그곳에서 버틸 수 있었다. 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는 데도 엄나무는 가로놓인 소나무를 안은 채 밤새 버틴 것이다. 옆에 있는 서낭당까지도 다 떠내려갔는데 나무는 끄떡없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 버티고 있는데 어두운 밤이 되었다. 그러자 난데없는 황덕불이 양쪽에서 활활 타올랐다. 엄나무 양쪽의 공중에 황덕불이 밤새 타올라서 사람들의 체온을 유지해 주고 무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노릇

이었다. 비가 오는 데도 꺼지지 않았다.

나무 위에서 황덕불이 따뜻하게 타올라 체온을 유지해 주어서 사람들은 밤을 무사히 보내고, 살아 날 수 있었다.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도 않고 살아났다. 아침이 되자 아직 물이 빠지지 않아서 옆 동네 사람들이 긴 바에다 밥을 담은 광주리를 끌어서 밥을 보내 주어서 요기를 했다. 그렇게 있다가 한 낮이 되자 비가 그치고 물이 차차 빠지기 시작했다. 나무 밑 등을 보니까 물살에 나무껍질이 다 벗겨져 있었다. 이불 옷가지 같은 것도 나무 밑에 많이 걸려 있었다. 뒤에 있던 나무들은 모두 뿌리 채 뽑혀 나갔는데도 사람들이 올라가 있던 엄나무는 멀쩡했다. 그런데도 엄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밤새 버텨준 것이다.

이런 이변은 모두 마을을 지켜주는 서낭 대감 때문이었다. 서낭신 박 대감이 밤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을 사람들을 지켜준 것이었다. 박 대감 서낭신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은 나중에 그곳에다가 다시 서낭당을 지었다. 나무를 베다가 기둥을 만들고 기와를 올려서 아주 잘 지었다. 그렇게 몇 십 년이 흘러갔는데, 또 물난리가 나서 서낭당이 물에 쓸려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서낭당이 있던 곳보다 조금 올려서 큰 바위 위에 서낭을 지었다. 그 물난리 후 소나무도 엄나무도 모두 죽었다. (『인제군 학술답사 보고서』)

◆ **설화의 의미** : 참으로 소름끼치는 이야기이다. 동네 사람 수십 명이 홍수를 피해서 나무에 매달려 살아난 일화이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다. 동네사람들이 함께 겪은 서낭신의 영험성이었다. 아무

도 부정할 수 없는 직접 겪은 신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일을 일러 천우신조라고 한다. 곧 ‘하늘이 돕고 신이 도왔다’라는 말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 말이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상신이니 서낭신처럼 알지 못하는 어떤 도움을 항상 받으면서 살고 있다. 결코 나 혼자 잘 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인제군에 전하는 <박 대감 서낭>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큼을 볼 수 있다. 서로 돕고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확실한 사실적인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방동약수와 금부(金富) 터의 심마니

◆ **설화의 위치** : 오늘은 같은 지역에 전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린다. 하나는 방동약수에 얹힌 것인데 방동약수는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에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부 터라는 지명에 얹힌 것인데 금부 터는 기린면 서이리 오동골에 있다. 둘 다 심마니에 얹힌 것으로 산삼을 캐는 이야기이다.

◆ **설화의 내용** : <방동약수> 지금부터 약 350년 전인 1670년께 산삼을 캐는 심마니 노인이 인제에 살고 있었다. 심마니 노인은 산삼을 캐기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일 년 내내 이 산에 이르러 정성을 다해 산신께 치성을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심마니 노인의 꿈에 하얀 도포를 입은 노인이 나타나 말을 했다.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다. 사시사철 정직하게 나에게 지성으로 치성을 드리니, 내 어찌 너의 정성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의 고운 마음씨를 가상히 여겨 네게 산삼을 주리라. 그리고 그 산

삼이 있는 곳, 깊은 땅 밑에 만병을 고치는 약수가 있으니 세상 사람에게 널리 알려 병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게 하여라.”

라 말하였다. 이에 노인이 놀라 깨니 꿈이었다.

다음 날 심마니 노인은 여느 때와 똑같이 산삼을 캐러 산에 갔는데, 하늘에는 무지개의 영롱한 빛이 숲을 감싸고 있었으며, 산새들이 여기저기서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산삼을 찾아 이곳저곳 살펴보는 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린아이 한 명이 나타나서 손짓으로 심마니 노인을 따라오라고 하였다. 그 어린 동자가 오라는 곳으로 얼마를 따라가다 보니 그 동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동자가 있던 자리에 제일 큰 산삼인 육구만달이 있었다.



심마니 노인은 산신령님께 고맙다는 절을 올리고 산삼을 조심조심 캐서 흘치기 자루에 담아놓고, 다시 땅 밑을 파보니 땅 밑에 약수

가 솟아나오기 시작했다. 그 후 그 심마니 노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만병통치의 효과가 있는 이 약수를 알리면서 여생을 마쳤다고 한다.(『태백의 설화』)

<오동곡의 금부터>

이 설화는 서2리 오동곡(梧桐谷)에 있었던 심마니에 얽힌 이야기이다.

이 오동골에는 이기일(李起日, 1905~1960)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라한 오막살이에서 쓸쓸하게 살고 있었다. 이웃집도 없어 마을을 다니는 일도 없고 일 년 내내 가야 찾아오는 사람은 먼 곳에서 봉양과 산삼(山參)을 캐는 이들뿐이었다. 심마니들이 와서 사랑방에서 묵고 가는 숙소로 번번이 제공해 왔다.

10월 어느 날 밤! 이 집에 와 홀로 묵고 있던 어느 심마니는 꿈에 백발도사가 나타나

“산삼을 먼 곳에 가 캐지 말고 바로 묵고 있는 집 우물가에 있으니 지성껏 캐라.”

라고 암시해 주고 사라졌다. 이튿날 길몽에 깨어난 심마니는 양심 있는 인간이라 집주인을 찾아 말했다.

“내가 만약 집터를 중심으로 삼삼을 캐다면 어떻게 하겠소.”

집주인은 말했다.

“어서 걱정 말고 캐시오.”

집주인이 쾌히 승낙을 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한 심마니는 우물가로 찾아가 조심히 돌아보았다. 과연 지금까지 보지 못한 늙름한 산삼

한 뿌리가 보였다. 심마니는 산삼을 캐서 서울에 가서 당시에 300만 원 호가로 팔려 툭툭히 한몫을 보았다.



그야말로 호기에 넘친 심마니는 정직한 분이라 다시 집주인을 찾아와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다. 기린장으로 데리고 가서 마음에 드는 소 한 마리를 택하라 하였다. 작은 송아지를 골랐더니 심마니는 그 보다 더 큰 황소를 골라 사주었다. 이를 목격한 인제 합강2리 조남현(趙南鉉, 1934~?)은 소상히 알려주었다.

그 후부터 산삼 캔 오동곡의 집터를 금부(金富)터라고 부르게 되었다. (『인제군사』, 『강원의 효열과 전설』)

◆ **설화의 의미:** 두 이야기는 명약이면서 한 번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최고의 산삼을 캔 사연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산삼을 캔 것도 중요하지만, 후일담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이야기는 산신령의 말씀대로 방동약수를 발견하여 아픈 사

람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생을 바쳤으며, 두 번째 이야기는 산삼을 캔 곳에 있던 집주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 것이다. 둘 다 산삼이라는 엄청난 횡재를 했는데, 그것을 혼자 갖거나 부유한 삶을 구가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웃과 함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천성이 착하기 때문에 산신령이 현몽을 해서 산삼을 캐게 했음을 강조하는 설화라고 할 수 있다. 각박한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라 볼 수 있는데, 힘들수록 이웃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갈 일이다.

백담사의 유래

◆ **백담사의 위치와 얽힌 사연** : 백담사는 인제군 북면 용대2리 설악산에 있는 절이다. 설악산 신흥사의 말사이다. 이 절의 기원은 647년(진덕여왕 1)에 자장(慈藏)이 창건한 한계사(寒溪寺)이다. 몇 번에 걸쳐 화재로 소실되어 다시 지었다. 근대에 한용운이 머물면서 〈님의 침묵〉, 〈불교유신론 佛教維新論〉을 집필하는 등 만해사상의 산실이 되었다. 6·25전쟁 때 불탄 것을 1957년 중건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8년 11월 23일 전두환 전(前)대통령 내외가 죄를 짓고 대(對)국민사과성명 발표 후 이 절에 은거했다가 1990년 12월 30일에 연희동 사저로 돌아가면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설화의 내용** : 인제군 용대리에 있는 백담사는 원래 지금의 화천 땅에 있던 비금사라는 이름의 절이었다. 당시 비금사 주변에는 산짐승들이 많아 포수들이 산짐승을 잡으러 많이 몰려와 절 옆에서 산짐승들을 마구 잡아 갔다. 함부로 생명 있는 것을 죽이는 일은 불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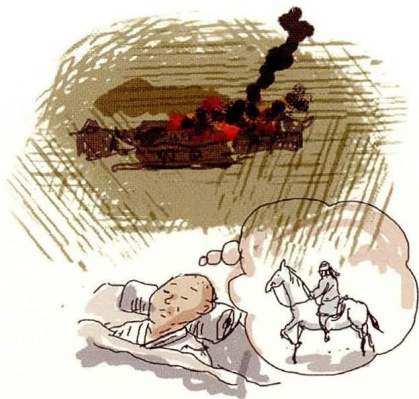
어긋나는 일이어서 스님들이 사냥꾼들에게 수십 번 사냥을 중지할 것을 설득했으나 사냥꾼들은 스님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 사냥을 하였다. 그래서 스님들은 부득이 화천에 있던 비금사를 인제군으로 옮기게 되었다.

인제군 북면 한계리로 절을 옮기고 절 이름도 한계사로 바꾸어 불렀다. 이 절을 옮길 때 낭천(지금의 화천)에서 한계까지 도술을 써서 통째로 옮겼는데, 옮기는 도중에 청동화로 하나와 절구를 떨어뜨렸다. 양구군의 절구골은 이때 절구가 떨어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한계리 부근의 청동골은 그때 청동화로가 떨어져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한계리에 옮긴 이 절은 자주 화재를 입었다. 화재가 나 다시 지어놓으면 얼마 안 있어 원인도 모르게 또 화재가 나고 하였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5차례나 계속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주지 스님의 꿈에 도포를 입고 백마를 탄 노인이 나타나 절터를 옮기고 이름을 바꿔보라고 하고는 사라졌다. 처음에는 그냥 꿈이 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화재가 날 때마다 똑 같은 꿈을 꾸었으므로 주지스님은 여러 스님과 상의하여 또 절을 옮기기로 하였다.

절터를 이리저리 찾던 중 그 부근 용대리 암자동이 좋을 것 같아 절을 옮기고 절 이름을 영취사라고 하였다. 절터를 옮기고 절 이름도 바꾸었는데 이곳에서도 원인 모를 화재를 당하였다. 주지스님은 화재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고 백방으로 생각했으나 화재가 나는 이유를 알아낼 수가 없었다. 절터를 옮겼으니, 그러면 이름이 문제인가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골똥히 생각에 잠겨 밤잠도 잘 이루지 못했다. 좋을 듯한 이름을 이것저것 지어서 스님들에게 물어봐도 별로 신통한 것이 없었다.



또한 화재 난 절을 다시 짓느라 애를 무척 쓰고 있었다. 절을 다 지어 가는데 절의 이름을 아직 정하지 못해 뜬 눈으로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다. 주지스님은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뒤척이며 온갖 생각을 하다

새벽녘에 깜빡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에 그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주지스님을 꾸짖었다.

“이 미련한 주지야, 청봉에서 절까지 이르는 곳의 ‘깊은 못이나 늪의 물’인 담수의 수를 세어 보아라.”

하고는 도포자락을 펴리며 안개 속으로 휘적휘적 걸어가더니 이내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주지스님은 다음 날 스님들을 풀어 청봉에서 절까지에 이르는 곳의 물이 고여 못을 이룬 담수의 수를 세어 보았다. 그랬더니 그 담수의 수가 무려 일백 개에 이르렀다. 일백 개가 넘지도 빠지지도 않는 꼭 일백 개였다. 그래서 주지스님은 절의 이름을 일백 백(百)자 못 담(潭)자를 써서 백담사(百潭寺)라고 하였다. 절의 이름을 백담사라고 명명

한 이후 다시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날로 절을 찾는 시주들이 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강원의 효열과 전설』)

◆ **설화의 의미:** 이 설화는 일종의 사찰연기(寺刹緣起) 설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중심화소를 갖고 있는데, 살생을 피해 절을 옮긴 사연과 화재를 피해 절 이름을 새로 지은 것이다. 이로 보면 절의 위치도 중요하고, 절의 명칭도 상당히 중요함을 볼 수 있다. 풍수 지리와 작명의 영향을 받아 회자되는 설화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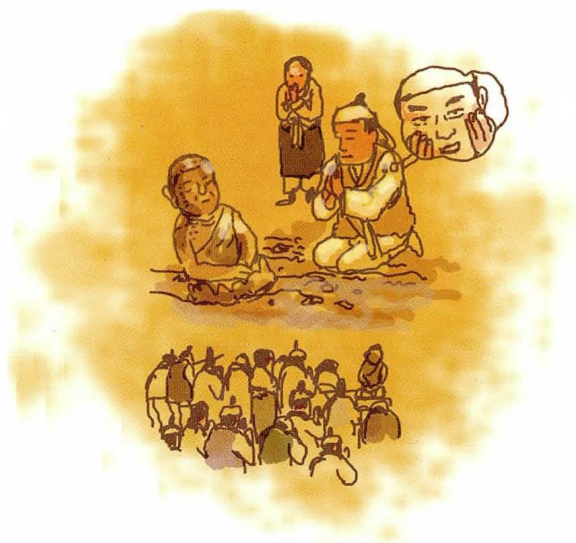
이는 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가끔 수재나 화재를 자주 입는 지역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백 년 전을 보고 지어야 한다고 한다. 백 년 동안 그 지역이 홍수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을 집터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름도 되도록 부르기 좋고 이름다운 이름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방향표시만 하는 지명이라든가, 뜻이 좋지 않은 지명은 바꾸는 것이 현명하다.

백운(白雲)과 제후(祭厚)

◆ **의리를 지켜서 복을 받은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인제에서 향유되는 것이나, 굳이 인제지방의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는 민담 형식의 것이다. 내용은 자신의 영화를 뿌리치고, 옛 의리를 지켜 불행하게 된 정혼자와 함께 살다가 행운을 얻어서 잘 살게 되었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다.

◆ **설화의 내용:** 삼국이 통일된 후 시국이 안정되어 한창 태평성세를 누릴 때의 일이다. 신라 진평왕 24년 인제에는 우애가 두터운 두 친구가 아래윗집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아내는 같은 때에 모두 아기를 배었다. 그들은 어느 쪽이건 아들과 딸을 낳으면 정혼을 하여 두 집의 정의를 계속 이어가자고 다짐을 했다. 그들의 뜻과 같이 한 집은 아들을 낳고, 또 한 집은 딸을 낳았다. 그래서 두 집안은 갓 난 어린애를 두고 나중에 크면 결혼을 시켜서 사돈을 맺자고 약속하고 두 어린애를 정혼 시켰다.

백운과 제후는 차츰 자라서 백운이 어느 덧 국선(國仙)이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당시 신라에서 화랑이 되어 나라에 부름을 받아 가게 되었으니 아주 경사스런 일이었다. 그런데 백운에게는 그때부터 비운이 닥쳤으니, 그의 부모님이 이름 모를 괴질에 걸려서 앓게 된 것이다. 백약을 구해서 부모의 병구완을 했으나 결국 그의 부모님은 가산을 다 탕진하고 1년 만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부모님을 잃은 백운은 밤낮으로 상막 앞에 앉아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을 잃고 눈앞이 캄캄하여 통곡하기를 49일이 지났다. 바로 49일이 되는 그날 백운은 그 자리에서 까무라쳐 정신을 잃고 말았다. 백운이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백운은 이웃의 권 씨 집에서 간호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설상가상으로 그의 눈이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실명을 하여 봉사가 된 것이다.



백운이 실명을 하게 되자, 제후의 아버지는 마음이 변했다. 딸을 재산도 없고 눈 먼 장님에게 맡길 수는 없었던 것이다. 제후의 아버지는 백운의 아버지가 살았을 때 맺었던 정혼을 깨고, 딸을 금산 태수로 있던 이교평에게 시집보내기로 한 것이다. 그때 제후의 나이 15세였다. 어느 정도 철이 든 제후는 옛날의 언약을 깨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태수에게 시집을 갈 수는 없었다.

제후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 께를 냈다. 그리고 백운의 집을 찾아가서 자기가 금산으로 가게 되었으니, 자신을 따라 오라고 하였다. 제후는 부모가 보내는 대로 금산태수에게로 갔다. 제후는 금산태수에게 좋은 날을 택하여 성혼하기로 하고, 그동안은 같이 지내지 말고 떨어져 살자고 하였다. 금산태수도 좋다고 하였다. 그 와중에 백운은 제후의 말대로 금산에 와서 제후를 찾았다. 제후와 백운은 금산태수를 떠나 아무도 모르는 산속 깊숙이 들어가 함께 살자고 하였다. 두 사람은 갖은 고생을 하며 금산을 떠나서 개령군 송방리란 곳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다.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백운은 제후와 함께 논밭을 일구며 열심히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백운과 제후가 밭을 가는데, 오래된 석불(佛부처) 하나가 땅속에서 나왔다. 백운은 석불 앞에 앉아 그 석불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했다. 제후의 생각도 한 가지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백운의 눈앞에는 희미하게 석불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백운은 자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아내를 위해서도 부처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는 석불을 보고 합장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신기하게도 밭

에만 나가면 깜깜하던 눈이 광채를 받아 조금씩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백운은 옛날과 같이 멀쩡하게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들 부부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리고 그들은 석불을 고이 집 근처에 모셨다.

그러자 그 후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에 의해 이 석불이 신통력이 있음이 널리 알려졌으며, 석불이 밤에는 서광을 비춘다는 소문까지 났다. 이 소문 때문에 백운과 제후 부부의 집에는 병이 낫기를 비는 사람, 자식을 원하는 부부 등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들은 모두 석불에게 빌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돌부처에게 올릴 공양으로 쌀을 가져오고 베를 가져오고 향촉과 음식을 올리면서 그야말로 야단법석이었다. 그리하여 백운과 제후부부는 주인노릇을 하며, 시주가 늘면 석불을 모실 큰 절을 지으려고 마음먹었다.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찾아왔다. 귀족이나 대가 집에서도 노소부녀가 모두 와서 기도를 올리고 심지어 현감과 조정대신까지 석불 앞에서 자식을 빌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정성을 들였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암행어사가 지나게 되었다. 암행어사는 이것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민가에 큰 피해가 될 것으로 알고 아줄을 보내어 집을 부수었다. 그러나 암행어사도 백운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용서해 주었다. 그래서 백운부부는 다시 집을 짓고 석불을 모셨다. 그랬더니 해가 거듭 할수록 집안은 더욱 번창하였고, 소원대로 모든 것이 이뤄지고, 자손들도 늘어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태백의 설화』, 『인제군지』)

◆ **설화의 의미:**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다. 백운과 제후의 경우가 그러하다. 세상의 모진 인심을 멀리하고 착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서로 사랑했기에 하늘이 도왔다. 어찌 밭에서 돌부처가 나오고 봉사가 눈을 뜰 수 있었겠는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지만 언약을 지키려는 제후의 착한 마음에 하늘이 감동한 것이다. 순리를 거스르지 말고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 것이 또 하나의 세상 진리 이리라. 남을 모해하고 자신만 잘 살려는 약삭빠른 언행만이 능사는 아니다.

뱀의 원한을 사서 과거급제 못할 뻔한 사람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서2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뱀이 자신을 죽이려한 사람에게 원한을 갚으려고 했는데, 조상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의 이야기이다. 전형적인 전설의 고향 형태로 흥미롭다.

◆ **설화의 내용** :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어려서 길을 가다가 뱀을 만났다. 그는 뱀을 갖고 있는 작대기로 때렸는데, 뱀은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허리가 잘라져서 대가리만 내뺄어서 도망을 갔다. 그 사람은 그 후 그런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서울에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다. 과거를 보기 전에 그 사람은 이번 과거에 합격을 할지 안 할지 궁금해서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점괘가 나오기를

“서울에 과거 보러갔다가 죽지 않으면 과거를 하고, 죽으면 과거

를 못 한다.”

라고 했다. 점괘가 이상하게 나와서 그 사람은

“참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서울에 과거를 보러 갔다.

지금은 차를 타고 서울에 가면 금방 가지만, 옛날에는 길도 좋지 않은 데다 걸어서 가야 하므로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 했다. 하루 몇 십 리씩 못 가서 주막에서 자고 이튿날 또 가고 가고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서울에 도착하여 과거를 보게 되었다.

과거를 보고는 집으로 오는 길인데, 그래 한 군데 오다보니 날은 저물고 잘 데는 없고 해서 난감하게 되었다. 그래 막 헤매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하얀 불이 보였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잘 됐다 싶어 그 집으로 갔다.

그 집에 도착해서는

“계십니까?”

하고 부르니, 아주머니 목소리가 났다.

“날이 저물어 그러니 자고 가도 됩니까?”

하니 아주머니가

“예, 그러세요.”

라면서 순순히 자고 가라고 하였다. 그래 오막살이 같은 집의 방에 들어가니, 아주머니가 뭐 먹을 것을 내 왔다. 그래 밥을 먹고 이래 있는데, 불빛을 따라 이렇게 건너보니 아주머니가 길쌈을 하고 있었다. 그래 삼을 삼는 것을 보니 혀가 두 가닥이 나와서 벌레벌레 하였다. 혀가 두 가닥이면 뱀인 것이 분명했다.



그래 그 사람이 점괘를 떠올렸다.

“죽지 않으면 과거시험에 붙는다.”

라는 점괘를 떠올리다 보니, 아주 어렸을 때 뱀을 때려잡은 일이 생각났다. 그때 뱀 대가리가 살아서 도망 간 것이 기억난 것이다. 그 사람은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그 집을 나가겠다고 하고는 집을 나왔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아, 이 밤중에 이런 집을 두고 어디를 갑니까?”

라며 못 가게 나와서 막 매달렸다.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 죽을 것을 아는데 그곳에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 집을 나서니 깜깜한데, 있던 집이 없어졌다. 그래서 ‘걸음아 나 살려라.’면서 도망을 쳤다. 그렇게 도망을 치는데 ‘쓰룩쓰룩 으르륵’하면서 뱀이 쫓아오는

소리가 났다.

그렇게 쫓기다가 고개를 올랐더니 가까운 곳에 웬 집이 있고 불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집으로 뛰어들면서

“사람 살려 주세요.”

하고 소리를 쳤다. 그 집에 들어가니 개가 막 짓고 하였다. 그래 그 사람이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곳은 집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을 모셔놓은 선산이었다. 선산의 조상 묘 옆에서 하룻밤을 잔 것이다. 일어나서 자세히 살펴보니 무덤 옆에 개 모양의 돌이 있고, 그 옆에는 커다란 뱀이 죽어 있었다. 개 모양의 돌에서 조상이 시켜 영혼이 나와 뱀을 물어 죽인 것이었다. 결국 그 사람의 조상이 뱀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후손인 그 사람을 지켜 준 것이다.

그런 일이 있는 후 그 사람은 이미 과거에 붙었고, 나중에 잘 살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뱀이 원수를 갚는 다는 말이 있다. (『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였다. 뱀이 원수를 갚는다는 설정은 정말 등골이 싸늘하게 만드는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뱀이 원수를 갚는다는 것도 흥미롭지만, 무엇보다도 돌아가신 조상이 후손을 위기에서 보살펴 구해 준 것이 더 흥미롭다.

이런 조상과 후손의 설정은 이야기에서 많이 나타나는 화소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실제로 위기에 닥쳤을 때 조상의 보살핌을 본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코 조상이 없다는 소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후손의 안위가 항상 걱정인

것이다. 그 때문에 후손들이 위기에 처하면 나타나서 후손을 보살피는 것이다. 우리가 조상들에게 더 잘해야 하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다.

아울러 돌아가신 조상보다도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더 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가족과 친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부모형제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복을 받는 방법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서1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설화는 사람들이 즐겁게 살고, 부지런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가난하다고 상을 찡그리며 원망하지만 말고 즐겁게 살면서 부지런하면 먹고 살 복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 **설화의 내용** : 옛날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둘 다 무척 게을렀다. 게으른데다가 남의 원망만 하면서 매일 상을 찡그리고 지냈다. 너무나 상을 찡그리고 욕하고 원망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있으니, 하느님이 복을 주고 가려해도 줄 수가 없었다.

또 이들 부부는 워낙 가난하다보니 할 일도 없었다. 그래서 하도 못 살겠으니, 여자는 기고만장 잠만 자고, 남자도 덩달아서 잠만 자고 있었다. 그렇게 부부는 매일 잠만 자면서 밥을 해 먹지 않으니, 그 집에 부엌을 맡고 있는 조양신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밥이라도 해 먹으면서 밥숟가락이나 떠 놔야 먹고 견딜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들 부부는 그렇게 잠만 자다가 배가 고프면 거친 메물막개비를 저희들끼리 해먹고는 조양신에게는 하나도 바치지 않았다. 조양신에게 하나도 주지 않고 지들끼리 씹 먹고는 마니 도저히 그 집에서는 건딜 수가 없었다. 조양신은 그들 부부를 그렇게 봐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양신은

“에이 인제는 여보게, 우리 떠나야겠네. 떠나야지 여기서는 도저히 못살겠네.”

라고 했다. 그 집에서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여기를 떠나서 아기 밥이라도 얻어 먹이자고 떠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아기를 데리고 그 노파를 따라가기로 하였다. 피나리봇짐을 해서 짊어지고 그 노파가 앞장서서 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다. 그렇게 가다가다 보니 도저히 갈 수 없어서 할머니를 불렀다.

집 밖에 나와서 그렇게 가다가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부르니, 할머니가

“왜 그러느냐?”

하니,

“좀 쉬어서 가요.”

하니, 할머니는

“그럼 쉬었다가 가자.”

라 해서 나무 밑에서 쉬게 되었다. 쉬다가

“우리 아이 밥이나 좀 먹여야 겠습니다.”

라니, 할머니는

“그래라.”

하면서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그런데 보따리를 풀어 놓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들 부부가 풀어놓은 밥하고, 할머니가 풀어놓은 밥하고 똑 같았다. 그러니 그 아이가

“아이고, 할머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밥이 똑 같아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너희 성주야.”

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너도 게을러서 매일 낮잠만 퍼져 자빠 자고, 마누라도 게을러서 매일 잠만 자빠 자니, 내가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있느냐? 물을 떠놔야 물을 먹지.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니 너희들한테 복을 주고자 하나 줄 수가 없더구나. 어찌 됐든 주인이 집을 떠나니, 성주도 떠나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했다.

그 노파가 자기 집의 성주신인 것을 안 남자는

“아이고, 할머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넌 아침이면 그저 꼭두새벽에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어라. 그러면 지나가던 신이 이 집에 복을 줘야 한다고 들어오고. 여자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 불을 때라. 그러면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 보내서 복

을 줄 것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 물을 떠서 조양 앞에다 놓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 할머니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날부터 그들 부부는 그 성주신이 시킨 대로 하였다. 남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는데, 하루는 몸에 아무도 걸치지 않은 동자가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렇게 동자가 들어오고, 마누라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때면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랬더니 정말 하늘에서 하느님이 동아줄을 내려뜨려서 복을 막 내려 보내주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은 복을 받았다.

그리고 또 매일 물을 떠다가 놓았다. 바가지에도 물을 떠놓고, 사발에도 물을 떠놓고, 물을 떠 놓을 수 있는 곳에는 모두 물을 떠 놓았다. 아주 물벼락을 맞을 정도로 물을 떠놓았다. 그랬더니 그 집이 아주 그냥 뭘 하든지 잘 되었다. 화전을 해도 곡식이 잘 되고, 뭘 해도 원하는 대로 잘 되어서 아주 갑부로 살게 되었다. 그래 부지런히 하면 성주신도 보살펴 주고, 하늘에서 하느님이 내려와서 복을 주고 간다는 것이다. (『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아주 흥미로운 설화이다. 누구나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잘 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이 설화는 말하고 있다. 신이나 남을 원망만 하면서 상을 쟁그리고 투덜대면서 게으른 자에게는 복을 주지 않고, 즐겁게 부지런히 일을 해야만 하느님이 복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물을 떠다가 부엌에 놓는 것은 복을 준 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임을 알 수 있다. 내가 잘 사는 것은 내가 잘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잘 살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곧 그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라는 언급이라 할 수 있다. 이 설화처럼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살려면 즐겁게 부지런하면서 그 고마움을 생각하여 베풀어야 할 것이다.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차소백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우리가 보통 남 속이기를 잘 하는 사람을 일러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는데, 인제군에 살았던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차소백’이란 사람의 일화를 말한 이야기이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귀둔에 차소백이라는 아주 속이기를 잘하는 음흉한 사람이 살았다. 그는 상투를 틀고 양반입네 하고 갓을 쓰고는 인제서 한양까지 걸어서 왕래를 하였다. 그 당시는 인제에서 한양까지 가려면 보름 동안이나 걸어서 다녀야 했다.

차소백은 담배를 아주 많이 피웠는데 담뱃대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모두 해결을 하였다. 담뱃대에 넣은 담배를 마른 담배를 넣지 않고 젖은 담배를 넣어서 길을 가다가 누가 담배를 피면은

“담뱃불 좀 빌립시다.”

하고 말을 걸었다. 그러고는 자기 담뱃대에다 불을 붙인다면서 남

의 담뱃대를 푹푹 빨아서 담배 욕구를 해결하였다. 담배가 젖어 있으니 불이 붙을 이유가 없었다. 그래 젖은 담배에 불을 붙인다면서 불이 안 붙는다고 남의 담뱃대를 빨아서 해결한 것이다.

이런 차소백의 행실은 소문이 나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 얼마나 한양에서 사람들을 속였는지 사람들은 차소백 만나는 것을 무척 싫어했다.

그 당시 강원도에서 서울로 가든가, 서울에서 강원도로 오려면 망우리재를 넘어야 했다. 그런데 망우리재에는 돌서낭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 돌서낭을 지나면서 바닥에 있는 돌을 들어서 그 서낭에 던지면서 소원을 빌곤 하였다. 그런데 서울에서 강원도로 올 때 사람들이 돌서낭에 돌을 던지면서 가장 많이 비는 것이

“시골 내려가서 차소백이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었다. 차소백이를 만나면 뭐든 속고 말기 때문이었다.

하루는 차소백이 평창 대화장에 가게 되었다. 옛날에는 장이 서면 며칠 씩 아주 크게 섰다. 장에는 별의별 장사꾼이 다 왔고, 야바위꾼들도 항상 따라 다녔다. 차소백이 장을 구경하다보니 마침 야바위꾼이 화투장 세 개를 놓고 섞은 후 같은 화투장을 알아맞히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 차소백이 보니 야바위꾼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것이었다. 차소백은 그런 야바위꾼을 혼내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한참을 생각하던 차소백은 손뼉을 치면서 좋아라 했다. 차소백에게 좋은 수가 떠오른 것이다. 자신의 새끼손가락의 손톱이 긴 것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차소백은 얼른 여관에 들어가서 기다란 손톱을 바늘처럼 가느다랗게 갈았다.

손톱을 가느다랗게 간 차소백은 다시 야바위꾼에게로 갔다. 그러고는 모르는 체 하고 물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요?”

라 묻자, 야바위꾼은

“이걸 이렇게 해서 같은 걸 찾으려면 건 돈에 세 배를 주지요.”

라며 해 볼 것을 종용했다. 그러자 차소백은 얼른 날카롭게 간 손톱을 이용해서

“이거 말입니까?”

라며 화투장을 가리키는 척 하며 화투장 뒤에 손톱으로 콧 꺾어서 표시를 해두었다. 차소백만 알아볼 수 있게 살짝 들어가게 표시를 해둔 것이다. 그러고는

“그럼 나도 한 번 해봅시다.”

라 하자, 야바위꾼은

“그럼 돈을 내시오.”

라 하며 패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막 돌린 후 맞춰보라고 하였다. 차소백은 이미 표시를 해 두었으므로 한참 고르는 척 하다가 자신이 표시를 해둔 화투장을 들었다. 차소백이 화투장을 들어보이자, 야바위꾼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 다시 한 판 더하라고 하였다. 차소백은

“아이, 이게 실수로 맞은 가 보네.”

라며 또 돈을 걸었다. 그런데 또 맞은 것이었다. 그러자 또 차소백은 또

“아, 내가 실수로 또 맞췄네.”

라며 좋아했다. 야바위꾼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 계속해서 화투장을 돌렸다. 그렇게 몇 번을 하고나니, 야바위꾼은 가진 돈을 몽땅 잃고 말았다. 이미 차소백이 표시를 해 두었으니, 아무리 야바위꾼인들 차소백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야바위꾼이 돈을 다 잃고는 얼굴이 퍼렇게 되면서 험악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주변에 있는 패거리를 모아서 차소백을 어떻게 할 요량이었다. 그런 기미를 알아차린 차소백은 그 야바위꾼을 향해 한 마디 했다.

“야, 이런 잡놈들아 너희들 시골에 산다는 차소백이라고 들어봤냐? 내가 이놈아 차소백이야. 감히 누굴 속이려고 그래. 이놈들아.”

라고 한 마디 하자 그만 그 야바위꾼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뜨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차소백은 천하의 속임수를 쓰는 야바위꾼을 속여먹기도 했다.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물을 팔아먹었지만 차소백은 속이기에 달인인 야바위꾼을 속인 것이다. 오죽했으면 돌서낭에 돌을 던져 소원을 빌면서

“차소백이 안 만나게 해달라.”

고 했겠는가. (『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 한바탕 웃을 수 있는 소화담이다. 남을 속이는 것은 못된 버릇이지만 남을 속여 부를 축적해서 사는 사람을 속인 것은 잘 한 일이다. 마치 조선조 시절 임꺽정이나 홍길동 같은 의적을 보는 것 같다. 부정축재를 하고 백성의 고혈을 짜서 재산을 모아 사는 관리를 혼내주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혈벗고 굶주리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잘하는 것이다.

요즘 국회에서 ○○○ 추징법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도둑질을 한 천하의 나쁜 도둑인 것이다. 대통령이면 대통령다운 모범이 될 만한 행동을 보여야 했는데 천하의 소인잡배보다도 못한 행동을 보였고, 또한 그를 두고 추앙하는 세력이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름지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국민들의 작은 윤리의식을 탓하지 말고, 관료들의 사리사욕이나 부정축재 및 권위의식 등의 나쁜 작태를 먼저 고칠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해야 하는 효도

◆ **설화의 내용**: 옛날 인제군 기린면에 동갑내기 아들을 둔 친구가 있었다. 두 집안은 한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한 집 아들은 효자이고, 한 집 아들은 망나니라고 소문이 났다. 그러던 어느 날 효자라고 소문난 집의 아들이 관가에서 효자상을 받았다. 물론 망나니 아들은 상을 받지 못했다. 친구가 상을 받았다고 하니 망나니 아들은 상 받은 친구를 부러워하며, 어떻게 하면 효자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효자상을 받은 친구를 찾아갔다. 그래서

“넌 어떻게 했기에 효자상을 다 받고 그러냐?”

라 하자,

“뭘 별로 달리 한 게 없어.”

라고 했다. 그러자 망나니 친구는

“너, 나도 그 상을 좀 타게 도와 다오.”

하고 매달렸다. 그런데도

“아, 별 게 아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하면 되지. 뭘 그러냐.”

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를 했다.

망나니 친구는 효자 노릇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친구를 몰래 지켜보기로 했다. 그래서 이웃에 사니까 망나니 친구는 효자 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다.

새벽녘이 되어 효자 친구의 집에 가서 보니, 일찍 일어나서 소여물을 끓여주려고 아궁이에 불을 때놓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 바지를 입고 나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너 왜 아버지 바지를 입었느냐.”

고 물으니,

“셋, 조용히 해. 우리 아버지 지금 주무신다. 떠들지 마라.”

라고 했다. 그래도 궁금해서

“왜, 아버지 옷을 입었냐.”

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아, 날씨가 추우니까 아버지 옷을 내가 먼저 입어서 따뜻하게 데워서, 일어나시면 드리려고 그래.”

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망나니 친구는

“됐구나.”

실어서 얼른 자기 집으로 갔다. 집에 가서는 그 이튿날 친구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여물을 끓이려고 아궁이에 불을 때고,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바지를 입고 있었다. 아버지 바지를 입고 있다가 보니 이제 아버지가 잠에서 깨셔서 일어나셨다. 그러더니, 아들이 아버지 바지를 입은 것을 보고는

“이런 아주 못된 놈 같으니, 너 건방지게 내 옷을 네가 왜 입고 앉았냐.”

며, 호령을 쳤다. 친구처럼 했다가 괜히 꾸지람만 받은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날 망나니 친구는 효자 친구 집에 갔다. 효자 친구가 또 어떻게 하는지 보러 간 것이다. 그런데 친구가 아버지가 평상시에 누워 계시는 아랫목에 벌렁 드러누워 있는 것이었다. 그때 마침 효자 친구의 아버지가 들어오고 계셨다.

“야. 네 아버지 저기 오신다.”

라니,

“알았어.”

라며, 그래도 계속 아랫목에 드러누워 있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면서 방문을 열고 들어오니, 그때서야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서

“아버지, 여기 주무세요.”

하면서 자리를 양보했다. 아버지는

“음, 그래 알았다. 따뜻하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 누웠다. 망나니 친구는 집에 가서 친구와 똑같이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아랫목에 누워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오는 데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아랫목에 누워 있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아들이 아버지가 왔는데도 눈을 뜨고는 아랫목에 누워 있거든, 그래서

“요런 아주 발칙한 놈 같으니라고, 애비가 왔는데도 일어나지도

않고.”

하며, 몽둥이를 휘둘러 때렸다. 그러자 아들은

“에이, 더러워 효자 못해먹겠네. 매만 맞고.”

하면서 투덜거렸다.

그러자 아버지는

“너 무슨 소리냐?”

라고 물었다. 아들은 그동안의 얘기를 했다.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의 아버지는 그러면 아, 잘 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매만 때리니. 내가 어떻게 효자가 되겠습니까.”

하였다. 그래 아버지가 가만히 들으니, 아들의 말이 그럴 듯하였
다. 그래서 이튿날 효자 아들을 둔 친구집에 갔다.

“야, 어제 아들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는 그렇게 하니?”

라고 물으니,

“아이, 그렇지. 그럼 그렇지 뭐.”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망나니 친구 아버지는

“야, 우리 아들도 뭐 어떻게 효자 좀 되게 해다오.”

했다. 그러자

“말 잘 들으면 돼.”

라고 하며,

“너 나 하는 거 볼래.”

했다. 그러자

“그래 해봐라.”

하자. 효자 친구의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서

“야, 송아지를 저기 저 지붕 위에 좀 올려 매라.”

했다. 그러자 효자 아들은

“예.”

하고는 송아지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썼다. 송아지는 안 올라가려고 버티고 아들은 송아지를 지붕으로 올리려고 땀을 뻘 뻘 흘리면서 애를 썼다. 한참을 그렇게 하자, 아버지는

“그래 됐다. 그만 하면 됐다.”

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자네 집에 한 번 가보세.”

하여 같이 망나니 친구의 집에 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을 불러서

“야, 그 송아지를 저 지붕위에다 끌어올려라.”

라고 하자, 아들은

“아버지, 미쳤어요. 송아지를 왜 지붕에 끌어올려요.”

하였다.

그러게 효자라는 것은 부모도 같이 해야 하고, 자식도 같이 해야 효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 효자노릇이 쉽지 않으며, 일방적인 효는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일방적인 일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효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옛날에 공자님의 제자가 효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어느 날 집에 다녀온다기에 어떻게 하기에 효자라고 하는지 다른 제자를 시켜 가보고 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친구를 따라갔더니, 나이가 많은 친구가 연로하신 부모님 앞에서 ‘참새 짹짹’ 하면서 울동과 함께 어린아이처럼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돌아와 공자님께 본 대로 말했더니,

“효자로구나, 효자로구나.”

하면서 감탄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두고 같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가령, 부모님이

“다 큰 놈이 나이 값도 못하고.”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그래 네가 나를 위하는 마음이 어린애처럼 순수하구나.”

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부모가 노래하고 춤 춰보라고 다 큰 아들에게 시켰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사람과

“뭐, 이 나이에 어떻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효든 뭐든 간에

“손뼉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난다.”

라는 속담처럼 뭐든 함께 해야 그 빛이 나는 것이다.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간 허복심

◆ **설화의 위치** : 이 설화는 인제군 상남리에서 전승한다. 상남리는 상남면의 면소재지로 유명하다. 지금은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 내린천 휴게소가 위치해 있어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가까이는 용소폭포가 있어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폭포로 올라가는 길목과 계곡이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폭포는 하트모양을 하고 있어 이 지역 사람들은 하트폭포라 부르기도 한다. 상남천의 물길은 흘러 내린천으로 합류한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참빗을 팔러 다니던 부부가 있었다. 참빗장사 부부는 무척 가난했다. 너무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시골에 들렀다. 마침 그곳에는 부자노인네가 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선 날가리도 많았다. 그래서 하룻밤 머물면서 밥도 좀 얻어먹으려고 했다.

“주인어른 계십니까?”

그러니까 노인네가.

“왜 그러쇼.”

“아 저 하룻밤만 기거하게 해 주십시오. 저 참빗 팔아가지고 이려고 다니는데 먹을 것도 없고 너무 길이 험해서 어디 갈 데도 없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참빗장사가 너무 남루하고 세수고 안 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더럽잖아. 그래 절대 재우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아유 어쨌건 좀 재워 주십시오.”

하도 애걸을 하는데, 날은 저물고. 주인 영감 명령 때문에 방에다 재울 수는 없잖습니까.

“정 잘려면 저 깍지 우리, 소먹이 쏴아 가지고 저장하는데 자라고.”

“아, 저 감사합니다.”

그래 참빗장사 부부가 깍지 우리에 들어가서 자게 되었다.

그런데 주인노인이 창고가 열두 개씩 되고 농사도 잘 되어 돈이 많았다. 돈은 무지하게 많은데 아들이 없는 거야. 어느 날 스님이 와서 염불을 하였다. 그러니 주인노인이,

“내 시주는 많이 할 테니까. 내 아들 하나 낳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느냐?”

그러니. 스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목탁을 두드리더니, 주인노인을 바라보고,

“참 딱하우. 평생에 자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아서 더 없는데, 저 때가 되면 허복심이가 나타날 거요. 괘시를 하지 마시

오.”

그랬거든. 게 허복심이가 뭔지 제기랄 알 수 있나. 주인노인은 그래도 그걸 잊지 않고 있었다. 그래 그 참빗장사가 그날 깍지더미에서 자고 있었다.

밤중에 참빗장사가 깍지더미에서 자다가 갑자기 참빗장사 부인이 산통이 왔다.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다. 웬만하면 방에 다 들여 재우면 좋겠는데, 워낙 남루하고 더러우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 그랬더니 깍지더미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래 주인노인이,

“뭘 낳았나 가 봐라.”

그래 하인을 시켜 보내 가보고 와서는,

“사내애를 낳았습니다.”

“거 그 추운데 애를 낳았으니 별 수 있나. 밥이라도 한 숟갈 먹여라.”

그래 밥을 주었는데. 이거 깍지 간에 돌이 들어앉은 걸 날이 새서 보니. 사내애인데 마음이 자꾸 끌리는 것이었다. 그때 예전에 스님이 얘기한 말이 머리에 떠올랐다.

가을에 조 이삭을 타작을 해서 도리깨질을 해서 소를 먹이려고 깍지 간에 잔뜩 넣어둔 것이었다. 그걸 조 복심이라 한다. 조를 떨어서 소를 먹이려고 이삭을 잘라놓은 것을 복심이라 한다. 그래 주인 노인이,

“아, 이게 복심이가 틀림없이 맞단 알이야.”

하고, 노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중이 얘기한 복심이가 나타난 거라 이거야. 그래 정신이 바짝 들어서 참빗장사 남자를 보고,



“택이 좀 나오쇼.”

“그게 왜 그러쇼.”

“자네 성함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는,

“성은 허고 이름은 아무개.”

그러니까는 이게 허복심이야. 그래 가지고,

“아차, 이게 중이 얘기하던 허복심이가 탄생했구나.”

큰일 난거야.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일꾼들 보고 물 데우라. 밥을 해라. 뭘 이려고 방청소해라. 이불 갖다 놔라. 아, 이거 목욕을 시

키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남자와 부인이. 그러니 여자는

“왜, 그러세요.”

하며, 잡는 줄 알았지.

그러면서 주인노인은 닭을 잡아 기계에다 털을 뽑듯이 막 돌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아, 왜 그러시냐?”

그러니. 옷도 새것으로 한 벌 내다 놓고, 목욕을 시켜놓고는 두 사람을 앉혀놓으니 그렇게 인물이 잘 났더랍니다. 신선 같더랍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이제 여길 떠날 생각을 마시오. 나는 여기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일꾼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잘 사는데, 내가 자식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저 애를 수양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중이 얘기한 허복심이가 맞아 들어갔다는 얘깁니다. 그래 부자가 돼, 수양아들로 들어가서 대대로 길이길이 제사도 지내고 잘 살았답니다. (『인제군지』)

◆ **설화의 의미** : 가난한 참빗장사가 우연히 부잣집에 수양아들을 주고 잘 살았다는 민담이다. 운명에 대한 이야기이다. 원래 팔자에 자식이 없는 사람이 수양아들을 둔 이야기이다.

스님의 예언이라는 전통적인 표현을 빌려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꾸몄다. 억지 같은 이야기기이지만, 운명담으로는 잘 맞아 들어간다. 결국 부자노인이 양아들을 얻은 이야기이지만, 달리 보면 열

심히 살아가던 참빗장사가 복을 받은 이야기로 볼 수 있다.

가난을 나무라지 않고 전국을 떠돌며 열심히 산 결과가 부잣집에 양아들을 주고 잘 살았다는 사건으로 귀결된 이야기이다. 열심히 살다보면 복이 온다는 믿음과 희망을 주는 설화이다.

빈 마음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어떤 부자가 욕심 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자 하여 상자에다 보석을 잔뜩 담아놓았는데, 욕심 있는 사람들은 다들 먼저 가져가려고 하다가 가장 뒤에 있는 진짜 보석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진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양보를 하다가 가장 나중에 가진 상자에서 다이아몬드가 든 보석을 얻어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 **설화의 내용** : 옛날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 중에 나라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진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는 자신이 이렇게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은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부를 욕심 없는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주고자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욕심 없는 사람을 알 수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한 꾀를 내었다. 보석이 든 상자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가장 나중에

가져가는 사람이 큰 행운을 얻게 하는 것이었다. 분명히 욕심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가질 것을 양보하고 제일 나중에 상자를 선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상자를 여러 개 놓고 그곳에 보석을 담아 진열을 해 놓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여기 있는 이 상자와 똑 같은 상자를 하나씩 가져와서 여기 있는 상자를 열어 보석이 있으면 가져가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빈 상자는 이곳에 그대로 놔두고 가라고 하였다. 단 보석이 든 상자든 빈 상자든 한 번씩만 뚜껑을 열어볼 수 있게 하였다.

부자가 수십 개의 상자를 뚜껑을 해서 진열을 해 놓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보석을 얻어 행운을 차지하기 위해서 빈 상자를 하나씩 해 들고 부잣집 앞으로 왔다. 사람들은 금방 부잣집 마당에 가득 찼다. 수백 명의 사람들로 북적대면서 서로들 먼저 상자를 열어보겠다고 난리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이나 가운데쯤의 상자를 열어보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금이 든 상자를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비단이 든 상자를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빈 상자를 열어 아무 것도 가져가지 못하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빈 상자를 열어 아무 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빈 상자의 숫자는 더욱 늘어갔다. 그러다 보니 수백 개의 상자가 진열돼 있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양보하고 있었다. 그래 사람들이 먼저 하겠다면

“그럼 먼저 하세요.”

라며 계속해서 양보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 정말 상자의 숫자는 더욱 많아져서 어느 것이 보석이 든 상자인지를 분간해 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 순서가 계속되자 부자가 넣어놓은 보석과 물건들은 거의 다 열어졌다. 금, 은, 쌀, 옷 등 별의별 물건이 다 있었지만 진짜 보석인 다이아몬드가 든 보석 상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드디어 욕심 없는 사람이 마지막에 남았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욕심 없는 사람에게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말 다이아몬드가 든 보석 상자를 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빈 상자를 열 것인지 궁금해 하였다.

그때 이 사람은 역시 빈 상자를 옆구리에 낀 채로 주위를 둘러보면서

“어느 것을 열어볼까요?”

라고 하자, 주변에서

“거 당신 마음대로 열어보시오. 보나마나 다른 사람이 다 열어봤겠지요 뭐.”

라며 이궁동성으로 사람들은 말을 했다. 그러자 욕심 없는 사람은 순진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야 제일 끝이니까, 마지막 것을 열어보겠소.”

라며, 정말 수백 개의 상자 중에 가장 끝에 있는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사람들은 그 순간 모두들 긴장을 하고 그 사람이 상자의 뚜껑을 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상자에도 다이아몬드가 없으면 부자라도 다이아몬드를 가져가고, 부자가 의도했던 일은 원점으로 돌아

가고 말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욕심 없는 사람이 상자의 뚜껑을 열자 그곳에서는 휘황찬란한 빛이 밖으로 비취 나왔다. 다이아몬드가 하늘에서 내리 쏘는 햇빛을 맞아 찬란하게 빛을 내뿜은 것이었다. 아무 욕심 없이 마지막 상자를 연 것이 그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이다. (『인제군 학술답사보고서』)

◆ **설화의 의미** : 이 이야기는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양보의 미덕임을 볼 수 있다. 욕심 없는 사람이 행운을 차지한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양보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나 남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멋진 행동을 보였다. 또 하나는 부자의 마음 씀이다. 부자가 자신이 잘 사는 원인을 남의 도움으로 돌린 것이다. 정말 더불어 사는 사회, 그리고 함께 해야 더 잘 살 수 있다는 진리를 몸소 실천한 것이다. 방법이야 좀 어설프지만 부자의 마음이 아름답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설화는 욕심 없이 주위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다보면 언젠가는 잘되고 잘사는 행운이 온다는 것이다.

빌어먹을 팔자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어떤 사람이 점쟁이에게 점을 쳤더니 빌어먹을 팔자라고 해서 죽으려고 산신당에 갔더니 산신님이 얼마만 더 있으면 부자가 된다고 했으나, 그 기간이 지나도 부자가 되지 않자 산신님이 왈 한 해 더 빌어먹다가 죽을 것이라 하자 결국 빌어먹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이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어떤 곳에 거지로 평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은 유명하다는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쳤다. 점쟁이에게 가서

“내가 왜 매일 이렇게 얻어먹고만 다니며 살아야 되는지 알아봐주세요.”

하고 제 탄에 복채도 내고 점을 봐 달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점쟁이는

“당신은 팔자가 빌어먹다가 죽을 팔자요.”

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다. 그래서 다시

“정말 내가 빌어먹다가 죽을 팔자냐?”

라고 물었더니, 점쟁이는

“당신은 평생 빌어먹다가 죽을 것이요.”

하고 다시 확인해 주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빌어먹을 팔자라면 차라리 자살하고 말 것이라며, 목을 매어 죽으려고 새끼를 꼬아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마침 산신당이 있었다. 산신당 옆에서 목을 매어 죽으려고 알맞은 나무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다. 그때 산신당 쪽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수염을 허영게 늘어뜨린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너 왜 목을 매려고 하느냐?”

라며 묻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 내가 올해 나이 사십인데 점쟁이한테 갔더니 저 보고 평생 빌어먹을 팔자라고 하잖아요. 그래 내가 평생을 빌어먹을 바에야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죽으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는

“괘씸하긴, 어느 점쟁이가 그러더냐? 그 점쟁이가 멋도 모르고 지껄인 것이다. 넌 그렇지 않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궁금해서

“그래 제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너는 십 년은 빌어먹어야 돼. 그런데 앞으로 십 년이 지난 다음부

터는 잘 살 거야. 네가 나이 86정도는 살 것인데, 이십 몇 년 동안을 이 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큰 재물을 가질 사람이야. 그런데 꼭 십 년은 남의 집 가서 동냥을 해 먹어야 한다. 그러니 나중에 부자노릇을 하겠으면 살고 지금 죽고 싶으면 죽든지 맘대로 해라.”

라고 말하고는 어디 온다간다는 말도 없이 ‘뽕’하고 사라졌다.

그 다음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십 년 빌어먹고 나서 이 나라에서 최고의 부자로 산다면 십 년 거지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기로 했다. 그 다음 정말 죽어라 하고 남의 집 가서 얻어먹고 추위에 손발이 얼어가면서 차가운 한데서 자며 십 년을 보냈다. 그렇게 십년을 보내고 십일 년째가 지나도 전혀 다른 일이 생기지 않았다. 그렇게 십일 년이 지나고 십이 년째가 되던 정월 초하룻날이 되어 그 산신당의 산신님을 찾아갔다. 속으로

“에이, 이놈이 날 속였구먼.”

하면서 가까이 가니까 산신님이 나와 계셨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산신님이 어째 날 속였소. 십이 년이 되어도 아무런 일이 없어 나 다시 죽으러 왔습니다.”

라 하니, 산신님이 말하기를

“너 올 줄 알았다. 알았는데, 너를 속인 게 아니라, 너는 십 년 또 빌어먹어야 돼. 그때 십 년 전 이십 년을 모두이야기 하면 너무 지루해서 네가 죽을 것이 아니야. 그러니 반 만 얘기한 것이지. 이제 딱 십 년 남았다. 이걸 진짜다.”

라고 하고는 역시 산신님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사람이 생각해

보니, 지금부터 십 년을 더 거기로 살아도 팔십여섯까지 산다면 이십 오 년을 땡땡 거리고 살 수 있는 것이었다. 이제 딱 십 년만 더 거지로 살면 되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그래서 또 십 년을 손발을 얼려가면서 빌어먹고 다녔다. 그런데 그렇게 또 십 년을 더 빌어먹고 다녔는데도 전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다. 늘 똑 같이 빌어먹고 다니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육십 두 살이 됐으니, 진갑이 된 것이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제 정말 죽겠다고 새끼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산신님을 만나면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목을 매 죽을 요량이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갔더니 산신님이 꺄꺄꺄 웃으시면서

“내 너 또 올 줄 알았다. 너는 원래 예순세 살이 한명이다. 예순세 살에 죽게 되어 있어. 그러니 네가 일 년을 더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지금 죽든지 맘대로 해라.”

하고는 또 산신님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래 그 사람이 생각해 보니 평생 빌어먹고 다니다가 한 해 남겨두고 목매달아 죽는 다는 것이 더러웠다. 그래서 한 해 더 빌어먹고 다니기로 했다. 그렇게 빌어먹다가 정해진 제 명이 다하니까 죽고 말았다.

세상 사람은 자기의 운명을 속이지 못한다고 한다. 산신은 어차피 고생스러워도 제 타고난 명까지는 살다가 죽어야지 일부러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고 한다. (『인제군 학술답사보고서』)

◆ **설화의 의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운명론에 따라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이다. 하나는 그냥 빌어먹으면서 운명에 따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거지가 빌어먹을 줄만 알았지 노력해서 운명을 극복할 생각은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 이 거지는 일확천금만 꿈꾸면서 하늘만 쳐다보았던 것이다. 아무 노력 없이 시간만 기다린다고 해서 일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운명이 아무리 잘 타고나도 그 운명을 누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고 작은 부자는 근면에 말미암는다고 했다. 아무리 팔자를 타고나지 않아도 부지런히 일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색시로 둔갑한 꼬리 열두 개 달린 여우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여우의 둔갑에 의한 것으로 아주 흥미진진하다. 이야기에 <옹고집전>에서 보는 진짜와 가짜화소까지 첨부되어서 이야기 끝까지 이어지고 있다. 설화이다 보니 단순하지만, 나름대로 재미있는 서사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럼 이야기에서 진짜 색시와 가짜 색시인 여우를 찾아내서 사건을 끝내는 장면까지 쫓아가 보도록 하자.

◆ **설화의 내용** : 옛날 한 동네에서 총각이 장가를 가게 되었다. 서로 중매를 넣고 배필을 찾아서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색시집에서 혼례를 치르고는 색시를 가마에 태워 신랑집으로 데려 갔다. 분명히 신랑은 색시를 가마에 태워서 데리고 왔는데, 처가인 색시집에서는 색시를 데려가지 않았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그래서 신랑집에서 색시를 분명히 데려왔는데, 무슨 색시를 또 데려오느냐고 기별을 넣었

다. 그런데도 또 색시를 데려가라고 해서 색시집으로 가보았더니, 정말 똑같이 생긴 색시가 한 명이 또 있는 것이었다.

신랑이 먼저 데리고 온 색시는 다름 아닌 여우가 색시로 변해서 가마를 타고 온 것이었다. 사실은 이랬다. 그 동네 산에 아주 오래 묵은 여우가 살고 있다가 색시로 둔갑을 해서 색시 대신 가마를 얹른 타고 신랑을 따라 온 것이었다. 여우는 사람의 간을 하나만 빼내 먹으면 이제 사람으로 완전히 둔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신랑의 색시로 변해서 틈을 노려 간을 빼 먹기로 한 것이다.

신랑은 분명히 색시를 데려왔는데, 색시를 또 데려가라고 하여 처가에 다시 와 보니 정말 똑 같이 생긴 색시가 있는 것이었다. 두 색시는 서로 신랑을 자신의 신랑이라고 주장을 했다. 도저히 둘 중에 어느 색시가 진짜인지 분간해 낼 수 없었다. 무엇을 물어봐도 똑 같이 대답을 하니 신랑은 무척 난감 하였다. 그렇다고 두 명의 색시를 모두 데리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때 그 동네에 머리가 비상하고 경험이 많은 노인 한 분이 있었다. 그 노인은 그 소문을 듣고는 신랑을 오라고 하여 불렀다. 신랑이 노인을 찾아가니, 노인은

“밤에 잘 적에 오늘은 이 여자를 데리고 자고, 내일은 저 여자를 데리고 자봐라. 잘 때 여자의 꿈지 뼈를 만져봐라. 만져보면 한 여자는 꿈지 뼈가 없을 것이고, 한 여자는 꿈지 뼈가 좀 크게 만질 것이다. 여우는 완전히 꼬리를 감추지 못하기 때문에 꿈지 뼈를 다 감추지 못해서 튀어나온다.”

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랑은 먼저 청혼했던 여자를 데리고 하룻

밤을 자면서 꿈지 뼈를 만져보니 아무도 만져지지 않았다. 다음날 또 다른 색시를 데리고 자면서 꿈지 뼈를 만져보니, 꿈지 뼈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었다. 그래서 신랑은 그 노인을 찾아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였다.



“영감님이 시킨 대로 자면서 꿈지 뼈를 만져보니, 한 여자는 멀쩡한데 한 여자는 조금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라 했다.

그러자 노인은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큰 방망이를 하나 해놓고 여자들을 하나씩 데리고 자봐라. 그러다가 꿈지 뼈가 만져지면 그 여자를 몽둥이로 때려라. 그러면 그 여자가 꼬리 아홉 달린 여우로 변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래서 신랑은 노인이 시키는 대로 큰 몽둥이를 하나

해서 방구석에 세워 두었다. 그날도 두 여자는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싸우고 있었다. 신랑은 한 여자를 지목해서 같이 자자고 했다. 그러고 한 여자는 다른 방에 머물게 했다.

그렇게 해서 여자랑 같이 자면서 또 꿈지 뼈를 만져보니 아무 것도 만져지는 것이 없었다. 신랑은 같이 자던 여자를 방에 있으라 하고는 몽둥이를 들고 다른 방에 있는 색시를 찾아가서 다짜고짜 내리쳤다. 그랬더니 정말 죽어가면서 꼬리가 스멀스멀 기어 나와서 여우로 변했다.

신랑이 여우와 자면서 아이를 낳았으면 여우새끼를 낳아서 자신은 죽고 망할 뻔했는데, 다행히 노인의 말대로 해서 여우를 잡고 진짜 색시랑 살게 되었다. (『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 아주 재미있는 설화이다. <옹고집>처럼 진짜라고 서로 싸우는 장면이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설화이다 보니 사실을 가리는 일에 더 치중해 있어서 재미가 반감했다. 그러나 여우라는 대상을 내세워서 진위여부를 가리고 가짜를 선택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를 드러내어서 교훈을 주는 설화이다. 가짜인 여우를 선택했다면, 자신도 간을 빼앗겨 죽고 집안도 망했을 것이다. 또 여우 새끼를 낳는다는 표현과 같이 가짜가 가짜를 낳아서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곧, 진실이 묻히고 부정과 비리 및 불합리가 판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기에서 노인의 지혜를 빌려 진짜 색시를 선택할 수 있었고, 결국 이 세상은 가짜가 많지만 진짜가 가려지는 참다운 세상으로 자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설악산과 길 두목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북면 용대리의 도적소와 설악산 권금성 일대와 양양군 서면 갑천리에 걸쳐 있다. 옛날 권금성과 용대리 도적소 지역은 현 고성, 속초, 양양 일대의 사람들이 인제로 해서 한양으로 통하던 길목에 해당한다. 그 때문에 이곳에는 도적들이 들끓던 유명한 곳이다. 용대리의 아니오니 같은 곳은 도적들이 살면서 양민들을 필요에 의해 한 번 끌고 가면 아니온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현재 이곳에는 ‘아니오니 산제당’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 **설화의 내용** : 조선조 연산군 때의 일이다. 설악산에는 길길도(吉道)라는 산적이 있었다. 그는 수 백 명의 도적을 이끌고 양양 땅에 80칸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길길도는 위낙 날랜데다가 재능도 있었다. 마을 씨름대회에 나가서 수십 마리의 황소를 끌어올 정도로 힘도 세었지만 수 백 명의 도적을 아무 탈 없이 이끌 정도로

지략도 갖춘 인물이었다.

다만, 그에게 있어 아쉬운 것은 그가 양반의 신분을 타고 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길길도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다. 세상을 원망하던 길길도는 도적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은거지를 권금성에 잡았다. 권금성은 설악산 중턱에 있는 성이지만 길길도에게는 천하의 요새로 활용되었다. 그 지역은 당시 인제로 넘어오는 길목에 해당했기 때문에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비적질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들의 활동무대는 속초에서 설악산을 주거지로 해서 인제 용대리의 도적소에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권금성에 은거지를 잡은 비적들은 내려다보이는 도로 옆 주막촌과 은밀한 연락을 하며 비적질을 했다. 그 길은 첩첩산중이었기 때문에 길을 넘는 나그네들은 꼭 주막촌에 들러 시장기를 가지고 걸쭉한 탁주로 킁킁한 목을 축이곤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고험한 계곡을 넘을 수 없었고, 날이 저물면 주막촌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곤 하였다. 주막촌에는 여러 명의 주모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남편이 없거나, 남편을 잃고 과부로 혼자 살아가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주모들은 권금성의 비적들과 공공연히 정을 통하여 비적의 아내 구실을 했다. 그러면서 비적들의 연락망으로 돈 있는 손님들이 오면 소식을 전하는 활동을 했다. 주막에 손님이 들면 밖에 불을 피워서 비적들에게 알렸다.

주막촌의 주모가 불을 피워 연락을 해오면 미리 길목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나그네의 돈을 털었다. 돈을 털 것 이 알려질 것 같으면

아예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조정의 정보를 입수해서 자신들의 은거지를 옮겨가며 상습적으로 행패를 일삼았다. 나라가 어지러우니 이들의 활동은 더 쉬웠고 호경기를 만났다.

길두목은 비적질이 익숙하고 가진 재물이 많아지자, 산 아래에 있는 정고마을에 사는 ‘분’이와 성대하게 혼인까지 하였다. 마을에서 치른 혼례에는 심복부하인 떡쇠를 비롯해서 많은 줄개를 거느렸다. 혼인 후 3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20살이 되자 아버지 뒤를 이어 비적의 두목을 했다. 대를 이어서 산적의 두목이 된 것이다.

아들에게 두목 자리를 물려준 길 두목은 한가하게 세월을 보내며, 양양군 서면 갑천리에 있는 자신의 80칸짜리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집 앞에는 당시 양양도호부사와 강원도 감찰사를 지냈던 이광열이라는 사람이 청빈하게 살고 있었다. 이광열은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관직을 버리고 갑천리에 내려와 있었던 것이다. 길 두목과 이광열 감찰사는 자연스럽게 서로 만나게 되었다.

길 두목이 이광열 감찰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 배울 것이 아주 많았다. 길 두목은 감찰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글도 배우고, 때론 벗이 되어 세월을 같이 보냈다. 그러는 사이에 자연히 길 두목은 그간의 잘못을 뉘우치고 양민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길 두목은 권금성의 산적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산적의 두목을 하던 아들도 불러들여 양민이 되어 살게 하였다.

그래서 양양군 서면 갑천리에는 두 개의 무덤에 각각의 비석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광열의 비석이고, 또 하나는 “백장 길길도”라고 쓴

길 두목의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비석은 어디로 사라져 지금은 없어졌다. (『인제군사』)

◆ **설화의 의미** : 이 설화는 두 가지 의미를 띠고 있다. 하나는 재능은 있으나 신분 때문에 도적이 돼야했던 사연이고, 또 하나는 그런 도적이 사람을 잘 만나서 양민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둘 중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뒤의 것이다. 곧, 도적이 훌륭한 인물을 만나서 도적질을 그만두고 양민이 된 감화사건이다.

요즘 세상에 도적이 양민으로 감화된 것도 아름답지만, 그를 감화시킨 사람의 인품이 더욱 그리워진다.

설악산의 팔기(八奇)

◆ **설악산의 뜻** : 설악산은 가을이 되면 그야말로 만산홍엽을 이루었다. 온 산이 단풍으로 울긋불긋하여 그 경치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이다. 가을마다 설악산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 터인데, 우리가 설악산의 뜻을 알고, 설악산을 구경하는 재미를 옛 선비들의 감상법으로 더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설악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말하고 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보면 이렇다. 먼저, 설악산의 설악은 한자로 눈 설(雪)자에 큰 산 악(嶽)을 쓴다. 『삼국사기』에는 설화산(雪華山)이라 했다. 신라 때는 선산(仙山), 불산(佛山)이라 했으며, 개골산(皆骨山)이라는 기록도 보인다. 그런데 설악 할 때 눈 설자를 쓰다 보니 눈이 많이 쌓인 산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다. 금원안사라는 사람이 쓴 『호동낙기(湖東洛記)』에는 “돌이 눈 같이 희므로 설악”이라 했다고 했으며, 『택리지』를 쓴 이증환은 “어지러운 산이고 깊은 두메이며 위태로운 봉우리가 걸쳐진 뿔부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고어에 눈 설(雪)자는 ‘ ’이라

하는데, 이는 신성(神聖)을 뜻하는 것이다. 곧,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신성(神聖), 숭고(崇高), 결백(潔白)함을 나타낸 신(神)이 사는 성역(聖域)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악은 우리말로 ‘뫼’이므로 ‘신이 기거하는 성스러운 지역의 산’으로 볼 수 있다.



◆ 설악팔기: 설악산의 팔기팔경은 우리 옛 선비들이 설악산을 둘러보고서 명명한 것이다. 먼저 설악산의 8가지 기이함을 말한 팔기(八奇)부터 보도록 한다.

첫째, 천후지동(天吼地動): 하늘이 울면 땅이 진동한다. 여름이면 비가 많이 내려 하늘의 뇌성이 일어나고 번개 불이 번적이며 온통 하늘이 찢어지듯이 울부짖고 땅이 오열하는 듯 지축이 흔들린다. 그 소리의 신비와 울림의 기이함을 고래로부터 신기하게 생각했다.

조선시대인 1580년 강원도 감찰사를 지낸 송강 정철이 설악에서

역적이 난다고 하여 봉정암에 혈을 지르러 왔다가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고 벽력이 일어남에 “설악이 아니라 벼락이고, 구경이 아니라 고경(苦境)이며, 봉정(鳳頂)이 아니라 난정(難頂)이다.”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

둘째, 거암동석(巨岩動石): 큰 바위가 흔들거린다. 짐채 같은 큰 바위가 흔들거리는 것은 기암괴석이 많은 설악산에서만 볼 수 있는 신기한 일이다. 흔들바위를 말한다.

셋째, 백두구혈(百斗瓢穴): 콩 백말을 넣을 수 있는 사발모양의 구멍이 있다. 인제 북면 용대리 외가평(外加平)에서 백담사(百潭寺)로 가는 백담계곡에는 하식작용(河蝕作用)에 의해 사발모양의 구멍을 형성하고 있어 콩 백말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분포하고 있다. 예부터 학이 날아간 흔적이라 하지만 너무 기이롭고 기괴한 형태이다.

넷째, 전석동혈(轉石洞穴): 돌이 굴러 집이 설만큼 바위굴을 만든다. 외설악의 계조암(繼祖庵)은 대표적인 전석동혈로 바위와 바위가 서로 맞 대고 있어 하나의 자연동굴을 형성하였다. 이 같은 자연굴이 도처에 있으니 신기하다.

다섯째, 수직절리(垂直節理): 수직으로 깎아지른 절벽이 있다. 내설악의 12선녀탕, 하늘벽(길이 300m)과 같이 험준한 지형과 외설악의 천불동계곡, 울산바위 할 것 없이 모두 수직절리로 천태만상의 형상을 하고 있어 신기롭고 조화롭다. 또 용의 치아 같이 생긴 용아장성(龍牙長城)의 바위 상은 수직으로 뻗어서 험준한 형태를 하고 있으니 신기하다.

여섯째, 유다탕폭(有多湯瀑): 많은 곳에서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 탕이 있다. 폭포가 있는 곳에는 으레 소(沼)나 못(淵)이 있게 마련이다. 이 소

나 못은 움푹 패여 방아의 확 모양으로 탕(湯)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식작용에 의한 12선녀탕이다. 이것 역시 신기하다.

일곱째, 금강유혈(金剛有穴): 금강석에 구멍이 패이다. 설악산 비로봉(毘盧峰)의 금강굴(金剛窟) 같은 것은 바위산에 난 큰 구멍으로 매우 기이로운 조화이다.

여덟째, 동계설경(冬季雪景): 한 겨울 눈이 내린 경치이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면 쌓이고 쌓여서 수 10장을 이루고 사시장창 백설이 보인다. 11월부터 3월까지 내린 눈은 개골산(皆骨山)에 백설이 만건곤(滿乾坤, 천지에 가득 참)하는 설경을 이루어 신기하다.

이렇게 설악산에 있는 기이한 형상 중 8가지를 골라서 옛 선비들은 감상을 하였다. 아무래도 그냥 눈에 띄는 대로 경치를 감상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그 특징을 드러내서 감상을 한다면 더 의미 있는 감상법이라 할 수 있다.

설악산의 팔경(八景)

◆ 설악산 감상 재미 더하기 : 설악산의 8가지 뛰어난 경치를 보도록 한다. 역시 우리말에 ‘아는 만큼 보고, 보는 만큼 안다.’고 하듯이 설악산을 구경하면서 그에 담긴 옛 선비들의 감상법을 안다면 설악산을 오른 재미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 설악 팔경 : 이 설악의 8경은 조선 시대 그 유명한 양사언, 권상용 등이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럼 8가지의 뛰어난 설악의 풍경을 감상해 보자.

첫째, 용비승천(龍飛昇天): 용이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은 폭포가 있다. 한국의 3대 폭포는 금강산의 구룡폭포, 개성의 박연폭포, 설악산의 대승폭포이다. 그 중에 가장 긴 것으로 알려진 내설악의 대승폭포(大勝瀑布)를 비롯하여, 쌍폭(雙瀑), 소승폭포(小勝瀑布), 응봉탕(應鳳湯), 옥녀탕, 외설악의 대왕폭, 12연주폭포, 독주폭포, 대왕폭포, 천당폭포 등은 대표적인 폭포로 물줄기가 낙하하면서 무지개가 발생하니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이 황홀 하다. 그 폭포를 보다 보면 물줄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둘째, 설악무해(雪嶽霧海): 설악산의 안개바다. 여름이 되면 봉우리마다 구름에 덮이고 안개에 싸여 있는 신비로운 풍경은 참으로 장관이다. 대청봉은 구름 위에 솟아 있고, 골짜기란 골짜기는 안개 속에 잠겨 설악은 안개의 바다로 변한다. 설악이 아니라 운악(雲嶽, 구름 뒤편)이며, 수해(樹海, 기이한 나무바다)며, 무해(霧海, 안개바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하운다기봉(夏雲多奇峰, 여름의 구름은 많은 기이한 봉우리를 만든다)이라는 말은 설악산을 두고 말한 것이며, 산봉우리에 있으면 날아가는 우화등선(羽化登仙)이 된 것 같다. 설악산의 구름은 어떻게 보면 구름이 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봉우리에서 쉬다가 다시 흩어져 순간적으로 자취를 감추고 만다. 구름의 흐름은 실로 기이하고도 측량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야말로 유수 같은 행운(行雲)이며, 무해(霧海)를 보지 않으면 실감이 나지 않는다. 구름이 산을 헤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산이 구름을 헤치고 남으로 갔다가 북으로 달리고, 모였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사라지는 착각이 드는데, 구름의 조화는 팔경 가운데 제일이다.

셋째, 칠색유홍(七色有虹): 일곱 빛깔의 무지개가 있다.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는 아침과 저녁이면 햇빛에 반사되어 떨어지는 비말(飛沫)에는 영롱한 7색의 무지개가 보인다. 선녀가 금시라도 타고 갈 수 있는 듯한 무지개다리가 놓여 지니 정말 진경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무지개가 하늘거리며 움직인다.

넷째, 홍해황엽(紅海黃葉): 붉은 단풍이 바다를 이루다. 가을이 되면 온 산천이 단풍으로 붉게 물들고 나뭇가지마다 누런 잎에 쌓여 골짜

기 마다 마치 알록달록 수놓은 병풍을 펼쳐 놓은 것 같은 광경은 정말 금수강산이다. 우수수 낙엽이 지고 붉게 몸을 단장하는 단풍나무는 설악산의 풍경 가운데 진경이다.

다섯째, 춘만척축(春滿躑躅): 봄이면 산에 진달래 철쭉이 가득하다. 대청봉 남쪽에 발달한 진달래와 철쭉 군락을 비롯하여 온 산에 백화가 피어서 봄 설악산을 장식한다. 이때 피는 진달래와 철쭉은 그야말로 등산객의 눈을 어리게 하여,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풍경이다.

여섯째, 월야선봉(月夜仙峰): 달밤에 보면 설악산의 봉우리가 신선과 같다. 가을밤 하늘이 맑아 달이 휘영청 떴을 때 설악산의 봉우리를 보면, 마치 기암괴봉의 모습이 춤추는 선녀 같이 보여 진경이라 할 수 있다.

일곱째, 만산향훈(滿山香薰): 향기가 산에 가득하다. 춘삼월부터 초목이 소생하면 그 향기가 산에 가득하여 바람이 불면 향긋한 냄새가 등산객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며 코를 찌른다. 특히, 대청봉, 화채봉, 오색계곡에 군생하고 있는 눈향나무 숲을 지나면 숲 향기를 만끽할 수 있다. 눈으로 보는 풍경도 좋거니와 코로 냄새를 맡는 것도 한층 더 흥취를 돋우어 주니 풍류의 하나이다.

여덟째, 개화설경(開花雪景): 눈꽃이 피어 경치를 장식한다. 겨울이 되면 설악산은 六花(눈의 딴 이름, 눈이 6각형이므로 그렇게 일컬음)로 뒤덮인다. 나무나 기암절벽에 눈이 쌓이면 온갖 형태의 눈꽃이 피어 절경을 지니게 되어 그야말로 묘경(妙景)이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대청봉의 송백(松柏)이나, 주목 같은 기이한 나무를 넣어서 9기(奇)라 하는 사람도 있으며, 8경에 진기한 짐승과 아름답고 고

운 소리로 노래하는 새들을 넣어 9경이라 하기도 한다. 그러한 아름답고 진기한 동물을 완상하는 것도 가히 진경이라 할 수 있다.

기괴한 경치를 보면 볼수록 대자연의 심오한 조화를 알아낼 사람이 누굴런지, 그저 묘한 풍경을 보면 삼매경에 자아를 잃고 선경에 있는 감회를 가질 뿐이다. 8경 역시 8기와 마찬가지로 설악산을 감상하는 또 다른 흥취를 주고 있다. 뭐든 알면 더 즐겁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성급한 총각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한 뱀 색시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진동1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이 설화는 우렁각시설화와 환토 곧 환생설화의 접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설화류에는 언제나 함께 개입하는 것이 금기이다. 완전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기까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금기가 있는 것이다. 금기는 깨면 문제가 된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산속에서 나무를 하며 사는 한 총각이 있었다. 그 총각은 가진 것도 없어서 장가갈 생각도 하지 않고 혼자서 나무만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총각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아주 작은 도마뱀 한 마리가 자꾸 총각한테 와서 안겼다. 저리 가라고 치우면 또 오고 치우면 또 오고하기를 반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총각은 뱀을 주머니에 넣고 와서 집에서 키웠다.

그렇게 세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총각이 그날도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집으로 오니 난데없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 밥이며 반찬이 아주 정갈하며 맛있게 상위에 차려져 있는 것이었다. 총각은 산에 올 사람도 없는데 이상하다고 하면서 차려놓은 밥을 배가 고프터라 맛있게 먹었다. 그 다음 날도 총각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역시 진수성찬이 밥상 위에 차려져 있는 것이었다. 그날도 총각은 차려진 밥상을 맛있게 먹었다. 속으로는

“참 희한하다.”

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밥을 먹은 것이다. 삼일 째 되는 날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왔더니, 또 그렇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것이었다.

총각은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날은 산에 나무하러 간다고 하고는 가지 않고 부엌 주변에 숨어서 지켜보기로 하였다. 그렇게 부엌 주변에서 몸을 숨기고 지켜보고 있다니까 총각이 나무를 해서 돌아올 쫘 되니, 부엌 한쪽에 키우고 있던 뱀이 스르르 허물을 벗기 시작했다. 그런데 총각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허물을 벗고 나온 뱀은 뱀이 아니라 아주 어여쁜 처녀인 것이었다. 그 처녀가 허물을 벗고나오더니 부엌에서 이것저것 음식을 만들어 차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왔다가 갔다가 하더니 어느 새 밥상 위에는 한 상 가득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그러고 나서는 또 다시 뱀의 허물을 뒤집어쓰고는 뱀이 되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날은 그냥 참고 모른 채하고 차려진 밥을 맛있게 먹었다.



다음날 총각은 또 산에 나무하러 간다고 하고는 부엌 옆에 숨어서
 뱀이 허물을 벗고 처녀로 변해 나오기를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뱀
 은 그 때가 되자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처녀가 되어 나와서 밥을 차
 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총각은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서 그 처녀를 붙
 들었다. 그리고는

“우리 같이 삽시다.”

하고 매달렸다.

총각이 그렇게 매달리자, 처녀는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조금만 더 참지. 내가 환토를 해서 사람이 되려면 며칠 더 있어야 하는데.”

라는 것이었다. 이어서 그 처녀는

“내가 며칠만 있으면 당신하고 천생연분이 돼서 같이 살 수 있는데, 미리 붙들어 금기를 어겼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라면서 슬픈 표정을 짓고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총각은

“그럼 다른 방도가 없소.”

라고 물었으나, 처녀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라며 눈물만 흘렸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처녀는 얼굴이 노랗게 변하면서 몸이 스스로 삭더니 뱀으로 변하면서 이내 죽고 말았다. 죽을 때는 도로 뱀이 되어서 죽었다. 총각이 며칠만 참았으면 여자가 뱀의 탈을 벗고 완전하게 사람으로 윤회를 해서 환토를 할 수 있었는데, 총각이 너무 성급한 탓에 모두 허사가 되고 만 것이다. (『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 <우렁각시>설화는 금기를 어겼지만 같이 살 수 있는 방도가 있었는데, 이 설화는 그렇지 못했다. 마지막에 총각이 금기를 지키지 않아서 둘은 인연을 이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설화는 대부분 금기를 깨고 실패하는 실패담으로 막을 내린다. 뱀이나 여우같은 이물(異物)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설화적 논리가 그대로 지켜진 것이다. 이런 논리는 설화에서도 항상 어떤 법칙처럼 지켜지고 있는 서사법칙이다. 이러한 서사법칙은 사람과 짐승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설화화자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나. 여우나 뱀 같은 흉측한 이물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런 법칙을 지키고 있다. 이 설화는 환토라는 화소를 사용해서 윤회전생의 논리를 접목 시켰는데도 그런 서사법칙을 고수했다. 그것은 결국 사람의 참을성 없음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보면 될 것이다. 조금만 참고 노력하면 일이 풀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당위론으로 귀결된 것이다.

송도령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남면 신평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신평리에서 어론리로 이르는 사이에 위치했고, 예전에 송도령십터라는 식당이 있었던 곳이다. 그 옆에 보면 기암절벽으로 이뤄진 산이 있는데, 이를 송도령이라 한다. 산은 기암절벽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어론리에서 신평리로 가다가 보면 금방 눈에 확 들어온다.

또한 철따라 변하는 산의 모습은 아름답기 그지없어서 지나는 길손들에게 감탄을 하게 만든다. 우리가 보는 산 절벽 위에는 아주 널따란 평지가 있고, 산 절벽을 오른 정상에는 마치 무당이 흰옷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과 같은 돌이 있고, 그 돌 앞에는 굴이 있어 이곳 사람들은 그 굴을 무당굴이라고 이른다.

산 밑에는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태평과 집집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매년 산신제를 지내는 산제굴이 있다. 이 산신제는 언제부터 지냈는지는 모르나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이곳에 전하는 송도령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이르면 멀리 소양호의 풍광과 설악산의 풍광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송도령의 원래 빼어난 풍광과 함께 그야말로 절승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남면 신평리에는 송도령이라는 젊은 총각이 살았다. 송도령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남처럼 글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천성이 착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원망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부모님을 향한 효성이 남달라 주변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있었다.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내게 되면 부모님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마을의 풍요를 앞장서서 언제나 빌었다. 그 때문에 마을에서는 송도령에 대한 생각이 아주 남달랐다. 나중에 착한 짝을 만나서 잘 살 것이라며 이구동성으로 송도령을 칭찬했다.

그는 어려운 가정에서 부모님마저 연로하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몇 배나 일을 하였다. 일을 하면서도 일을 힘들어한다거나 하기 싫어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워낙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산에서 나무를 해서 팔고, 산나물을 뜯고, 벼랑에 난 석이버섯을 따 팔아 연명을 하였다.

어느 날이었다. 나무꾼 송도령은 자신의 삶터이자 일터인 산중턱에 넓게 자리 잡고 있는 평탄한 들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니 석이버섯이 아주 많이 붙어 있었다. 송도령은 아주 기뻐했다. 저 석이버섯을 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그렇게 돈을 벌면 연로하신 부모님께 맛있는 것 따뜻한 옷 등을 사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송도령은 깎아지른 벼랑에 붙

은 석이버섯을 딸 궁리를 하였다. 그러다가 송도령의 생각이 머문 것은 밧줄을 매어놓고 밧줄에 의지해서 따면 될 것이란 것이었다. 송도령은 벌써부터 맛있는 음식을 드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다.



송도령은 얼른 집으로 달려가서 가장 길고 튼튼한 밧줄과 망태를 지게에 짊어지고 다시 산을 올랐다. 깎아지른 절벽 산을 오르는데도 전혀 힘이 들지 않았다. 송도령은 벼랑 위에 있는 튼튼한 나무에 밧줄을 묶었다. 그리고 망태를 밧줄에 매달고, 송도령도 밧줄에 의지해서 벼랑을 타고 내려갔다. 송도령은 밧줄에 몸을 의지한 채 벼랑에

붙어있는 석이버섯을 칼로 끊어 따기 시작했다. 얼마나 버섯이 많은지 금방 망태가 불룩해졌다.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그런데 송도령이 밧줄에 몸을 의지한 채 벼랑에 매달린 석이버섯을 딸 때였다. 아주 커다란 지네가 나타나서 송도령이 몸을 의지하려고 매어놓은 밧줄을 잡아대기 시작했다. 송도령은 지네가 밧줄을 잡아먹는 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네는 사그락사그락 소리를 내며 밧줄을 잡아 금방 송도령이 매달려 있는 밧줄이 끊어졌다. 송도령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채 높다란 벼랑 아래로 떨어졌다. 석이버섯이 가득 든 망태와 함께 송도령은 벼랑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그렇게 송도령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안 마을사람들은 송도령이 죽은 산을 ‘송도령’이라 부르게 되었다. (『인제군사』)

◆ **설화의 의미:** 열심히 살려고 하던 총각이 억울하게 죽은 안타까운 사연을 담은 이야기이다.

이 설화는 우리가 많이 듣는 지네 등장 설화의 또 다른 변이형태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네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이 이 설화 이해의 관건이다. 일상적으로 지네는 나쁜 의미를 담고 있다. 설화에 닭과 지네, 두꺼비와 지네의 싸움 등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닭과 지네는 상극이라 하는데, 우리 민속에 닭 그림을 그려 문 위에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닭의 부리로 액운이나 질병 등을 퍼뜨리는 잡귀나 부정한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를 정초에 그려 붙인다고 해서 세화(歲畵)라고 하는데, 닭과 지네가 등장하는 것은 닭의 부리로 지네를 물리치려는 것이다. 그

렇다면 지네는 우리 삶을 방해하는 재액, 부정, 비리를 가진 권력집단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착하고 부지런하며 동네에서 칭찬을 듣던 송도령을 시기하는 나쁜 어떤 사람이 여기서 지네로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이 설화는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것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동네사람들은 착한 이의 억울한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산의 이름을 송도령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술이 생긴 내력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술이 생긴 내력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이야기하고 있다. 조금은 무섭기도 하지만 술의 특성을 잘 살려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 **설화의 내용** : 옛날에 어느 효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효자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좋다는 약은 다 썼으나 도저히 낫지를 앓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효자는 어느 날 유명한 점쟁이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병을 낫게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 점쟁이는

“자네 아버지를 낫게 하는 약은 있는데, 자네 성미로는 약을 못 구해 드리네.”

라고 말을 했다. 효자는 점쟁이가 못한다고 하니까 괜히 오기가 생겼다.

“아버지 병이 낫는다면야 무엇이든 못하겠어요.”

하고 말하자, 점쟁이는

“그게 힘이 들어.”

하고 또 말했다. 효자는

“어떻게 힘이 들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라 하자, 점쟁이는

“구하기야 쉽지만, 힘이 들어 못 구하네.”

라며 포기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효자가 계속 물으니까 점쟁이는

“세 사람의 간을 요만큼씩만 떼어서 아버지께 드리면 병이 낫네.”

라고 하였다.

그래서 효자는 점쟁이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오기가 생겨서

“에이, 그까짓 거 어떤 놈을 잡든가 아버지 병만 낫게 하면 되지.”

라며 오기를 더욱 살렸다. 효자는 실천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영마루에 올라서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래도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효자는 영마루에 장사를 지낸 얼마 안 된 무덤을 파기로 마음먹었다. 나중에 엄청난 죄 값을 치르기로 하고 무덤을 찾아 다녔다. 효자는 드디어 세 곳의 무덤을 폼다. 그렇게 판 무덤 주인의 간은 순진한 아이의 간과 춤을 추며 노래하는 무당의 간과 미쳐 지랄하며 날뛰는 미친 사람의 간이 었다. 효자는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그들의 간을 조금 씩 떼어서 아버지께 갖다 드렸다. 그랬더니 정말 감쪽같이 아버지의 병이 말끔히 나았다.

그런데 아버지 병은 낫게 했지만 세 사람의 무덤을 파서 간을 얻은 것이 마음에 계속 걸렸다. 그래서 그 효자는 죽은 세 사람의 묘를 매

년 벌초를 해주고 제사를 잘 지내 주었다. 그렇게 매년 벌초를 해주는데 묘 위에 이상한 풀이 솟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었다. 바로 그게 누룩을 만드는데 밀이었다. 그래 효자는 가만히 그 밀을 데려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이 풀이 자라 열매를 맺은 것은 내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나를 이 풀을 먹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며 앉아서 그 풀을 데려다 보았다. 묘에서 생전 보지 못한 풀이 돌아 열매가 맺혔으니,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잘못을 했으니,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효자는 그래서 그 열매를 손으로 죽죽 훑었다. 다 훑으니 꽤나 양이 되었다. 그런데 효자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 죽더라도 집에 가서 아버지 한 번 더 보고 죽고 싶었다. 효자는 혼잣말로

“아버지 한 번 더 보고 식구들 한 번 더 보고 죽어야지.”

라며 그 열매를 훑어서 집에 갖다가 놔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열매를 생 겉로 먹으려니 그래서

“여보 이 열매로 밥을 좀 하오.”

하고 아내에게 부탁해서 밥을 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누구든 먹으면 안 된다. 이유는 묻지 말고 이걸 먹으면 큰일 나니까 먹지 말아요.”

하고는 아내가 해 놓은 밀밥을 복지개로 푹 덮어 놓았다. 자기는 죄가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가족들은 죽으면 안 되니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것이다. 그런데 그걸 먹고 죽으려니까 차마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침에 먹으려다가 못 먹고, 점심에 먹으려다가 못

먹고, 저녁에 먹으려다가 못 먹고, 그렇게 식구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죽겠다고 한 것이 사흘 나흘을 흘러 가 버렸다. 그러다 보니 밀밥은 발효가 돼서 그만 술이 돼 버렸다.

효자는 이제 양심에 걸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정말 그것을 먹고 죽기로 하였다. 그래서 술이 된 밀밥을 한 반 주발 정도 들이켰다.

“이만 하면 죽겠지.”

라며 그렇게 술을 먹고는 자리에 드러누웠다. 그러자 정신이 혼미해 지는 게 정말 죽기는 죽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바로 죽지는 않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기분이 몹시 좋아졌다. 기분이 좋아서 드러누워 있다가 잠이 와서 한잠자고 나니 죽지는 않고 그냥 멀쩡하게 깨어났다. 그래서 효자는

“야, 이게 그 정도 먹었으면 죽을 텐데 희한하구나. 희한해.”

하면서 아내에게

“남은 것을 모두 밥을 해 주시오.”

라며 부탁을 했다. 그런데 아내가 밥을 하면서 씨앗이 세 개가 남았다.

효자는 자신의 죄를 나라에 가서 고하고 나라에서 처벌을 하면 죽기로 했다. 효자는 나라에 가서 임금님께 자신의 죄를 낱알이 고했다.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모두 말한 것이다. 곧, 세 사람의 간을 내어서 아버지께 드려 병을 낫게 하고, 묘에서 난 풀씨를 먹고 죽으려고 밥을 해서 며칠을 놔두었다가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진 이야기까지 모두 했다. 그래 그걸 먹으니까 하도 신기하고 기분이 좋아져서, 이걸 나랏님께 맛이라도 보여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말을 했다. 그랬더

니 임금님은 겁이 나니까 먹지 않고 그 어느 정승을 주면서

“경이 먼저 맛을 보시오.”

하고 주었다. 그런데 효자가 나랏님께 바치려고 가져오면서 시간이 더 경과되어서 도수가 더 높은 술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 그 정승이 효자가 가져온 물건을 먹었다. 그런데 그걸 먹고 나니 죽으려고 그런지, 기분이 엄청 좋아지면서 세상을 다 주어도 싫을 정도였다. 그렇게 기분이 황홀해졌다가 깨어나는 것이었다. 그 정승은 임금님께 사실을 모두 이야기 했다.

그랬더니 임금님은

“그러면 그걸 만드는 종자가 있느냐?”

고 물었다. 효자는

“세 알이 있습니다.”

며 밀 씨 세 알을 내놓았다. 그러자 임금님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도록 장려를 했다. 그래서 심은 것이 밀이 돼 가지고 그것으로 국수를 해 먹고 누룩을 만들어서 술을 해 먹는 유래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인제 제일 첫 번째 술을 먹을 적에는 애들과 똑 같이 그냥 앉아서 떠들며 까불다가, 조금 더 먹으면 기분이 좋아서 무당처럼 춤을 추고 노래하며 놀다가, 더 먹으면 마지막에는 미친 사람처럼 아주 미쳐버리고 마는 것이다. (『인제군 학술답사보고서』)

◆ **설화의 의미** : 술이 생긴 내력이 재미있게 잘 만들어졌다. 술이란 참으로 좋은 것인데, 과하면 안 된다는 교훈까지 주는 그런 설화이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특성을 살려 이야기를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술을 먹으면 말이 많아 서로 떠들다가, 취하면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는 모습, 그리고 아주 많이 취하면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싸우고 하는 미친 짓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효자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화소를 첨부한 것이다. 이처럼 술은 참으로 좋은 음식인데 너무 과하게 마시지는 말아야 함을 잘 설명한 설화이다.

시어머니 길들이기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제목이 <시어머니 길들이기>라 하니 며느리가 불효하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며느리를 자꾸 내쫓는 시어머니를 지혜로 꾀잡 못하게 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뤘다는 일종의 지혜담이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인제군에 시어머니가 아들이 며느리를 맞아들이기만 하면 못살게 굴어서 내쫓는 시어머니가 있었다. 아들이 장가를 들어서 살려고 하면 잠자리도 못하게 할뿐더러 사사건건 간섭을 엄청나게 하였다. 그렇게 간섭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양반집인데 중인집의 며느리가 와서 양반의 법도를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의 아들은 두 번 장가를 들었으나 두 번 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등쌀에 살지 못하고 도로 친정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집의 아들은 아무리 꾀를 내어도 도저히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나이 많은 처녀가 있었다. 처녀 집

에서는 딸을 시집을 보내야겠는데 마땅히 보낼 곳이 없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부모들이 허락을 해야만 시집을 갈 수 있는 시절이었다. 그런데 시집은 가야하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 처녀의 부모는 걱정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의 부모는 딸을 불러놓고 말을 했다.

“너도 이제 시집을 가야 하는데, 너는 생각하는 남편감이 있느냐?”

라고 묻자, 그 처녀는

“저는 저 앞의 저 집으로 시집을 갈래요.”

라는 것이었다. 부모들은 놀라면서

“저 집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만 얻으면 못살게 굴어서 내쫓고 하는데, 네가 저 집에 시집을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며 말했다. 그래도 그 처녀는

“난 그래도 그 집에 시집을 갈래요. 보내 주세요.”

라는 것이었다. 부모들이

“그럼 네가 그 집에 가서 잘 살 자신이 있느냐?”

라 하자, 처녀는

“예, 잘 살 수 있어요.”

라 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부모도 딸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래서 그 처녀는 그 양반집으로 시집을 갔다. 처녀가 그 집에 시집을 가니, 아님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했다. 천한 집에서 시집을 와서 양반집의 법도를 모른다면서 한 시도 가만 두지 않았다. 그때 며느리는 생각하기로 시어머니를 민망하게 해서

기를 꺾어야 집안이 편하고 자신도 이 집에서 계속 살 것 같았다.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보니 변소가 하나였다. 변소가 한 곳인데 그곳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똥오줌을 누는 것이었다. 며느리는 잘 됐다 싶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다.



“어머니, 어떻게 양반집에 변소가 하나예요. 남자 여자 구별도 없고 말이에요.”

라 하자, 시어머니는

“그게 뭐 어떻다는 말이야?”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그러자 며느리는

“아이고, 어머니, 변소가 하나다 보니, 민망하게도 시아버지도 여기서 엉덩이를 까고 똥을 누고, 시어머니도 엉덩이를 까고 똥오줌을 누고, 며느리도 엉덩이를 까고 똥오줌을 누고, 아가씨도 엉덩이를

까고 똥오줌을 누고 있는데 이게 양반 체면에 말이나 됩니까?”

라며 한 마디를 했다. 그러자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자리를 피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시어머니는 사람을 시켜서 변소를 각자 따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그 집 조상의 제사가 돌아왔다. 제사를 정성껏 준비해서 제상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다. 그때 시아버지가

“아가야, 제상에 간장이 없지 않느냐?”

라며 간장을 놓지 않은 것을 말하며 간정을 놓으라고 말했다. 그래서 며느리는

“아버님, 집안에 간장을 찾으니 글썄 간장이 없지 뭐예요.”

라 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저 장독에 큰 간장 항아리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라며 의아해 했다. 그러자 며느리는

“아이고, 아버님, 정성을 다해야 하는 조상의 제사에 우리가 매일 떠먹던 부정간장을 어떻게 올려요.”

라며,

“그럼 제가 우리 친정에 가서 따로 담가놓은 간장을 가져오지요.”

라며 얼른 친정에 가서 간장을 가지고 왔다. 사실은 그 간장은 친정에서 매일 먹던 간장이었다. 그렇게 며느리가 간장을 가져와서 제상에 올리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며느리게 완전히 약코가 죽고 말았다. 양반집이라며 온갖 허세를 부리던 체면이 말이 아닌 것이었다.

그 이후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또 시기와 투정을 부리면 또 다른 것을 생각해내며 재치를 발휘해서 화목하게 집안을 이끌며, 잘 살았다. (『인제군 학술조사보고서』)

◆ **설화의 의미** : 정말 훌륭한 지혜담이다. 설화 화자는 마지막에 “한평생의 인간사는 모두 자기가 하기 나름이고, 수단에 달렸어. 천지간의 이치가 그런 거야.”라며 이야기를 끝맺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행위부터 돌아보고,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생각을 잘 하면 벗어날 길이 있는 것이다. 양반치레만 할 줄 알았지, 남에 대한 배려나, 자신의 일도 제대로 못하는 시어머니를 며느리의 지혜로 잘 해결한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새길 것이다.

시험에서 통과해 하늘에서 살게 된 나무꾼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서2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무꾼과 선녀>이야기의 변이형태로 보면 된다. 설화의 화자가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모아서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한 것이다. 청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새로운 이야기로 재미있게 들을 수 있다. 그럼 나무꾼의 행적을 쫓아서 가보도록 하겠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촌에 나무꾼이 한 명 살고 있었다. 그 나무꾼은 산에 가서 지게를 띄하니 작대기로 고여 놓고 나무를 했다. 나무를 해서 발골에다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하얀 사슴 한 마리가 갑자기 뛰어오면서

“살려주시오.”

하고 말을 했다. 그때는 짐승도 말을 하던 시절이었다. 그래 사슴을 나무더미 뒤에 감춰놓고 있으니, 이어서 포수가 활을 들고 쫓아왔다.

“여기 사슴 가는 것 못 봤소.”

하고 물으니, 나무꾼은

“아, 나는 나무 하느라 사슴 가는 것 못 봤소.”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 나무꾼은 사슴을 살려줬다. 포수가 지나가자 백사슴이 나와서 말하기를

“나를 살려줬으니, 내가 당신에게 공을 갚겠소.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하였다. 나무꾼은

“어떻게 하는데?”

라고 물으니, 사슴은

“당신은 아직 총각인데, 장가부터 들어야 살림이 이니까 장가부터 들게 해주겠소.”

라 했다. 나무꾼이

“그래, 그럼 어떻게 하느냐?”

라 하니 사슴이

“집에 가 있다가 아무 날이 되면 연못으로 나오세요. 연못에 나오면 하늘에 있는 선녀들이 목욕을 하러 올 것입니다. 그때 선녀의 옷을 감추고 같이 살자고 하시오.”

라고 일러 주었다.

사슴이 일러준 날이 되어서 나무꾼은 연못으로 슬슬 나가 보았다. 그랬더니 정말 선녀들이 연못에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나무꾼은 얼른 선녀의 옷 하나를 감추었다. 옷을 감춰놓고 있으니, 다른 선녀들은 목욕을 하고 날개옷을 입고 모두 하늘로 날아올라 가는

데, 옷을 잃은 선녀만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나무꾼은 선녀에게

“나하고 살면 옷을 줄 거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선녀는

“그럼 같이 삼시다.”

라고 허락을 했다. 그래 선녀가 그 나무꾼 총각을 따라가니 남의 집 머슴을 사는 터라 집도 세간살이도 아무도 없었다. 선녀는 조화를 부려서 금방 팔작기와집을 짓고는

“여기서 같이 살자.”

라고 해서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런데 사슴이 나무꾼에게

“아이들 넷 나올 때까지는 절대 옷을 주지 마시오. 옷을 주면 하늘로 날아올라 갑니다.”

라며 신신당부를 하였다. 선녀가 아이를 하나 낳고서는 옷을 달라 하나 주지 않았고, 둘 낳고서도 옷을 달라 하고, 셋 낳고서도 옷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아이들 이렇게 낳고서 잘 사는데, 내가 왜 올라갑니까.”

라며 안심을 시켰다. 나무꾼이 생각해 보니 아이 셋이면 못 올라갈 것 같았다. 그래서 아내가 워낙 원하니 그만 옷을 주었다. 그랬더니 선녀는 아이 하나는 등에 업고, 둘은 양쪽 겨드랑이에 끼고 그만 하늘로 올라가고 말았다. 그러고 선녀가 조화를 부려 지어두었던 팔작기와집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나무꾼은 순식간에 집도 아이도 잃고 강변에 나앉았다. 그래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전에 나무하던 곳에 올라가서

“백사슴, 백사슴”

하고 자꾸 사슴을 불렀다. 한참 후 사슴이 나타나자, 나무꾼은 사슴에게 사실을 말했다.

“나는 아이 셋 낳으면 못 올라갈 줄 알고 옷을 찢었는데, 그만 하늘로 올라갔으니, 난 어떻게 살아.”

라 하니, 사슴이

“그것 참 안 됐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라며 귀 뒤에서 박씨를 하나 꺼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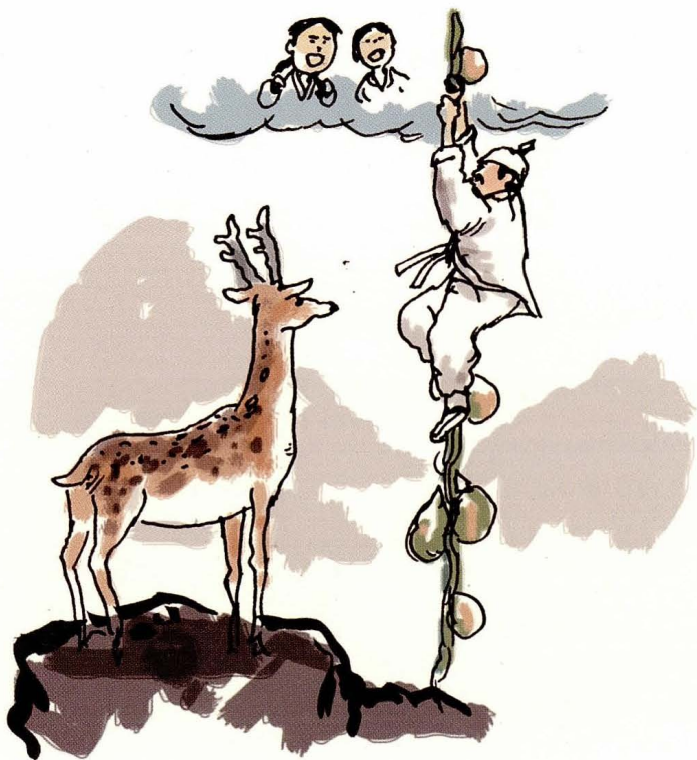
“이 박씨를 가서 심으시오. 그러면 며칠 안으로 하늘로 줄기가 뻗쳐오를 것이니, 이걸 타고 오르시오. 오를 때 아이들이 막 우는 소리가 날 건 데, 아무리 아이들 소리가 나도 절대 아래를 내려다보면 안 됩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박줄이 끊어져서 떨어지게 됩니다.”

라며 당부를 하였다. 그래 나무꾼은 사슴이 준 박씨를 심었더니 정말 금방 자라서 하늘에 줄기가 닿았다. 나무꾼은 그 박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로 오르는 중에 정말 자기의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아주 요란스럽게 났다. 얼마나 심하게 부르는지 안 내려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설마 박줄이 떨어지겠냐고 생각해서 나무꾼은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랬더니 정말 자기가 타고 올라가던 박줄기가 툭하고 끊어지며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나무꾼은 또 하얀 사슴을 찾아갔다.

“백사슴, 백사슴”

하고 부르니, 사슴이 나타났다.



“그것 보시오. 내가 시킨 대로 하라했더니, 이젠 다시는 내려다보지 마시오.”

라며 박씨를 또 하나 뒷등에서 꺼내 주었다. 그래 그 박씨를 심으니 또 금방 하늘로 치솟았다. 나무꾼은 박줄기를 타고 또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번에도 아이들이 너무나 처량하게 막우는 소리가 아래에서 났다. 도저히 아이들 소리를 외면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나무꾼은 또 사슴의 당부를 어기고 아이들이 올

부짚는 소리가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또 나무꾼이 타고 올라가던 박줄기가 툭하고 끊어지고 말았다.

땅에 떨어진 나무꾼은 이번에도 사슴을 찾아갔다. 사슴을 애타게 부르자, 사슴이 나타났다. 사슴은 나무꾼을 보고는 또 하나의 박씨를 귓등에서 내어주면서

“나는 이 박씨 때문에 사는데, 이거 하나 빼주면 나는 죽는다. 그리고 이번에도 못하면 당신도 끝ियो.”

라며 말을 했다. 사슴은 이어서

“내가 가진 박씨는 세 개인데, 세 개를 다 빼주면 난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또 이번에도 실패하면 당신도 하늘에 못 올라갑니다. 나는 죽어도 당신이 먼저 사냥꾼으로부터 나를 숨겨줘서 몇 해를 더 살았으니 그 공을 잊지 않고 이것 마주 주겠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꼭 성공하시오.”

라며 박씨를 나무꾼에게 건네주고 사슴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거두었다.

나무꾼은 사슴이 준 박씨를 심어 하늘에 뻗치니까, 그걸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이번에는 마지막이니 아주 기를 쓰고 올라간 것이다. 하늘에 올라가니 신선인 장인 장모를 비롯해서 자기의 아내, 처형 뭐 해서 다들 있었다. 그래 나무꾼이 하늘에 오르자 장인 장모가

“어떻게 인간이 이곳 신선이 사는 곳에 올라왔냐?”

라며 의아해 했다. 그러자 나무꾼은

“그냥 올라왔습니다.”

라며 사슴이 가르쳐준 대로 올라왔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

자 장인 장모는

“하, 어쨌든 인간이 이곳까지 올라왔다니 기술이 좋으니까 됐다. 그런데 네가 나하고 세 가지 내기를 해서 마주 맞춰야 완전한 사위가 된다.”

라며 내기를 걸었다.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 신선들이 하는 내기를 맞출 수 없었다. 조금 있으니

“나 찾아봐라.”

라며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무꾼은

“자,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고는 자기 마누라한테 가서

“나는 어디 간지 모르니 도와주소.”

하였다. 그러자 마누라는 자신이 시킨 대로 하라며

“저 똥간에 가서 발길로 똥통을 탁 차며 아 장인이 될 게 없어 똥간에 와있냐고 하면 돼요.”

하기에, 그대로 했더니, 장인이

“허허, 사위도 용하네.”

라 하며 장인이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인이 사라지며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래 가만히 있으니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라며

“저기 닭장에 가서 수탉이 돼 있으니까, 수탉을 발로 차면서 장인을 욕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래 나무꾼이 닭장에 가보니 수탉이 하나 있기에 발로 차면서

“아, 장인 될 게 없어서 수탉이 됐소.”

라 하자, 장인은 변하면서

“아, 용하긴 용하다.”

라며 나왔다. 그래 장인이

“이제 내 마지막으로 할 테니까, 자네가 먼저 숨어보게.”

라 하였다.

그 집에서는 자기 마누라인 셋째 딸이 가장 기술이 좋고 똑똑했다. 아무도 셋째 딸을 당하지 못했다. 그래 마누라가 조화를 부려서 남편인 나무꾼을 숨겼다. 그래 장인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었다.

“아, 못 찾겠네. 사위 나오게.”

라 하자, 나무꾼인 사위는 마누라가 베를 짜는 북틀이 되어서 숨어 있다가 나오면서

“내가 여기 있는데 몰랐지요.”

라 했다. 장인은

“참, 용하긴 용하네.”

라며

“내가 화살을 쏴 테니 먼저 찾아와야 하네.”

라며 공중에 대고 화살을 쏘았다. 그러자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화살을 찾으러 갔다. 나무꾼은 화살이 날아간 방향만 보고 화살을 찾으러 뛰어갔다. 그런데 뭔가 머리 위로 날아가기에 보니, 매, 까마

귀, 수리 세 마리가 화살을 찾아 가는데, 보니 까마귀와 수리는 매보다 빠르지 못했다. 자세히 보니 수리는 자기 큰 처형이고 까마귀는 둘째 처형이고 매는 자기 마누라였다. 매로 변한 마누라가 화살을 먼저 찾아 물고 와서 내기에 이겼다.

그러자 이번에는 장인이 사위에게 이런 내기를 했다. 장인이 말하기를

“저기 가면 쥐나라가 있는데, 쥐나라에 가면 그 물로 만든 다듬잇돌이 있다. 그 다듬잇돌을 가져와야 하는데, 우리 기술로는 가져올 수 없으니, 사위가 가서 가져와라.”

했다. 그래 나무꾼은 자기 마누라한테 가서 장인이 건 내기를 얘기했다. 그러자 마누라는

“그럼 쥐왕이 사는 곳이 어디인지는 가리켜주겠소. 그러나 나도 못 가져왔는데, 쥐왕에게서 그 다듬잇돌을 가져올 수 있는지 모르겠소.”

라 하자, 나무꾼은

“그곳까지 가게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쥐왕이 사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 가니 보초가 서 있다가 길을 가로 막았다. 그래서 나무꾼은

“내가 쥐왕한테 있는 다듬잇돌을 가지러 가니, 일단 들여보내만 줘라. 나을 때 나를 죽여도 좋다.”

라며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나무꾼은 장인에게 죽으나 쥐왕에게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안에서 쥐왕이 누군지 들여보내라고 하였다.

그래 쥐왕이 있는 궁궐로 들어가니 다듬잇돌이 있었다. 그래 보니 그 쥐가 자기가 아는 쥐였다. 나무꾼이 있는 부엌에 찾아오는 쥐가 있어 밥을 쥐서 먹여 보냈는데, 그 쥐가 어떻게 해서 쥐왕이 되어 있는 것이었다. 쥐왕은 나무꾼에게 다듬잇돌을 내어주고 길을 가게 해 줬다. 그렇게 해서 다듬잇돌을 가져와서 사위로 인정을 받고는 하늘 나라에 있는 신선인 장인이 내주는 문제를 모두 맞추었다. 그래 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한다. (『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이야기가 전형적인 민담의 형태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무꾼과 선녀>이야기에 화소를 첨가시켜 새롭게 만든 것이다. 그 화소는 장인에게 사위로써 인정을 받는 장면인데 내기의 형태로 주어졌다. 나중에는 하늘 신선들도 할 수 없는 쥐왕에게 가서 무엇이든 다 나오게 하는 다듬잇돌을 가져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야기의 중요한 실마리에는 사슴을 도와준 보은담, 쥐에게 밥을 쥐서 길러준 보은담이 첨가되어 있다. 이로 보면 이 이야기는 인간이면 누구나 바라는 이상향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남을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모름지기 서로 도우면서 살 일이다.

신랑을 살리고 부자 된 머슴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서2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귀신>설화의 형태이다.

◆ 설화의 내용 : 옛날에 총각인 부잣집 아들이 있었다. 그 부잣집 아들 총각은 남의 이야기를 듣기를 무척 좋아하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졸라서 듣고는 하였다. 그렇게 남이 한 이야기를 들어서는 종이에 싸서 화장실 천장에 매달았다. 그런데 그 총각은 남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데 들었던 이야기를 남에게 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남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부잣집 아들 총각은 장가를 가게 되었다. 장가를 가기 전날 부잣집의 하인이 화장실에 가게 되었다. 그날따라 하인은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게 있었는데, 한참을 있다가 보니 어디서 두런두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은 이상하다면서 화장실에서 들리는 대화소리를 듣

고 있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보니 대화의 주인공은 바로 화장실 귀신이였다. 총각이 남의 이야기를 듣고 담아놓은 봉지가 오래되어서 화장실 귀신이 된 것이다. 화장실 귀신은 장가가는 신랑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였다.

“저 놈이 우리를 가두어만 놓고는 남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으니, 우리가 차라리 저 놈을 죽이자.”

라고 한 귀신이 말하자.

“그래 좋다”

면서 다른 귀신들도 동조를 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이지?”

라고 한 귀신이 말하자,

“내일 저놈이 장가를 들려고 색시 집으로 갈 때 죽이면 되지. 내일 날씨가 해가 찢찢 내리쬐어서 더위가 심할 것 아니냐. 분명 길을 가다가 물을 찾을 것이니, 내가 샘에 독을 풀어 그 놈이 물을 마시면 죽게 만들면 되지.”

라고 한 귀신이 말했다. 또 한 귀신이

“그래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 하자,

“그러면 내가 길가에 있는 복숭아에 독을 풀어서 그놈이 먹으면 죽게 만들면 되지.”

라 하였다. 또 그 옆에 있던 귀신이

“그래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하지.”

라 하자, 그러면

“그놈이 전안을 할 때 방석에 독이 든 천침을 넣어 찔려 죽게 만들면 되지.”

라고 했다.

이런 귀신의 얘기를 화장실에서 들은 하인은 내일 주인집 신랑이 갈 때 말고삐를 자기가 잡고 가기로 하였다. 주인집에서는 신랑의 말고삐를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잡아 달라고 부탁을 해 놓은 터였다. 하인이 워낙 더럽고 추잡스러워서 말고삐를 잡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래도 그 하인은 끝까지 우겨서 신랑의 말고삐를 잡고 가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말을 타고 가던 신랑이 길가에 난 샘을 보더니 하인에게 말을 멈추게 하고 샘물을 먹으려고 했다. 그때 하인은 얼른 가서 그 샘물에 말을 넣어서 비비면서 흙탕물을 만들어 신랑이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신랑은 하인에게



“이놈의 새끼 못 따라오게 했더니 우겨서 오더니 물도 못 마시게 하는구나.”

라며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투덜거렸다. 또 길을 가다가 보니 목이 마른 신랑 앞에 먹음직스런 복숭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신랑은 하인에게 시켜서 그 복숭아를 따오게 하였다. 하인은 복숭아나무에 가서 복숭아를 한 아름 따오더니 거의 다 와서는 복숭아를 모두 땅에 대고 쳐 깨서 먹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신랑은 또

“저 놈의 새끼 또 그러네.”

라며 하인에게 막 욕을 퍼부었다. 그래도 하인은 못 들은 체하고는 말고삐를 잡고 신부집까지 왔다. 그때 신랑이 방에 들어 막 방석에 앉으려 하자 하인은 신랑을 갑자기 휙 떠밀어 밀쳐냈다. 그리고 나서 하인은 방석을 들고 신랑에게 보여주었다. 방석에는 수많은 독침이 가득 꽂혀 있었다. 신랑이 그 사연을 하인에게 묻자 하인은 화장실에 있던 귀신의 얘기를 엿들은 것부터 그동안의 과정을 모두 신랑에게 얘기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잣집은 하인에게 아들을 살린 은인이라 하여 가진 재산의 반을 주어서 잘 살게 되었다. 그리고 남에게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남에게 말하지를 앓던 신랑은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듣는 족족 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다른 지역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귀신>이라는 설화와 아주 흡사함을 볼 수 있다. 이야기가 널리 회자되기를 바라면서 설화 화자들이 말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널리 사람의 입을 통

해서 먼저 나갈 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다.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말 하지 않으면 이야기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다. 남의 좋은 일을 들었으면 말을 해서 그를 선양하고, 남의 억울함이나 딱한 사정을 들었으면 남에게 말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말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공동체로서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다. 말하기의 중요성을 설화 화자들은 이렇게 한 편의 설화로 만들어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아기장수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에서 전승하던 설화이다. 이 야기의 장소는 인제군 남면 김부리이다. 지금은 상남면으로 옮겨갔고, 육군과학화부대가 들어서서 민간인은 한 명도 살지 않는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김부리에는 진(眞)부대왕이라는 분이 와서 살고 있었다. 그 왕이 거기 와서 피난을 하실 땐데, 그곳에는 연적봉, 노적봉, 문필봉이 있고, 왕이 수레를 타고 넘었다는 수레넘이도 있다. 또 그곳에 가면 장사가 난 곳과 바위를 쪼았다는 장군석이라는 곳이 아직도 있다.

그곳에 어떤 부부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중이 와서 하룻밤 자자고 하였다. 그래 부부는 자고 가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튿날이 되자 그 중은 또 와서 자고 가자고 했다. 그렇게 그 부부집에서 밤에 자기를 사흘 되던 날에는 달걀 두 알만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부부는 그 중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다름이 아닌 산자리를 보는 도인의

로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계란을 하나는 삶아서 주고 하나는 생으로 주었다. 그리고 부부는 밤에 그 중을 유심히 지키고 있다가 보니, 아 니나 다를까 한밤중 넘으니까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 갔다. 그래 그 뒤를 거리를 두고 따르니 뒷산으로 올라가더니 어느 잔등에 달걀을 파묻고는 앉아 있더니

“닭이 올게 됐는데, 닭이 올게 됐는데.”

하더라니까, 닭이 하늘에서

“꼬끼오.”

하고 울었다. 그러자 그 중은

“그 희한하다. 여기에도 올겠는데.”

하면서 기다리고 있더니,

“이만 하면 됐다. 한 마리라도 올었으니.”

라며 산을 내려왔다. 삶은 달걀을 주었으니 한 곳은 울지 않은 것 이다.

이튿날 부부가 산으로 올라가보니 달걀을 묻었던 곳이 그대로 있 었다. 그래서 할아버지 산소를 파서 그곳으로 이장을 했다. 며칠이 지난 후 그 중이 또 찾아왔다. 그러면서 자기가 잡아두었던 자리에 누가 묘를 썼냐고 하기에, 이 부부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썼다고 하였 다. 그러자 그 중은 자기가 30년을 찾아다녔는데, 하면서 아쉬워했 다. 그러면서

“어느 날이 되면 아이가 태어날 텐데 장사가 날 것이오. 이 애가 난 지 일주일만 되면 내가 올 테니 그때까지는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있다가 나를 주시오. 나를 안 주면 큰일을 치를 것이오.”

라며 부탁을 하고는 갔다.

그런데 정말 그때가 되니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는 사흘이 되니 막 날아다니고 하였다. 그래서 아이를 자세히 보니 양쪽 겨드랑이에 날개가 나 있었다. 아이를 붙잡아 두면 확하고 날아서 윗목으로 가고 또 붙잡아 두면 날아서 아랫목으로 가고 하였다. 그럭저럭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지 일주일이 되었다. 그래 그 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한 나절이 되어도 저녁때가 다 되어도 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부는

“에이, 이 잡놈이 속인 가보군.”

하면서 아이를 붙잡아서 암반으로 놀리고 팔 석 섬을 올려놓으니 아이가 죽었다. 죽은 아이를 막 뒷산에 가서 파묻고 돌아오는데, 그때 중이 헐레벌떡 왔다. 그러면서

“아이 어쨌소.”

하고 묻기에,

“아이 안 나왔소.”

라고 하였다. 그러자 중은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아이를 죽인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더니

“앞으로 장사아이가 또 태어날 것이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훌쩍 날아서 다른데 가서 역적이 될 것이요. 그러면 당신들 사족, 오족 멸할 테니 그런 줄 아시오.”

라며 중은 화가 나서 말을 했다.

부부는 중을 보고

“그러면 장사 안 나는 방법이 있소.”

하고 물었다. 중은

“방법이야 있소. 저기 저 장군석을 정으로 쪼아 깨면 되지요.”

하였다. 부부는 또 장사가 날까 봐 겁이 나서 얼른 정을 가지고 가서 장군석 끝을 쪼았다. 장군석의 끝이 깨어지면서 그곳에서는 붉은 핏물이 쑥 빠져 나왔다. 그러자 그 중은

“이제는 그곳에 맘대로 묘를 쓸려면 쓰시오. 효험이 없을 것이요. 아깝구려.”

하면서 훌훌 길을 떠나갔다. 정말 그 다음부터는 장사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신기하게도 큰 바위 끝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붉은 핏물 같은 것이 내려와서 바위를 붉게 물들여 놓았다. (『인제군 학술답사 보고서』)

◆ **설화의 의미** :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들어보았던 아기장수전설이다. 그러나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전승하는 것이 아니라, 전승하는 이야기의 단편을 모아서 완벽한 서사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용마가 나와서 울다가 물에 빠져 죽어서 용소를 이뤘다는 화소만 빠졌다. 아기장수가 살았으면 개혁을 이뤘을 것이라는 아쉬운 단락도 구체적으로 들어나지는 않았으나, 스님의 대화에서 은근하게 비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구비전승물이다 보니 이야기를 구연하는 화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풍수담으로부터 아기장수전설, 그리고 부자 망한 전설의 화소까지 두루 갖춰서 한 편의

이야기를 무리 없이 형성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구연설화임을 알 수 있다.

아버지 원수 갚기 위해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쓴 아들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서2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일반적인 호랑이담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아들이 호랑이에게 물려가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대담함을 볼 수 있다.

◆ **설화의 내용** : 옛날에는 호랑이가 무척 많았고 그 피해도 컸다. 위낙 호랑이가 많아서 저녁만 되면 호환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호랑이를 피하려고 대문도 몇 개 해 달고, 두꺼운 송판을 문에 다 덧붙이고, 장작개비로 문 앞에다 발을 해 달기도 하였다. 그리고 호랑이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알고 방어하기 위해서 방울을 달아서 미리 알기도 하였다.

인제에 포수가 한 명 있었는데, 아들 하나를 두고 마누라와 세 식구가 같이 살고 있었다. 그는 짐승을 잡아 생계를 이어 갔는데, 어느 날은 짐승을 잡으러 가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사냥을 나갔다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하고 둘이 있다가 아버지 생각도 나고 해서, 호랑이에게 원수를 갚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냥 가서는 너도 죽으니까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아들은 그날부터 총 쏘는 기술을 터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훈련을 한 지 한참이 지나자 아들은

“어머니, 제가 아버지 원수를 갚으러 가겠습니다.”

라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네 아버지는 그렇게 총을 잘 쏘는데, 호랑이에게 죽었다. 네가 가서 어떻게 성공하고 오겠느냐?”

라며 만류를 했다. 그러자 아들은

“아, 그래도 아주 자신 있습니다.”

라며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어머니는

“그럼 내가 너의 실력을 시험해 보겠다. 그것을 통과하면 가라.”

라고 했다.

“뭔데요.”

라고 아들이 물으니, 어머니는

“저기 저 멀리 물둥이를 이고 가는 종아이의 따리를 맞춰봐라. 종아이가 맞아도 안 되고 물둥이가 맞아도 안 된다. 반드시 따리만 맞춰야 한다.”

라 하자, 아들은

“그거야 쉽지요.”

하면서 총을 들어 바로 쏘자 정말 물둥이를 이고 가는 따리만 맞혔

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그러면 이제 가 봐라.”

하고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아들은 총을 메고 호랑이를 잡으러 산속으로 들어갔다. 한 골짜기에 가니 깊은 산속에 집이 한 채 있었다. 그 집에 들어가니 어떤 여자가 혼자 살고 있었다. 그래 아들은 이곳까지 온 사연을 말했더니, 그 여자는

“요 앞의 골짜기에 가면 호랑이가 몇 천 마리인지 모르게 많은데, 그곳에 가면 조심해야 합니다. 백호가 오래 돼서 둔갑을 하는데, 할머니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하니 절대 속지 말아야 해요. 저기 저 양지쪽에 가면 그 백호가 사람으로 변해 있을 건데 백호가 뭐 별 걸 다하더라도 속지 말아야 해요.”

라며 일러 주었다.

정말 아들이 그 골짜기로 가니 양지쪽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 있다가 그 아들을 보고

“야야, 너 어디 가니. 여기 와서 내 머리에 이 잡아다오.”

라고 하자, 아들은

“아, 내가 여기까지 온 기, 너 머리에 이나 잡으러 온 줄 아나?”

라며 총을 쏘았다. 그러자 그 할머니는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며 재주를 보였다. 그러자 총을 여러 발 연달아 쏘자 총알을 피하지 못하고 맞아 죽었다. 정말 죽으면서 할머니가 커다란 백호로 변하였다.

아들은 죽은 호랑이 가죽을 벗겨 들고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굴이 있는데, 굴속으로 들어가니 죽은 사람의 백골이 가득

쌓여 있고, 얼마나 포수를 많이 죽였는지 총도 수백 자루가 세워져 있었다.

그래서 죽은 포수의 아들은 피를 써서 호랑이 무리를 잡기로 했다. 그러고는 자기가 잡은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쓰고 호랑이 어미 흉내를 냈다. 그랬더니 의외로 호랑이들이 순순히 속았다. 저녁이 되자 수백 마리의 호랑이가 굴속으로 들어왔다. 아들은 호랑이 어미 흉내를 내면서

“너들이 이렇게 사냥 나가서는 짐승을 잘 못 잡고 하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쉽게 짐승을 잡아 살아갈 수 있다.”

라며, 모든 호랑이에게 총을 하나씩 집도록 했다. 그러고는 총을 장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총 쏘는 방법을 알려준다며 총구를 모두 목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게 하였다. 일제히 목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니 한 번에 호랑이를 다 잡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호랑이를 다 잡았다.

그러고 돌아가신 아버지 총과 백골을 찾으려니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총이 여러 개 쌓인 곳에 가서

“우리 아버지 총 나와라.”

라고 하자, 총 한 자루가 옆으로 벌떡 쓰러졌다. 총을 챙기고는 백골이 쌓인 곳에 가서

“우리 아버지 백골 나오시오.”

라 하자, 백골 하나가 앞으로 굴러 나왔다. 그래 백골과 총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 기간이 수년이 지나서 집에 오니 어머니가 벌써 늙어 백발이 되어 있었다. 아들을 보자 반가워서 엉엉 울었다.

그렇게 아버지 원수를 갚고는 집에 와서 잘 살았다. (『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 아주 재미있는 설화이다. 통쾌하기까지 한 설화의 내용인데, 설화에 나오는 호랑이가 진짜일 수도 있지만, 호랑이는 보통 권력을 가진 사람을 비유하기도 하여 설화로 회자되기도 한다. 여기 나오는 호랑이가 권력을 가진 못된 관리인 탐관오리를 말한다면 더욱 통쾌한 것이다.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백성을 못살게 하고 피골을 빨아먹는 탐관오리를 벌한 것을 설화 화자가 이렇게 비유하여 말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어사 박문수에게 바른 말 한 사람

◆ **설화의 위치**: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이야기는 박문수 같은 높은 관리에게 미친 척하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올바른 말을 한 사건이다.

◆ **설화의 내용**: 옛날에 박문수 어사가 인제에 온다고 해서 백성들은 어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사가 올 길을 나가서 빗자루를 들고 쓸고, 길 옆 나무들을 치면서 분주하게 보내고 있었다. 그때 박문수 어사는 거지차림을 하고 그 길을 오고 있었다. 백성들이 깨끗하게 쓸고 닦아놓은 길을 오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땀을 흘리면서 빗자루를 들고 길을 쓸고 하는데, 한 사람은 아주 꺼득 대면서 일도 하지 않고 빈정빈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사 박문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마디 했다.

“아, 여보시오. 요즘 농촌에서 일손이 달려 많이 바쁠 텐데, 왜 이렇게 모두 나와서 길을 닦고 그러시오.”

라며 자신이 어사라는 것을 속이고 시침을 뚝 떼고 말을 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길도 쓸지 않으면서 빈정대던 사람이 앞으로 나오면서 엉뚱하게 한 마디를 했다.

“뭐, 어산지, 개똥인지, 열두 칸 집을 질 놈인지. 그 놈이 온다고 하니 이렇게 바쁜데 나와서 쓸데없이 길을 닦잖아요.”

그 말을 들은 박문수 어사는 난감했다. 자신이 어사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사에게 욕을 하는 사람을 어쩔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어사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길을 닦수.”

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열두 칸 집을 질 놈인지, 그런 놈이 온다고 그래서.”

라며 또 욕을 했다.

그 소리를 들은 어사 박문수는 괜히 화가 났다. 그렇다고 자신이 어사라며 바로 밝히고 혼을 낼 수도 없는 처지였다. 어사 박문수는 자신에게 욕을 하는 이놈을 혼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박문수는 그 사람에게

“집이 어디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왜 또 우리 집에 가설라무네 뭐 밥이라도 한 숟갈 먹고 갈려고?”

라며 비꼬았다. 그러자 박문수는

“아유, 그게 아니고, 아주 거참 어르신네 말씨가 아주 고맙고, 재밌어서 집이나 어딘지 알려고 그래요.”

라며 궁여지책으로 대답을 했다. 그 사람은



“저기 저기 저 아무개 집이다.”

라며 손가락질을 해줬다.

그렇게 보내다 보니 이미 해가 다 저서 저녁이 되었다. 박문수는 그렇게 사람들이 길을 쫓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 사람보다 빨리 그 사람 집을 찾아갔다. 그 집에 가니 그의 아내가 있었다. 그래서 박문수는 “이게 아무개네 집이요?”

하고 묻고는 이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자고 청했다. 그런데 그 사람 부인이 보니 박문수 일행이 비록 거지 행색을 했으나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눈치 챌 수 있었다. 그 사람의 부인은 눈치가 좀 빠른 편이었

다. 그래서 그 사람 부인은

“아이고, 우리 남편이 또 뭘 짓을 해서 이 사람들이 왔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겁을 내서 대접을 잘 해 줬다. 방도 좋은 데
안내를 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했다.

그때 그 사람이 막 집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서 박문수 일행을 보고
는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놈아 네가 우리 집에 얻어먹으려고 물었
지.”

라며 말을 막 하자, 그의 부인은 얼른 그 사람의 입을 막으면서

“아, 이리 와요.”

라며 끝었다. 그리고는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입조심 하세요.”

라고하자, 그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니, 이제부터 존댓 쓰고 겁을 내면 안 돼.”

라는 것이다. 그러자 그의 부인은

“왜요?”

라며 의아해 했다. 그 사람은

“아주 지금부터 계속 아침에 하던 대로 그대로 끝까지 욕지거리를
하면서 말을 막 하고 해야지. 시방 갑자기 말을 좋게 하면 걸린다고.
하여튼 그래. 그러니 막지 말라고.”

라면서 점점 더 허풍거릴 치면서

“이놈, 내 그럴 줄 알고, 밥 한술 얻어먹으려고 그런 댕짱아.”

라며 큰 소리를 쳤다. 그의 부인은 밥을 해서 박문수 어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저 양반은 정신이 이상해서 말을 막하고 그래요. 그러니 손님께서도 이해하시고 불편하더라도 참으세요.”

라고 했다. 어사 박문수는 그 사람을 잡아서 혼을 내 주고 싶었지만 그의 부인 말을 듣고 나니, 어쩔 수 없었다. 밤새도록 별의 별 욕은 다 먹고, 참느라고 아주 혼이 났다. 아침이 되자 얼른 집을 나와서 오히려 박문수가 그 집에서 도망을 쳤다. 그래서 박문수는 봉변을 당했지만, 그 사람은 속에 있는 말을 박문수 어사 면전에서 모두 내뱉고도 봉변을 면할 수 있었다. (『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 아주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 설화이다. 어사가 온다고 해서 농번기에 바쁜 농부들의 농사 일손을 멈추게 하고, 길 쓸기 등의 부역을 시킨 것은 잘 못된 관행이다. 그리고 아무리 관직이 높더라도 잘 못하면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잘 못하면 면전에 대고 욕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뭘 잘 못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요즘 올바른 말을 하고서도 봉변을 당하는 사람들이 간혹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잘 못한 것을 잘 못했다고 했는데, 그를 벌 줄 수 있단 말인가? 잘 한 것은 칭찬하고 잘 못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것은 하늘의 법칙이다.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직위고하를 떠나서 언행을 잘 해야 하는 것이다. 정말 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여우각시 죽이고 부자 된 사람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서1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어떤 홀아비가 우연히 색시를 맞아들여 살다가 그 색시가 여우임을 알고 죽이는 비법을 엿듣고 여우 색시를 죽이고 여우굴에 있던 보물을 얻어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어느 시골에 아들 하나를 두고 사는 홀아비가 있었다. 그 홀아비가 하루는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는데, 집 밖에 아주 예쁜 여자가 와서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 주세요.”

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홀아비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럼 그러시오.”

하고 집으로 들였다.

그런데 집에 여자를 들이고 나니, 홀아비는 생각이 달라졌다. 여자가 예쁘기도 하지만 홀아비 신세를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었

다. 그래서 홀아비는 그 여자의 미모에 반해서

“우리 같이 삼시다.”

하고 여자에게 말했다. 홀아비는 반신반의 하면서 꺼낸 말인데, 의외로 그 여자는 순순히

“그럼시다.”

하고 홀아비의 말에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홀아비와 여자는 같이 살림을 하게 되었다.

그 여자는 미모만 빼어난 것이 아니라, 살림도 아주 잘 했다. 집안 일을 못하는 것이 없으며 길쌈도 아주 수준급이었다. 베를 짜도 그 솜씨가 아주 뛰어났다. 홀아비 신세를 면한 것도 감지덕지인데, 여자가 살림까지 잘하니, 그 남자는 매일 기분이 무척 좋아 흥얼흥얼거리며 지냈다. 워낙 그 여자에게 빠진 터라 미운 털도 예쁘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의 아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마당에다 나무를 아주 세게 쾅하고 내려놓는 바람에 그 여자가 놀라 자빠졌다가 일어났다. 그 순간 아들이 보니, 새엄마의 치마 밑으로 여우꼬리가 나와 있는 것이었다. 아들은 너무 당황해서

“엄마 뭘 꼬리가 나왔네요. 뭐예요?”

하고 따지듯이 물었다. 그러자 말을 얼버무리며 뭐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런 일이 있는 지 며칠이 지나 그 여자는 친정에 좀 다녀오겠다고 했다. 그래 그 남자가 친정에 가면

“떡을 해 줄까?”

라 하자,

“떡은 싫어요. 콩을 서 말을 볶아 주세요.”

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남자가 콩 서 말을 볶아서 지고 같이 가져다준다고 하니, 여자는 극구 말리면서 혼자 이고 가겠다고 했다. 남자는

“우리가 아무리 급히 같이 살게 되었지만, 장인 장모에게 찾아뵙고 인사라도 드려야 하지 않소.”

라고 하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라며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였다.

남자와 아들은 점점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 남자하고 아들하고 콩 서 말을 볶아서 이고 가는 여자를 미행해 보기로 하였다. 여자는 콩 서 말을 이고는 전혀 무거운 내색도 없이 산을 넘어 아주 잘 올라갔다. 산을 한참 올라 어느 곳에 가니 바위굴이 나왔다. 그 바위굴에 여자가 이르자, 바위굴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왔다. 그러면서

“아이고, 할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굴속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야, 너 거기 가서 무슨 싹이 보이지 않더냐? 그 사람을 잡아 간을 빼 먹어야 네가 진짜 사람이 되는데 말이다.”

라 하자, 그 여자는

“아 내가 거기 가서 베를 짜고 있는데, 글썄 아들놈이 나무를 해서
꽁 놓는 소리에 놀라 자빠지는 바람에 꼬리가 나와서 들켰어요.”

라고 했다. 그러자

“그럼 너 거기 가서 그 사람 간을 빼 먹을 때까지 살 수 없으니, 네
원수인 그 아들놈을 죽여라.”

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일족은 붉은 팔을 키로 세 번 까불고, 디딜방아로 세 번을 그
냥 팔을 디딜방아에 가서 붉은 팔을 세 번 찼으면 다 죽으니, 절대로 팔을 까불게 해서는 안 된
다. 명심 하거라.”

라며 그 여자를 도로 가라고 하였다.

그 남자와 아들은 그 소리를 엿듣고는 얼른 그 여자보다 빨리 집에
와서 아무 것도 모르는 척 하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두 부자는 계
획을 세웠다. 그래 아버지는 밖에서 붉은 팔을 세 번 키로 까불고, 아
들은 디딜방아에 가서 붉은 팔을 세 번 찼었다. 그랬더니 정말 여자
가 여우로 변하면서

“캬캬캬.”

소리를 내더니 죽고 말았다. 이튿날 산속의 바위굴에 가보니 그곳
에서도 몇 마리의 여우가 혀를 내밀고 죽어 있었다. 그래 그 굴속을
살펴보니 여우들이 가져다 놓은 갖가지 보물이 사방에 있었다. 구슬
이며, 금이며 온갖 보물이 있어서 모두 가져다가 팔아 아버지와 아들
은 아주 부자가 되어서 잘 살게 되었다.(『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 여우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설화적인 인식이 이 설화에서도 통용이 되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재주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설화에서는 여우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특권이 설화 화자의 인식의 틀 속에서도 그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우가 사람을 해코지 않아도 설화적인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설화처럼 사람을 해치고 진짜 사람이 되려는 서사 틀 속에서는 더더욱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여우’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뜻은 ‘교활’ 등처럼 좋은 면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오세암 전설

◆ **오세암** : 오세암은 잘 알려진 암자 중의 하나이다. 643년 선덕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이다. 이곳에 선방을 짓고 머물렀던 자장율사는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관음보살의 도량임을 나타내기 위해 관음암(觀音庵)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인 『금오신화』를 쓴 매월당 김시습이 1445년 이곳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한 곳이다. 또 조선중기 1643년 설정 스님이 중건하면서 관음암을 오세암(五歲庵)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내력의 이야기가 전한다. 그 후 조선후기 고종 때 백하 스님이 중건하면서 만일엽 불회를 열기도 하였다. 만해 한용운 스님도 이곳에 머물며 <님의 침묵> 등의 글을 쓰기도 하였다. 6.25한국전쟁으로 불탄 것을 중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설화의 내용** : 인제군 북면 용대2리에 있는 설악산 백담사(百潭寺)에서 수렴동 계곡을 따라 7km정도 올라가면 오세암을 만나게 된다.

암자의 앞뜰에 서면 오른편으로 만경대가 보이고 왼편으로 기룡대가 보인다. 그리고 암자의 지붕 위 뒤쪽으로 관음봉과 동자봉이 보인다. 이 암자는 내설악의 중심이 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설악산에 있는 사찰들 중에서 아늑하기로 유명한 암자이다. 이 암자의 원래 이름은 관음암이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오세암으로 바뀌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조선조 인조대왕 때 설정 선사(雪淨禪師)가 이곳에서 불도를 닦고 있었다. 어느 해 봄날 설정 스님은 꿈을 꾸었다.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어서 빨리 고향에 가보라는 것이었다. 생시처럼 또렷한 꿈이었다.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참으로 오래간만에 고향으로 갔다.

고향에 이르러 설정 스님은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을이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다. 집들은 오래 전에 죽어 썩은 짐승처럼 여기저기가 허물어진 채 널브러져 있고 빈터에는 잡초만 무성했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쓸대밭의 처참한 침묵 속에서 설정 스님은 스님으로서도 마음을 가누기가 어려웠다. 설정 스님은 아랫마을에 가서야 그 사정을 알게 되었다. 몹쓸 전염병이 돌아 그리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아비규환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네 살밖에 안 된 사내아이인데 지금 이 마을에서 기르고 있다고 동네 노인이 알려주었다.

노인을 따라 그 아이를 찾아가 보니 뜻밖에도 그 아이는 설정 스님의 조카였다. 설정 스님은 어린 조카를 데리고 설악산 관음암으로 돌아왔다. 스님은 조카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스님은 조카에게 일

거수일투족부터 염불까지를 찬찬히 가르쳤고 조카아이는 착하고 총명하여 가르침 하나하나를 착실히 배웠다. 봄 여름 가을이 가고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설정 스님은 월동준비를 해야 했다. 이 깊은 산 중에서 두 식구에게 겨우내 필요한 먹을거리며 옷가지 등등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했다. 보통 때보다 밥을 많이 지어놓고 설정 스님은 어린 조카에게 말하였다.



“산 너머 양양에 다녀와야 하겠다. 겨울 지낼 준비를 해야지. 내일 늦게야 돌아올 테니 혼자 있더라도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설정 스님은 법당 안의 관세음보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밤에 무서운 생각이 들면 저 어머니 앞에 나아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외거라. 저 어머니께서 잘 보살펴 주실 것이다.”

스님은 산을 넘어 외설악으로 해서 양양으로 갔다. 그런데 그날 밤 눈이 내렸다. 눈은 밤새도록 내려 쌓였다. 그것은 근래에 없던 폭설이었다. 양양 물치장에서 장을 보아 가지고 신흥사에서 밤을 지낸 설정 스님은 거의 키만큼 쌓인 눈을 보며 혼자서 속을 태웠다.

설정 스님은 이듬해 봄에야 관음암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겨우 녹기 시작하는 눈을 헤치며 고생스레 돌아오는 스님은 관음암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아파지는 마음을 참을 수 없었다. 애써 억제하려 하여도 나이 어린 조카의 처참한 모습이 방정맞게도 자꾸만 눈에 어른 거렸다. 거의 기진하여 관음암에 도달한 설정 스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법당 안에서 목탁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었다. 달려가 보니 나이 어린 조카가 목탁을 치며 관세음보살을 외고 있었다. 법당 안에는 낭랑한 엽불소리와 함께 훈훈한 기운과 신이한 향기가 배어 나고 있었다. 한없는 반가움과 기쁨에 스님은 눈물을 머금었다. 스님은 한참 후에야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때 어린 조카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매일 찾아오시어 저에게 젓을 먹여주셨습니다.”

이때 암자 뒤의 관음봉에서 흰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천사처럼 내려왔다. 여인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책을 안겨 주고는 홀연히 파랑새로 변하여 하늘로 날아갔다. 곱게 장정된 그 책의 표지에는 『보리지기(菩提之記)』(혹은 『관음지기(觀音之記)』)라고 써어 있었

다. ‘보리’는 진리를 깨닫는 길이다.

설정 스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법당 밖으로 나왔다. 하얀 눈에 덮인 온 세상이 더없이 청정해 보였다. 암자 뒤에 솟아 있는 관음봉(觀音峰)과 동자봉(童子峰)은 햇살을 받아 더욱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이 암자를 오세암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 그때 그 아이가 5살이었던 것이다. (『태백의 설화』)

◆ **설화의 의미** : 정말 눈물 나게 하는 이야기이다. 이 설화는 신이 함을 말하는 신이담의 일종이다. 설화에 따라서 관세음보살 대신에 호랑이나 너구리가 사람으로 변해서 아이에게 젖을 주었는데, 그것은 산신령이 인간으로 변한 것이라 하기도 한다. 어찌 되었든 아이의 깨끗한 영혼과 신심이 추운 겨울 관음보살의 가피를 입어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크다.

요술부채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시골에 사는 바보 같은 아이가 아무 일도 할 줄 몰랐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도사를 만나서 밥을 나눠 먹었더니, 밥 먹은 고마움으로 부채를 주며 급하면 부치라고 했다. 그래서 그 부채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어떤 집에 김하늘이라는 외아들이 있었다. 그 집에서는 외아들이라고 서당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는데, 몇 십 년을 배워도 천자문도 떼지 못하는 바보였다. 그리고 하는 일은 아랫목에서 밥 먹고 윗목에 올라가서 똥 싸고 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래도 나이가 차서 결혼을 시켰는데, 아이가 서넛 됐는데도 매일 잠만 잤다. 집안일은 전혀 할 줄 모르고 매일 잠만 잤다. 그래서 아내가 모든 일을 주관해서 근근이 살림을 이어갔다. 나무하고 밥하고 양식을 구하는 일부터 모두 아내의 몫이었다. 삼 년을 그렇게 잠만 잤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이들은 밥을 달라는데, 이제 먹을 것도 없고 하니 어서 일어나서 일 좀 하구려.”

라고 하자, 김하늘은

“아 조금 더 있어야 해.”

라며 계속해서 잠을 잤다. 그런데 매일 잠을 자면서 하루 세 끼는 꼬박꼬박 챙겨먹었다.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한 끼에 쌀 세 알씩 하루에 아홉 알을 먹을 뿐이었다. 그렇게 더 있다가 보니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칭얼대고 마누라는 성화를 부리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매일 잠만 자던 김하늘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 오늘 길을 떠나야겠으니, 도시락 좀 싸주구려.”

라며 출타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집에 먹을 양식이 없으니 도시락인들 변변히 싸 줄 수 없었다. 그래서 아내는 감자 같은 뿌리 식물로 밥을 해서 도시락을 싸 주었다.

도시락을 싸들고 집을 나간 김하늘은 한 없이 걸었다. 그러다가 보니 길가에 느티나무 정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서 오가며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였다. 김하늘도 그곳에서 쉬었다가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누워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잠을 깨어보니 낮 12시가 되어서 점심을 먹을 때가 되었다. 그때 옷을 깨끗하게 입은 어떤 청년이 오더니 김하늘 옆에 앉았다. 그러면서

“아 덥다. 좀 쉬어가야 겠소.”

라고 했다. 김하늘은

“그래 당신은 어디서 오시오?”



라고 물었다. 그러자 청년은
“나는 오고가는 데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내 길이지요.”
라고 하자, 김하늘은
“마침 점심시간이 됐으니, 내 도시락을 같이 먹읍시다.”
라며 권했다. 그래서 둘은 정자 옆에 있는 선녀우물에 가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고 나자 그 청년은
“이 양반 신세를 졌으니, 내가 신세를 갚아야지요.”
라며 부채 두 개를 주었다. 한 개는 붉은 부채고, 한 개는 푸른 부

채였다. 그러면서

“당신이 가다가 정 급하면 이 부채를 부치시오.”

라며 자리를 떠났다. 그 청년은 갑자기 온데간데없었다. 그 청년은
다름 아닌 신선이었던 것이다. 김하늘은 부채를 받아 들고 길을 가다
가 보니 갑자기 코가 자꾸 길어지는 것이었다. 코가 자꾸 늘어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자 푸른 부채를 흔들어서 부쳤다. 그랬더니 코가
원래대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보니 큰 기와집이 있었
다. 그 집에 들어가서 자게 되었는데, 한 칠십 세쯤 된 주인 노인과
한 방에 자게 되었다. 여름에 복 때니까 많이 더웠다. 그래서 덥다고
부채를 부쳐달라고 하였다. 김하늘은 붉은 부채를 노인의 얼굴에 대
고 부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노인의 코가 길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코를 한 발이나 키워놓으니, 노인은 코를 잡고 난
리를 쳤다. 날이 새어서 아들이 와보니 큰일 난 것이었다. 아버지는
코가 길어져서 코를 잡고 죽겠다고 하는데, 별 도리가 없었다. 그때
노인의 아들이 김하늘을 보고

“선생님.”

하면서 매달렸다. 아무래도 같이 있었으니까 코를 작게 하는 방도
를 알 것 같아서였다. 김하늘은 시침을 뚝 떼고서

“왜 그러시오.”

하고 대답을 했다. 그러자 그 집의 아들은

“아 우리 아버지 코가 밤 새 저렇게 커졌으니 코 좀 고쳐주시오.”

라 하자, 김하늘은

“어참, 나 어디서 또 오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 나 코 고칠 짬이 없

소. 나 시간이 바빠서 가야 되겠소.”

라며 탄청을 부렸다. 그 집 아들은

“아이고 좀 고쳐주시오. 하여간 살짝만 고쳐주시오. 그러면 내 크게 사례하리다.”

라며 김하늘에게 통 사정을 하였다.

그래서 김하늘은 못 이기는 체 하고

“그럼 글썄 어디 코를 고쳐봅시다.”

며 가려던 몸을 돌려 앉았다. 그리고 김하늘은 저녁밥을 잘 얻어먹고는 고치는 시늉을 하였다. 부채를 부쳐서 고치는 것을 남이 보면 안 되니까 낮에는 다른 행동을 하고, 밤에 몰래 조금씩 푸른 부채를 부쳐서 코를 가라앉혔다. 금방 코를 원래대로 할 수 있었지만, 김하늘은 돈을 벌려고 며칠을 묵으면서 아주 조금씩 부채를 부쳐서 코를 낮췄다. 그렇게 사흘을 있으면서 코를 고쳐서 원래대로 해 놓았다. 그 집에서는 코가 줄어들어서 원래대로 되자, 더욱 김하늘에게 잘 대해 주었다.

그날 그 아들은 김하늘에게 주려고 당나귀에 돈을 잔뜩 실어서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아버지 코를 고쳐주셨으니, 내가 평생 지낼 만큼 돈을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세요.”

라며 당나귀 채로 김하늘에게 넘겨주었다.

김하늘은 많은 엽전꾸러미를 당나귀 등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아내는 집을 나간 남편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목이 빠져려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보니까 저 건너에서 어떤 당나귀를 앞세우

고 방울을 딸랑딸랑 올리면서 누가 오는데 자세히 보니 남편 김하늘이었다. 김하늘의 아내는 집의 사립문을 열고 나가서 남편을 맞이했다. 그런데 보니 당나귀 등에 돈이 잔뜩 실려 있는 것이었다. 아내는 놀라면서

“이게 무슨 돈이에요?”

라며 물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이었다. 매일 밥만 먹고 잠을 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많은 돈을 당나귀 등에 싣고 왔으니 정말 어안이 병병한 것이었다. 그러자 김하늘은

“아무소리 말게. 나는 이제 먹고 살 기술이 있으니까 아무 소리 말고 이 돈을 쓰게.”

라며 아주 자신만만한 것이었다.

그래 그 돈을 집에 내려놓고, 그날로 장에 가서 쌀도 사고, 솔도 사고 집안에 필요한 가재도구를 사왔다. 그런데 김하늘은 다시 집을 나가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놓고는 집을 나가려니 그의 아내가

“여보 이만하면 우리 둘과 아이들까지 평생을 실컷 먹고 살 것인데 어디로 또 가려고 해요.”

라고 하자, 김하늘은

“아이 가봐야 겠어. 갔다가 와야 돼.”

하면서 한사코 집을 나서려는 것이었다. 아내는 더 말릴 수 없어서 김하늘이 하는 대로 보기로 하고 배웅을 했다.

김하늘은 그 길로 집을 나와서 정처 없이 길을 갔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보니 산 계곡에 큰 못이 있었다. 그래서 쉬어 갈 겸 그 연

못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김하늘은 그 선녀의 옷을 몰래 감추었다. 그리고는 불은 부채를 들어서 그 선녀를 향해서 부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선녀는 목욕을 하다말고 기겁을 했다. 갑자기 자신의 코가 죽죽 늘어나는 것이었다. 선녀는 어쩔 줄 모르고 코를 하늘로 향하고 물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옷을 입으려고 보니 물가에 놓아둔 자신의 옷마저 없어진 것이었다. 그러자 김하늘은 계속해서 부채질을 했다.

부채질을 있는 대로 하자, 그만 선녀의 코가 하늘까지 올라갔다. 그때 하늘에 있던 옥황상제가 보니 웬 코가 하늘을 뚫고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지상에 목욕을 간 선녀의 코였다. 선녀는 옷도 잊어버린 터라 창피해서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몸을 연못에 숨긴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그때 옥황상제는 선녀를 끌어올리려고 코를 잡고 당겼다. 김하늘이 보니 선녀가 알몸으로 물속에 있고 하늘에서는 옥황상제가 선녀의 코를 당기고 있는 것이었다. 김하늘은 이때다 싶어서 부채를 들고 선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선녀는 김하늘이 연못으로 다가가자 깜짝 놀랐다. 깊은 산 중에 남자가 온 것도 그렇지만 알몸으로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게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는데, 김하늘은 선녀의 옆에 와서 숨겨둔 옷을 건넸다. 그리고 선녀의 옷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리고는 푸른 부채를 부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선녀는 물속에서 나와 하늘을 향해서 몸이 붕붕 뜨기 시작했다. 코가 짧아지면서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김하늘은 선녀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끝까지 옷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부채질을 계속했다. 그렇게 해서 김

하늘은 선녀와 같이 옥황상제가 있는 하늘에 올라갔다.

김하늘은 깜짝 놀랐다. 옥황상제를 뵈는 것도 그렇지만 하늘나라는 정말 멋진 곳이었다. 기화요초가 향기롭고, 아름다운 음악소리에 온갖 물건이 인간의 것과는 달랐다. 김하늘만 놀란 것이 아니었다. 옥황상제도 깜짝 놀랐다. 선녀의 옷자락을 붙잡고 올라온 김하늘 때문이었다. 온전치도 않은 아이가 선녀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늘까지 올라왔으니, 옥황상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옥황상제는

“너는 누구이기에 이곳까지 올라올 수 있었느냐?”

라고 김하늘에게 물었다. 김하늘은 도저히 속일 수 없음을 알고

“사실은 도시락을 나눠줬더니 도사가 부채를 주어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사실을 있는 대로 이야기 했다. 그러자 옥황상제는 허허허 웃으면서

“이 도사의 짓이구먼. 내 그렇게 타일렀구먼. 또 그랬구먼. 어차피 여기에 왔으니 하늘나라 구경이나 하고 가거라.”

하였다. 옥황상제와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는 하늘나라 구경을 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뒤 옥황상제는

“여봐라,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 너에게 선물을 줄 터이니 이것을 갖고 가서 네 부인과 평생을 해로하며 지내 거라.”

라며 푸른빛이 나는 작은 상자를 주었다. 김하늘은 선물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서 옥황상제가 준 상자를 열었더니 쌀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하였다. 그래서 김하늘은 평생을 잘 살았다고 한다. (『인제군 학술답사 보고서』)

◆ **설화의 의미** : 이야기가 정말 환상적이다. 설화적 장치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가능한 것이지 리얼리즘으로 처리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 때문에 이야기는 더 재미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도 저런 행운이 왔으면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꿈을 꾸고 살게 해주는 데 있다. 힘든 현실을 극복하는 또 다른 매체인 것이다.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도사와 같은 조력자 곧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고, 조력자의 도움으로 행운의 부채를 얻고, 하늘까지 가서 요술상자를 얻어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꿈 말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모두 그런 꿈을 꾸시고, 또 실제로 그런 행운이 있을 것을 확신한다.

은혜 갚은 구렁이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서1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길을 가다가 만난 구렁이에게 우연히 밥을 주었는데, 밥을 준 총각이 자객에 의해 죽을 위기에 이르자 구렁이가 나타나 자객을 물어 죽여서 살 수 있었다는 보은담이다. 일반적으로 두꺼비나 까치 등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이야기는 많이 있다. 그러나 구렁이는 업구렁이처럼 부귀를 주는 것이 대부분인데 오늘은 미리 상황을 판단하여 자신에게 밥을 주어 살리게 한 총각을 자객으로부터 구하는 이야기이다.

◆ 설화의 내용 : 옛날에 한 집에서 자식이 귀했다. 그러다가 어떻게 아들 하나를 낳아서 애지중지 키우게 되었다.

그 아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자 옆 마을에 있는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학교를 가려면 반드시 산등성이 고개를 넘어 다녀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산등성이 고개를 넘다가 쉬게 되었다. 길가에 있는

돌에 앉아 쉬고 있는데 작은 구렁이 한 마리가 옆에 나와서 머리를 들고 혀를 내밀고 있었다. 그러자 그 학생은 무심코 그 구렁이에게 자기의 도시락에서 밥을 한 덩이 떼서 주었다. 그랬더니 그 구렁이는 학생이 준 그 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 학생이 그 고개를 넘어 그 바위에 앉아 쉴 때마다 그 구렁이는 어디 있다가 나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학생은 매일 자신의 도시락을 열어 밥을 주었다. 구렁이는 학생의 밥을 얻어먹고는 무럭무럭 자랐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그 학생은 나이가 들어서 장가를 들게 되었다. 중매를 넣어서 색시를 만나 장가를 들게 되었는데, 색시감은 이미 다른 남자와 몰래 정을 통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옛날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부모가 짝을 정해주면 싫다 좋다 소리를 못하고 혼인을 해야만 했다. 그러니 그 색시와 몰래 정을 통하던 남자는 자신이 색시를 빼앗겼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신랑을 죽이고 색시를 데리고 도망을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장가들라고 신행을 와 사처간에 머물러 있는 신랑을 밤에 몰래 가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였다.

구렁이는 그것을 눈치 채고 미리 신행을 떠나 색시 옆집 사처간에 서 밤을 보내는 신랑이 자는 집 문지방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구렁이가 문지방에 엎드려 있다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시커먼 복면을 한 남자가 가슴에 시퍼런 칼을 품고는 신랑이 자는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오고 있었다. 복면을 한 남자가 문지방 가까이 오자 구렁이는 얼른 그 남자의 다리를 있는 힘을 다해서 꼭 물고 독을 뱉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비명 한마디를 지르더니 그 자리에서 그만 쓰러져 죽고 말

았다. 구렁이는 자신에게 밥을 주어 길러준 총각의 은혜를 자객을 죽여 갚은 것이다. 구렁이도 그 자객을 죽이기 위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독을 내뿜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그래 이튿날 잔치를 하려고 하여 신랑은 일찍 일어나 보니, 자신의 문간에 웬 남자가 복면을 한 채 가슴에 칼을 품고 쓰러져 죽어 있고, 큰 덩치의 구렁이 한 마리가 그 옆에 죽어 있는 것이었다. 그 구렁이는 자세히 보니 자기가 밥을 주어 길렀던 구렁이였다. 총각은 필시 무슨 연고가 있음을 알고 그 사실을 알아보니, 죽은 남자는 자기와 결혼을 하려고 한 여자와 밀통을 한 남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신랑은 그 길로 혼례를 중단하였다.

구렁이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뿐더러 평생 외간 남자와 사통을 하는 여자와 살 뻔한 것이다. 총각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객을 죽여 은혜를 갚은 구렁이가 너무나 고마웠다. 그래서 트럭으로 구렁이를 실어 산에 가서 구렁이를 파고 장사를 잘 지내주었다.

총각은 사통을 속이고 자기와 결혼하려한 여자를 보내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아들딸 팔남매를 낳아 백년해로를 했다. (『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 이야기의 결말이 행복하게 끝나서 다행이다. 구렁이도 은혜를 주면 갚을 수 있다는 착상이 아주 새롭다. 여기서 구렁이가 무엇을 의미할까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업구렁이일 수도 있고, 환생담이 첨부된 조상의 환형일수도 있다. 그러나 구렁이가 무

엇일까를 생각하는 의문 이전에 우리는 미물도 은혜를 갚는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구렁이, 두꺼비, 까치와 같은 인간에 비해 철저하게 지능이 낮은 미물의 은혜갚음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도 서로 돕고 사는 의리 있고, 호혜로운 사회를 꾸려야 할 것이다.

은혜 깊은 두꺼비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서2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이 설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형의 것이나 이야기 화자의 취향에 따라 처녀가 색시로, 지네가 이무기로 변한 점이 다르다. 처녀가 색시로 변했기 때문에 이야기는 결혼 후의 과정까지 이어지고 있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한 처녀가 있었다. 옛날에는 어린 처녀도 밥도 하고 집안일을 하였다. 그 처녀는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마당에 작은 두꺼비가 한 마리가 와서 있기에 밥을 주었다. 그랬더니 그 두꺼비가 녀죽녀죽 잘 받아먹었다. 그래서 재미로 때만 되면 그 두꺼비에게 밥을 주었다. 두꺼비는 신기하게도 처녀가 밥을 주러 나가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밥을 얻어먹었다. 그랬더니 두꺼비는 몸집이 아주 커졌다. 그래 두꺼비는 처녀와 정도 흠뻑 들었다.

처녀는 나이가 들어서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시집을 갈 때 가마를 타고 가는데, 그 두꺼비도 남이 모르게 그 가마를 타고 색

시를 따라 갔다. 두꺼비는 색시가 사는 집 부근에 있으면서 또 색시한테 밥을 얻어먹으면서 지내고 있었다.



색시가 시집을 간 동네는 매년 서낭제를 지내면서 젊고 예쁜 색시를 제물로 바쳤다. 이 색시는 어려서 시집을 갔으므로 아이도 갖지 않았고, 어린데다 예쁘다고 소문이 났으므로 동네에서는 그 색시를 치성 제물로 선택을 하였다. 한 번 동네에서 치성제물 곧 치성밥으로 선택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색시를 동네에 내놓아야 하였다. 그것은 그 동네의 오래된 전통이므로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날 동네에서는 서낭치성을 드리게 되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치성을 드리고는 색시를 서낭당 안에 있는 마룻바닥에 넣고는 밖에서 문을 잠그게 되었다. 그렇게 색시를 넣어두고 아침에 가보면 어떤 조화인지는 몰라도 치성밥으로 넣어둔 색시가 없어지는 것이었다.

그래 색시가 동네의 치성밥으로 서낭당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알고 색시가 밥을 줘서 기르던 두꺼비가 그곳에 따라 들어와 있었다. 색시와 두꺼비가 같이 서낭당 마룻바닥에 있는데, 한밤중 되니 어디선가 부스럭 스르륵 하는 소리가 났다. 그러더니 눈이 통방울 같은 이무기가 나타나서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무기의 짓인 줄 모르고 색시를 치성밥으로 넣어두었다가 아침에 가보고 없으면 치성 잘 지냈다고 한 것이었다. 그렇게 나타난 커다란 이무기는 색시를 통째로 삼킬 요량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일촉즉발 색시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이었다. 색시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서낭당 귀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때 색시를 따라온 두꺼비가 색시 대신 이무기의 먹이가 되었다. 얼른 이무기에게 다가가서 이무기의 먹잇감이 된 것이다. 이무기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커다란 두꺼비가 개구리인줄 알고 냉큼 입에 넣고 삼켰다. 두꺼비를 삼킨 이무기는 갑자기 이리저리 뒹굴기 시작하였다. 그러더니 얼마 못가서 커다란 이무기는 삼켰던 두꺼비를 겨우 토해내면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 두꺼비의 독이 이무기의 몸에 퍼지면서 이무기는 견디지 못하고 죽고만 것이다.

아침이 되어 동네 사람들은 치성밥으로 넣어둔 색시가 어떻게 되

었는지 보러 갔다. 서낭당 문을 열고 보니 서낭당 마룻바닥에 커다란
이무기와 역시 커다란 두꺼비가 죽어 있었고, 색시는 아무런 화를 당
하지 않은 채 서낭당 구석에 앉아있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치성밥을 먹던 놈이 이무기인줄 알았고, 그 이후
로는 서낭제를 지내지 않았다. 그 때문에 동네에서 치성제물인 치성
밥으로 젊고 예쁜 색시를 제물로 바치는 일도 없어졌다고 한다. 색시
에게 밥을 얻어먹던 두꺼비가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은혜를 갚은 것이
다. (『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게 그야말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이 이야기를 구연한 화자는 이야기 끝에 이렇게 덧붙였다. “
그러니까 짐승도 공을 들이면 은혜를 갚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젊은
여자가 두꺼비를 거두는 바람에 두꺼비 때문에 살았대. 그렇지 않으면
죽었지.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 그저 뭐든 남을 구해줘야 해.”
이야기의 초점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꿈, 남에게 덕을 베푸는
것에 두고 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명심보감』에 “금을 쌓아
서 후손에게 물려줄지라도 능히 그 금을 다 지키지 못하고, 책을 쌓
아서 후손에게 물려줄지라도 그 책을 능히 다 읽지 못할 것이니, 아
주 어둡고 어두운 밤에 남몰래 덕을 베풀어서 자손의 계교로 삼음만
같지 못하다.”라고 했다. 돈이나 공부보다도 더 좋은 것은 남몰래 덕
을 베푸는 음덕(陰德)을 행하라는 것이다. 모름지기 베풀고 살 일이다.

이성계의 득국(得國)으로 형을 살해하지 않은 아우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방동1리에 사는 김석배(77, 별) 할아버지가 2003년 7월 18일에 제보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특정 지역에 국한 되지 않는 것으로, 나라의 임금이 바르면 백성의 마음이 저절로 바르게 된다는 것이다.

◆ **설화의 내용** : 이 이야기는 조선조를 건국한 이성계가 등극을 할 때의 것이다. 고려가 망할 즈음 나라는 혼란스러웠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다. 나라가 어지러우니 백성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질서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 당시 인제군 방동리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두 형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형은 제사를 모셔야 한다고 유산을 좀 더 많이 물려주었다. 그래서 동생은 항상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생각하기에 형을 죽이면 형이 가진 재산이 모두 자기 것이 될 거라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동생은 형을 죽

일 생각을 하면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형을 죽이려고 하면 항상 형 주변에 누군가 있어서 실패를 하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형을 죽일 절묘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봄철이 되면 피나무 껍질을 벗기러 산에 가는데, 형과 같이 갔다가 낭떠러지에 형을 밀치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동생은 형을 꼬여서 산에 피나무 껍질을 벗기러 가자고 하였다. 형은 흔쾌히 같이 갈 것을 승낙했다. 동생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형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동생과 함께 깊은 산으로 피나무 껍질을 벗기러 갈 채비를 하였다.

그날 아침 동생은 형을 죽일 생각을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점심을 먹을 때 느슨해진 틈을 타서 형을 밀치면 될 것인데, 혹시 실패하면 칼을 준비했다가 찌를 생각이었다. 그래서 동생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숲속에 칼을 갈기 시작했다. 그런데 동생의 아내가 보니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을 남편이 하는 것이었다.

“아, 당신 뭘 하려고 칼을 갈아요.”,

“그건 알아서 뵙해.”

“아니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니 묻지요.”

그러나 동생은 그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피 벗기러 산에 갔다 올 테니, 점심을 싸달라고 하였다. 점심을 망태에 싸 넣고 칼을 간 것도 형곶에 싸서 같이 망태에 넣었다. 그리고 형님네 집으로 갔다.

형님네 집에 가니 형은 아직 아침밥을 먹고 있었다. 빨리 먹으라고 독촉을 해서 아침식사가 끝나자 곧바로 산으로 향했다. 산에 오르면

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며, 동생은 자신의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피나무는 가까운 산에는 원래 드물고 깊은 산에 가야 있었다.

형제는 산으로 올라갔다. 어느 정도 산에 오르니 피나무가 한 둘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형은

“동생, 여기서 앉아 담배 한 대 피우고 쉬었다가 뱃기세. 피나무가 더러 있네.”

“그럼 형님, 그래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동생은 피를 벗길 생각은 없고 어떻게 하면 형을 죽일 수 있을까 하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형은 열심히 피를 벗겼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점심때가 되었다. 그래서 형은 동생한테 점심을 먹고 피를 벗기자고 불렀다. 그런데 형의 부름을 받고 오는 동생은 피를 전혀 벗기지 않고 아침에 본 채로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형이 왜 피를 벗기지 않았냐고 하니, 피가 없었다고 둘러댔다. 그러자 형은

“그럼 밥이나 먹세. 내가 혼자 피를 벗긴 것만도 동생하고 갈라 써도 일 년은 족히 쓸 걸세.”

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형제는 가져온 도시락을 펼쳐 놓고 점심을 먹었다. 형은 밥을 열심히 먹는데 동생은 밥을 입에도 대지 않았다. 동생은 그때까지도 어떻게 하면 형을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 점심이 입으로 들어갈 리가 없었다.

“아, 동생 무슨 생각하느라고 점심도 안 먹고 앉았노. 부지런히 먹

게. 난 거의 다 먹었네.”

그렇게 형이 얘기하는 중에도 동생은 형을 걷어차서 낭떠러지에 굴릴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던 차인데, 그때 시간이 오시가 되었다.

정각 오시가 되었는데, 갑자기 동생의 머릿속에 형님 죽일 생각이 싹 가셔버리고 말았다. 그래 자신이 왜 형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도대체 왜 형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마음 자체가 몹시 한심했다. 그래서 형과 같이 점심을 먹고 피나무 껍질을 씹어지고 그 전과 같이 사이좋게 형제는 마을로 내려왔다.

그렇게 마을에 내려오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성계가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고, 오시에 임금으로 등극을 했다고 하였다. 그제야 동생은 그 사실을 깨달았다. 나라에 임금이 못나서 어지러우니까 백성의 마음이 흩어져서 형을 죽이고 재산을 뺏으려고 했는데, 올바른 임금이 나라를 새로 세우고 왕으로 등극을 하니, 백성의 마음이 본심으로 돌아온 것이었다.(『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 이 설화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나라의 우두머리가 잘 해야 백성들도 잘 한다는 것이다.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올바라야 백성들도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람이 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당연히 나라의 기강은 흐트러지게 되어 있다. 대통령이 윤리며 도덕적인 질서

를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누가 지킬 것인가?

올바른 대통령을 뽑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 사리사욕에 눈이 멀지 않은 대통령, 진정 대통령의 일이 뭔지 아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그리고 잘 지켜보면서 잘 하면 칭찬을 해주고, 못 하면 질책을 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 항상 지켜볼 일이다. 그래서 온 국민이 설화의 주인공처럼 바른 마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장수터

◆ **아기장수 설화의 유형** : 이 설화는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장수터에 얹힌 것이다. 이런 유형의 설화를 아기장수설화라고 하는데, 우리의 전형적인 비극설화이다. 아기가 태어나서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부모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에 얹힌 것이다. 이 설화에는 반드시 아기장수가 훈련을 했다는 아기 발자국이 있는 장수바위, 용마가 아기장수를 태우지 못해서 빠져 죽었다는 용소와 같은 지명이 함께 하고 있다. <장수터>도 장수터라는 지명에 얹힌 설화이다.

◆ **설화의 내용** : 지금으로부터 몇 백 년 전 이곳 복지개봉 골짜기에 샘물이 졸졸 흘러내리는 도랑 옆 양지바른 언덕 위에 한 중년 부부가 한가로이 살고 있었다. 봄이 오면 복숭아 살구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고 가을이면 찬란한 단풍잎이 곱게 물들고는 하였으나, 이 부부는 마흔이 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

이웃사람들이 자식을 업고 다니는 것을 보면 부러워서 늦게라도 자식을 하나 보았으면 원이 없겠다고 한탄하였다. 그래서 부부는 매일 같이 자식을 바라면서 산천기도를 드렸다. 정성껏 기도를 드린 보람이 있었던지 부인은 태기가 있게 되었다. 아들을 낳기만 고대 하던 중 마침 소망이 이루어져 사내아이를 낳게 되어 이름을 칠성이라 지었다. 온 동리 사람의 축복도 대단했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우렁차고 기골도 장대하여 장수가 났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구경 오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데 괴이한 일이 생겼다. 칠성이 어머니가 난지 3일이 된 어린아이를 재워놓고 빨래를 갔다 돌아와 보니 아이는 문고리를 잡아 뽑으려고 힘을 쓰고 있지 않은가? 그 후 2일째 되는 날은 높다란 선반위에 올라가 매달렸다가 뛰어 내리지 않겠는가? 이 엄청난 장난에 놀란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려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남편은 ‘지성이면 감천이지’하면서 큰 자식 낳은 것을 무척 기뻐하기만 하였다.

다음날 일터에 나간 칠성이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이나 하듯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 말을 들은 마을사람들은 저마다 큰 일 났다고 근심을 하였다.

“큰일 났네. 틀림없이 장수를 낳았으니… 장수를 낳으면 다섯 살 안쪽에 부모를 해치고 집을 뛰쳐나가 인적 없는 심산구중에 들어가 도를 닦고 무술을 연마하게 돼 있네. 그러니 어서 더 크기 전에 처치해 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화를 입을 걸세.”

하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칠성이 아버지가 자랑삼아 한 말은 이들 부부에게 큰 근심을 안겨 주었다. 아무리 금지옥엽 사랑하던 외아들 칠성이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 등골이 오싹해지고 무서웠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랫목에 누워있는 칠성이를 보니 귀엽고 장하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무섭고 미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칠성이 아버지는 아내에게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칠성이를 없앨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아이의 가슴에 큰 맷돌을 올려놓았다. 이 순간 아이는

“으악!”

하는 소리와 함께 맷돌짝을 굴러 떨어뜨리고 한번 몸을 뒤집는 것이었다. 이에 당황한 칠성이 아버지는 어차피 저질러 놓은 일이라, 노끈으로 다시 아이의 발과 손을 묶고 맷돌짝을 다시 올려놓았다. 그리하여 칠성이는 난지 9일 만에 부모의 손에 의해 숨지고 말았다.

그러자 그날 저녁에 이상하게도 하늘에는 서기가 뻗치고 용마가

하늘에서 내려와 집 주위를 돌며 벽력같은 목소리로 울기를 3일을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용소강을 뛰어넘어 산으로 사라졌다. 이때 용소 앞 벼랑에 치솟은 바위에는 돌 뚜껑을 한 장수 우물이 생겼다고 한다. 이후부터 이곳을 ‘장수터’라고 주위 사람들은 불렀다고 한다.

(『태백의 설화』)

◆ **설화의 의미:** 참으로 슬픈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전국에 걸쳐서 아주 많이 전승하고 있다. 간혹 비극에서 벗어나 신(神)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있으나, 아기장수는 부모와는 같이 살지 못한다. 그리고 부모가 늙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기도를 해서 낳았다는 것, 갑자기 하늘에서 신비한 기운이 내려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을 한다. 그렇게 바라던 자식을 낳아서 키우지도 못하고 제 자식을 부모의 손에 의해 죽여야 하는 비극이다. 아기에게도 비극이고, 부모에게도 비극이다.

이런 설화가 전승하는 까닭은 민중의 소원이 좌절로 끝나는 경우에 회자 되고 있다. 현실의 고통을 타개해 줄 인물을 간절히 바랐으나 결국 현실의 고통은 타개되지 않았다. 그 고통이 사라졌다면 아기장수는 당연히 자라야 되고 아기장수에 의해서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 때문에 아기장수는 자라기도 전에 끝내 목숨을 잃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 민중의 좌절을 아기장수에 빗대서 이야기한 설화이다.

재빠른 행동으로 재주 있는 색시 얻은 사람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서2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재주담을 엮었는데 설화적인 과장으로 인해 재미를 듬뿍 주고 있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시골에 딸을 하나 둔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 딸은 재주가 비상해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그 딸을 가진 부모는 재주 있는 사위를 얻으려고 전국 팔도에 광고를 냈다. 우리 딸보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사윗감으로 응모하라는 것이었다. 그 딸은 오전 중에 누에를 쳐서 고치를 얹혀 명주실을 뽑아서 실로 옷감을 짜서 바지저고리 한 벌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일하는 곳까지 가져가는 기술을 가졌다. 동작이 엄청 빠른 것이다. 이런 기술을 가졌으니, 이에 버금갈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사윗감으로 응모하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조선팔도에 광고를 냈더니, 어떤 젊은이가 하나 나타났다.

“딸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서 찾아왔으니까 제 재주를 보고서 합당

하면 딸을 주시오.”

라고 하자, 딸의 아버지는

“그래 넌 무슨 기술을 가졌느냐?”

라 물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예, 저는 그저 오전 중으로 집터를 닦아가지고, 여덟 칸 기와집을 다 지어서 부엌에 불을 집혀서 굴뚝에 연기가 나오게 만드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라 하였다. 이 또한 대단한 기술이었다. 오전 중으로 집터 닦아서 재목이 여덟 칸 집이면 엄청 많은데 그거 다 하고 지붕 잇고 문짝 달 달아 불을 때서 마무리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딸의 아버지는

“그럼 오늘 집에 와서 자고 내일 아침에 내가 땅을 내어 줄 터이니 그렇게 해라.”

라며 허락을 했다.

이튿날 날이 새자 젊은이는 집터를 닦아서 집을 지었다. 그 여자도 똑같이 오전 중에 누에를 쳐서 옷을 만들었다. 젊은이는 집을 다 짓고는 그 여자가 옷을 해오기를 기다렸다. 집을 짓는 곳하고 좀 떨어져서 여자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이다. 여자가 옷을 만들어서 가보니 젊은이는 집을 다 짓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는 옷과 점심을 짠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가서

“여기 밥 잡수시오.”

하고는 젊은이가 밥을 먹는 동안에 여덟 칸 기와집을 점검을 했다. 문도 열었다 닫았다 해보고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돌쩌귀가 빠져 있었다. 여자는 그곳을 트집을 잡아서

“당신도 기술이 좋으나 뭐든지 끝을 못 맺어서 당신하고 못 살겠 습니다. 그러니 이 옷이나 입고 가세요.”

라며 퇴짜를 놓았다. 그래서 그 젊은이가 가서 보니 정말 돌쩌귀가 빠져 있었다. 그 젊은이는 정말 억울했다. 시간은 충분했는데 돌쩌 귀 하나 맞추지 않아서 재주 있는 여자를 데리고 가지 못하게 생긴 것이었다.

그 젊은이는 맥이 빠져서 밥이나 먹고 여자가 해 준 명주옷이나 입 고 고개를 넘어가게 되었다. 그 고개에 오르니 아주 큰 마당바위가 있었다. 마당바위 밑에는 몇 길이나 되는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 기서 떠억 하니 앉아서 맥이 빠져서 하루를 묵게 되었다.

그런 다음 날 또 다른 젊은이가 그 여자에게 장가를 들려고 광고를 보고 왔다.

“나는 이 광고를 보고 왔는데, 내 기술을 보고 합당하면 나를 사위 로 삼아주세요.”

하고 말을 했다. 그러자 그 여자의 아버지는

“자네는 그래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나?”

라 묻자, 새로 온 젊은이는

“예, 저는 오전 중으로 들에 나가서 삼천 평의 땅을 떠가지고 오전 까지 다 심고 논두렁에 난 풀을 다 깎을 수 있습니다.”

라 했다. 그 여자 아버지는

“그 기술도 대단하구먼.”

하면서 삼천 평의 뜰을 그 젊은이한테 내어 주었다.

그 젊은이는 비가 오는 중에 샷갓을 쓰고는 나가서 논 삼천 평을

삽으로 떠서 갈아 모를 다 심고 논두렁에 난 풀을 모두 베고 샷갓을 벗어놓고는 쉬고 있었다. 그때 여자는 또 명주를 해서 옷을 해가지고 점심밥을 해서 머리에 이고 왔다. 그러고는

“밥 잡수세요.”

하고는 삼천 평 논을 돌아가면서 모를 제대로 심었는지를 검사했다. 그리고 논두렁의 풀을 다 베었는지도 검사를 했다. 그런데 모두 다 잘했는데 벗어놓은 샷갓을 들추니 그곳에 풀을 베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을 본 여자는

“당신도 기술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끝을 못 맞추어 당신 하고는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 옷이나 한 벌 입고 돌아가세요.”

라며 또 퇴짜를 놓는 것이었다. 그 젊은이도 참으로 억울했다. 그 젊은이도 여자가 준 옷을 입고는 맥없이 길을 걸어갔다. 가다가 보니 먼저 번 젊은이가 넘던 고개를 또 넘게 되었다.

그래 고갯길에 올라보니 자기와 같은 명주옷을 입은 젊은이가 마당바위에 걸터앉아 있었다. 마당바위에 걸터앉아 있던 젊은이가 보니, 명주옷을 입고 오는 젊은이도 보니 자기와 같은 처지인 것 같았다. 그래서 명주옷을 입고 오는 젊은이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은 어떻게 됐소? 나는 어제 그만 퇴짜를 맞았소.”

“아유, 난 삼천 평을 모 다 심어놓고 그만 샷갓 벗어놓은 자리 풀을 베지 않아서 이래 퇴짜를 맞았소.”

“난 글썽 여덟 칸짜리 집을 다 지어놓고는 돌쩌귀 하나를 끼우지 않아서 그만 퇴짜를 맞고 이래 여기 앉아 있었소.”

그렇게 두 젊은이는 대화를 하면서 하루 저녁 그 마당바위 위에서

더 머물게 되었다.

두 젊은이가 마당바위에서 억울함을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젊은이가 재주 있는 여자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그 집을 찾았다.

“광고를 보고 찾아왔으니, 내 기술을 보시고 사위로 삼아주십시오.”

하니, 그 여자의 아버지는

“자네는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 젊은이는

“저는 오전 중에 벼룩이 서 말 등이 굴레를 다 짜 찢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그 작은 벼룩이가 서 말인데 일일이 굴레를 짜서 벼룩에게 찢을 수 있다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 여자 아버지는

“그러면 해보게.”

하고 벼룩이 서 말 굴레를 짜서 찢우게 하였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밖에 나가서 후다닥거리며 벼룩 서 말을 잡았다. 그리고 굴레를 짜서 다 찢우고 났는데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 그래 여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자도 누에를 길러 명주옷을 만들어 보따리에 넣고 점심밥을 짜서 가지고 왔다. 그래 젊은이가 점심밥을 먹는 동안에, 그 여자는 서 말 벼룩이 굴레를 다 찢웠는지를 검사를 했다. 그렇게 검사를 하다 보니 가운데 벼룩이 한 마리의 굴레가 빠져 나왔다. 그것을 본 여자가

“당신도 기술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무리를 잘 못하니

나하고 살 수 없습니다. 이 옷이나 입고 돌아가세요.”

라고 하였다.

그래 여자가 해 준 명주옷을 입고 맥이 빠져서 터덜터덜 고개를 올라가고 있었다. 고갯마루에 있는 마당바위에 오르니 자기와 같은 옷을 입은 두 젊은이가 앉아 있었다. 두 젊은이는 고개를 올라오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그 옷을 입고 올라오시오?”

하니, 고개를 오르던 젊은이가

“재주 있는 여자에게 장가들려다 한 마리 벼룩 굴레가 빠져 나왔다고 퇴짜 맞아 옵니다.”

하였다.

그때 한 젊은이가

“참 우리 억울하고 어차피 셋이서 그 여자 못 데려갈 것이니 차라리 그 여자를 죽여 버립시다.”

라고 하자, 모두들 그렇게 하자고 의기투합을 했다. 그래서 밤에 세 사람이 가서 그 여자를 보쌈을 해서 마당바위까지 데리고 왔다. 그리고 마당바위에서 떨어뜨리면 그 여자는 그만 죽고 마는 것이었다. 세 사람은 그 여자를 바위에서 밀쳐 떨어뜨렸다.

바로 그때 그 강에서 뗏목을 매어서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 바위를 쳐다보니 예쁜 색시를 떨어뜨려 죽이려고 여자를 밀쳐내고 있었다. 여자가 막 마당바위에서 떨어져 수십 길 물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걸 본 때꾼은

“저 여자를 내가 살려서 데리고 살아야 겠다.”

하고는 뗏목에서 벌떡 내리더니 함경도 원산에 있는 대장간에 가서 낫을 쳐서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가서 대나무를 베어서 그 대나무를 쪼개서 바구니를 만들어 떨어지는 여자를 받았다. 그래서 그 재주 있는 여자는 결국 떼꾼에게 시집을 갔다. 떼꾼은 워낙 빠른 터라 바위에서 떨어지는 여자를 보고 원산까지 가서 대장간에서 낫을 쳐서 일본에 가서 대나무를 베어 바구니를 만들어 여자가 다 떨어지기 전에 받아 살린 것이다. 그 여자는 죽지 않고 떼꾼과 행복하게 잘 살았다. (『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 이야기가 정말 설화답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설화를 우리는 재주담이라고 한다. 재주를 겨뤄서 결혼을 하는 것인데, 재주담은 일상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소재를 택하게 마련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겨루기>와 같은 유형이 대표적이다.

이런 재주담은 일상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재주를 소재로 삼았을 때는 이야기로서의 흥미를 잃게 된다. 그런 일상의 재주는 이야기를 엮을 만한 소재로 적당하지도 않다. 달나라를 날아서 갔다 온다가, 축지법을 쓴다든가하는 기상천외한 소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주 많은 여섯 의형제>라는 동화도 이런 발상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런 재주담은 일반적으로 소화(笑話)로 우스개의 일종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바람과 이상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재주 있는 여자에게 장가를 들고 싶어 한 설화화자의 바람, 그

리고 그에 걸맞게 자신도 많은 재주를 가지고 싶어 하는 설화화자의 바람이 이런 이야기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이것을 듣는 청자들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는 좋아하게 된다.

제사를 지내라고 현몽한 여자 산신령

◆ **설화의 위치** : 이 설화는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에 살고 있는 손영길^(67, 남) 제보자가 2003년에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한 것이다. 젊었을 때 사냥을 좋아해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했는데, 그에 얽힌 이야기 중의 하나이다.

◆ **설화의 내용** : 손영길 씨는 1986년도 충청북도에 사냥이 풀려서 그곳에 사냥을 갔다. 그때 자주치기 사냥을 했는데, 자주치기 사냥은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사냥하는 것을 말한다. 고양이가 쥐 잡으러 가듯이 살금살금 발자국을 따라 짐승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주치기 사냥은 멧돼지가 워낙 사람보다 감각이 발달돼 있어서 쉽지 않은 사냥이다. 그렇게 어렵지만 그 해는 그런대로 수확이 좋았다.

그렇게 그 해는 사냥을 좀 했는데, 이제 설을 쇠러 집에 오게 되었다. 집에 와서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 나이

는 5, 60정도 돼 보이고, 머리는 옛날 고려시대의 여인들처럼 타래머리를 땅아서 옆으로 내린 할머니가 나타났다. 그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객지에 나가서 소득을 보고 재미를 봤으면 무슨 인사가 있어야지. 왜 인사가 없느냐.”

고 꾸지람을 하였다.

그리고 신년 설을 지내고 초사흘날 사냥을 또 가게 되었다. 그 얘기를 꿈에서 듣고 사냥을 갔는데, 사냥터는 충청도 단양이었다. 단양에 가서 머물 숙소를 정한 댁에 그 당시 한 칠십이 넘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래 정월 초순이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에게 세배를 드렸다. 그리고 설 잘 세셨냐고 인사를 하고 나서는

“이곳에 혹시 산신령을 모셔놓은 산신당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있다고 하였다.

마침 그 할아버지가 산신당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그 산신당은 조그맣게 지붕도 하고 판자로 사방을 돌려 막아 놓고 하였다. 그렇게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이고, 생각 잘 했다.”

면서, 자기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차마 얘기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것을 하라고 시켜줘도 할지 안 할지 몰라서였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을 잘 했다고 하면서 내일 아침에 거기 가서 산신제를 지내라고 하였다. 그곳의 산신은 여산신이라서 부침개를 좋아하는데, 내일 아침 할멈보고 부침개를 부치라고 할 테니, 삼색실과를 사라고 하였다. 그래서 배

사과 감을 사서 준비를 하고, 그 이튿날 열쇠를 받아서 산으로 갔다. 산으로 올라서 어디로 해서 이렇게 가면 있다고 해서 시킨 대로 올라갔더니, 그곳에 산신당이 있었다.



그래서 산신당에 도착해서는 열쇠를 들고 잠근 자물쇠를 직접 열고 들어갔다. 들어가 보니 꿈에서 본 모습과 똑 같은 할머니의 화상이 그려져 있었다. 위에는 파란 저고리를 입고, 밑에는 빨간 치마를

입었는데, 할머니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는데, 머리를 땅아서 이렇게 해놓은 화상이 있었다. 그래 하도 신기해서 산신당 안으로 들어갔다. 여신이라고 해서 소주를 사지 않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들어갔다. 그리고 화상 앞에 있는 제단에다 가지고 온 제물을 진설해 놓고, 포도주를 잔에다 따라놓고 절을 했다. 그리고

“참 아주 사냥을 들어와서 인사도 못드리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냥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빌었다.

그렇게 산신제를 지내고 나서 다시 사냥을 나갔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사냥이 잘되었다. 설전에는 그렇게도 되지 않던 사냥이 아주 술술 풀렸다. 설전에 잡지 못한 멧돼지를 계속해서 잡게 되었다. 그 이튿날도 잡고, 또 그 이튿날도 잡고, 사흘을 연달아서 멧돼지를 잡았다. 신기하게도 산신당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사냥이 잘되었다.

사람들이 지금도 미신이니 어찌고 하지만, 손영길 씨는 그렇게 꿈 같은 일을 겪어보았다.

“지금도 꿈이 미신이니 어찌고 하지만 꿈이 꼭 맞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 조금은 황당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아주 부정을 할 수는 없는 이야기이다. 이야기의 초점은 현몽대로 산신당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소원성취를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심심

치 않게 듣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을뿐더러 누구나 겪는 경험이 아니기에 부정을 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우리 한 번 우리의 전통을 보전한다는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한다. 왜냐면, 과학적 진실이 우주현상의 진실을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종교적이거나 초경험적으로 이뤄지는 일들은 과학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너무나 과학적인 진실에만 매달리면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정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곧, 인간적인 면은 없다. 모든 종교는 비과학적인데 왜 종교가 계속해서 신자들을 늘리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제왕터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묘를 잘 써서 나라 임금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청자로 하여금 환상에 젖게 하고 있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아주 어렵게 사는 이대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대팡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풀뿌리며 나물을 뜯어서 겨우 연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님이 부모가 돌아가셔서 산소를 썼는데, 그곳이 바로 이대팡의 집하고 가까운 곳이었다. 나라님은 이대팡에게 묘지기를 시켰다. 그 묘를 지키면 녹봉을 줄 테니 묘를 지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대팡은 하루아침에 묘지기가 되어서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대팡의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어머니가 죽었는데, 어디 산소를 쓸 곳이 없었다. 그리고 묘지기를 하고 있는 터라 자리를 비울 수도 없었다. 그렇게 밤새도록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나라님 아버님 어머님 묘 사이에 빈 공간이 있었다. 그래서 이대팡은 그곳을 파서 감쪽같이 자신의 어머니를 묻었다. 그리고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손질을 잘 해두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터라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다. 누가 알면 큰 일 날 것이 뻔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라님이 부모님의 산소를 돌아보려고 왔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대추가 똑 떨어졌다. 나라님은 그걸 줍다가 보니까 부모님 무덤 사이에 누가 판 흔적이 보였다. 그래서 나라님이 묘지기 이대팡에게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나?”

며 물었다. 이대팡은 사실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묘를 쓸 곳이 없어서 걱정을 하던 차에 그곳이 비었길래 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랬더니 나라님은 벼락같이 화를 내며 이대팡을 귀양을 보냈다. 묘를 한 번 쓰면 파내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불문율이었다. 그래서 나라님은 이대팡의 어머니 시신을 파내지는 못하고 이대팡을 위리유배를 보낸 것이다.

유배를 간 이대팡은 그곳에 있으면 자신이 죽을 것 같아서 도망칠 궁리를 하였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살피다 보니 개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래 그곳을 손으로 파내니 돌이 있어서 잡아 빼니 사람이 빠질 만해서 나와서 밤새도록 달아났다. 날이 새서 어떤 개울가에 이르렀는데, 아이들 셋이서 허리띠 하나를 가운데 놓고는 서로 울고 있었다. 그래서 이대팡은

“너희들 거기서 왜 우니?”

라고 물었다. 아이들은

“허리띠는 하나인데 우리는 셋이라 서로 허리띠를 가지려고 그래요.”

라 했다. 이대팡은

“그 허리띠가 뭐하는 것인데?”

라고 묻자, 아이들은

“이건 하늘로 올라가는 허리띠예요.”

라는 것이었다. 이대팡은

“그러면 셋이서 싸울 것 없이 그걸 나를 다오.”

라니, 아이들은

“그러면 가지세요.”

라며 순순히 주었다. 이대팡은

“이 허리띠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니?”

라고 묻자, 아이들은

“높은 탑 위에 올라가서 허리띠를 매고는 손뼉을 딱딱 치면서 올라간다 올라간다고 하면 되고요, 내려올 때는 내려간다 내려간다고 외치면 돼요.”

라고 가르쳐 주었다.

이대팡은 허리띠를 들고 떠났다. 나라님은 이대팡이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느 곳에 이르렀는데, 공중에서

“하늘로 올라갈 사람 없소, 없소.”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대팡은 허리띠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늘로 올라갈 사람 여기 있소.”

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이대팡을 보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소.”

하고 물었다. 이대팡은 동네사람들에게 높은 탑을 하나 쌓아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탑을 높게 쌓았다. 이대팡은 그 탑 위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시킨 대로 허리띠를 매고는 손뼉을 치면서

“올라간다. 올라간다.”

고 외쳤다. 그렇게 해서 이대팡은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이대팡이 하늘에 올라가니, 어떤 선관이 야광주를 주었다. 야광주를 지니고 있으니 배도 고프지 않고 춥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대팡은 몇 달 동안이나 그 야광주를 지니고 하늘나라를 구경을 하고 다녔다. 그러다가 이대팡은 다시 허리띠를 매고는

“내려간다. 내려간다.”

고 외쳤더니 동네사람들이 쌓아놓은 탑에 사뿐히 내려왔다. 그걸 본 동네사람들은 이대팡을 하늘에 올라갔다가 온 사람이라고 우대하면서 떠들썩하게 소문을 냈다. 그 소문은 나라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다.

나라님이 하늘에 올라갔다는 사람을 불러보니, 바로 자신이 귀양을 보낸 이대팡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게 되었는지, 하늘은 어떤지 묻고는 나라님도 하늘에 올라가 보고 싶었다. 그러면

서 이대팡에게

“네 그 허리띠를 좀 빌려 주거라. 그리고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 올 때까지 네가 임금님 노릇을 해라. 갔다 와서는 내가 다시 임금을 하겠다.”

라고 했다. 그래서 이대팡은 허리띠를 나라님에게 주었다. 그렇게 해서 나라님은 하늘로 올라가고 이대팡은 임금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라님이 하늘에 올라가서는 내려오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얼마동안 고생을 하다가 그만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그래서 이대팡은 평생 임금노릇을 하면서 잘살았다. 이대팡이 임금이 된 것은 어머니를 임금이 낳 명당에 묻었기 때문이다. (『인제군 학술답사보고서』)

◆ **설화의 의미:**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풍수설화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풍수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아주 다양한 화소를 첨부해서 청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울러 설화이기 때문에 우연과 환상이 개입해 있다. 그 때문에 이야기가 더 재미있게 다가오는 것이다. 어쨌든 이 설화는 풍수화소를 통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 모두 효도를 해서 설화의 주인공 이대팡 같은 행운의 사나이가 되기를 꿈꿔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죽은 후 찰이 되어 맺은 사랑

◆ **설화의 위치** : 이 설화는 인제군 기린면 서2리에서 전승하는 이야기이다. 제목에서 이미 시사하듯이 이 이야기는 비극적인 것이다. 남녀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찰이 되어 서로 뿌리가 엉킨다는 것이다. 찰뿌리가 엉키는 사연을 남녀의 사랑이 이뤄지지 않은 데에 연결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한 마을에 서로 사랑하는 처녀와 총각이 있었다. 둘은 어려서부터 마음이 이끌려서 모든 일을 함께 하며 자라게 되었다. 나이가 열 살 조금 못 미치자 총각의 아버지는 아들을 서당에 보냈다. 총각이 서당에 가자 혼자 놀기가 심심한 처녀는 자신도 서당에 보내 달라고 부모에게 졸랐다. 여자가 어떻게 서당에 가냐고 하자 여자는 남복을 하고는 서당에 다니면 된다고 하고는 같이 서당에 다니게 되었다.

옛날에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머리를 땅고 다녔기 때문에 옷만 바

꾸어 입으면 남자 여자가 분간되지 않았다. 그렇게 둘은 서당에도 같이 다니면서 함께 하는 시간을 더욱 늘리며 지냈다.

그런데 여자가 나이가 차면서 몸매며 목소리 등이 남들과 다르니, 모두들 의심을 하게 되었다. 서당 아이들도 그렇고 훈장도 그렇고 분명히 여자 아이 같은데, 남복을 하고서 서당에 다니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훈장은 아이들을 데리고 강가에 가서 천렵을 하게 되었다. 천렵을 하게 되면 물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야 하니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물에 들어가지 않고 물 밖에서 천렵 준비만 하였다. 그렇다고 아이의 옷을 강제로 벗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특히 옛날에는 양반집 자제들에게 무례하게 할 수 없는 터라 바지를 함부로 벗길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훈장은 피를 써서 놀이를 하였다.

강가에 있는 모래를 가지고 높다랗게 모래성을 쌓아놓고 오줌을 뉘서 먼저 무너뜨리기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 모래성을 각자 쌓게 하였다. 그러고는 서로 돌아서서 오줌을 누게 하였다.

“너희들 서서 오줌을 뉘서 저 모래성을 먼저 넘어뜨리는 사람에게 는 상을 주겠다.”

라며 훈장은 놀이를 하였다. 훈장은 여자 아이임을 보려고 한 것인데, 그 아이도 돌아서서 오줌을 누어 거뜰히 해 내었다. 여자아이는 그것을 미리 알고 대롱을 가져와서 거뜰히 통과한 것이었다. 처녀 아이는 그렇게 총각 아이와 같이 지내려고 피를 써 가며 서당에 다닌 것이다.

세월이 흘러 서당에 다니던 처녀와 총각은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여서 서울에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다. 총각아이는 집안이 가난하여 노잣돈을 마련하기가 어렵자, 처녀아이가 노잣돈을 대어서 서울까지 갔다. 처녀 아이가 생각하니 임금님까지 숙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서울까지는 같이 갔으나 처녀 아이는 과거를 치르지 않고 총각아이만 과거를 치렀다. 처녀 아이는 사랑하는 총각 아이와 함께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무척 좋았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둘은 나이가 들어서 서로들 혼삿말이 오고갔다. 처녀 아이는 부모님께 그 총각아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처녀의 부모는 총각의 집이 가난하다고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급기야 처녀는 부모의 강압에 의해 다른 집에 시집을 가야만 했다. 처녀가 생각하니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사랑하는 총각과 헤어질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처녀는 혼례를 하루 앞둔 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처녀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총각은 며칠 간 둘이 만나는 장소에 사랑하는 처녀가 나타나지 않자 이상히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총각은 처녀의 부모가 처녀를 다른 데 시집보내려 하자 처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 소리를 들은 총각도 여자의 무덤을 찾아가서 통곡을 하고는 무덤 옆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어 목숨을 끊었다. 죽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기 위한 것이었다.

총각이 죽자 총각의 부모는 총각을 처녀의 무덤 옆에 묻었다. 그런데 처녀와 총각의 무덤에는 똑 같이 칩이 자라기 시작하더니 그 뿌리가 서로의 무덤으로 뻗어 엉키었다. 그러자 여자의 부모는 죽어서도

서로 붙어 있다고 하여 처녀의 무덤을 파서 다른 먼 곳에 옮겼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처녀총각의 무덤에서 난 흙은 서로의 무덤을 향해 뿌리를 옮겨가 또 서로 엉키었다. 살아서 이루지 못한 처녀와 총각의 사랑이 죽어서 흙이 되어 사랑을 맺었다고 한다. (『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 참으로 슬픈 사연을 담은 설화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보다도 더 절실한 사랑이야기라 할 수 있다. 부모의 욕심이 또는 제도의 모순이 아름다운 두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결국 이 설화에서 화자는 순수한 사랑은 목숨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며, 불합리한 사회적 제도와 기성세대의 잘못된 인식은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 나타낸 것이다.

처음으로 효도하려다 명당자리 놓친 아들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진동1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이 이야기는 풍수에 얽힌 것인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양상이다. <청개구리>설화를 활용해서 풍수와 연계한 것이다. 이런 풍수는 대부분 결과론적인 것이 많다. 그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잘 살지 못했다거나,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다. 그러나 반대로 성공한 풍수담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잘 살게 되었다는 식으로 전개된다.

◆ **설화의 내용** : 옛날에 유명한 지관을 아버지로 둔 아들이 있었다. 지관인 아버지는 평생 남의 뭇자리만 잡아주었는데, 어디를 가다가 보니 아주 좋은 뭇자리가 있었다. 위로는 산이 뻗어있고 아래로는 넓은 소(沼)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묘를 쓰면 정말 삼정승 육판서가 날 자리였다. 그래서 그 지관은 그곳에 가묘를 써서 만들어 놓았다. 자신이 죽으면 묻히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청개구리 같은 행동을 했다. 아버지가

“저기 가서 신을 가져오너라.”

하면 아들은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오고.

“이리 가라.”

하면 저리로 가곤 하였다. 뭐든 아버지가 시키면 반대로 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아들 하나 있는 것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는 자신의 묘라도 잘 써서 음택의 후광을 입기를 바랐다.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들이 자신이 죽어서도 모든 것을 반대로 할 것 같았다. 아버지는 고민이 생겼다. 가묘를 써서 잡아 놓은 뿔자리는 시신을 거꾸로 묻어야 하는 자리였다. 시신의 머리가 산으로 가게 바로 묻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소(沼)로 향하게 거꾸로 묻어야 되는 곳이다. 거꾸로 묻으면 혈이 좋은 곳에 묻힌 시신이 용이 되어서 물을 만나 승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바로 묻으면 산을 뚫고 올라가야 하므로 용이 되어도 승천을 할 수 없는 자리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죽기 전에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였다. 아들은 죽은 후에도 자신의 말을 거스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죽거든 내가 잡아놓은 뿔자리에 묘를 쓰되 반드시 바로 써라.”

라고 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후 얼마 있다가 아버지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들은 생각을 했다.

“내가 아버지 살아생전에 매일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해서 아버지 속을 썩여 드렸는데, 고인이 된 아버지까지 속을 썩여 거꾸로 할 수는 없다.”

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 시신을 아버지가 남긴 유언대로 머리가 산으로 가도록 바로 묻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좋은 묘혈에 묻혀 용이 되기는 했으나 산을 뚫고 올라가다가 그만 힘이 부쳐서 죽고 말았다. 그 때문에 그 집은 아주 전체가 쫄딱 망하고 말았다. (『강원의 전설』)

◆ **설화의 의미:**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 아들이 끝까지 청개구리 짓을 하든가, 아버지도 아들의 성정을 바로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 비슷한 설화로 대표적인 것이 조선조 때 난을 일으켜서 3일 천하를 했다가 경기도 이천에서 부하의 배신으로 죽음을 당한 이괄의 경우가 있다. 이괄 아버지가 유명한 지관이었는데, 이괄이 어려서 청개구리 짓을 하고 다녔다. 그의 아버지는 왕이 될 수 있는 뿔자리를 잡아놓고는 이 설화와 같이 시신을 바로 묻을 것을 말했다. 그러면서 묘 옆에다 팔과 콩을 서 말씩 묻으라 했다. 그러나 팔과 콩은 같이 묻었으나, 이괄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라면서 결국 시신을 강으로 머리가 가게 묻지 않고 산으로 가게 묻었다. 이괄이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후 나라에서는 그의 조상 묘를 파총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괄 부친의 묘를 파니, 그곳에 같이 묻었던 콩과

팔은 병사며 무기로 막 변하고 있었고, 그의 부친은 반 쯤 용이 되어 산으로 막 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관군은 용이 되어 산으로 오르는 이팔 부친의 시신을 죽였다. 이팔이 아버지 시신을 거꾸로 묻었으면 쉽게 강으로 가서 승천하고, 자식이 용상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을 것인데 산으로 머리가 가게 묻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이 경우도 물론 결과론적인 것이다. 실패담이기 때문에 결국 일이 어긋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어찌 되었 건 이 설화는 부자간에 서로 교감을 하고 사이좋게 지낼 것을 말하는 교훈을 담고 있다.

추갑산과 구미호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선래동(仙來洞). 홍천군 내면과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경치가 좋아서 신선 또는 선녀들이 내려와 놀았던 곳이라 하여 선래동이라 한다. 앞뒤가 산과 기암으로 막힌 벽촌인데, 예전에 7가구가 이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다.

◆ **설화의 내용** : 때는 조선조 중엽이었다. 선래동에 성씨가 추 씨인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곳에 가정을 꾸리고 산에서 사냥을 해서 먹고 살고 있었다. 추 씨는 사냥 솜씨가 좋아서 그럭저럭 가족들과 먹을 것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추 씨는 먹을 것이 떨어지자, 또 총을 들고 사냥을 나갔다. 사냥감을 찾아 한참 산을 헤매다가 마침 흰털을 가진 큰 짐승을 발견했다. 추 씨는 얼른 총알을 메기고 정조준 하여 방아쇠를 당겼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분명히 총알을 짐승의 가슴을 향해 쏘았는데, 그 큰 짐승은 끄떡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추 씨는 여태까지 한 번도 짐승을 쏘서 빗나간 적이 없었다. 그야말로 백발백중이었다. 추 씨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총알을 재우고 짐승의 정수리를 향해서 조준을 하여 방아쇠를 당겼다. 이번에도 분명히 짐승의 정수리를 향해 똑바로 쏘았는데, 그 짐승은 물끄러미 추 씨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추 씨는 가지고 있는 총알을 거의 다 소진할 만큼 계속해서 짐승을 향해 총을 쏘았다. 그러나 그 짐승은 자신의 발로 날아오는 총알을 받아 발밑에 수북이 쌓아 놓으면서 태연하게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추 씨는 총을 쏘다가 기진맥진해서 지쳐 정신을 잃고 땅에 누고 말았다.



이때 집에 있던 추 씨의 아들 갑산은 사냥 나갔던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고, 총소리만 계속 들려오기에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갑산은 집을 나가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갑산은 총소리가 나던 곳으로 가보니 아버지가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놀란 갑산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말을 하였다.

“나는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없지만, 너만은 살아야한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다급하게 외쳤다.

갑산은 아버지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손짓을 하면서 외칠 때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하얀 털로 뒤덮인 큰 짐승이 있었다. 아주 큰 백호(白虎)였다. 집채만한 흰 호랑이가 발 앞에 수북이 총알을 쌓아놓고 추 씨 부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말 큰 호랑이였다. 아버지 추 씨는 아들 갑산에게

“저 호랑이는 아무리 총을 쏘아도 총알을 받아 땅에 놓는 신출귀몰한 재주가 있으니, 도저히 잡을 수 없다. 어서 피해라.”

며 빨리 자리를 떠서 도망할 것을 말했다.

그러나 아들 갑산은 의지와 담력이 강한 사람이라, 아버지의 총을 갖고 총알은 없는 화약만 넣고 총을 사정없이 계속 쏘았다. 화약 터지는 소리가 요란하고 화약 냄새가 사방에 진동했다. 그때였다. 그렇게 총을 쏘아도 총알을 다 받아내던 호랑이가 갑산의 총 솜씨에 놀라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호랑이는 총소리는 나는데 총알이 날아오지 않으니, 자신이 그 총알을 맞은 줄로 알았던 것이다. 쓰러진 짐승

은 꼬리가 아홉 개 달린 흰 호랑이인 백호였다.

이 호랑이는 그 당시 100년을 이곳에서 살면서 인간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하여, 사람들은 아홉 구(九)자 꼬리 미(尾)자 범 호(虎)자를 써서 구미호라 불렀다. 그리고 아버지 추 씨와 아들 갑산의 이름을 따서 그 산을 추갑산(秋甲山)이라 불렀다고 한다. (『인제군사』, 『인제군 유적 지명 전설』)

◆ **설화의 의미** : 그야말로 황당하면서도 신이한 설화라고 할 수 있다. 100년 된 백호가 날아오는 총알을 받아 쌓아두는 신이한 능력을 가졌으나, 소리만 요란한 빈총에 놀라 죽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백호는 무엇일까? 물론 큰 호랑이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호랑이는 산적이나 권력층의 어떤 인물로 볼 수도 있다. 백성의 재물을 약탈해 가는 상징적인 체계인 것이다. 그런 그가 소리만 나는 총에 놀라 죽은 것은 정말 멋진 소화(笑話)이다. 마치 불에 달군 돌을 꿀떡이라고 먹었다가 혼이 난 호랑이를 말한 아이들의 동화에 버금가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친구에게 색시 뺏기고 문둥병 나온 사람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서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이 이야기는 친구 간의 의리를 비롯해서 동생의 실수를 만회해 준 인정 많은 누나의 행위와 남편을 위해 희생한 아내 등에 얹힌 내용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설화이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인제에 아주 다정한 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재산이 아주 많아서 거부소리를 듣고 살고, 한 친구는 착실하지만 재산이 없어서 매일 날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처지였다. 이들 친구는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해서 또 나이가 같은 아들을 두었다. 그 아들도 아버지처럼 아주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부잣집 아들은 독선생을 들여놓고 공부를 하는데, 가난한 집 아들은 공부도 못하고 일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 아들은 가난한 집 아들보고 같이 공부를 하자고 제안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부잣집 아들은 돈은 많지만 문둥병이 걸려서 몸이 아주 불편했다. 그 때문에 부잣집 아들은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었다. 장가를 들어려고 해도 문둥병 환자를 신랑으로 맞이할 색시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저럭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은 나이 24살이 되었다. 이제 장가들이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훌륭한 집 규수와 혼삿말이 오가게 되고 사주단자를 주고받았다. 그 옛날에는 총각처녀가 맞선을 본다든가 서로 사귀든가 하지 않고 바로 혼례를 치렀다. 그런데 혼례를 원래 신부집에서 치르기 때문에 몸이 성하지도 않은 신랑이 가면 분명 퇴짜를 맞을 것이 뻔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생각을 거듭하다가 아들의 친구를 대신 보내 색시를 데려오기로 하였다.

그래서 가난한집 아들을 보고

“야, 네가 우리 집이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대신 장가를 들어서 색시를 데려오너라.”

라고 했다. 가난한집 아들은 대신 장가를 간다는 것이 맘에 걸리고 또 문둥병 환자인 친구가 딱하기도 하고 해서 많이 망설였다. 그러나 평소에 신세를 많이 진터라 거절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가난한 집 아들은 친구 대신 신랑복장을 하고 말을 타고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날 전안을 하고 초례를 올린 후 신랑신부는 신방에 들게 되었다. 신방에 들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옛날에는 신랑이 신부의 족두리와 저고리를 벗겨주고, 술도 한 잔 주고, 음식도 먹여주고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대신

장가를 들러 왔기에 아무 것도 안 하고 날이 새면 색시를 데리고 가서 친구에게 넘겨줄 요량으로 그냥 우투거니 앉아 있었다. 그러자 신부는 아주 답답했다. 신랑이라는 사람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신부가 물었다.

“아니 혼인을 했으면 내 족두리를 벗기고 동침을 해야지. 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라고 신부가 묻자, 친구는 대신 온 터라

“아유, 묻지도 말고 그냥 날 쉴 때까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라 하자, 신부는

“아, 그게 무슨 말이요.”

라며, 조금 더 기다렸다. 그래도 신랑이 아무 반응이 없자 신부는 자기 혼자서 족두리도 벗고 저고리도 벗고 신랑 옷까지 다 벗겼다. 그래도 신랑 된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신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나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짜 신랑인 친구는 신부와 동침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고 나자 친구에게 돌아갈 면목도 없고, 세상에 그렇게 난감할 데가 없었다. 신랑이 우투거니 앉아서 근심을 하고 있으니, 신부가 왜 그러냐고 물었다.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해서 또 망설이고 있는데, 신부는 그럼 빨리 당신 집으로 가자고 하였다. 영문도 모르고 가자는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터덜터덜 오고 있었다.

집으로 오면서 신랑은 사정 이야기를 하였다. 어려운 자신을 데려다 친구가 공부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와 친

구가 문둥병에 걸려 있는 사연이며, 친구 대신 신랑행세를 한 사연 등을 모두 이야기 하였다. 그러면서 하룻밤만 견뎌으면 됐는데, 견디지 못했으니 이제 친구를 볼 면목도 없고 하다고 신부에게 말을 했다. 그러자 신부는

“나하고 당신하고 어찌 되었건 인연이 돼서 첫날밤을 치렀으니 나하고 당신하고가 두 부부가 되지, 그 사람하고 무슨 부부가 됩니까? 그러니 이미 일이 이렇게 된 것 그거 생각 말고 우리나라 잘 삽시다.”

라고 하였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집 친구는 잘 사는 집 친구 대신 장가를 들었다. 그런데 가난한 집은 참으로 곤란하게 된 것이었다. 그동안 공부도 시켜주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도 받고 했는데 그 신부까지 가로챈 셈이 된 것이었다. 그래서 가난한 집은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그때 가난한 집에는 엉겁결에 장가를 든 친구의 나이든 누나가 있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워낙 가난한 터라 어디 중매를 넣지도 못하고 노처녀로 있는 누나가 있었다. 그 누나는 동생의 딱한 사연을 집안에서 듣고는 결단을 내렸다.

“아유, 거 뭐 좋은 방도가 있으면 취할 텐데. 지금 딱히 다른 방도가 없으니, 내가 그 집에 가서 대신 문둥이하고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가난한 집에서는 딸이 아무리 노처녀지만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시집을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뭐라 할 수도 없어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 그 집의 딸은 자청해서 그 집을 혼자 찾아갔다.

그 집을 찾아간 가난한 집의 딸은 사정을 모두이야기 했다.

“사실 동생이 대신 장가를 들러 갔다가 이러이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왕 그렇게 됐는데, 자기 동생이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방에서 신부와 같이 그렇게 있다가 일이 잘못되고 말았지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 내가 당신 아들하고 대신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

그렇게 처녀가 와서 얘기를 하니, 그 집도 가만히 생각하니 좋은 일이었다. 오히려 이 처녀가 집안 사정을 알면서 와서 살겠다니 더 잘 된 일이었다. 문둥병에 걸려서 부부생활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데, 남편으로 삼아 살겠다는 것이었다. 그 집에서는 이 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다. 부잣집 아버지는

“그럼 너 오늘부터 우리 며느리 노릇을 해라.”

라고 허락을 했다. 그래서 그 집에서는 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신방을 차려 같이 살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살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같이 방을 쓰면서 보니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의 아내가 된 신부는 뭔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옛날에는 그런 소문이 돌았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 병이 나아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부는 남편을 살리려고 자신의 엉덩이 살을 칼로 도려 술에 넣고 삶아서 남편에게 먹였다. 아픔을 꼭 참고 죽기 아니면 살기란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아내의 엉덩이 살을 먹은 남편은 그길로 이틀간이나 쓰러져서 꿈
작도 못하고 누워 있었다. 아무런 의식을 갖지 못하고서 그저 숨만
쉬는 것이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많이 원망했다. 아무리
중병에 걸린 환자이지만 아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있으니 며느
리가 많이 원망스러웠다.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향해서

“네가 와서 남의 집을 망하게 하려고 살아있는 아들까지 죽였구
나.”

라며 난리가 난 것이었다. 그러자 며느리는

“아버님, 그저 참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라며 시아버지에게 참고 기다려보라고 자꾸 말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틀이 지나니까 의식을 잃고 있던 남편의 몸
에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몸에서 아주지저분한 구더기가 스멀스
멀 기어 나오는 것이었다. 얼마동안 그렇게 수많은 구더기가 스멀스
멀 기어 나오다가 그치자, 의식을 잃고 있던 남편이 의식을 되찾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일어나 밥도 먹고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
아서 문둥병이 싹 나왔다. 병이 완쾌되자, 그 집안은 아주 경사가 난
것이였다.

몸에 있던 불치의 병이 낫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
었다. 그리고 곤란했던 사실도 잘 풀리고 하니, 옛 친구하고도 다시
사이좋게 잘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 이 이야기는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설화이다. 친구간의 의리, 부부의 도리, 남매간의 의리 등등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있다. 물론 사람의 고기를 먹고 병이 나은 황당한 화소도 있지만, 그것은 이야기를 끌어가기 위한 화자의 생각일 뿐이다. 이야기는 결국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서 다행이다. 이 이야기를 계기로 우리 모두 봉우, 부부, 남매 또는 형제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친정의 명당자리 빼앗아 시집에 쓴 딸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서2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향유되는 것인데, 설화화자의 취향에 따른 더늠이 재미있다. 아들은 아무도 시묘를 하지 않는데, 딸이 혼자 묘막을 지어놓고 시묘를 하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딸이 진정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시묘를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묻힌 명당을 빼앗기 위해서 시묘를 한 것이라는 비정한 이야기이다. 세상 인정의 험악함을 풍수에 담아 이야기 한 것이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식들이 장사를 치렀다. 그때 일찍 출가를 해서 옆 동네에 살던 딸이 아버지 빈소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말을 하였다.

“아버지가 나에게 뭇도 주고 뭇도 준다했는데 주지도 않고 돌아가셨어요.”

라며 통곡을 했다. 그러니 뭐 밭이 좋으니까, 개똥밭 3천 평은 날

주네 어찌고 이러면서 빈소에서 한참을 울었다.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일부러 그런 것이었다.

그런 다음 형제들이 모여 아버지 뒤통자리에 대해서 의논을 하게 되었다. 의논을 하는데, 여동생이 와서 빈소에서 통곡을 하면서 하는 말을 들으니 같이 의논을 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출가외인이라고 생각하고 여동생을 회의에 참가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오빠들은 여동생을 잠깐 나가 있으라고 일렀다.

“우리가 이 방에서 옷을 좀 갈아입어야 하니, 너는 밖에 나가 있거라.”

라며 여동생을 나가 있으라고 하였다.

오빠들이 뭔가 긴요한 얘기를 할 것 같은 눈치를 챈 여동생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괜히 오빠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여동생은 집밖을 나가는 척하고 방밖에서 몸을 숨기고, 문에다 귀를 대고 오빠들이 하는 얘기를 엿들었다. 오빠들은 여동생이 엿듣는 줄을 모르고 아버지 산소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저기 뒷산에 가면 아버지가 산자리를 잡아놓은 명당이 있다. 그곳은 땅이 아주 노랑게 딱딱해서 그냥은 파지지 않는다. 거기를 파려면 말뚝을 세 가마 주워서 올려놓고 불을 피우면 된다.”

라고 한 오빠가 얘기하자, 또 다른 오빠가

“그 자리는 아버지 시체를 갖다가 묘를 쓰는데, 염도 하지 말고, 옷도 입히지 말고, 그냥 알몸으로 써야 한다더라.”

라며 말을 이어갔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오빠들의 말을 여동생은 문틈으로 모두 엿들었다.

장일이 되어서 장지에 아버지 시체를 묻으려고 가게 되었다. 묘혈을 파고 시체를 묻으려는데, 혈레벌떡 딸이 그곳까지 쫓아왔다. 그러면서 오빠들이 아버지 시체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관도 하지 않고 묘혈에 안장을 하려고 하는데,

“아,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분인데 어떻게 옷도 하나 걸치지 않고 올딱 벗겨서 묻을 수 있어요.”

라며 알몸으로 알토를 할 수는 없다고 야단을 떨었다. 하도 여동생이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명주를 가져다가 아버지 시체를 감싸서 안장을 하였다. 그렇게 아들들은 아무도 모르고 딸이 하자는 대로 명주로 아버지 시체를 감쌌다. 그러나 딸은 이미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일부러 아버지 시체를 명주로 감싼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 시체를 묻은 다음 딸은 아버지 묘 옆에 묘막을 짓고 는 시묘를 하였다. 아들들은 이미 아버지를 안장했으므로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딸이 그곳에서 석 달을 지키고 있는데, 백일이 된 날이었다. 딸이 아버지 묘를 자세히 보니 봉분이 꿈틀대면서 뭔가 조짐이 보였다. 딸은 그 옆에서 꿈쭈 앉고 계속 지키고 있었다. 그러더니 봉분이 켠 갈라지면서 그곳에서 용이 된 아버지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딸은 얼른 자기가 감쌌던 명주보자기를 잡고 늘어졌다. 그 때문에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던 아버지는 그만 땅에 떨어져 물로 흩어지고 말았다.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때 땅에 떨어뜨리면 용이 못되고 물이 되어 흩어진다고 한다. 그렇게 딸이 오빠들이 잘 사는 것을 못보고 자기가 잘 살라고 그만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아버지를 떨어뜨려 망가뜨리고, 시아버지 시체를 갖다가 그곳

에 묘를 썼다. 그래서 딸은 출가하면 외인이라고 하는 것이다.(『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 이야기가 상당히 씩씩한 기분을 안겨주고 있다. 아들이든 딸이든 모두 같은 자식인데, 그리고 오빠든 여동생이든 같은 남매인데 서로 잘 살면 도와주고 할 것이건만 세상은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오죽 이런 실례가 많으면 친정아버지 무덤까지 파고, 묘를 지키면서 명당을 빼앗았다는 이야기가 흔하게 전승하는 것일까? 요즘도 재산상속을 놓고 다투는 것을 뉴스를 통해 많이 보고 듣는다. 이렇게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비정한 인식이 팽배해 있는 한 이 세상은 아름다울 수 없다. 아마도 이 설화는 남매끼리 이렇게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예를 역으로 보여준 것이리라.

토끼봉의 전설

◆ **설화의 위치** : 주소는 인제군 남면 갑둔리인데, 이곳으로 가려면 홍천군에서 인제방면으로 난 국도를 타고 가다가 인제군 남면 신평리에서 오른쪽으로 접어들면 상남면으로 난 길이 있다. 이 길을 김부대왕로라고 한다. 김부대왕로는 이곳에 김부대왕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김부대왕은 다름 아닌 신라의 마지막 태자 마의태자를 일컫는다. 마의태자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김부대왕로를 따라가다 보면 상남면 김부리에 이르기 전에 있는 원갑둔리의 토끼봉에 대한 이야기다.

◆ **설화의 내용** : 갑둔초등학교 동쪽에 천지봉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해발 680미터의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마치 토끼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이를 토끼봉이라고 한다. 같은 곳에 두꺼비바위와 딱 바위가 있다.

옛날에 이곳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3년이 되어도

슬하에 자식이 없는 것이 한이었다. 이 부부는 생각다 못해 김부대왕께 찾아가 그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김부대왕은 이들의 딱한 사정을 들은 후 이들 부부에게 절을 짓고 부처님께 백일기도를 드려보라고 일러주었다.

그날부터 이 부부는 지금의 토끼봉과 두꺼비바위 사이에 절을 짓고 탑을 세웠다. 절을 다 지은 다음 곧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일어나 깨끗한 물로 메를 지어 부처님 앞에 놓고 정성을 다하여 빌었다. 이렇게 빌고 또 빌어 100일 째 되는 날에는 하얀 시루떡을 해다 놓고 마지막으로 빌었다.



이때 천지산에 있던 토끼와 천지골에 있던 두꺼비는 매일 같이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보면 부처님께서 밥을 혼자 먹어 치우기 때문에 항상 입맛만 다시고 돌아갔었다. 100일 쯤 되는 날도 토끼와 거북이가 와보니 먹음직스런 시루떡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부처님은 그 떡을 토끼와 두꺼비에게 먹으라고 하였다. 토끼와 두꺼비는 어찌나 반가웠던지 서로 많이 먹으려고 하였다. 부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중생들의 못 난 짓들이구나!”

라고 말하며 떡시루를 집어서 개울 건너로 던져버렸다. 토끼는 부끄러워서 머리를 돌렸고 두꺼비는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앞발을 쳐들었다. 이때 하늘에서는 번개가 일고 천둥이 쳤다. 그러자 토끼와 두꺼비는 그대로 굳어 버렸고 던져버린 시루떡은 세 조각으로 갈라져 큰 바위가 되어 버렸다.

그 후 이들 부부에게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과 토끼 같은 딸을 쌍둥이로 낳아 잘 기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김부대왕이 죽은 후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김부대왕각을 짓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며 동리 사람들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다 대왕각에 가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이곳에 탑과 절 주초만 남아 있고 토끼가 앉아 있는 모습의 토끼봉과 두꺼비모양의 바위(일명 툃대바위)가 있고 냇가 건너편에 떡바위가 있다. (『김부사적기』, 『인제군사』, 『인제군 유적,지명,전설』)

◆ **설화의 의미:** 일상적으로 토끼는 설화에서 나약하지만 꾀가 많은 동물로 등장한다. 우리가 잘 아는 호랑이와 관련된 토끼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설화에서 호랑이는 절대 토끼를 이기지 못한다. 비록 호랑이는 힘은 세지만 연약한 토끼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설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민중들이기 때문이다. 토끼가 곧 권력자인 호랑이의 상대역인 민중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른 동물은 자기의 굴을 뚫을 때 구멍을 하나만 파지만, 토끼는 세 구멍을 파서 언제든지 포식자가 침입해 오면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둔다.

이 설화는 토끼붕이라는 산의 특성을 살려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 설화는 복합적으로 깨달음, 자식을 비는 기자속(祈子俗), 지명유래 등이 담겨 있다.

특티기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우연히 임금님을 만나 학이라는 글자를 알고 잘못 말한 특티기란 말 때문에 과거에 급제해서 잘 살게 되었다는 우연담이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임금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미복잠행을 하고 계셨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러 다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밤이 늦은 시각에 어느 곳에 이르렀는데 방에는 불이 켜져 있고 방안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임금님은 궁금해서 그 집에 들러가기로 하였다.

임금님은 자신이 임금이라는 것을 속이고 문을 두드려

“나는 길을 가는 나그네인데 마침 집에 불이 켜 있어 담배 한 대 피고 가려고 들렀는데, 들어가도 되겠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집 주인은

“예 들어오세요.”

라며 아주 순순히 임금님을 맞이했다. 그러자 임금님은

“이렇게 밤이 늦었는데 글공부를 하시는 군요?”

라며 물었다. 그러자 글을 읽던 집주인은

“네 저희가 글을 한 자도 몰라서 매일 지게 짐만 지고 삽니다. 그런데 글을 배우려고 이렇게 책을 펴놓고 있습니다만 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흥얼대기만 합니다.”

라며 처지를 한탄하였다.

임금님은 열심히 배우려고 하나 배우지 못하는 그 사람의 처지가 딱함을 보고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커다랗게 그린 새를 한 마리 꺼내서

“이것은 학이라는 새요. 이 학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있으시오. 나중에 이 학과 관련한 과거 제목을 줄 터이니, 과거를 치러서 그 길로 먹고 사시오.”

라고 하였다. 임금님은 그날 밤 그 사람 집에서 머물고 궁궐로 돌아갔다. 그 사람은 매일 임금님이 준 학 그림을 꺼내서 잊지 않으려고 학을 되 뇌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가보니 학이 그려진 그림과 함께 과거를 치른다는 방이 붙어 있었다.

그 사람은 집에 와서 부인에게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간다는 말을 했다. 그의 부인은 의아했지만 남편이 과거를 잘 보고 오라고 어디 가서 돈을 융통해서 새 옷을 해 입히고, 노잣돈을 쥐서 과거를 보고 오라고 떠나 보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집을 떠나 과거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그만 임금님이 준 학 그림을 잃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임금님은



그 사람을 오라고 했기에 이름을 알고 불렀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학을 그린 그림을 꺼내서

“이게 뭐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학이라고 하면 금방 합격할 텐데, 간직하고 있던 학 그림을 잃어서 금방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특티기요.”

라고 하였다. 그러자 임금님은

“이게 학이지 어떻게 특티기야.”

라며 실망을 해서 당장 나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낙심하고 풀이 죽어서 나오는데 과거보러 온 선비들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

“나는 ‘특티기요’라고 했소.”

라 했다. 그러자 과거보러 온 사람이

“그럼 나도 ‘특티기요’라고 해야 겠소.”

라 하며 들어갔다.

그래 임금님이 역시 학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요?”

라고 물으니, 이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특티기요.”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 임금님이

“아니 이게 어떻게 특티기요. 학이지.”

라고 하자, 이 사람은

“임금님, 어미는 학이고, 학의 새끼는 특티기가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랬더니 임금님은

“알았으니, 나가시오.”

하였다. 임금님은 이 사람이 나간 후에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특티기가 학의 새끼란 말은 처음 들었지만 두 사람이나 특티기라 하니,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다면 먼저 대답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당연하였다. 그래서 임금님은 학의 그림을 그려 주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러고는

“특티기가 학의 새끼라니, 네가 먼저 말을 했으니, 너에게 상으로 벼슬을 주겠노라.”

라며 그 사람에게 전라감사를 시켜주었다. 결국 나중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큰 벼슬을 얻은 것이다. 그 덕분에 그 사람은 큰 벼슬을 얻어서 잘 살았다고 한다. (『인제군 학술답사 보고서』)

◆ **설화의 의미** : 정말 설화다운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설화의 주인공은 운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때 주인공은 정말 우연히 임금님을 만나고 벼슬을 얻었지만, 우리는 설화의 주인공이 잘 살아 보겠다고 행한 글공부의 노력을 생각해 봐야 한다. 주인공이 지게 짐만 지는데 만족하며 살았다면 이런 큰 행운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잘 모르지만 글을 배우려고 흥얼거린, 그야말로 주경야독을 한 덕분이라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도움을 주는 사람인 임금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무엇이든 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행운이 주어지는 것이지, 세상 한탄만 하면서 지내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이 설화의 주인공처럼 우연하게 큰 행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할 일이다.

팔도강산의 호랑이를 다 잡은 오형제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서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2003년 당시 77세 된 서2리에 사는 전시언 제보자가 이야기한 것이다. 이는 마치 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길에서 만난 여섯 의형제>와 비슷한 줄거리를 갖고 있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견 바람이(부풀림) 좀 들어갔다. 그러니까 한 고을에 조 천석 막대기를 짊고 다니는 장수가 있었다. 지팡이에 조 나락 천 섬을 넣은 무거운 지팡이를 짊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팔도에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없을 거라며 팔도 유람이나 하겠다고 길을 나섰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주막집을 찾아 길을 가는데 어떤 꺨짜을 진 사람이 앞에 길을 가고 있었다. 그 사람은 아마도 무슨 보따리 장사를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천석막대기를 짊은 사람이 여간 빨리 가는 것이 아닌데, 도저히 그 사람을 따라 잡을 수가 없었다. 꺨짜을 진

괘짝쟁이가 천천히 가는 것 같은 데도 천석쟁이가 따라잡지 못했다. 그러다가 해가 넘어갈 때쯤 주막에 들르게 되었는데, 그 괘짝을 진 괘짝쟁이도 괘짝을 마루에 벗어놓고 주막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천석쟁이는

“저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저렇게 나보다 빨리 가나?”

라면서 마루에 올려놓은 괘짝을 들어보았다. 그러나 작은 괘짝은 천석쟁이가 아무리 들려고 해도 들 수가 없었다.

“이런 무거운 괘짝을 지고 나보다 빨리 가니 힘이 나보다 더 세구나.”

라고 생각하고, 방안으로 들어가서 형님이라고 모셨다. 옛날에는 힘이 센 것이 형님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그 주막에서 자고

“이제 우리 두 형제면 겁날 것 없다.”

라며 길을 가고 있었다. 한참 가다가 보니, 어떤 사람이 너럭바위 위에서 큰 바위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다. 큰 바위를 드는 것도 아니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으니 여간 힘이 센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길을 가던 두 사람은 공기놀이를 하는 사람에게 가서 옆드려 절하면서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했다. 그 사람은 기름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공기쟁이를 모시고 또 길을 가게 되었다. 천석쟁이, 괘짝쟁이, 공기쟁이가 3형제가 되어서 길을 가면서 우리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보니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엄청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바위 위를 올려다보니 어떤 사람이 오줌

을 누는데 오줌줄기가 바위를 넘어 큰 소나기가 되어서 한참을 내리 퍼붓는 것이었다. 얼마나 힘이 세면 오줌줄기가 그렇게 세겠나 싶어 세 사람은 올라가서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했다. 그래서 오줌쟁이와 같이 4형제가 되었다.

4형제는 이제 우리는 겁날 것 없다면서 길을 갔다. 한참을 가다가 보니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었다. 동쪽에서 해가 올라 그늘이 지면 서쪽까지 가고, 서쪽에서 해질 때는 동쪽까지 그늘이 지는 큰 나무가 있었다. 그 그늘에서 4형제는 누워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렇게 잠을 자는데 갑자기 그 큰 나무가 뉘어지면서 4형제가 자는 곳등까지 닿았다가 올라가기를 반복했다.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니 어떤 사람이 코를 골면서 자는데 콧김에 그 큰 나무가 휘어졌다가 바로 했다가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4형제는 저 사람이야 말로 참 형님이라고 해서 모두 가서 절을 하고는 형님으로 모셨다. 그래서 콧김쟁이까지 모두 5형제가 되었다.

5형제는 이제 정말로 세상 무서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보니 날은 저물고 배도 고프고 한데 어디 머물 곳이 마땅찮았다. 그래서 주위를 살펴다보니, 껌껌한 곳에서 어디 불빛이 비쳤다.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 대문이 5개인 큰 기와집인데 안에서 불빛은 새어나오는데 아주 조용했다.

그래서 5형제는

“아, 주인양반 계십니까? 계십니까?”

하고 안을 향해 불렀다. 그렇게 부르고 나니 그 안에서 모기 소리 만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귀신이거든 나가시고, 사람이거든 들어오시오.”

라는 처녀의 목소리였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니까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갔다. 5대문을 차례로 열고 들어가 보니 처녀 혼자서 안방에 앉아 있었다.

“왜, 이 밤중에 이렇게 큰 집에 처녀 혼자 있소?”

라고 물었더니, 처녀는

“이 골짜기에 가면 아주 산더미 같이 많은 호랑이가 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을 한 해에 한 명씩 물어갔는데, 오늘 저녁에는 나를 물어갈 차례입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5형제는

“그러면 우리가 모두 장사니까. 그까짓 호랑이 오면 다 잡아버릴 테니까. 걱정 마시오.”

하고 그곳에서 머물렀다. 처녀는 밥을 차려서 5형제에게 실컷 먹도록 주었다.

“오늘 밤 12시면 호랑이가 내려옵니다.”

라고 처녀가 알려주었다. 5형제는 처녀가 호랑이 잡는 소리에 놀랄까봐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5개 대문에 5형제가 한 명씩 보초를 섰다. 제일 바깥 대문에는 천석쟁이가 서고, 두 번째 대문에는 궤작쟁이가 서고, 세 번째 대문에는 공기돌쟁이가 서고, 네 번째 대문에는 오줌싸개쟁이가 서고, 제일 안쪽에는 킷김쟁이가 지키고 서 있었다. 마침내 아주 커다란 호랑이가 대문을 열고 들이 닥쳤다. 첫 번째 천석쟁이가 냅다 쳤는데 호랑이는 아무

소리도 안하고 둘째 문으로 쑥 들어갔다. 그래서 꺾쟁이가 냅다 쳐도 꿈쩍 않고 셋째 문으로 들어갔다. 세 번째 문에서 공기돌쟁이가 힘껏 쳐도 그냥 네 번째 문으로 들어갔다. 네 번째 문에서 오줌쟁이가 힘껏 박아도 호랑이는 끄덕도 않고 다섯째 문으로 들어갔다. 다섯째 문을 지키고 있던 콧김쟁이가 콧김을 날리자 그만 호랑이는 천리 밖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막내 호랑이가 돌아오지 않자 어미가 둘째 호랑이에게 들어가 보라고 했다. 둘째 호랑이도 들어와서 다섯째 문까지 가서는 콧김쟁이에게 날아가 버렸다. 그렇게 밤새 들어오는 호랑이를 치고 때리고 박으면서 마지막에 모두 콧김으로 날려 보냈다. 호랑이 우는 소리에 산이 찌렁찌렁하면서 천둥 치듯 했는데, 모두 천리 밖으로 날려 보내 죽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와 보니 처녀는 호랑이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만 기절해 있었다. 그래서 5형제는 손수 미음을 쑤서 처녀를 살렸다. 그래서 그 처녀는 콧김쟁이 만형에게 시집을 가서 살고, 5형제는 팔도로 다니면서 모든 호랑이를 다 잡았다. 그리고 다들 장가들어서 잘 살았다. (『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 아주 재미있고, 통쾌한 이야기이다. 5형제의 만남과 제주도 황당하면서 설화적 재미를 줄뿐더러, 탐관오리로 대변되는 호랑이를 천리 밖으로 날려 보내 죽이는 통쾌함까지 갖춘 설화이다. 혼란한 시대에는 언제든지 이 설화의 5형제 같은 영웅이 탄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탐관오리를 처형하고 합리적이고 진실한 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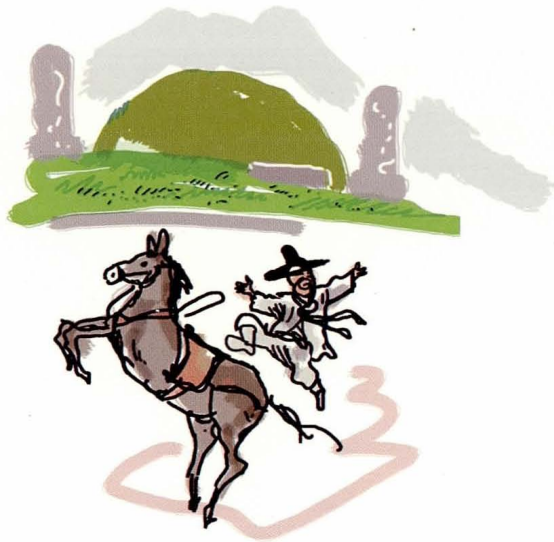
하마로(下馬路)와 박대감 이야기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현리. 원래 박대감의 묘는 현재 군 부대 안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군부대를 짓기 위해서 옮겼다. 그래서 지금은 기린면사무소 뒤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무덤을 옮길 때 이 유 없이 도저 날이 부러져서 제를 올리고 땀으며, 무덤 속에는 주발과 숟가락 등이 나왔다고 한다.

무덤 앞에는 박대감의 사당도 있다. 이 사당에서 매년 마을 사람들이 서낭신격으로 박대감제를 지냈으나, 얼마 전부터 춘천 박 씨의 후손들만 제사에 참가하고 있다. 그 원인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왜 박 씨들 조상인데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느냐고 해서였다. 이 박대감은 춘천 박 씨의 시조 박항의 맏아들이라고 한다. 박항도 고려시대 때 평장사를 지낸 정승이었다. 그의 무덤은 춘천 신북읍에 있는데 사두형(蛇頭形) 무덤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박원평이 살았던 시절은 조선의 건국과 관련이 없으나 설화에서는 조선조의 건국과 관련해서 귀양을 인제에 오게 되었다고 했다. 어찌 되었든 박원

굉은 인제군 기린면 현리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으며, 관련 설화도 많이 갖고 있는 인물이다.

◆ **설화의 내용** : 고려 말의 충신인 박원굉(朴元宏)은 임금을 받들고 섬겨왔다. 그러나 고려가 망하자 조선조 태조 이성계가 개성으로부터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왕위에 오르자 그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끝내 이를 거부하자 왕명을 거역한 역적으로 몰려 그때 가장 험한 땅인 강원도에 귀양을 오게 됐다.



귀양에 오른 박원굉이 이곳에서 여생을 보낼 것을 결심하고 밭을 일구어 그곳에서 한 많은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다가 부부는 세상을 떠났는데 그 시체는 자손들에 의해 하마로 언덕에 합장되었다 한다.

그 후 세월이 흐르자 이 부부가 합장되어 있는 묘(墓) 주변에 영월
엄 씨를 비롯한 많은 묘가 생겨서 이들의 후손들이 선조의 묘를 찾을
수 없게 됐다. 이러던 무렵 기린면 현리 하덕(下德)에 살고 있는 이들
의 장손인 한 집안 사람의 꿈에 박원광이 나타나 후손을 꾸짖고
“주변의 다른 묘를 옮기라.”

고 말했다. 꿈에 선조를 만난 이 후손은 다른 묘를 전부 이장했으
며 이때 박원광의 묘와 망부석까지를 전부 되찾아 냈다.

그 후 이 묘 부근에 아낙네들이 빨래를 널면 꼭 한 가지씩 없어졌
는데 그 다음 날 볼 것 같으면 빨래에

“다음부터는 이곳에 빨래를 널지 말라.”

는 금기의 글이 쓰여 묘 앞에 걸려 있는 것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근 사람들은 지금까지 묘 앞에는 빨래를 널지 않는다고 한다.

또 이 앞에는 길이 나 있는데 이 묘가 생긴 후부터는 가마, 영구, 말
같은 것이 지나면 꼭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어느 날 평장사 박원광의 묘를 쓰고 얼마 안 되어 이곳 인제현감이
새로 부임할 때의 일이었다. 신임현감은 심산유곡 호젓한 벽지에 꺼
릴 것이 무엇이라 싶어서 나귀등에 높이 올라 앉아 오만하게 평장공
묘 앞을 지나려고 했다. 그때 묘 앞까지 온 나귀의 발굽이 갑자기 땅
에 못 박힌 듯 붙어서 도무지 꿈쩍을 못하게 되었다. 놀란 현감은 금
세 얼굴빛이 파랗게 질렸다. 뒤 따르던 아전 구실아치 무리들도 눈이
휘둥그래지자

“이 어찌된 연고 인고, 까닭을 아는 자 없겠느냐?”

라고 현감이 안타까이 주위를 돌아보며 물어보았다. 그때

“예, 소인이 아는 바를 아뢰려고 합니다.”

며 이 현아(縣衙)에 전부터 있던 벼슬아치가 현감 앞으로 나와 읍하였다.

“네 아는 대로 직고하라.”,

“예,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여기는 승마고좌(乘馬高坐, 말을 타고 높이 앉아)하고는 지나가지 못하는 곳이옵니다. 간좌원에 평장공이 현영(顯靈)하옵기로 하마보행 하여야만 비로소 통과 보행할 수 있나이다.”

그제야 현감은 고개를 끄덕이고 얼른 나귀등에서 내렸다.

“웁도다. 평장공께서 예 계신 줄 미처 몰랐었노라.”

현감은 깊이 깨우치고 이곳을 걸어서 지나갔다.

그리고 현감은 다음 날 이곳에 하마비(下馬碑)를 세워 놓았다. 이로부터 누구나 이 길을 지날 때는 반드시 나귀에서 내려 걷게 되었으며, 이곳을 하마로(下馬路)라고 부르게 되었다.(『인제군사』, 『인제군 유적.지명.전설』)

◆ **설화의 의미** : 전국에 걸쳐서 하마비는 곳곳에 있다. 사찰 입구에도 하마비가 있고, 서원이나 향교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하마비가 있듯이 하마비는 곳곳에 있다. 아울러 박원평의 묘 입구에 하마비를 둔 것은 고려시대 평장사까지 지낸 인물이 시골에 와서 여생을 마치고 무덤을 두었기 때문에 지방민들이 그를 존경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박원평은 마을의 서낭신으로 좌정했던 인물이다. 서낭신은 마을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신으로 감히 그의 무덤 앞을 말을 타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마을의 신격

으로 좌정하고 있는 그의 무덤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설화도 생겨나고 하마로라는 지명까지 붙여지게 되었다.

학칠령 골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학칠령이라는 지명이 생긴 유래담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의 중심은 우리가 흔히 보는 풍수담의 하나로 지관의 말을 따르지 않아서 명당의 지기를 잃은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는 도처에 전하고 있는데, 부유하고 풍요롭게 삶을 누리지 못하는데 대한 원인을 풍수담에 두고 이야기하는 당위론적인 것이다.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위로하면서 삶을 추스르는 데는 이런 이야기도 필요하다고 본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에 살던 어떤 사람이 아버지 상을 입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를 명당에 모실 생각으로 지관(地官)에게 산소를 보아 줄 것을 부탁했다. 그랬더니 그 지관은 “산소 자리를 내가 잡아주되 내 말을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됩니다.”라며 먼저 다짐을 요구했다. 상주는 지관에게 그러겠다고 쉽게 약

속을 했다. 이어서 지관은 양지바른 한 골을 묘지로 잡아 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산자리를 파들어 갈 때 넓적한 돌이 나오면 더 이상 파지 말고 하관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손 중에 귀인이 나와 집안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묘지를 팔 때 아무리 친한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아는 체 하지 말고 인부들이 바위를 뒤적이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하고 일러 주었다.

장사날이 와서 그 상주는 지관이 가르쳐 준 곳에 묘를 팠다. 상주는 인부들이 묘를 파고 있을 때 처음에는 지관의 말을 지키느라고 살펴보았으나 평평한 돌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관의 이야기가 차츰 믿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럴 즈음 그곳으로 찾아온 아웃사람이 있었다. 상주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느라고 묘지를 지켜보지 않았다. 이때 묘혈을 파던 인부들은 때를 맞추어 나타난 넓적한 돌을 파 일구었다. 인부들은 그 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몰랐기 때문에 파서 일궈낸 것이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 학 한 마리가 푸드득 날라 올라 고개 너머로 날아가는 것이었다. 상주는 뒤 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다. 날아간 학을 다시 잡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묘지에서 학이 날아간 후 밋자리를 보아 준 지관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그 상주의 후손 중에서는 지관의 말처럼 그 집안을 일으킬 만한 인재는 영영 태어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상주가 지관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학을 날려 보냈기 때문에 그 후손 중에는 등용되는 인재가 태어나지 않고 있다고 믿었으며 묘지에서 학이 나와 산 너머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곳을 ‘학칠령’이라 부른다. (『인제군사』)

◆ **설화의 의미** : 이 이야기는 풍수담을 활용한 지명유래담이다. 이야기는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다.

첫째는 후손의 부주의에 대한 것이다. 순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학이 날아가고 땅의 기운을 얻지 못한 것이다. 후손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조금만 주의 깊게 지관의 말을 따라 행했으면 집안이 필 것인데 잠시의 부주의로 인해서 영영 지기를 얻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시간을 많이 두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순간에 발생한다. 잠시 방심하는 틈을 타서 일은 벌어지는 것이다.

둘째는 지관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지관은 뭇자리에 한해서는 전문가이다. 그런 전문가가 조언을 하고 당부한 말을 불신하여 실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 때문에 찾아온 복을 놓쳤다. 이런 불신은 당사자가 과거에 행한 업적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내가 남보다 잘 낫다는 우월감에서 비롯하는 경우도 있다. 일종의 자만심인데 이런 자만심은 일을 그르치기가 쉽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것을 아는 척 하는 것과 좁은 의견을 고집하면서 자신의 얕이 전부인양 착각하기 때문에 일은 벌어진다. 무조건 남의 말을 믿어서도 곤란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자신의 식견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모르면서 아는 체 하지 말고 알더라도 물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형관 스님의 현몽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남면 갑둔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홍천에서 인제군으로 가는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인제군 초입새의 어론리를 만나게 된다. 어론리를 막 지나는 곳에 상남면으로 가는 길의 이정표를 발견하게 된다. 이 길을 김부대왕로라고 하는데, 이곳으로 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김부탑이라 쓴 표지판을 만나게 된다. 그곳에 차를 세우고 계곡 옆으로 난 산길을 따라 조금 오르면 김부탑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이곳이 꿈에 본 곳이다.

이 김부탑은 1987년에 갑둔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던 이태두 선생이 발견하여 복원해 놓은 것이다. 그곳 탑돌에 새겨놓은 글이 있는데, 연도는 1036이다. 지금으로부터 천 년 전의 것이다. 그 명문 때문에 학계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설화의 내용** : 경기도 의정부 소재 원오선원이란 암자에 있던 형관 스님(여, 당시 36세)의 황당무계한 것 같으면서도 불가사의한 꿈 이야기를 소개한다.

형관스님이 1986년 여름 수도를 하기 위해 계룡산에 들어가 생활 하던 중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 점잖은 스님 세 분이 나타나 왕자를 구하고 살리기 위해 사당을 짓고 땅 속에 묻힌 구슬 세 개를 찾아야 한다며 인제의 어느 산을 오르는데 어떤 묘를 지나 골짜기 물(계곡물)을 따라 올라가니 우물이 있는 평평한 곳에 이르렀다.

그 스님들이 이르기를

“3년 후 6,7월이 되면 빛이 나는 구슬(보물) 한 개는 쉽게 찾겠으나 두 개는 찾기 힘들겠다.”

라고 말하였다. 바로 그때 서쪽에서 눈부신 강한 빛이 비치어 꿈을 꿔다.

그 후 형관 스님은 꿈이 잊히지 않았고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신념이 생겼다. 그래서 1987년도에 인제군 현리 부근까지 와서 꿈속의 지형을 찾으려다 실패하고 돌아갔었다.

그러던 중 1988년 6월 20일경 역시 계룡산에 가서 기도를 하던 중 또 꿈을 꾸게 되었다. 그때 왕비라는 사람이 나타나 아들을 살릴 사람을 천년동안 찾았으나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했는데 이제 나타났으니 자기는 떠난다며 사라졌다. 그때 서산에 강한 빛이 비쳐 눈이 부시므로 손으로 그 빛을 막으려 했으나 막을 수가 없었다.

3년 전 꿈속에서 본 꼭 같은 산골짜기인데 왕족의 집이라는 곳을

지날 때 키가 작고 갑옷과 투구를 쓴 20세 전후의 남자 2명이 나타나 자기들을 따라 오라고 하였다.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꼭 따라와야 한다고 하므로 결국 따라가게 되었다.

얼마쯤 따라가니 큰 바위 밑에 우물이 있고, 그 옆에 왕자의 집이 있었다. 물을 떠먹으려고 우물에 손을 넣었으나 닿지 않으므로 나뭇잎으로 끈을 엮어 우물 안으로 넣으니 그 끈을 잡고 왕자가 나타나 하는 말이

“이제 나를 구하고 빛내줄 사람을 만났다.”

고 하였다. 그래서 형관 스님이

“앞으로 정성을 다하여 모시며 빛나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니 역시 서쪽에서 섬광이 일어 깜짝 놀라 줬다. (『인제 조상의 열』)

◆ **후일담** : 그 후 형관 스님은 그 꿈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인제군 갑둔리에서 오미자 농장을 하던 정윤희 사장의 친척인 이 뭐 교수가 예불을 드리러 원오암자에 갔다가 형관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인제 갑둔리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스님이 꿈에 본 내용과 같은 곳이었다. 그래서 스님은 1988년 6월 29일 인제 갑둔리를 찾았고, 현재 있는 김부탑에서 예불을 드렸다. 이곳에 와보니 자신이 꿈에 본 지형과 너무나 똑 같아 놀랐다고 한다. (『인제 조상의 열』)

◆ **설화의 의미** : 꿈은 아주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갑둔리 5층 석탑인 김부탑과 관련한 꿈은 일종의 계시로 보면 된다. 곧, 원혼을 쫓다거나, 신 내림을 받는 유형의 것이다. 이는 신과 인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매개자가 자신의 몸주를 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속신은 살았을 때 아주 뛰어나거나 원한이 있는 사람이 죽어서 된다. 아주 뛰어난 사람은 특별히 누구에게 의탁하지 않고, 무속인이 스스로 몸주로 삼지만, 원한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 대상을 정해서 의탁을 한다. 이때 의탁을 하는 방법 중 하나가 꿈이라는 장치를 통하게 되는 것이다. 이 꿈 이야기도 스님을 통해서 원한을 푸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대상이 마의태자인 김부대왕이었고, 신라의 마지막 왕자인 마의태자가 스님을 통해서 자신의 한을 푸는 것이다. 그 과정 중 하나로 인제 갑둔리 김부탑까지 오게 된 것이다.

호랑이가 머리 빗긴 여인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호식총이라고 해서 호랑이에게 물려간 사람의 무덤을 쓰고 그곳에서 화장을 했다고 해서 화장터라는 지명이 생긴 내력을 이야기 하고 있다.

◆ **설화의 내용** : 옛날 방동리 휴양림 쪽으로 한 20리 들어가면 산골에 화전민이 한 칠십 세대정도 살았다. 지금은 한 집도 살지 않지만 그 골짜기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룻밤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옛날엔 귀틀집을 짓고선 지붕을 할 게 없으니까 나무껍질로 만든 굴피, 나무판자로 만든 너와, 새풀로 만든 새집 등으로 지붕을 했다. 너와도 못이 없으니까 지붕에 얹고는 돌을 눌러 고정을 시켰다. 그게 하도 산에 짐승도 많고 하니 울타리를 둘러놓았는데, 호랑이가 어떻게 지붕을 타고 올라와서 너와집 지붕을 일으켰다. 그렇게 호랑이가



왔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는 날 썰 때까지 기다렸다. 호랑이는 그 집에 들어서 아주머니를 물고 달아난 것이었다.

아침이 되어 강 건너 진대리라는 곳에 여동생이 사는데, 처남이 자꾸 소리를 쳐서 나가보았다. 그렇게 매제가 나가보니, 처남이 뭐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다. 강이 넓고 범람해서 건널 수는 없고 소리만 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매제, 엿저녁에 무사했는가? 아, 우리는 엿저녁에 호랑이가 왔었네.”

라며, 지금은 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동생은 괜찮냐구.”

자꾸 그랬다. 물이 많아 건너지는 못하고, 소리만 치고 있었다. 그렇게 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서 그냥 ‘갔다고’하는 말만 겨우 들었다. 그렇게 이삼일이 지나서 물이 좀 줄어 매제가 강을 건너가보니, 호랑이가 처남댁을 물고 간 것이었다.

그래서 매제는 동네사람들을 모아서 쫓아가기로 하였다. 당시 하도 산골이니 사람도 많지 않았다. 그래도 사람을 모아서 처남댁을 찾으러 가기로 하였다. 그래 집을 나서니 호랑이가 처남댁을 끌고 간 자리가 풀이 눌러 나 있었다. 풀이 물체를 끌고 가면서 누운 자국이 강을 건너 나 있었다. 그래 강을 건너서 말등바우를 지나 계속 나 있었다.

말등바우를 지나서 큰살두라는 데까지 흔적이 나 있었다. 장정들이 자국을 따라 그곳에 찾아드니, 여자의 몸은 없고 머리만 딱 꿰어서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머리를 아주 곱게 빗겨서 바위 위에 올려놓은 것이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호랑이에게 물려간 바로 그 여자였다. 동네 사람들은

“야, 이거 큰일 났다.”

면서 날이 어두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철수를 하고, 다음 날 일찍 준비를 해서 올라갔다.

다음날 동네사람들이 올라가보니, 이미 머리도 다 뜯어먹고 뼈만 남아 있었다. 깊은 골짜기 바위 위에 머리뼈만 남아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나무를 모아 불을 해 놓고는 남아 있는 머리카락과 뼈를 모두 태웠다. 그리고 돌을 주워 주위를 돌리고 무덤을 만들어서 그곳에 그렇게 장사를 지냈다.

그곳에서 그 두개골을 태워 장사를 지냈다고 해서 사람들은 아직도 그곳을 화장터라고 부른다. 큰 살두 골짜기 화장터라고 한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돌을 둘러놓고 나무를 때서 화장을 한 흔적이 있다고 한다.(『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는 대부분 실제담이다. 실제로 호랑이에게 물려가 죽은 호식장 또는 호식총의 풍속을 전하는 것이다.

특히, 강원도 산골에는 이런 호식총, 곧 호랑이에게 물려가 죽은 사람의 무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강원도는 산이 깊은 탓에 호랑이도 많이 살고 있었고, 그 때문에 피해도 많이 보았다. 우리 설화 중에는 이런 실제담으로 구성된 호랑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다. 태백의 경우는 호식총만 사진을 찍고 위치를 적어 모아놓은 것이 한 권의 책으로 될 정도로 많았다. 소도당골에서 태백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길가 오른쪽에 돌무더기로 쌓아올린 돌탑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호환에 간 사람의 무덤인 호식총이다.

인제군도 예외가 아니어서 <호랑이가 머리 빗긴 여인>과 같은 이야기가 전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호랑이가 먹고 남긴 머리를 불에 태워 화장을 하고, 돌담을 쌓고, 떡시루를 얹어 놓고, 큰 쇠꼬챙이인 가락을 꽂아두는 것은 박지원의 <호질>에서 보듯 창귀라는 귀것의 작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호환에 가면 창귀가 생겨서 호랑이에게 자꾸 사람을 잡아먹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그런 창귀가 나오지 못하도록 불로 태우고 돌로 놀리고 뜨거운 떡시루를 얹어두고 쇠꼬챙이로 찔러 더 이상 호환이 없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우리의 풍속이다. 어찌면 이런 풍속은 단순한 호환만 방지한 것이 아닐 것이다. 호환을 방지하듯 다시는 어떤 세력으로부터 백성들의 피해가 없도록 방지하는 예방법이기도 했을 것이다.

호환에 간 여자의 울음소리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기린면 진동1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이 설화는 호환에 간 여자가 귀것이 되어서 밤에 울면서 사람을 불러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한다는 이야기이다. 연암의 소설 <호질>에 나오는 창귀와 같은 것으로 호환에 가면 창귀라는 귀신이 되어서 사람들을 불러 또 사람을 잡아먹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설화를 설화화자가 자신의 경험담으로 이야기하여 더욱 사실감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 **설화의 내용** : 옛날에 내가 기린면 현리를 갔다가 진동으로 오는 길이었다. 예전에는 그곳에도 군부대가 있었다. 그렇게 밤에 길을 가다가 말등바우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인데 어디 선가 부르는 소리가 났다.

“어~이, 어~이.”

하면서 어디선가 부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때 세 명이 길

을 가다가 모두 똑같이 그 소리를 듣고는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부르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군인들이 부르면 가야 하니까 셋이서 함께 군부대로 내려갔다. 그런데 군부대 앞까지 내려갔으나 멀쩡하게 아무도 부르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는 아무도 부르지 않으니, 다시 말등바우 쪽으로 걸어왔다.

그런데 말등바우 쪽에 오르기만 하면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옛날에 말등바우 쪽에서 어떤 여자가 호환에 가서 죽었던 것이 기억났다. 호랑이가 마을에 있는 여자를 물어다가 말등바우 위에 올라가서 여자를 잡아먹었다. 그래 여자를 잡아먹고는 호랑이 헛바닥으로 여자의 머리카락을 싸악 ~ 싹 빗어서 뒤로 넘겨 세워 두었다. 다른 부위는 모두 먹고 여자의 머리만 돌 위에 세워 둔 것이다. 그것도 머리카락을 잘 빗겨 두었으니 더욱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여자가 호환에 간 뒤로 여자는 창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이었다. 그날 밤도 그 여자가 된 창귀가 사람을 불러대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 사람 모두 바짝 겁을 먹었다. 산길인데다 작은 길이므로 더욱 겁이 났다. 그렇게 작은 산길로 걸어갔다. 옛날에는 물이 많아서 찾길도 없고 해서 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산 중턱으로 해서 막 걸음아 나 살려라며 뛰어오는데, 갑자기 앞에 어떤 물체가 나타났다. 그래 어두운 밤에 이래 보니 무슨 돌맹이 같기도 하고, 무슨 짐승 같기도 한 것이 앉아 있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호랑이가 앉아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 셋이서 이렇게 보니 그 도랑 있는 곳에 그놈이 앉아 있는 것

이었다. 돌맹이를 집어가지고 그놈한테 획 던지니, 그놈이 획 하고 소릴 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놀라가지고 막 울면서 집으로 내리 뛰었다. 그 다음은 호랑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허둥지둥 뛰어서 사람 사는 동네에 와서 그 애길 하니까, 그 집의 주인인 영감이

“그 옛날 호랑이가 여자를 붙들어 가서 그곳에서 먹은 후, 머리만 놓았는데, 그 여자가 귀신이 되어서 밤이면 울어.”

라고 말을 했다. 그렇게 밤에 여자가 귀신이 되어서 우는 것을 보았다. (『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 설화에서 호환에 간 여자가 자신과 똑 같이 호랑이에게 먹힐 대상을 찾아 소리를 지른다고 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산촌에서는 창귀를 예방하기 위해서 호식총이라는 독특한 무덤을 썼다. 호식총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무덤을 일컫는 것이다. 화장을 하고 화장을 한 재 위에 돌을 쌓고 그 위에 시루를 거꾸로 덮고 시루 구멍에는 가락을 꽂는 형태이다. 산촌에서 예방할 수 있는 도구는 모두 동원해서 쓰고 있다. 태우고 돌로 짓누르고 뜨거운 열로 억제하고 꼬챙이로 찔러 창귀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실재행위는 정말 호랑이에게 물려갈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호랑이가 권력을 상징한다고 보면 또 다른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한 번 권력층에 있는 사람에게 포섭이 되면 자신이 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꼬리를 물고 비리는 자행되는 것이다. 여자의 울음은 탐관오리에게 포획이 되어 재산을 탕진하고는 또 다른 희생자를 찾기 위해서 울부짖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호환에 간 사람이 창귀가 되어서 또 다시 희생자를 찾는 것으로 설정하여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황조막과 박진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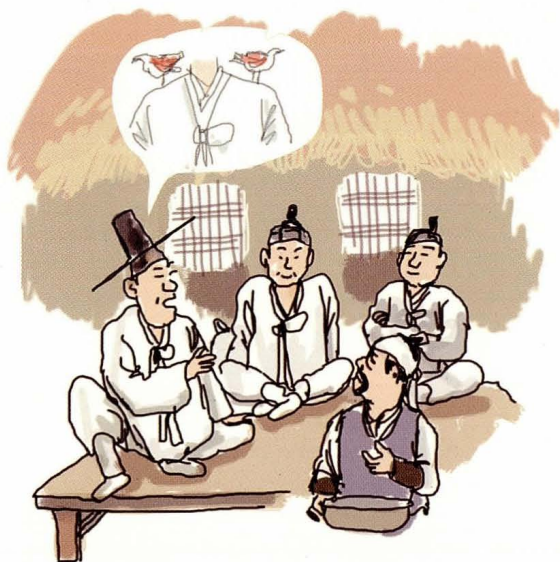
◆ **설화의 위치** :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하추리(下楸里)는 가래나무가 많다고 하여 가래나무 추자를 쓰는 추동(楸洞)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인제읍에서 내린천을 따라 기린면 방면으로 가다가 보면 왼쪽에 있는 마을이다. 귀둔리 못 미쳐 가리산천을 끼고 한석산 아래에 위치해 있다. 이 마을의 특산으로는 송이버섯이 많이 난다. 그래서 마을 입구를 들어서면 버섯을 뒤집어 쓴 장승들을 만나게 된다. 내린천을 끼고 있어서 래프팅과 민박 펜션 등이 많다. 몇 년 전 홍수를 만나서 복구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지만, 현재는 말끔하게 단장되어 있다.

인제군에서는 하추리 마을을 농촌테마마을로 정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연 휴양림이 들어섰고, 명상의 길, 산채 체험길, 족욕장, 물놀이장, 이야기길, 농산물체험장 등을 만들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농촌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시 찾고 싶은 건강마을로 조성되었다.

◆ **설화의 내용** : 조선조 고종황제 때의 일이다. 때는 늦은 봄이었는데 나라에서는 과거를 실시하고 있을 무렵이다. 그 무렵 인제군에는 박 씨들의 씨족 촌이 있었다. 그 씨족촌은 인제군 하추리(下楸里)에 있었는데, 박 씨 씨족 촌에는 6촌간인 삼형제가 과거에 응시하게 되었다. 이 세 사람은 같은 마을에 살면서 함께 과거 준비를 하였다. 이름은 준희(準熙) 순철(舜七) 준회(準會)라 하였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조숙하더니 청년이 되자 힘이 천하장사였고 키는 구척장신이었다. 그리고 순철은 집이 빈곤하여 정식으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어깨 너머로 글씨나 읽은 처지였다. 그래도 형제들이 과거를 보러 간다고 하니 순철은 같이 따라가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과거를 보기 위해 많은 짚신과 노자를 짊어지고 드디어 길을 떠났다. 한양을 향해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늦은 봄이건만 한여름 장마처럼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 흙탕의 장마물을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래서 구척 거구인 준희의 허리에 순철과 준회는 밧줄로 연결하여 매고 개울을 건너는데 급류의 물살이 너무 강해서 준회와 순철이가 넘어져 물위에 뜨게 되었다. 그러나 밧줄을 당겨 두 사람의 목살을 양손에 움켜쥐어 번쩍 들고 무사히 강을 건넜다. 정말 천하장사였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강을 건너 경기도 청평에 이르게 되었다. 날도 저물고 하여 그들은 청평에 있는 한 주막에서 하룻밤 자고가기로 하였다. 인정 많은 주막의 주인 덕택에 젖은 옷도 말리고 편히 잘 수가 있었다. 그렇게 자고 난 다음날 아침 순철이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간밤에 꾸 꿈 자랑을 했다. 숲에서 황금 같은 피꼬리 두 마리가 날아와 양어깨에 앉더라는 것이었다. 쫓아도 날아가지 않고 노래를 계속 부르더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며 순칠이가 자기가 과거에 장원급제할 징조라고 좋아했다.

그러나 얘기를 듣고 있던 주막 주인이

“허허 애석합니다.”

하면서 순칠이의 꿈을 해몽하였다. 피꼬리가 머리에 앉았으면 당신이 급제하는 것인데 양 어깨에 앉은 것은 옆 사람이 급제할 징조라고 했다. 그 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주막주인의 해몽과 같이 들어맞았다. 그래서 준희는 소과에 급제를 하고 준희는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제수 받았다.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주막에 다시 들려 주인에게 많은 사례를 하고 그 주막을 누런 꾀꼬리 꿈을 꾸고 과거에 급제했다고 해서 누를 황(黃)자에 새 조(鳥)자 장막 막(幕)자를 써서 황조막이라 불렀다. 그 소문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퍼져서 모두 황조(黃鳥)의 꿈을 꾸고 과거에 급제했다고 해서 그 집을 황조막 또는 막자 대신에 집 가(家)자를 써서 황조가(黃鳥家)라 불렀다고 한다.

지금도 인제군 하추리에는 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누런 꾀꼬리 꿈만 꾸면 길조라고 믿고 있으며, 집안에 경사가 있을 것이라고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한다. (『인제군사』)

 **설화의 의미** : 설화는 좋은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과거에 급제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제군에서 과거를 보기 위해 당시 한양까지 가는 길목의 설정이 아주 흥미롭다. 특히 주막에 들려서 꿈을 꾸고 주막의 주인이 해몽을 해 준대로 꿈이 맞아서 주막 이름을 꿈을 따라서 황조막이라 바꾼 것도 재미있는 설화의 바탕이다. 꿈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앞날을 미리 점치는 예조(豫兆)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난 현상의 원형을 파헤쳐서 해몽을 하게 된다. 설화의 황조, 곧 황색의 꾀꼬리는 길몽임에 틀림없다. 황색은 중앙을 뜻하고 또 하늘을 마음대로 나는 새를 꿈꾸었으니, 귀하면서 마음대로 날개 짓을 할 것이니 벼슬을 할 꿈이었던 것이다.

제2부

인제 옛이야기,
그 어울림



갓 마흔에 버선

이 설화는 상남리에서 전승하고 있다.

옛날에 없이 사는 사람이 있었다. 딸을 낳아서 시집을 줄려고 하는데, 사돈댁으로 입고 갈 옷이 없었다. 그래서 이웃에 가서 두루마기를 얻어 입고 딸과 같이 사돈집에 들어갔다. 그래 사돈집에 가서 잠을 잘 때가 됐는데 생전에 이 사람이 방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았다.

그 집에 일꾼을 뒀는데, 일꾼이 아무리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가지지를 않았다. 두루마기만 벗으면 옷이 형편없어서였다. 두루마기 안에는 삼베 적삼만 입고 온 것이다. 그렇게 버티다가 밤이 이슥해서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가 몸에 많이 껴어서 가려워 잘 수가 없었다. 사돈네에서 요를 깔고 이불을 켜으니, 혼자 잔다고 훌쩍 벗고 옷은 벗어 개어 놓고 잤다. 그때 일꾼이 종일 일을 하다가 잘려니 잘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래 손님이 혼자 방에 자는 걸 알고 들어갔다. 들어가서 자려고

하니 이가 깨물어서 도저히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가 들끓는 옷을 집어 방 밖으로 냅다 던졌다. 그랬더니 개가 그 옷을 물고 가서 다 물어 뜯어버렸다.

날이 새서 사돈이 기침을 하고 들어왔다. 그러니 이 사람이 두루마기를 뒤집어쓰고 있었다. 그때 사돈이

“옷을 벗어놓고 세수나 하고 편안히 계세요.”

라고 하며 권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아유, 사돈. 부끄럽지만, 내가 빨개 벗고 왔겠습니까? 옷을 입고 왔는데, 옷을 밤에 뒷이 가져갔어요.”

그랬다. 아 그래 빨개 벗고 있으니 어떻게 해. 큰일이었다. 이웃에서 몰래 옷을 가져갔다고 하니 사돈은 난감했다. 아무리 찾아도 개가 물어가서 다 뜯어 버려서 없으니. 그래 사돈이 바지, 저고리, 버선까지 다시 해서 주었다. 그러면서

“아유, 어디 가서 아무 말 말고 이거 입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갓 마흔에 딸 때문에 버선을 신었다. 그래서 갓 마흔에 첫 버선이라고 한 것이다. (『인제군지』)

개 인 약 수

개인약수는 1891년 함경북도 출신의 ‘지덕삼’이라는 포수가 백두대간을 넘나들며 수렵 생활을 하다가 발견하고, 마을에 내려와서 약수가 있음을 알렸다고 전해진다. 지덕삼은 이 약수를 사발에 담아 고종 황제에게 진상하고는 말 한 필에 백미 2가마 광목 백 필을 하사품으로 받았다.

약수를 마시기 전에 나쁜 짓을 하거나, 부정을 타거나 육류를 먹으면 물이 흐려진다고 한다. 개인약수는 암수 한 쌍이 나란히 있는데 암컷 쪽은 웬지 물이 고이지 않고 그냥 흘러 보내며 잘 마시지 않는 내력이 있다. 상탕이 암탕이고 하탕이 수탕이다.

이 약수터는 원래 여성의 음부와 흡사한 형태였는데 어느 전설에 의하면 심술궂은 한 과부가 어느 날 공연히 음핵에 해당하는 뽕죽한 부분을 파괴해 버렸다가 감기지기를 모독한 탓인 듯 과부는 며칠 후 피를 토하고 죽어 버렸다.

현재의 약수터 위에 ‘장군약수’가 있었는데 양쪽 겨드랑이 밑에 용

비늘이 세 개씩 붙어 있는 아기장수가 혼자 물을 마시고는 큰 바위로 약수를 덮어버려 아무도 찾지 못했다.

1925년 개성인 김영식과 1956년 원주인 이재희가 약수로 위장병을 치유하고서 써놓은 현판이 걸려있어 사람들의 시선을 모은다고 했는데 1968년 정부에서 당을 헐어버린 후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약수로 올라갈 때 구렁이가 나와 길을 막으면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무시하고 올라가면 해를 입게 된다. 구렁이가 길을 막으면 부정을 탄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덟군데 살둔, 달둔, 월둔, 아침가리(조경동), 명지가리(명지거리), 적가리, 곁가리, 연가리의 3둔 5갈을 두었는데 물, 불, 바람 즉 흉년, 전염병,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았던 불행한 시대에 개인산은 많은 민초들을 보듬어 주었다. 이곳은 물, 불, 바람 세 가지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삼재불입처(三災不入處)로 난세에 숨어살 수 있는 피난처이다. (『개인약수 브랜드 상품화 컨설팅』)

고곰(학질)을 앓지 않게 해주는 덩불할머니

남면 신평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옛날에 겨울이 되면 집집이 삼을 삼았다. 어느 날 손주딸이 삼을 안 삼고 문을 열고 개울예를 나가려고 그랬다. 그때 개울가에 있던 덩불에서 덩불 할머니가 앉아서

“이리와라.”

그랬다.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덩불할머니가 왜 나를 오라 해.”

그러면서 왔더니

“너 집에 가서 네 할머니한테 떡을 가져오라고 해라.”

그랬다. 옛날에 고곰이라는 게 있다. 막 떨어지면서 한 나절씩 앓는 게 있다. 그래 덩불 할머니가 그랬다.

“네가 가서 떡을 가져오면 내가 일 년 동안 고곰을 안 앓게 해줄 게.”

그랬다. 고곰을 앓으면 아주 무섭다. 그러니까 이 애가 와 가지고



“할머니, 할머니, 저 덩불 할머니가 떡을 가져 오래요. 떡을 가져오면 고곰을 안 앓게 해준다고 떡을 달래요.”

그런데 농촌에서 갑자기 떡이 없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메밀로 목을 갠다. 목을 개서 주니

“이걸 갖다 오늘 덩불 할머니 줘라.”

그래서 그걸 갖다 줬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다 고곰을 앓는데 이애만 안 앓았다. 그래서 누구든지 메밀목을 개 가지고 덩불에 가서는 쫓고리고 앉아서

“덩불 할멈, 덩불 할머니, 메밀목 잡수시고 나 일 년 열두 달 고곰을 안 앓게 해주시오.”

그러고 놓고 오면. 그 애가 일 년 내내 고곰을 안 앓았다. (『강원의 설화』)

구대 뒤를 내다 본 조상의 유서

남면 신남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그 양반이 중국 양반이었다. 명도 이천 선생이다. 그 양반이 자손한테 유서를 전해 주면서

“언제든지 이걸 시간이 지났다고 떼지 말고, 평생을 가도 떼지 말고.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확 뒤집어지는 일이 있으면 떼 보라.”

이랬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더 좋아했다. 구대까지 집안에 별일이 없으니까 그 유서를 그냥 뒀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참배나무가 있는데 배가 익어 먹게 되었다. 그런데 구대 손이 할 수 없이 일을 냈다. 그 사람이 그날은 기침이 나서 기침을 하면서 대창문을 탁 치니, 대창문이 벌컥 열려졌다. 그때 마침 이웃의 한 사람이 달밤에 그 집의 배를 훔치러 나무에 올라갔다가 창문 열리는 소리에 놀라 나무에 떨어져 죽었다. 이 집은 죽었는지 어쨌는지 몰랐다. 그래 늙은이가 밤에 기침이 나다가 새벽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으니까 날이 새서 밖으로 나갔다.

“동이 텃으니깐 일어나 밖에 나가야 겠다.”

하면서 밖으로 나가니까, 배나무 밑에 하얀 게 있어서 가보니 어떤 사람이 드러누워 있었다.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라.”

고 해도 말이 없었다. 자세히 보니까 숨이 멎었다. 날이 완전히 밝은 다음에 보니 이웃집의 젊은이였다. 집으로 도로 돌아와서 식구들을 깨우면서

“야, 일어나거라. 아무개 집 애가 우리 배나무 밑에서 죽었구나. 가서 빨리 알려 줘야지.”

하고 자는 식구들을 깨워 이웃집에 알려 주었다. 그런데 이웃집 사람이 올라와 보더니 행패를 부리는 거였다.

“배 값을 달라면 되지, 남의 아들을 때려 죽였소.”

하고 따졌다. 늙은이가 기침하다가 갑갑해서 문 연 것 밖에 없는 데, 젊은이가 놀라서 떨어져 죽은 것 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방의 사또에게 판결을 맡겼다. 사또도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아, 이거 해볼 수가 업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달리 풀어볼 수가.”

하고 난감해 했다. 그러니 자손들이 아무리 와서 애걸을 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였다.

“당신네 배나무 밑에 가 죽었으니깐. 자꾸 걸고넘어지니 어떻게 달리 풀 방도가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늙은이가 사형을 받게 되었다.

“며칠날 사형이다.”

그래 자손들이 애걸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

“우리 구대 할아버지가 유서를 준 게 있잖아요. 그 유서를 고을 원한테다가 줘 보자.”

“아 그걸 왜 여태 생각을 못했지.”

그래 이튿날 날이 새자 구대 할아버지가 유서를 준 거 가지고 원한테 갔다. 몇 번 재판을 했으니까 벌써 온 것을 알고

“무슨 일로 또 왔어요.”

“좀 말씀 드릴 일이 있어서요.”

“그럼 무슨 말인지 해 보시오.”

“우리 구대 할아버지가 유서를 주면서 ‘집안이 확 뒤집힐 적에 이 유서를 보고 그 전에는 보지 말아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서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이 가만히 있더니

“참 명인이신데. 그 명도 선생의 유서라면 그냥 허투루 볼 수 없지. 그러니 나 사는 집으로 가자.”

그래 유서를 가지고 집으로 가서, 자기 마누라를 부르더니

“여기 자리 펴고, 상을 깨끗이 닦고, 창호지 한 장 펴라. 이게 명인의 유서라는데 허투루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아들 손주 모두 온 앞에서

“그 유서를 내 놓아라.”

하고, 막 유서를 꺼내는데, 바깥에서 벼락 치는 소리가 갑작스럽게 났다. 수행원이 방에 따라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야, 이게 무슨 요란한 소리냐? 나가봐라.”

그래 수행원이 들어오더니

“법정이 아주 풀썩 무너져 주저앉았습니다.”

하거든. 금방 판결을 하려고 앉아 있다가 온 법정이

“그래. 그건 무너졌어도, 이 유서를 떼보지 않을 수가 없다.”

유서를 떼니까 글을 한 수 지어 났다. 안쪽에 다섯 자, 바깥쪽에 다섯 자 오언을 지어났는데

“면이압량사(免爾壓樑死)하니, 활아구세손(活我九世孫)하라.”

이 글을 딱 썼다. 그래 그 원이 풀어보니

‘너의 들보에 깔려 죽을 것을 면했으니, 나의 구세손을 살려라.’거든, 그러니 구세손이 죄가 없다 이 말이었다.

“하아, 그렇구나. 이 사람 죄 없다. 방면하라.”

그래서 그 구세손을 방면했다.(『강원의 설화』)

피 많은 돌이와 두꺼비

기린면 현리에 전승하는 설화이다.

옛날에 한 집은 못 살고 한 집은 잘 살았다. 옛날에는 잘 살아도 없는 집을 구제할 줄 몰랐다. 그때 부잣집 아들은 돌이고 가난한 집 아들은 두꺼비였다. 돌은 의리가 엄청 좋았다. 그런데 돌이가 생각하니 두꺼비도 공부를 시키고 싶는데 되질 않았다. 그래 돌은 돈을 마련하기로 궁리를 했다.

“성주단지를 훔쳐다 놓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찾으려고 돈이고 뭐고 막 퍼갈 거다.”

그래 돌은 돌이네 집에 성주단지를 훔치기로 했다.

“두껍아 너는 가서 저 밑에다 파묻어 놓아.”

그렇게 해서 돌은 돌이의 집 성주단지를 훔쳐 울 밑에 묻었다. 성주단지를 잃었음을 알게 된 돌이 어머니가 난리를 치고는 쌀을 짚어 지고 어디로 갔다.

“어머니, 어머니!”

둘이가 어머니를 불렀다.

“왜, 그러냐?”

“어디로 쌀을 퍼 가지고 가요?”

“점하러 간다.”

“아 점은 뭐 점을 해요?”

“성주단지를 뒷이 훔쳐갔다.” “성주단지? 저 두꺼비가 점을 잘 쳐요. 두꺼비더러 찾으라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 쌀 주나요?”

“점쟁이 줄 거 다 주지.”

그래 두꺼비를 불러 성주단지를 찾는다. 둘이 울타리 밑에 파묻은 거니까 찾기는 쉬웠다. 다니면서 여기도 냄새를 맡아보고 저기도 냄새를 맡아보면서 다녔다. 그러다가

“할머니, 여기 파 봐요.”



그래 거기를 파니까 성주단지가 나왔다. 제사를 지내고 두꺼비가 용 하다고 했다. 돌이는 친구 공부시키려고 했는데, 그만 두꺼비가 용 하다고 소문이 나서 온 나라에 퍼졌다. 나라에서 점을 치는 박사가 났다니까 임금이 초청을 했다. 아무 것도 모르는데 임금이 초청을 했 으니 안 가도 죽고 가도 죽을 판이었다.

임금이 옥새를 잊었는데 뭇이 훔쳐갔는지 알 수 없었다. 임금이 옥 새를 찾으려고 하다가 두꺼비가 점을 잘 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 불렀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불러 갔으니 돌이 죽게 되었다. 겁 이 나서, 붙들려 가서 엎어지면서 울었다.

“돌이 때문에 탈이야. 돌이 때문에 탈이야.”

그렇게 울면서 지껄었다. 그렇게 말을 하니, 그 집의 종이 또 돌이 인데, 돌이가 옥새를 훔친 것이었다. 그날 밤 그 집 종 돌이가 몰래 와서

“박사님, 내가 옥새를 찾아주면 우릴 살려주겠소?”

하고 말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무리 천치 같은 아이들이라도 그 상황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고맙다.”

아침에 가져오라고 해서, 임금님께 옥새를 가져다 바쳤다. 그래서 제 노릇을 톡톡히 했다. 옥새를 찾아주고 선물로 금과 은을 잔뜩 받아서 소에 싣고 위낭소리를 내면서 돌아왔다.

그렇게 돌아오는데 옥새를 감추었던 도둑놈이 나타나서

“네가 용하냐? 내가 용하냐?”

하면서

“너 가만 안 두겠다.”

돌을 들고 죽이겠다고 덤벼들었다. 그래 또 죽을 판이었다. 그러니

“돌이 때문에 탈이야. 돌이 때문에 탈이야.”

하고 엎드려서 두꺼비랑 생각을 했다. 그때 도둑놈이

“내가 보물을 훔쳐 감춰둔 곳이 있는데 그걸 찾으면 살려주마. 그렇지 않으면 네 보물을 지금 다 뺏어갈 거다.”

그때 돌이와 두꺼비는 또

“돌이 때문에 탈이야. 돌이 때문에 탈이야.”

하면서 무서워서 떨고 있다가, 샘물가에 돌이 빠져나온 게 있어서 들고 있던 돌로 탁 내리쳤다. 그랬더니 도둑놈이 훔쳐놓은 금덩어리가 펄쩍 뛰어 나왔다. 그랬더니 도둑놈은

“네가 과연 박사는 박사구나.”

하면서 보내 주었다. 그래서 둘은 잘 살았다고 한다.(『강원의 설화』)

내린천의 수진암(水鎭岩)

기린면 현2리와 5리 경계선에 소재한 조롱동(鳥弄洞) 쪽으로 200~600m 지점간은 내린천에 접하고 있는데다가 기암괴석의 단애와 높은 고개가 발달하여 방동(傍東) 쪽으로 가자면 매우 험한 오솔길로 알려진 곳이다.

먼 옛날 어느 한 스님이 이곳을 지나다가 암벽에다가 ‘수진암(水鎭岩)’이라 새겨 놓았다. 그리고 언젠가 이곳이 물에 침수된다는 말 한마디만 남겨 놓았다. 사람들은 그로부터 그 바위를 수진암이라 불렀다.

이 스님은 과연 선견지명이 있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현리 앞들의 밭을 논으로 개간하면서 수로(水路)가 수진암을 지나갔고, 1930년과 1965년 1966년 3차에 걸친 대수마로 수진암 부근까지 물이 도달하였다. 그러나 1974년 10월부터 4개월간에 걸친 육군공병대의 도로 확충이란 대역사로 기암괴석과 험한 단애와 높은 고개마저 붕괴되어 옛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평토화 되었다.

지금부터 70년 전만해도 이 부근의 유서 깊은 전설에 얽힌 150~200년생의 소나무가 무성하였던 곳인데 주변의 각종 신축건물은 도시의 인상을 풍기고 있어 옛 자취를 반추해 볼 뿐이다. (『인제군사』)

노루가 잡아 준 자리에 묘 쓰고 부자 된 마 서방네

이 설화는 설피발에 있는 묘 이야기이다. 설피발으로 해서 가면 박달령과 부검령이 나온다. 바로 그곳 설피발 올라가면 산자리가 있다.

설피발 부근에 마 씨네가 살고 있었다. 겨울이 되어 눈이 한 길이나 내렸는데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 옛날에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뭇자리를 아무데나 쓰지 않았다. 그런데 마 씨네는 못 살아서 지관을 부를 형편도 못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 시신을 짊어지고 부검령으로 올라가는 작은 길을 따라 올랐다. 가자가 보니 노루가 앉았다가 달아났다. 그런데 노루가 앉았다가 뛰어나가는 곳에는 눈이 하나도 없었다. 눈이 녹아 따뜻했다. 그래서 아버지 묘를 거기다 썼다.

묘를 거기다 쓰고는 살림이 일어서 부자로 살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부자로 살았다.

눈이 그렇게 많은 데도 그곳엔 다 녹았다는 건 그곳에 따듯한 지기가 올라온다는 얘기다. 그래서 거기 여느 데는 다 얼어도 얼지 않았

으니 좋은 땅이다. 그래 거기 마 서방네가 산을 쓰고서 부자가 됐다.(

『강원의 설화』)

대국 천자 옥새 찾은 소년

이 설화는 북면 한계리에서 전승하는 민담이다.

옛날 대국천자가 옥새를 잃었다. 그래 옥새를 찾으려고 전 세계에 광고를 냈다. 그 광고를 본 조선의 두 젊은이가 얘기를 했다.

“야,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그 대국 들어가서 옥새나 찾아주고 호식(好食)이나 하고 죽자.”

그 둘은 보따리를 싸 짊어지고 길을 떠났다. 대국까지 가는 길은 무척 멀었다. 그래서 가다가 자고 가다가 자고 하면서 계속 길을 갔다. 그러다가 한 군데 쉬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버드나무와 소나무가 한데 붙어서 바람이 부니 짹짹 울었다. 그래 버들 유(柳)자와 소나무 송(松)가 붙어서 짹짹 울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송이 짹짹 운다’고 했다. 둘은 몇 달을 걸어가면서 다른 것은 듣지 못하고 유송이 붙어서 짹짹 우는 것만 듣고 갔다.

대국에 도착해서 조선에 사는 명인이라 소개하고 대국의 옥새를 찾아주러 왔다고 했다. 대국에서는 조선의 명인이 옥새를 찾아주러

왔다고 하니 최고의 대우를 했다. 그래서 찾는 날짜를 느긋하게 하고
둘은 대접을 받고 있었다. 날짜를 일찍 하면 호강을 할 수 없으니 찾
는 날짜를 늦추었다.

그런데 옥새를 훔친 놈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유(柳)가와 송(松)가였
다. 그 둘이 옥새를 훔쳐서 연못에 집어넣었던 것이다. 그래 조선에
서 뭐 아는 사람이 왔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왔는지 보려고 문
턱에 바짝 붙어서 귀를 대고 들었다. 그런데 조선에서 온 사람이

“유송이 짹짹 운다.”

이러거든. 그러니 그 두 놈이 간이 선뜻하였다. 조선에서 온 명인
이 벌써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유가가 송가 보고 말했
다.

“야! 큰일 났다. 저 벌써 조선에서 온 명인이 우리가 훔쳤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린 목숨만 살려 달라고 하고 도망을 치자.”

그래서 이제 둘이 쫓아 들어갔다. 두 놈이 무릎을 꿇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러니 아무리 촌놈이라도 눈치가 있잖아. 그래 이놈들 빨
리 불지 안 불고 그러냐고 호통을 쳤다.

“너희들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

그러니까.

“아이고, 제발 목숨만 살려주면 옥새가 어딴는지 알려 줄 테니까
좀 봐 주시오.”

그래.

“야, 이놈들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딴는지 말해라.”

그래 호통을 치니.

“예, 연못에 넣었습니다.”

“아, 알았다. 너넨 빨리 도망가거라.”

그렇게 해서 옥새를 훔친 유가와 송가를 보냈다.

그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려서 대국 천자에게 말했다.

“오늘 옥새를 찾을 터이니, 사람을 몇 백 명을 부르시오.”

그러니, 대국 천자가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아무 소리 말고 이 연못의 물을 푸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연못의 물을 폈다. 연못의 물을 푸니 연못 안에서 옥새가 나왔다. 그 둘은 그 공으로 대국 천자에게 상을 받아서 잘 살았다. (『인제군지』)

대승폭포

옛날 대승이라고 부르는 총각이 북면 한계리에 살았다. 대승은 석이(石耳)를 따서 그것으로 생업을 삼았는데 하루는 폭포가 있는 돌기둥 절벽에 동아줄을 매고 내려가서 석이를 땀다. 잔뜩 석이를 따 놓은 참인데 절벽 위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대승아! 대승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대승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외침에 소스라쳐 동아줄을 타고 올라갔으나 어머니는 간곳없고 동아줄에는 신작만한 지네가 매달려 동아줄을 뜯고 있었다. 동아줄은 막 지네에 뜯겨 끊어지려는 참이었다. 대승은 동아줄을 급히 타고 오르느라고 온몸

이 땀으로 흠뻑 젖었으나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다.

후세 사람들은 죽어서도 아들의 위험을 가르쳐준 대승의 어머니의 외침이 메아리 친다하여 이 폭포를 대승폭포라 부르기 시작했다.

※ 대승폭포는 88m로 북면 한계3리에 있는 폭포로 내설악의 장수대 입구에서 2km 지점에 있는 한국 3대 폭포의 하나로 특히 최장으로 알려지고 있다.(『인제군사』, 『태백의 설화』)

도깨비 이야기

남면 정자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옛날에 살던 집 앞에 연못이 있다. 그 연못에 물고기를 넣기 위해서 부평리 소양호에서 고기를 싣고 오던 중이었다. 부평리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잇는 친구가 있는데, 고기를 잡고 자잘한 고기는 도로 물에 놓아주었다. 그런 고기를 우리 연못에서 키우겠다고 얻어오던 중이었다. 친구한테 부탁을 해 놓았는데, 고기 가져 가라고 전화가 왔다.

오다가 고기가 죽을까봐 물탱크 밑 강가에서 새 물을 갈아주려고 엎드려서 물을 갈아주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아저씨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물었다. 그래

“정자리까지 가요.”

이러니,

“그럼 태워 줄 수 없어요. 나 저기까지 가는데.”

라 했다.

“타세요.”



그러고 차에 타고서 올라왔다. 그때 밤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차 문을 여니까. 그 사람이 탔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탔다. 그래 오다가 쌍다리 있는데 거기 샘이 있다. 거기 쌍다리 못 미쳐서 거기 물이 있다. 물이 있어서 거기서 또 갈아주느라고, 새물을 갈아주고 타는데 우리 집사

람만 탔다. 그래 안 오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왜 안 가요.”

그랬다.

“아니 여까지 사람 태우고 왔는데. 아 그 사람.”

난 내가 내릴 때 내려 가지고 불일 있어서 내린 줄 알았다. 소변이라도 보려고 내린 줄 알고, 차를 타고 안 가고 있으니까 왜 안 가냐고 그랬다.

“아니 여기까지 데리고 온 사람을 같이 가야지 우리만 가면 어떻게 하냐.”

고 하니까.

“무슨 사람이 탔어요.”

안 탔다는 거다. 그래 겁이 나니까

“빨리 갑시다.”

그랬다. 밤이라서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사람이 타는 것
하고, 옆에서 여자가 타는 느낌이 있었고, 내릴 때는 내가 먼저 내렸
으니까 내리는 것은 몰랐고, 차에 타니까 그 사람이 없는 것이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이 양반 정신 나갔어.”

그랬다. 그러니 헛깨비를 본 것이다. 그게 한 15년 쯤 됐다.(『정자리
사람들』)

도깨비 항아리

서화면 서흥2리의 밭 가운데 있다. 이 마을에 함(咸) 부자로 통하는 대농의 가족이 살았다.

근면 성실한 함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밭 가운데에 돌을 주워 쌓아 큰 돌무덤을 만들었다. 어느 해 겨울 이 돌무덤을 들어내기 위해 온 집안 식구가 나와 작업을 했다. 제일 중심부를 치우게 될 단계에서 6척정도 뿔 달린 뱀이 동지를 틀고 동면(冬眠)을 하고 있었다.

함 부자는 설상사(雪上蛇)가 몸에 특효임을 아는 터라 즉시 잡아 토막을 내어 뱀술을 담갔다. 100일 이후 뱀술을 먹으려고 항아리를 열었는데 모두 발효가 되었어야 할 뱀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생생하였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함 노인은 그것을 항아리 채 강물에 띄어 버렸다.

그 후 밤마다 석 달 열흘을 흥흥하더니 10년 내에 그 마을에 살던 함(咸) 씨 일가 22명이 모두 시름시름 죽어갔다. 지금도 함 부자가 살았다는 집터는 서흥리에 있다고 당시 살았던 김수배(金壽培, 1904~?)는 전해 준다. (『인제군사』)

도술을 부리다 소가 된 사람

기린면 현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옛날에는 다들 어렵게 살았다. 이 집도 어려워서 방아품을 해서 먹고 살았다. 방아를 찧어주고 그 품삯으로 얼마를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와서 시주를 하라고 했다. 시주를 했는데, 중이 가면서

“이제 아기를 가질 텐데, 그 애가 세 살만 되면 나를 달라.”

“예.”

영겁결에 잘 알지도 못하는 중에게 아기를 준다고 해놓고 나니 억울했다. 그래 그 달에 태기가 있어서 아이를 낳았다. 낳고 나니 아이가 잘 났다. 아이 성이 우 가였다. 소 우(牛)자 우 가였다.

그래 세 살이 되니 중이 와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아이를 내 놓으라고 했다. 약속을 했으니 안 내놓을 수가 없었다. 아이를 내 놓으니 중이 데리고 갔다. 중이 아이를 데려가는데 한 발짝 내놓자마자 구름 사이 어디로 사라졌다. 중이 축지법을 써서 갔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커서 열여섯 살이 되었다. 그때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오막살이에서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중한테 재주를 배워가지고, 생각을 하니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중이 시주하러 가면서 산중에서 손가락을 이렇이렇 해 보니까 아들이 없어졌다. 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갔다.

작은 창문으로 어머니가 보였다. 그런데 다 죽게 됐다. 제 부모 싫은 사람이 없듯이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중한테 배운 대로 소도 됐다가 돼지도 됐다가 말도 됐다가 하면서 둔갑을 했다. 말이 돼서 하는 말이

“어머니, 어머니.”

그랬다. 그러면서

“저 부잣집에 가서 날 팔면 쌀과 돈이 가득할 테니 어서 해 오세요.”

그래. 한 바퀴 돌더니 둔갑을 했다. 말이 돼서 부잣집에 와서 사라니 샀다. 쌀과 돈을 가졌다. 그렇게 말이 됐다가 소가 됐다가 하면서 잘 살게 되었다.

중이 손가락으로 가물가물 해보니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모두 망가졌다. 쫓아와 보니 무서운 소가 돼서 뿔이 이렇게 나서 들어앉아 있었다. 그래 중이 그 길로 손가락을 탁 찍으면서

“너 남의 골 빠진 줄은 모르고 나무아미타불을 불렀으니까, 그대로 소가 돼 가지고 여물만 먹고 힘들게 일하면서 노모하고 살아라.”

그랬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강원의 설화』)

돈을 벌면 떠나야 하는 신평리

남면 신평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신평리는 옛날에 새재라 했다. 새재는 마을 가운데로 개울이 흘러 나가서 물이 샌다고 해서 그렇게 불렸다. 그래서 이 동네는 돈을 벌면 마을을 떠나야 한다. 안 떠나면 다시 재산이 새버린다고 한다.

그 때문에 마을 이름을 신평리로 고쳤다. 새로 풍요로워 진다고 했다. 그래서 새재마루를 없애고 신평리라 고쳤는데, 여자들이 드 세다.

그리고 여기 진두루로 가면 산재바위라고 있었다. 색깔이 노란 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바위를 누가 떼어 갔다. 이 바위는 신평리를 안아서 보호해주었다. 마을을 보호해줘서 마을이 유지가 되었는데, 그걸 누가 떼어가서 이제는 유지가 안 된다. 재산이 일어날 때는 확 일어나는데 유지를 못해서 금방 재산이 나간다.

또 여기 어론 쪽으로 가면 다무리고개라는 데가 있다. 이 다무리고개는 수캐형국이다. 검은 수캐가 앞다리를 안으로 해서 드러누워 마

을을 보호해 주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옛날에 누가 와서 수캐가 안고 있는 움막이라는 데를 논을 만들어 준다고 연못을 팠다. 그래서 누가 보는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수캐형국을 잘랐다고 했다. 그래서 수캐가 힘을 못 쓴다. 산재바위를 떼었고, 수캐형국을 잘라서 재산을 안고 있지를 못한다. 돈만 벌면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보따리 하나만 지고 들어와도 부자가 된다. 그걸 유지를 못한다. (『강원의 전설』)

동자삼의 허리에 명주 끈을 매어 부자 된 사람

이 설화는 기린면 진동리에서 전승하고 있다.

옛날에 두 부자(父子)가 살고 있었다. 아들이 나이가 몇살 정도 되었다. 옛날에는 이 오리골에 땅은 별로 없고 화전을 해야 먹고 살았다. 화전밭을 하니 콩이랑 이런 걸 심어놓고 매일 김을 매러 다녀야 했다. 그러니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아버지는 밭을 내러 다녔다.

산삼이 유구만달 동자삼이 되면 사람으로 변해 가지고 땡긴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집에 있다니까. 한나절 되면 자기만한 또래 남자 아이가 와 가지고 같이 앉아 놀다가는 아버지가 올 무렵이면 가겠다고 갔다. 한 사흘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보고 그런 얘기를 했다. 한나절 되면 나와 똑같은 애가 와 가지고 놀다가 아버지가 올 때 되면 가고 그런다고 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명주꾸리를 가지고 와서

“네가 가가 와서 놀다가 갈 적에 이 끈을 매라 그리고 지켜봐라.”

그랬다. 그래 아버지가 올 무렵이 되니까 또 간다고 그랬다. 그래

서 그 끈을 맺는데 얼마큼 동안 명주꾸리가 풀어지다가 더 이상 안 풀어졌다. 그래 아버지가 와 보고는 그 이튿날 거길 가니까 육구만달의 심이 있는데, 그 허리에 실이 매어 있었다. 그러니 심대봉 허리에다가 끈을 묶은 것이다. 그래 아버지가

“심이야!”

하고 소리치니까. 심대가 부르르 떨어졌다. 그래 그 영감이 심을 파서 부자가 돼서 잘 살았다. 그런데 그 영감 이름이 엄일삼이다. 이름에 삼(參)자가 들어가 있으면 좋다고 한다. 그래 심을 파서 서울에 올라가서 아들을 출세시켰다고 한다. 그거는 그 사람이 복이 있으니까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을 것이다. (『강원의 설화』)

물동이를 채우지 못하고 죽은 고 씨네

남면 신평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저 산에 조롱고개라고 있다. 옛날에 친정에 가려면 엿이나 떡을 해 가지고 가는데 이 고개를 넘어 다녔다. 그런데 이 고개 밑에 고가 성을 가진 여자가 시집을 갔다. 옛날에는 글이라고 좀 배우면 사랑에서 글을 읽으며 식구들이 굶는지 죽는지 몰랐다. 그래 고가 성을 가진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매일 사랑구석에서 먹을 갈아 가지고 글만 썼다. 그러다가 이제 과거를 보러 갔다.

여자는 혼자 벌어먹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남편을 버리고 개가를 했다. 남편을 새로 얻어 가지고 새로 살림을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과거를 보러 갔던 전 남편이 과거에 급제해서 왔다. 말을 타고 여사화를 꽃고 오는 남편을 보고, 여자는 조금 더 참지 못하고 개가를 한 것을 몹시 후회를 했다. 그래 남편 앞을 막으면서

“내가 어쩔 수가 없어서 당신을 떠났고,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도로 삼시다.”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말이

“동이에 물을 한 동이 담아오시오.”

그래 여자가 물동이를 가져오니, 여자를 일으키면서

“고개 위에 가서 이 물을 쏟아서 도로 한 동이를 담으면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소.”

그래서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고개에 가서 쏟고 나니 다시 물을 담을 수 없었다. 여자는 그만 거기서 탄식을 하다가 말라 죽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도 조강지처라고 새끼를 낳아서 형제를 끼우고 나무에다 갖다 묶어 놓고 장사를 지냈다.

그 후 사람들은 죽은 고 씨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떡을 해 가다가도 몇 조각 붙여놓고 가면서

“고지네, 고지네.”

하고 갔다. 그러면 귀신이 안 따라왔다. 여자가 굶어 죽었기 때문에 음식을 해가지고 그냥 가면 따라 온다고 했다. 게다가 포목 장사가 지나가면서 천을 조금 잘라 붙여놓고 가면 장사가 잘 되고, 천을 끼우지 않고 가면 장사가 안 돼 망하였다.

그 여자 귀신이 조롱고개 마루에 있는데, 떡갈나무가 무성하게 있었다. 그 옆을 누구나 지나가면서

“고지네, 튼.”

하고 침을 뱉고 갔다. 그러면 침이 모여서 물동이를 채워준다고 했다. 그래 물 한 동이 만들어 준다고 ‘고지네 튼’하고 간다는 게다.

옛날에는 거기 있는 동이가 깨지면 벌써 누군가 새 동이로 갖다 놓았다. 죽은 귀신이라도 물이 한 동이 차면 살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 동이가 찰 리가 없다. 그래서 고지네가 생겼다고 한다. (『강원의 설화』)

뫼자리에 자고 팔자 고친 사람

북면 원통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옛날에 한 사람이 먼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다. 가다가 보니 마땅히 잘 곳도 없고 졸음도 오고해서 묘 옆에서

“에이, 여기서 좀 자야지.”

하고서는 묘지에서 잠이 들어서 잤다. 묘에서 잠이 들었는데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묘 주인과 친구가 대화를 하는 소리였다.

“아, 친구. 제사 먹으러 가니까. 내가 오늘 가니까는 이 망할 놈들이 나물국에 구렁이가 앉았고, 메밥에는 돈바우가 들어앉았고. 그래서 내가 꽤씸스러워 손주 놈을 끓는 가마 물에다 쳐놓고 왔다네.”

“그럼 그 애를 낮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

“오소리기름을 바르면 낮지.”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집을 찾아갔다. 그래 그 집을 찾아가니 그 집이 이제 막 제사를 끝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니 아이가 데어서 난리가 났다. 그래서



“응, 내가 그 묘 옆에서 자다가 들은 얘기다.”

하고서는, 그 들은 얘기를 다했다. 그 혼은 메밥에 돌이 있으면 돈
바우라 그러고, 머리칼은 구렁이라 그런다. 그래 메밥을 찾아보니
돌이 들어가 있고, 탕국에는 머리칼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 이 사람
이 아주 용한 점쟁이 노릇을 하는 척하면서

“아, 그 좋은 약이 있는데, 아이 병을 금방 낫게 해 준다.”

“아,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아이만 낫게 해주면, 내 뭐든지 원 없이
해줄 테니 말해보시오.”

그러니 이 사람이 배짱을 튕겼다. 그러자 그 집에서는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아이만 낫게 해주면, 내가 선생님 평

생 먹을 것을 대주겠소.”

이렇게 됐다. 그러니 그 사람이

“좋다.”

그래서 그걸 알려 주었다.

“거 데인데다가 오소리기름을 바르면 금방 낫습니다.”

그래 날 때가 돼서 낫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렇게 하니 금방 나아졌다. 그래 가지고 그 묘지에 자던 사람이 팔자를 고쳤다. (『강원의 설화』)

미륵불암과 보살암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에는 선바위라고도 하고 미륵불암이라고도 하는 바위가 있다. 선바위는 일어서 있다고 해서 선바위라고 한다. 다른 말로 용각석이라고도 한다. 용각석은 용의 뿔 모양이라 하기도 하고, 뿔처럼 솟아올랐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 그러나 이곳에 살던 김우성(金禹成)이라는 분이 이 바위를 "미륵불암"과 "보살암"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이곳에는 밥과 돼지고기 등을 차려놓고, 정월에 날을 받아서 치성을 드렸다. 보통 자식 없는 사람들이 자식 보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최종훈(84), 인제군 방동 1리, 2003년)

원래 이 바위는 마을에서 바위가 서 있다고 해서 선바위라고 불렀다. 그런데 제보자 김광화⁽⁷⁷⁾ 옹의 선친인 김우성(金禹成) 옹이 생전에 이 바위에 다음과 같은 글자를 새겨 놓음으로써 “미륵불암”과 “보살암”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했다. 보살암으로 일컫고 있는 바위에는

검은 글씨로 "彌勒菩薩(미륵보살)"이라고만 크게 쓰여 있고, 미륵불암이라고 일컫는 바위는 "彌勒佛 中元 丙戌 三月一日 奉名人 全州金公禹成(미륵불 중원 병술 3월 1일 봉명인 전주김공 우성)"이라는 큰 글자와 작은 글자 수십 개가 붉은 글씨로 쓰여 있고, 나중에 새긴 듯 한 "孫宦何(손환하)"라는 검은 글씨도 새겨져 있다. 여기서 봉명인(奉名人)은 미륵불(彌勒佛)이라는 바위의 이름을 받든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미륵불암이라고 명명한 후에는 고 김우성 옹이 해마다 음 4월 8일에 치성을 올렸다. 이것을 아들인 김광화(77) 옹이 이어 받았으며,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이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와서 치성을 드리고 간다. 이 바위 아래에 보면 촛불과 향을 피우고 치성을 드린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역시 기자석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예전에 방동리에서는 자식 없는 사람들이 성황당에 치성을 드리고, 또 깊은 산중에 들어가 치성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동네 한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성황당과 산중에 가서 치성을 올렸지만 결국 자식을 얻지 못했다고 했다.(김광화(77), 김옥순(77), 인제군 방동 1리, 2003년)

보살암은 또 갯 속에 쓰는 탕관과 같다고 해서 "탕관 바위"라고도 한다. 이 때 미륵불암은 남자 바위, 보살암은 여자 바위라고도 한다.

(강홍석(66), 인제군 방동 1리)

이 “미륵불암과 보살암”은 『인제군사』와 『인제군 유적·지명·전설』에도 함께 실려 있다. 원래 『인제군사』(1996)에 실려 있던 것

을 조금 고치거나 아니면 그대로 『인제군 유적·지명·전설』(2000)에 옮겨 놓았다. 그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기린면 현 5리의 조롱고개에서 3km 정도 가벼운 보행을 하면 국도 연변의 절골과 오류동 두 마을 사이의 왼편에 높이 20m, 넓이 5m 되는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암석이 웅립되어 있다.

예부터 노인들은 마치 서 있는 듯하다고 해서 “선바위(선바위)”라고 불러왔다 한다. 이 고장을 처음 지나는 행객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바위를 바라보기가 일쑤이고 인근 주민에게 이 바위에 얹힌 고사와 전설을 캐왔다. 저 바위는 서 있다고 해서 선바위라고 설명하면

“기불유명호(豈不有名乎)인데, 어찌 유명한 암석에 이름이 없습니까?”

하고 반문한다는 것이다. 두 번 다시 물을 때 대답할 밑천이 없어서 수치감을 면치 못하였다고 한다.

이 고장에서 태어나 이 고장의 정기를 이어받고 타향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나 혹은 가출한 아낙네들이 고향의 향수를 달래며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에서

“나는 선바위가 있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고 제각기 고향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선바위 이야기를 빼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 높고 골이 깊은 대자연 속에 위치한 이 바위를 김우성(金禹成)은 한탄한 나머지 그 늠름한 모습이 미륵과 같다고 해서 미륵불로 개칭하고 병술 3월 1일(1946)에 석공을 불러 사재를 털어 암석의 벽에다 54

자의 글을 새겼고 또 미륵불암에서 약 1km 가량 떨어진 절골 어귀에 흡사 승려와 같은 암석이 있어서 미륵불의 배필로 삼아 “보살암”이라고 새기고 매년 4월 초 8일 석가 탄신일이면 아침 일찍 신수를 드려왔다고 그 후손인 광화(光和: 1930-)는 전해주고 있다.

인근에는 방동 약수를 비롯하여 한 진사의 불망비 방동 송림 유람지가 소재하고 있어 봄, 가을 유람객이 많이 오고 가는 편이다.

김우성(金禹成: 1896-1968)은 방동에서 태어나 대성 양조장을 경영하다가 왜정 말에 배일사상으로 1944년 11월 초순 투옥 중 1945년 4월 28일 가석방 된 바 있다.(『인제군사』, 『인제군 유적·지명·전설』)

미산의 용바위와 용마

상남면 미산1리 빈지동(賓地洞)에서 20km가량 떨어진 북쪽에 면적이 3,000평이나 되는 용연동(龍淵洞)이 있다. 달리 용늪이라고도 한다.

조선 말엽 산길 가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한 부부가 있었다.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3년 만에 뱀박질을 하며 산을 오르고 집을 나가면 며칠씩 돌아오지 않음이 일쑤였다.

이상히 생각하여 이런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니 마을이 망할 흉보라 하여 부부가 아이를 잡아 죽였다. 그때 그 아이의 겨드랑이에는 3개의 비늘이 달려 있었다. 그 후 용바위에 용마(龍馬) 한 마리가 나타나 며칠 동안 밤낮 없이 울어대자 마을사람들은 그마저 잡아 죽여 버렸다.(『인제군사』)

미산의 파리먹이

상남면 미산(美山)1리 빈지동(賓地洞)에서 1.5km쯤 되는 곳에 위치한 고목동(古木洞) 어귀의 파리먹이(蠅頭村)에 얹힌 전설이다.

조선 선조 때 이율곡(李栗谷) 선생의 부친이 아들을 데리고 철령(鐵嶺)을 넘어 이곳을 지나다 때마침 날이 저물어 주막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율곡 선생 부친의 현몽(顯夢)에 갓을 쓴 도사가 나타나

“너의 아들의 수명이 길지 못하다.”

고 하였다. 부친이 비법을 묻자 도사는 호랑이로 변하면서

“이 마을 뒷산에다 1,000그루의 밤나무를 심고 떠나라.”

고 일렀다. 시키는 대로 며칠 동안 밤나무를 심었더니 어느 날 한 낮에 꿈에 본 호랑이가 나타나서 밤나무를 세어보니 999그루 밖에 되지 않았다. 한 그루는 어디에 있느냐고 으르렁대자 율곡 부친이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옆에 있던 잡목 하나가 튀어나오며

“나도 밤나무”

라고 외쳐 화를 면했다. 튀어나온 그 나무는 밤송이는 열리나 열매

가 없으며 지금도 여러 밤나무와 함께 있다고 한다.

그로부터 오래 묵은 밤나무가 도처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에 따라 고목동(古木洞)이라고 불러왔으며, 현재 파리먹이의 형국에 유래하여 이것이 와전되어 전설로 전해오고 있다. (『인제군사』)

방동리의 용각석(芳東里의 龍角石)

인제군 방동1리에 막구두평(莫九斗坪)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하여 부촌이었다. 평화스러웠던 어느 해의 하루 한 스님이 이 마을에서 제일가는 부잣집을 찾아와 시주를 권하였다. 그러나 이 스님은

“저 산에 있는 저 바위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고 앞산의 바위를 가리키며 물었다. 주인은

“용각석이라고 부릅니다.”

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은

“그 바위를 용각석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장군석이라고 바꾸어 부르면 지금보다 더 마을이 부자가 되며 훌륭한 인재가 태어나고 그 명망이 세상에 떨치게 될 것입니다.”

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곧 마을사람들에게 알리어 모이게 하고 이 스님에게 많은 시주를 했다. 그러자 스님은 또 다시

“지금 바위의 이름을 고치려면 그 바위 밑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야 좋을 것입니다.”

고 일러 주었다.

마을사람들은 스님의 말을 믿어 재산이 많고 적고 간에 모두 돈과 쌀을 각출하여 한 달이 넘도록 바위 밑 길을 통행하는 행객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고는 ‘용각석’을 ‘장군석’이라고 개명했다.

그러나 마을사람들은 정열과 성의를 다하여 시주를 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으나 이 마을에는 별다른 상서로운 일이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몇 년이 지나지 못하여 마을은 더 가난해지고 마을에는 파산하여 망하는 집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일이 이렇게 되자 마을사람들은 다시 한 자리에 모여 바위 이름을 고친 것이 이 마을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하여 바위 이름을 다시 ‘용각석’으로 고쳤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후부터는 마을에 번고가 없어져 그 이름을 지금도 전해 쓰고 있다 한다. (『태백의 설화』, 『인제군사』)

방울이와 개구리

남면 어론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옛날 아주 옛날에 방울이하고 개구리라는 사람이 살았다. 둘은 이웃에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방울이는 못 살고 개구리는 잘 살았다. 이름이 방울이고 개구리인데, 둘은 서당을 같이 다녔다. 못 사는 방울이는 잘 사는 개구리한테 가서 밥을 얻어먹었다. 개구리는 친구인 방울이를 챙기려고 뭐든 살며시 감춰갖고 와서 주곤 하였다.

방울이라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서 나라의 미래와 시대의 천기를 잘 알았다. 얼마나 잘 맞췄는지 소문이 사방팔방 나서 점쟁이처럼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고을에서 금대접과 은대접을 잃어버렸다. 옛날에는 은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다. 고을 원은 은대접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점쟁이는 다 모아가지고 점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고을원은 방울이가 잘 한다는 소문을 듣고 원님이 방울이를 불렀다.

“네가 만약 금대접과 은대접을 찾아주면, 내 딸을 너에게 주고, 너에게 후한 대접을 해 주겠다.”

방울이는 점쟁이가 아니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다. 점은 안 쳐 봤으니까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평상시에 방울이와 개구리가 마을에 있는 큰 돌배나무 밑에 와서 재미있게 놀았다. 둘은 심심하면 돌배나무 아래에서 놀았는데, 이 돌배나무에는 지나는 사람들이 안 들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 걱정에 싸여 있던 방울이는 도저히 알 길이 없으니까 개구리를 불렀다.

“개구리야, 너 나한테 좀 와라.”

돌배나무 밑에 앉아서

“야,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원님에게 죽을 지도 모른다. 너 마지막으로 내 말 한마디만 들어주라.”

“무슨 말이냐.”

“이 돌배나무는 이제 오래전부터 유명하고, 여기에는 안 들리고 가는 사람이 없다. 여기 오는 사람은 이 부근에는 안 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돌배나무 부근을 전부 사람을 시켜 파달라고 그래라.”

그거는 쉬우니까. 개구리가 말을 전해서 원님이 사람을 진짜 많이 동원시켜서 그 나무 부근을 살살이 파다. 그랬더니 진짜 돌배나무 뿌리 옆에다가 금대접 은대접을 파묻은 걸 찾았다. 그래서 방울이는 굉장히 유명해 졌다. 자기 예감으로 그랬는데, 점쟁이처럼 유명해졌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세월이 얼마동안 지났다. 그 옛날에는 중국에서 뭔 일이 있으면 조선 사람을 불러갔다. 방울이가 그렇게 소문이 퍼지

니까 중국까지 유명해 졌다. 그때 마침 중국에서 왕이 옥새를 도둑맞았다. 중국 왕이 방울이를 불러서 말했다.

“옥새를 찾으면 삼분지 일을, 거의 모든 것을 주겠다.”

고 했다. 대신 못 찾으면 죽이겠다고 했다. 방울이는 아무 것도 모르고 개구리로 인해서 불러간 것이다. 개구리가 자꾸 방울이 소문을 내서 방울이가 유명해 졌다. 방울이는 사실 아무 것도 점을 치지는 못했다. 지금까지는 모두 운이었다. 그래 중국에 가더니 왕이

“너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 찾을 수 있겠느냐?”

물으니, 방울이는

“한 두 달만 주십시오.”

금방 시간이 지나면 못 맞춰서 죽을지도 몰라서 시간 여유를 뒀다.

“그럼 그래라.”

그렇게 허락을 받고 하루하루 날을 보냈다. 한 달이 넘어 두 달 가까이 됐을 때였다. 가만히 생각하니 신세타령이 나왔다. 그냥 연못이 있는데 소나무가 뽕 둘러있고, 그런데 나가서 고향하늘을 쳐다보면서 있었다. 언제 죽을 지도 모르는 처지라 고향이 그리웠다. 그때 방울이를 감시하려고 따라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신세타령을

“방울이는 개구리 때문에 죽는다.”

라고 말을 했다. 그때 마침 솔방울이 툭 떨어지면서 연못에 있는 개구리를 딱 맞췄다. 그러니 개구리가 팔딱 뒤집어 지면서 그 얘기가 딱 맞았다.

“이제 방울이는 개구리 때문에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술방울이 뚝 떨어져서 개구리를 맞췄다. 그런데 그 옆에 옥쇄를 훔쳐간 사람이 있다가 방울이가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걸 듣고는

“아, 이걸 이렇게 유명하게 맞추니.”

하고 놀랐다. 그러면서 방울이가

“지금 고향 하늘에 불이 붙었다.”

자기네 고향 하늘에 불이 붙었다고 그랬다. 그 얘기가 맞으려고 그랬는지. 그 옥쇄를 훔쳐 간 사람이 방울이의 고향에 사람을 보내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하필이면 방울이네 집 변소가 불에 탔다. 그래 그 도둑놈이 개구리 때문에 방울이가 죽는다고 한 것과 고향 하늘에 불이 붙었다고 맞힌 것을 보고는 제 발이 저렸다. 그래 도둑놈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내가 훔쳐간 것을 알면서도 나를 이렇게 봐주는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고는. 밤에 몰래 방울이한테 와서

“사람 살려주세요.”

그랬다. 그래서 방울이는 운이 트여 못 살던 사람이 잘 살게 되었다. (『강원의 설화』)

백담사와 100인의 도적떼

백담사의 전신인 영취사(靈鷲寺)의 한 스님은 다섯 살의 어린 동자승을 데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양의 임천(林泉)으로 장을 보러 나가게 되었는데, 어린 동자승을 남겨둘 수 없어 함께 데리고 갔다. 때는 바로 오곡이 무르익는 가을철이라 들판은 온통 황금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마침 조밭 뚝으로 난 좁은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어린 동자승은 누렇게 익은 조 이삭이 신기하여 어루만지자 공교롭게도 조 알갱이 서너 알이 손바닥에 떨어졌다. 더럭 겁도 나고, 버리자니 아깝기도 하여 재빨리 입속에 털어 넣었다. 이를 본 스님께서는

“너는 어찌하여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그를 탐하여 먹어 치웠느냐? 더욱이나 남을 속이는 것이 죄가 되는 줄도 모르느냐?”

하시며, 버럭 화를 내었다.

스님이 화를 내는 것을 좀체 본 일이 없는 어린 동자승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러는 동자승에게 스님은 또

“지금은 비록 몇 알갱이에 불과하나, 씨앗은 땅에 묻히면 몇 천 배만 배로 소출이 늘어나는 만큼 너의 죄는 참으로 크느니라. 허니 너의 죄를 면하려면 주인집에 가서 소처럼 10년 동안 일을 거들어야 할 것이야.”

하며 근엄하게 꾸짖었다.

그 뒤로 동자승은 바로 발주인인 황 부자 집을 찾아가 일을 하게 되었다. 그 뒤부터 황 부자 댁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리 10년 풍년이 들어 황 부자는 재산이 몇 갑절로 늘었다. 그렇게 10년이 막 끝나가는 어느 날 밤 동자승의 꿈에 흰 옷을 입은 어른 한 분이 나타나

“모월 모일에 도적 떼 100여명이 주인집을 털러 올 것이니 주인에게 고해라. 그리고 아울러 버선과 수건을 각각 100개씩 준비하여 도적들이 당도하는 대로 나누어 주면서 융숭히 대접하도록 일러 주거라. 그러면 너의 죄가 면해지리라.”

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어린 동자승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황 부자는 동자승의 말이 믿기지 않았으나, 그 동자승이 집으로 들어 오면서부터 집안이 번성하고 만사형통한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동자승의 말을 믿고 실행에 옮겼다. 동자승이 일러주던 날 저녁 무렵부터 신기하게도 인상이 험악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주인은 미리 준비하였던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험한 길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안부를 물으며 미리 준비한 음식을 차려 융숭하게 대접을 하였다. 도적들은 주인의 이런 행동에 감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새 사람이 되어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어린 동자승은 어느새 15세의 성년으로 성장하여 영취사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영취사는 불타버리고 반겨주는 것은 잣더미뿐이었다. 무슨 날 벼락이란 말인가.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에 창건한 한계사(寒溪寺)도 불타고, 뒤로 새로 지었던 운흥사(雲興寺), 심원사(深源寺), 선귀사(旋龜寺)도 모두가 불에 탔다고 스님이 항상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그런데 또 지금 화재를 당하다니 마치 자기의 잘못인양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 동자승은 잣더미를 뒤적이며

“스님! 스님!”

하고 부르짖으며 통곡하였다. 마치 그의 통곡소리가 높고 험한 설악산을 넘어 양양까지 들렸던지 영취사(靈鷲寺) 복원을 돕겠다며 100인의 도적떼들이 몰려오고, 황 부자도 기꺼이 많은 돈을 불사하여, 지금의 백담사 자리에 새로 절을 세우게 되었는데, 처음에 지은 이름은 100인의 도적이 세운 절이라 하여 백도사(百盜寺)라 하였다가, 듣기에 민망하다하여, 100인의 도적을 새로운 길로 인도 하였다는 뜻으로 백도사(百道寺)로 개칭 하였다고 한다. (『설악산 백담사』)

버섯 따다가 아들의 환청에 죽은 아버지

방동리 걸가리 팔봉산에 얹힌 이야기이다. 팔봉산은 바위 골이 쪽 쪽 뺏어내려 여덟 봉에서 다리가 이어진다. 그래서 팔봉산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석이버섯이 많다. 석이버섯은 키가 닿는 데는 서서 따지만 대개 밧줄을 매고 버섯을 따다.



그 석이버섯을 따는데 집에 오니까 아이가 없어졌다. 옛날에는 골짜기 이런데 가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 애가 없어졌다. 짐승이 물어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찾을 길이 없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어 몇 달이 지나갔다. 그래 석이버섯을 따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버섯을 따러 갔다. 버섯을 따고 있는데 난데없이

“아버지, 아버지!”

하는 소리가 났다. 분명히 소리는 났는데 아무리 보아도 애는 없었다.

“희한하다.”

하고는, 또 석이버섯을 따다. 그런데 또

“아버지!”

하고 어디 선가 소리가 들려왔다. 계속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가 애 소리에 그만 기절을 해서 애 아버지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애 소리는 나는데 찾지 못하니까. 그만 애가 타서 기절해서 죽은 것이다. (『강원의 설화』)

보명사와 개인약수

보명사는 개인약수 도랑 건너편에 있던 사찰로 유성민이라는 주지가 절을 짓고 살았다. 주지는 절과 약수를 잘 활용하였다. 아울러 간성택일(看星擇日)이라 하여 별을 보고 날을 잘 받았다. 퇴송(退送)도 잘 해서 마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건물에는 상등신, 하등신, 지당이 있었는데, 상등신은 주지가 기거하는 곳이고 하등신은 약수 치유객이 머물렀으며 지당은 산신당과 성황당이 있었는데 치유객들이 기도하는 곳이었다.

치유객은 자신이 먹을 쌀을 지고 와서 보통 7일에서 15일 가량 머물다가 갔다.

스님이 인심이 좋아 아이들이 밥을 얻어먹으러 많이 갔다. 스님은 아이들이 가면 으레 밥을 주고, 밥이 많이 남으면 밥을 말리거나 누룽지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밥이 남는 것은 약수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보명사와 지당은 1968년 울진삼척무장공비침투사건 이후 철거되었다. (『개인약수 브랜드 상품화 컨설팅』)

본부인 버리고 누에가 된 사람

기린면 현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누에는 영물이라고 한다.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영(靈)이라 한다. 옛날 누에가 되어 간 사람의 사연이 있다.

부잣집 아들이 사주팔자에 어렵게 살 팔자고, 색시는 사주팔자에 복 많은 여자라고 했다. 그래서 사돈집이 두 사람이 잘 살게 하려고 정혼을 시켰다. 그런데 신랑은 외모가 잘 생기고 색시는 외모가 못났다. 신랑이 색시가 못 생겼다고 발길질을 하면서 괘시를 했다. 신랑은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있었다. 색시가 괘시는 받다가 보니 후원 별당에서 혼자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때 공부를 한 것이 광산에 대한 공부였다.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박사가 다 됐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신랑은 본 여자인 색시를 버리고 새 살림을 차리고자 했다. 맨날 술집에만 돌아다니면서 색시를 괘시를 하다가 색시를 호랑이 물어가라고 버리기로 했다. 옷 세 벌에다가 밥 세 그릇을 해서 종들을 시켜서 밖에다 내다 버렸다.

여자는 울면서 사흘을 굶다가 어느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는 솥을 구워 나라에 대는 곳이었다. 솥을 굶는 할머니가 솥도 제대로 못 입고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 색시가 보니 몹시 불쌍해 보였다. 색시가 그곳으로 들어가니

“오래, 마나님이 이렇게 왔냐.”

면서 깜짝 놀랐다. 그래도 부잣집에서 솥도 잘 입고 살 던 여자니까 알 수 있었다. 그래 솥을 굶던 여자가 도토리를 입에 물고 앉아서 깜짝 놀라는데

“나도 사람이니, 놀라지 마세요.”

라고 했다. 그러면서 먹을 게 있으면 좀 달라고 했다. 솥을 굶던 할머니는 도토리밥을 해 주었다. 색시는 사흘을 굶었으니 도토리밥이 아주 꿀맛이었다. 그렇게 먹으면서 남편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솥 삼판을 한다고 했다. 그래 색시가 나도 좀 보고 싶다고 하니

“아이고, 마나님이 그런데를 어떻게 오겠소.”

하면서 가지 말라고 했다. 그래도 색시가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가 보았더니 남자가 하는 게 다 금돌이었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던 바로 그 돌이었다. 이 돌은 임금님 물건이라고 해서 색시는 임금님께 바치려고 했다. 치마 한 벌을 뜯어서 중 적삼을 하고 한 벌은 뜯어서 보따리를 해서 짊어지고 동대문으로 갔다.

동대문으로 갔는데 문지기가 들여보내 주지를 앓았다. 색시는 혈서를 써서 자기 아버지가 무슨 벼슬을 하는데, 내가 임금님께 줄 물건을 가져왔다고 했다. 그 얘기가 임금님 귀에 들어가서 임금님이 들어오라고 해서 궁에 들어갔다. 임금님께 금돌을 보여주고는 자기가

아는 데 금이 나오니 광산을 해 달라고 했다. 그래 임금님 허락을 받아서 색시가 그곳을 광산으로 만들었다. 광산이 되어서 이제 사람을 불러들이고 집을 짓고 그러니 마을이 천 호나 되었다. 색시는 금돌을 캐는 남자와 결혼을 했고, 그래 땡땡 거리고 잘 살았다.

그런데 색시를 내 쫓은 신랑은 술집에만 다니다가 가산을 다 탕진하고 빌어먹게 되었다. 팔자가 광주리를 엮어서 하루 한 개씩 팔아서 살 팔자였다. 광주리 엮는 기술을 익혀서 천 호가 있는 골짜기로 들어와서 하나 엮어 팔며 목숨을 이어갔다.

“마나님 바구니 사세요.”

이래 내다보니 자기의 본 남편이었다. 그래 시어머니와 남편을 불러서

“아버지가 내 뱃속에 있을 때 혼인을 시킨 남편입니다. 팔시를 하면 안 되겠으니, 옷이나 한 벌 해 입히겠어요.”

라고 하고는 비단으로 옷을 해 입히고 밥을 먹였다. 그런데 남자가 생각해 보니 자기는 환갑이 돼서 늙어 재산 다 털어먹고 없이 사는 데, 자기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라고 버린 여자가 부호가 돼서 잘 사는 것 보니 기가 막히었다. 그래 여자가 옷을 해 입히고 밥을 먹여서 아버지가 뱃속에서 혼인을 시킨 남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만 펍 얹어져 죽었다.

기가 막혀서 펍 얹어져 죽었다. 죽었는데 보니까 벌써 버러지가 까맣게 쏟아졌다. 그래도 남편 죽은 혼이라고 그 버러지를 뽕나무에다 얹어주었다.

그래 버러지가 뽕을 먹고 한 잠 자고나니 누에가 되었다. 또 한 잠

자고 나니 버러지가 되고, 그렇게 녀 잠을 자고 나서는 자기 하던 버러대로 집을 지었는데 누에고치가 된 것이다. 집을 짓고 가만히 들어앉아서 생각하니 또 버러지였다. 그리고 날이 지나 나비가 돼서 날아남자라고 여자에게 툭툭 들이 대었다. 그리고 번데기가 되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살았다. 그래서 누에가 사람이 죽어 영혼이 돼서 누에가 됐으니 영물인 것이다.(『강원의 설화』)

부자가 망한 대흥동

이 설화는 남면 관대리에서 전하고 있다.

옛날 이 마을에 김대흥(金大興)이란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부러울 것 하나 없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루한 옷을 걸친 스님이 와서 시주를 청했다. 때마침 외양간을 치고 있던 그는

“무엇을 줄게 있어야지. 쇠똥이나 가지고 가시오.”

하며 쇠똥을 스님의 바랑에 담아 주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다가 이것을 본 며느리는

“개도 안 먹는 것을 사람에게 주시면 죄스럽습니다. 등겨가 있으니 그것이나 한 바가지 주어 보내시지요.”

하고 며느리는 그것도 아까워하는 시아버지를 설득하여 광에 들어가서 시아버지 몰래 쌀을 큰 바가지에 가득 뜨고 그 위에 등겨를 덮어서 스님의 바랑에 넣어 주었다. 그랬더니 스님은 감동하여

“택에 화가 급습할 것이니 자녀가 있거든 업고 나를 따르면 그 화

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니 시각을 지체 마시오.”

하고 일러 주었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황황히 아기를 업고 스님을 따라 집 뒤 능선에 올라섰다. 이때 스님은 다시 말하기를 도중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당부했다. 스님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뇌성벽력이 일며 소나기가 퍼부어 큰 홍수가 내려왔다. 집안 일이 근심이 된 며느리는 스님의 다짐도 잊고 떠나온 집을 되돌아보았다. 홍수는 이미 집을 뒤덮고 집의 흔적도 없었다. 이를 보고 망연자실한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스님의 말을 거역한 탓인지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화석이 되고 말았다. 후세의 사람들은 인색한 부자 김대흥이 살던 마을이라 하여 대흥동(大興洞)이라 부른다고 한다. (『태백의 설화』, 『인제군사』)

사람으로 둔갑해서 태어난 여우

이 설화는 기린면 방동리에서 전승하고 있다.

옛날에 아들 오형제를 둔 어머니가 기도를 했다.

“여우라도 좋으니 딸을 하나 태어나게 해 주시오.”

그랬다. 딸을 낳았다. 그런데 저녁마다 소가 한 마리씩 죽었다.

그래서 맏오빠가 나가서 지켜도 소를 못 지키고 오빠들이 다 나가서 지켜도 못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오빠가 나가서 지키고 있었다. 갑자기 아기가 나오더니 곤두박질을 하였다. 곤두박질을 하더니 여우로 변했다. 여우로 변하더니 부엌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따라 발에다 발라가지고 외양간으로 갔다. 외양간에서 소 똥구멍으로 들어가서 손 간을 빼 먹었다. 그러니 소가 죽어 자빠졌다.

막내 오빠가 그 광경을 보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본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저 놈의 새끼 내쫓아야 된다. 무슨 소리냐.”

면서 내쫓아서 집을 나갔다. 집을 나가서 가다보니까 새도 겨우 날

아다니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 가니 머리카락이 길어 지렁지렁한 처녀가 나왔다.

“아, 여기는 새들도 못 오는데 어떻게 왔냐?”

고 그랬다. 그래 사실을 다 얘기했다. 그래 살다가

“이제 집에 가겠다.”

그러니

“집에 가지 마라.”

고. 집에 가면 큰일 난다고 했다. 그래도

“빨리 갔다 온다.”

고 집으로 갔다. 집으로 갈 때 처녀가 한 번 채찍을 치면 3천리를 가는 말을 주고 병 다섯 개를 주면서 위험하면 던지라고 그랬다.

집에 와 보니 집은 쭉대밭이 돼 있었다. 엄마아빠가 살던 데가 여우에게 다 잡아먹히고 쭉대밭이 되었다. 그래 막내오빠가 온다고 사람 손가락 같은 걸 먹으라고 주었다.

“나 이런 거 못 먹으니까 물이나 좀 다오.”

그랬다. 그러니

“아이고, 오라버니 갈려고?”

“나 안 갈 테니까. 뒤에다 꼭 매고, 네 귀에다 끈을 매고 샘물에 가물 떠와라.”

그러니까 이제 가더래. 그래 간 다음에 문고리에다 그걸 빼서는 잡아매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래 거의 다 쫓아와서 병을 하나 던지니 불이 타서 여우가 털이 홀랑 까셨는데 또 쫓아왔다. 그래도 또 쫓아와서 병 하나를 던지니 강물이 한강수가 돼 가지고 흘렀다. 그래도

헤엄을 쳐서 또 쫓아왔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 남았는데, 얼마큼 가다가 거의 다 쫓아와서 또 던지니 바늘이 짝 깔리는데, 여우가 발바닥의 피를 쪽쪽 빨아먹으며 또 쫓아왔다.

그래 거의 다 쫓아왔는데 죽게 생겼다. 그래서 말을 혼자 가게 해두고 나무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말이 나무의 밑을 파서 갔다. 그 처녀한테로 말이 가서 처녀가 쫓아와서 여우를 잡았다. 그래 그 처녀와 둘이 결혼해서 잘 살았다. (『강원의 설화』)

산 김가 셋이서 죽은 최가 하나 당하지 못하다

기린면 현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우리가 흔히 최가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난다고 그린다. 내가 듣기로는 산 김 가 셋이 죽은 최 가 하나 못 당한다고 그린다.

그런데 그게 뭘 얘긴가 하면 얽힌 얘기가 있다. 옛날 이런 산골에 동짓달이 되면 추수를 다 끝낸다. 삼부자가 멀리 시집보낸 딸을 보려고 보따리를 해 짊어지고 짚신짖을 전부 달아가지고 길을 떠났다. 여기로 말하면 진동쫘 되었다. 여기 이제 창말쫘 왔는데, 창말 어구에 들어서니까 예나 지금이나 배수로가 있다. 그 배수로에 사람이 얼어 죽었다. 그런데 옛 어른들은 시신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동네 앞을 지나가던 거지가 죽었어도 사다리 염장이라도 해줬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야, 큰 애야, 너 가서 거적을 하나 구해서 오너라.”

이랬다. 동네니까 거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둘째보고

“야, 내가 저 다리를 빠치겠다.”



겨울에 얼어 죽었으니까 시신이 오그라들었다. 시신이지만 바로 빼쳐놓고 거적은 덮어줘야 할 것이었다. 그런 마음에 작은 아들보고 이제 마뻑을 잡으라고 그랬다.

“마뻑을 이렇게 꼭 잡아라. 이 시신을 빼쳐야 하니까.”

그런데 아버지 힘이 달리니까, 영차영차 하다가 꼬부라져 있는 시신을 아버지가 잡고 있다가 놓쳤다. 잡고 있던 손을 놓치니 시신의 발이 작은 아들 이마를 뺨다 쳤다. 작은 아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

그때 큰 아들이 거적을 가지고 왔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야, 저놈 잠시 기절했으니까. 네가 이번에 다리를 잡아라. 내가 마뺑을 잡는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자신 있게 시신의 마뺑을 잡았다. 밤새 얼어 죽은 시신이다 보니까 뜨거운 손이 가니까 녹았다. 그러니 마뺑이 미끄러워서 그런데다 힘은 달렸다. 큰 애는 뭇도 모르고 확 잡아당기니까 잡았던 손을 놓친 것이다. 그래서 시신과 헤딩을 해서 큰 애가 뺏었다. 그래 아버지가 보니까는 두 아들이 전부 뺏었다.

“야, 이거 대단한 놈이구나.”

하고 아버지가 도망을 갔다.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관가에서 죽은 사람의 신분을 따져 보니까, 최 가였다.

그러니까 산 김 가 셋이 죽은 최 가 하나 못 당한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 됐다.(『강원의 설화』)

삼척 김 씨 기일제(三陟 金氏 忌日祭)

병자호란 때 경기도 양주군 풍양현에 기골이 장대하고 인품이 고귀한 조옥립(趙玉立)이란 장군이 있었다. 병조판서를 지낸 바 있는 이 장군은 병자호란 때 관군들을 끌고 분투하였으나 대세가 불리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기회를 보기 위해 인제의 관대리에 숨었다.

이 장군에게는 삼척 김 씨의 부인이 있었다. 조옥립 장군의 뒤를 따라 들이 닦친 되놈들은 김 씨에게 조 장군이 있는 곳을 밝히라고 두 손바닥에 쇠로 구멍을 뚫는 등 갖은 고문을 했다. 그러나 김 씨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되놈들은 마당에 장작을 쌓고 김 씨를 화형에 처하려고 불을 질렀다.

그 순간 돌연 폭우가 쏟아져 뇌성벽력이 하늘과 땅을 진동 시켰다. 이렇게 되자 되놈들은 무서움에 떨어 모두 도망을 쳤으며 김 씨는 끝내 남편이 있는 곳을 적에게 알려주지 않아 남편을 구했다는 것이다.

조 장군의 후손들은 삼척 김 씨가 죽은 후 그녀에 의해 그들이 대를 이을 수 있었다고 하여 김 씨의 기일이면 문중제사를 지낸다고 한

다.(『태백의 설화』)

『인제군사』에는 원대리로 기록되어 있고 열녀김씨로 바뀌었다. 내용은 같은 데, 『태백의 설화』에 있는 후일담인 “김 씨의 기일은 음력 10월 1일이며 문중에서 제사를 매년 올리고 있다.”고 했다.(『인제군사』)

상남 수동(水洞)의 황룡등천(黃龍登天)

이 설화는 상남리에서 전승하고 있다.

약 100년 전 상남면 상남1리 수동에 사는 한 노파가 어느 날 밤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나를 보려거든 내일 아침 일찍 높이로 오라.”

하고 홀연히 사라졌는데 깨어보니 꿈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노파는 손녀를 앞세우고 마침 딸의 집 잔치를 보러가는 길에 이 높이 있는 곳에 가 보았다. 높이 있는 곳에 닿자 손녀가

“할머니, 저게 뭐예요?”

하고 손가락질을 했다. 할머니는 손가락질을 하는 곳을 보니 그곳에는 황룡(黃龍)이 돌기둥을 칭칭 감고 있었다. 할머니는 무서움을 참지 못해

“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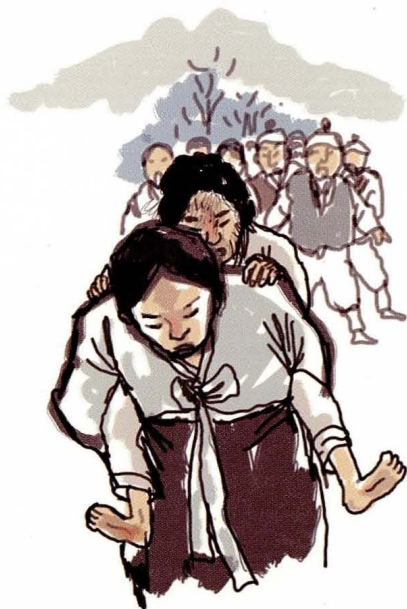
하고 손녀에게 대답해 주고, 놀란 할머니와 손녀는 10리가량 뿔박

질을 했을 때 맑은 하늘에서는 천둥이 치며 안개가 자욱이 퍼지더니
오색무지개 속에서 황룡이 일어나며 서서히 하늘로 향하여 사라졌
다.

그래서 이 후부터 이 폭포를 용폭(龍瀑) 또는 용소(龍沼)라고 부른다.(『
태백의 설화』, 『인제군사』)

설퍼덩과 머슴

서화면 천도4리에서 북서쪽으로 태백산맥 최북단의 명산인 향로봉(香爐峯 1,299m) 중턱에 있는 설퍼덩이란 곳에 얹힌 설화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60여 년 전 서화리당촌(瑞和里堂村)에 머슴이 있었다. 그의 몸은 날 때부터 얼굴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털(毛)로 덮여 있었는데 자기를 대해 주는 사람이 없자 소(牛)와 친해서 계곡을 누비며 놀았다. 동네사람들이 이를 알고 놀려대자 머슴은 부락을 등지고 향로봉의 설퍼딩으로 들어갔다.

몇 달이 지나도록 산으로 들어간 머슴이 소식이 없자 궁금히 여긴 동네사람들은 그를 찾아 나섰다. 향로봉 중턱에 이르러 통나무집을 발견하고 안에 들어가 보고는 깜짝 놀랐다. 옷이라고는 걸치지 않은 털복숭이 머슴 옆에는 키가 9척이나 되는 산사람(山人)이 누워 있었다. 그의 모습은 생리적 조건까지 여자를 닮았으나 말을 전혀 못하는 여인이었다.

여체의 괴물은 동네사람들의 놀림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털복숭이 머슴을 가볍게 업고 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두 벌거숭이는 그 후 열흘이 못 돼 어디론가 영영 사라졌다.

그 후부터 이 지방 사람들은 ‘바보’와 ‘미화’라는 표현으로 ‘미산이’라고 부르고 있다.(『인제군사』)

신남의 닭바위와 망한 부자

남면 신남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남면 신남 1리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형태가 닭같이 생긴 바위에 얹힌 전설이다.



신라시대에 김 씨라는 부잣집이 있었는데 하루에도 지나는 길손 및 손님이 20여 명씩 찾아와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집 며느리는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을 접대하기에 골머리를 앓던 중 하루는 노승이 들려 시주를 원하니까, 시주는 얼마든지 할 터이니 손님이 안 드는 묘책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노승은 앞산에 있는 닭처럼 생긴 바위를 가리키며 닭 벼슬로 보이는 곳을 도끼로 깨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며느리는 즉시 도끼로 깨어 버렸는데, 그러자 그곳에서 피가 흘러내렸다고 한다.

그 후 이상하게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따라서 몇 해 동안 계속 집안에 번고가 생겨 김 씨 집안은 망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이 지역 노인들은 첫 새벽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리면 흉년이 온다고 불길해 하고 있다. (『인제군사』)

신랑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한 여우각시

기린면 현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옛날에 여우가 사람이 되고 싶었다.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절에 가서
섬돌 밑에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빌었다. 그러다가 사람이 되어서 산에서 남자를 만나 집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밥을 못 먹고 고기만 먹어야 했다. 여우니까 고기를 먹는 거였다. 그래서 집안에 닭도 없어지고 그랬다. 여우도 먹어야 사니까 고기를 먹어야 했다.

그렇게 둘이 사는데, 남자가 화투를 해서 돈을 잃어 살림살이가 자꾸 줄었다. 살림이 자꾸 줄어들어서 가만히 보니 안 되었다. 그래서 여우는 입에서 구슬을 게워서 남편에게 주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화투패가 나오라는 대로 나왔다. 그런데 여우가 그걸 한 번 그렇게 하는 데는 엄청 힘들었다. 여우 어미가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안 된다.”

그랬다. 여우 엄마가 그렇게 말렸다. 그런데 남편이 좀 살만 하니까 자꾸 화투를 해서 갔다 내버렸다. 그래 마누라한테 그걸 잊어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구슬을 하나만 더 구해 달라.”

고 했다. 그래 여우가 둔갑을 해서 산으로 올라갔다. 산에 올라가서 여우가 돼 가지고 어머니한테 구슬을 더 달라고 했다. 그러자 여우 어머니는

“너는 절대로 구슬을 하나만 더 쓰면 살 수가 없다.”

고 했다. 그래도 하도 조르니까. 여우 어미가 구슬 하나를 더 줬다. 그러면서

“너는 구슬 하나만 더 버리면 인간으로 될 수 없다.”

고 했다. 산에 올라가서 둔갑을 해 가지고 여우가 돼서 어미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쫓아오다가 봤다. 그러니 기절을 했다. 그러고 또 둔갑을 해서 집에 왔는데 여우인지 마누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도 하도 구슬을 달라고 해서 줬다. 그랬더니 여우는 더 이상 사람으로 둔갑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사람으로 둔갑을 할 수 없어서 여우로 죽고 말았다. (『강원의 설화』)

십이선녀탕

남교에는 태초에 열두 명의 선녀가 목욕을 하기 위해 천하를 모두 찾아보고 옥황상제에게 만천만산만하에 이곳 탕이 있는 곳이 제일이라 아뢰고 승낙을 얻어 열두 명의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하던 곳이라 하여 12선녀탕이라 칭하고 있으며 이 골짜기를 탕수골이라 불리어 왔다.

현재 많은 등산객이 이르길 8탕 8폭이라 하고 있으나 오랜 옛 어른들의 구전에 의하면 작은 탕까지 모두 12탕 12폭이 현존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6.25 동란 이전까지만 해도 이 계곡은 여인들이 들어가면 천지개벽이 일어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곡입구부터 출입을 금하기도 했다. 동란 이후 수복이 되면서부터 등반객 출입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으나 그 때문인지 큰 사고로 조난되어 숨진 이들이 많다.

이는 인제 8경의 하나로 경치가 가히 절경이며 어느 명산 계곡과도 견줄 수 없는 계곡과 폭포와 탕의 조화가 일품이다. (『인제사람들의 마을 신앙2』)

아니오니의 유래

북면 용대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옛날 아니오니 쪽으로 가면 김 부자 터라는 곳이 있었다. 옛날에는 나무가 덜 났는데, 거기에 엄청난 산지기 부자가 살았다. 그래서 이 골짜기로 들어간 사람은 아예 나오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한 번 들어 간 사람은 못 나온다고, 그래서 간 사람은 안 온다고 그래서 ‘아니오니’라 했다. 한 번 가서 못 오니까 아니오니라 했다.

산지기는 산 도적들을 말한다. 산 도적들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엄청나게 넓다. 그 산지기들이 있던 터가 아주 넓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아름드리나무가 짝 차 있고, 그 전설만 전해 오고 있다.

거기 아니오니로 들어가는 입구는 좁다. 그리고 그리로만 들어가게 돼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산 능선으로 가게 돼 있다. 들어가면 길이 이렇게 좁아지는데, 거기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이 들어오면 붙들어 가고 했다. (『인제사람들의 마을신앙』)

엉덩이로 나팔 부는 호랑이

기린면 현리에 전승하는 설화이다.

아들을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사주팔자에 호랑이에게 물려갈 팔자라 했다.

“열여덟 살 먹으면 호랑이에게 물려간다.”



그래서 총하고 활하고 나팔하고를 가지고 놀라고 사췄다. 매일 한 열다섯까지 총질하고 활로 쏘는 것만 배웠다. 그렇게 배웠는데 딱 자기 죽을 날짜가 돌아왔다. 호랑이가 와서
“으르릉.”

그러는데. 호랑이는 낮

엔 다니지 않고 밤만 되면 나와서 돌아다닌다고 한다. 그런데 호랑이는 자기 굴로 들어갈 때 앞으로 안 들어가고 엉덩이부터 들어가는 습성이 있단다.

그래 호랑이에게 물려갈 날짜가 되자 아이한테 떡 서 되, 활, 나팔 이런 걸 줘서 호랑이굴로 내 쫓았다. 한밤중에 호랑이굴로 가서 바위 밑에 가서 앉아 있었다. 호랑이는 그 아이 잡아가려고 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굴로 돌아왔다. 호랑이가 엉덩이부터 굴로 들이밀며 들어오자 아이는 나팔을 가지고 있다가 호랑이 엉덩이를 푹 찔렀다. 호랑이가 놀라서 뛰니

“뛰따뛰따.”

호랑이가 냅다 뛰면서 나팔을 분 거였다. 그래 호랑이가 뭘 때마다 뛰따뛰따 나팔을 불었다고 한다.(『강원의 설화』)

오개탕과 빗적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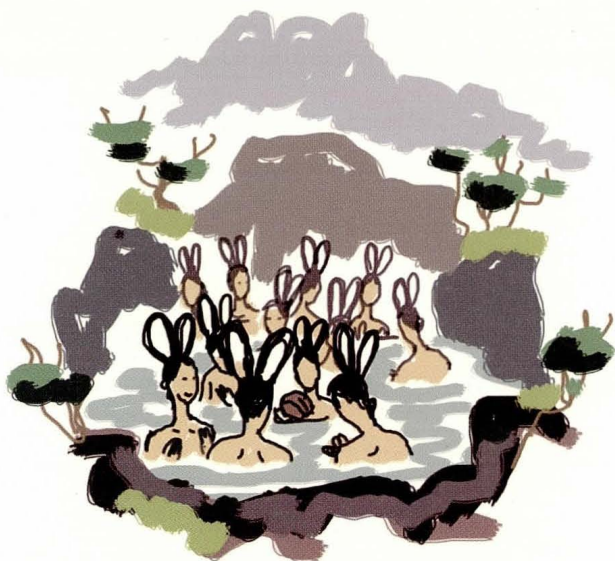
남면 어론리 44번 국도에서 화탄쪽으로 6km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탕이다. 산정(山頂)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암반에다 구멍을 뚫어 5개의 탕을 만들어 놓았다. 굽이돌아 흘러내리는 물과 암반의 조화가 신비하리 만큼 수려하다. 이 때문에 여름에는 찾아오는 피서객 행렬이 멈추지 않는다.

이곳에 하나의 일화가 전한다. 먼 옛날 선녀가 목욕하러 오개탕(五個湯)에 내려왔다가 목욕을 한 후 머리를 빗고 바위를 밀어 열고 참빗을 넣어 두었다. 이 바위를 빗적바위라 한다.

남면 일대의 유이무일(唯一無一)한 유람지로 탕 깃든 산의 정기는 세속에 젖은 가슴을 탁 트이게 한다.(『인제군사』)

옥녀탕

북면 한계3리 장수대로 들어가는 입구에 소재하고 있는 옥녀탕(玉女湯)에 옛날 대승폭포의 월궁선녀(月宮仙女)가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곳에 지네라는 괴물이 있어 옥선녀(玉仙女)를 보고 해치고자 하여 선녀는 쫓기어 다른 소로 옮기었다. 둘째 소까지 쫓겼으나 지네가 다시 쫓아와 여전히 해코자 하였다. 선녀는 갈 곳이 없어 지네로부터 막 해침을 당할 판국이였다. 그 순간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가 옥선녀(玉仙女)의 편을 도와 벼락을 내렸다. 지네는 그만 벼락을 맞아 죽고 옥선녀는 생명을 구했다.

후세 사람들은 이곳에 옥선녀가 놀았다고 하여 옥선녀탕(玉仙女湯)이라 하였다.

또 이곳을 지나는 국도 중앙에 큰 바위가 위치하고 있는데 벼락을 칠 때 떨어진 바위라고 해서 선호암(仙護岩)이라 명명했다.(『인제군사』)

『태백의 설화』에는 <仙女 쫓긴 玉女湯>이라 하여 다음처럼 전한다.

먼 옛날 대승폭포에 월궁(月宮) 옥선녀(玉仙女)가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곳에 지네라는 괴물이 있어 옥선녀를 보고 해치고자 하여 옥선녀는 쫓기어 다른 소로 옮기었다. 둘째 소까지 쫓겨 왔으나 지네가 다시 쫓아와 여전히 해코자 했다. 옥선녀는 갈 곳이 없어 지네로부터 막 해침을 당할 판국이 됐다. 그 순간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가 옥선녀의 편을 도와 벼락을 내렸다. 지네는 그만 벼락을 맞아 죽고 옥선녀는 생명을 구했다고 한다. 후세 사람들은 이곳에 옥선녀가 노닐었다하여 옥녀탕(玉女湯)이라 이름 지어 부른다고 한다.(『태백의 설화』)

왕이 된 재복덕이

이 설화는 기리면 서2리에서 전승하고 있다.

옛날 한 집안에 계모가 들어왔다. 전실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나중에 아들이 크면 자기 재산을 다 뺏길 것 같아 전실 자식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래 계모는

“천상 그 먼저 아들을 하나 죽여야 되겠는데.”

하면서 죽일 방법을 찾게 된다. 그 마을에는 점쟁이도 있고, 백정도 있고, 골고루 있었다. 게다가 그 집안이 정승덕이어서 마을에서 행세를 하였다. 그래서 하루는

“아를 죽이려면 내가 연구를 해야겠구나.”

하고 동네 점쟁이를 불렀다. 그리고 앓는 척하면서

“시방 사람 간을 빼 먹어야 산다고, 이렇게 점을 쳐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동네 의사한테도 맥을 봐 달라고 하면서

“이거 천상, 병이 중하여 사람의 간을 먹어야 살 병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동네 백정을 불러다가

“내가 천상 저 애 간을 먹어야 살 테니까. 저 애를 잡아서 간을 빼
다오.”

라고 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으스스한 방에다 백정을 숨겨 두었
다. 그런데 아이는 아무 것도 모르고

“어머니.”

하면서 계모를 부르며 따랐다. 그래 백정이 숨어서 보니 아이가 불
쌍했다. 백정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사람을 죽여선 안 되겠다.”

하고, 백정네 집에 삼년 묵은 개가 있어 개를 대신 잡아서 간을 빼
서 여자한테 가져다주었다. 그러고는 아이한테

“너는 빨리 가거라. 여기 있으면 죽는다.”

라며 아이를 보냈다. 아이도 그 사연을 들으니 기가 막혔다. 그래
서 아이가 숨어서 계모가 그 간을 먹나 안 먹나 지켜보았다. 그랬더
니 계모가 냄새만 맡고는

“아유 살았다.”

하고서 간을 한쪽에다 내 버렸다. 그래서 아이는

“웁구나. 날 죽이려고 그랬음이 틀림없구나.”

하고는 길을 떠났다. 갈 곳은 없었지만 가다가 보면 밥이나 얻어먹
을 수 있을 것 같아 무작정 길을 떠났다. 그래 길을 가다가 한 도사를
마주쳤다. 도사가 아이 얼굴을 보더니

“야, 신세가 가련하구나.”

도사니까 다 알고 있었다.

“도사님 왜 그러십니까?”



“너 내 시키는 대로 해야 살지 못 산다.”

“그럼 도사님이 방도를 알려주세요.”

“여기 고개를 넘어가면 김 정승댁이라고 있다. 그 집에 가서 나는 이렇게 부모도 없고 혼자 돌아다니는 애니까. 이 집에서 마당도 쓸고, 설거지도 하고, 불도 때고, 나무도 하고 그럴 테니까 밥이나 좀 달라고 해라.”

“예”

“그러면 그 집에서 그렇게 할 테니까.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고 도사는 가던 길로 갔다. 그래 애가 고개 넘어 가니 정말로

기와집이 있고 정승댁이 있었다. 그래 그 집에 가서

“계십니까?”

하니까. 어떤 처녀가 나와서

“왜?”

그러니

“나는 부모도 없고 혼자 돌아다니는 애인데. 어떻게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마당도 쓸고, 이렇게 할 테니 밥이나 좀 먹여 달라.”

“아 그렇게 해라.”

그러더라. 그 집은 김 정승 댁인데 아들은 하나도 없고 딸만 셋이었다. 그래 그 집에 들어가서 나무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면서 밥을 먹고 살았다.

나이가 한두 살 더 먹으면서 덩치도 커졌다. 그런데 나무하는 산도 산의 임자가 있어 나무를 못하게 했다. 그래 가까운 산에는 나무를 못해오고, 큰 산으로 가야했다. 멀지 않은 가까운데 큰 산이 있어 나무를 했다. 그런데 남들은 그 산에 들어가 나무를 하면 벌을 받아 죽는데, 이 애는 아무리 나무를 해도 괜찮았다. 그래서

“야, 다른 사람은 이 산에서 나무를 하면 다 죽는데, 나는 이 산에서 나무를 해도 안 죽으니까 이건 내 산이다. 한 번 산이나 얼마나 큰지 돌아봐야 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그래 하루는 지계를 지고 가서 모두 놓고서 산을 올라갔다. 올라가서 보니 산이 얼마나 큰지 몰랐다. 중간으로 들어가니 청풍바위가 큰 게 하나 있는데, 그 바위 밑에 큰 도사가 앉

아 있었다. 도사가 하는 말이

“내가 네 올 때를 바랐다.”

라고 했다. 그래 아이가

“예, 도사님 왜 그러십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네 산이다. 네 산이니까
마음 놓고 나무 해 가고 그래라. 네가 참 불쌍하구나.”

그러면서 그 도사가 통소 하나하고 조끼 하나를 주면서

“너 이거 보물이니까. 이거 가져라.”

그러니까

“도사님! 이거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조끼를 입고 통소를 입에다 대고 붙면 단추가 세 개인데. 밑엌
거 하나 잠그면 네가 모르는 순간에 공중으로 떠서 올라간다. 그래
이제 두 번째 잠그면 아주 보이지 않을 만큼 올라간다. 세 개째 잠그
면 하늘에 올라가서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며 놀리리
궁덕궁덕 하면서 통소 위에 올라앉아서 돌아다닐 수 있다.”

도사가 그렇게 가르쳐 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거 이상하다.”

그러고서는 아이는 도사가 시키는 대로 해 보았다. 조끼를 입고 입
에 통소를 대고서 단추 하나를 잠그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공중으
로 날아올랐다. 그래서 단추 세 개를 다 잠그니까 하늘위에 올라서
마음대로 돌아다녔다. 마치 비행기 모양으로 다닐 수 있었다. 그래
세상이 얼마나 큰지 다 볼 수 있었다. 엄청 높은 데 올라보니 그 가운
데 논밭 몇 천 평 되는 들에 아주 큰 팔각기와집이 있었다.

“야, 저것도 이상한 사람이 사는 집인지 아닌지 한 번 내려가 봐야지.”

그래 위에 단추부터 착착 베끼니까 내려왔다. 내려와서 그 집 마당에 있으니까, 아무도 없고 조용한 집이었다.

“자, 이놈의 집에 들어가서 어디 집이나 구경하자.”

그래 들어가 보니. 그 안에 별별 물건이 다 있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별게 다 있었다. 그렇게 구경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그 집에 자게 되었다. 텅 빈 집이라 무서워서 제일 골방에 들어가서

“뿔이 와 죽여도 할 수 없다.”

며 가만히 엎드려 있었다. 무서우니까 잠도 안 왔다. 그래 밤 열두시쯤 되니 뿔이 와서 바깥에서 쿵쿵쿵 소리가 났다. 그러더니

“뿔이 남의 집에 왔다.”

고 막 요란히 소리를 질렀다. 그래 보니 구척 도깨비 같은 것들이 들어왔다. 그래 눈을 크게 뜨고 엎드려서

“아, 하여간 난 이젠 죽었다.”

고 생각하고 엎드려 있으니, 한 놈이 쑥 들어오더니

“하이구, 우리 선생님 이제 왔다.”

고 하였다. 그러더니 바깥에서 여럿이

“아, 그거 무슨 소리야?”

“우리 선생님이 왔다.”

“아, 이제 왔어.”

그러면서 들어오더니, 다 나가면서

“이제 선생님에게 집을 맡겨놨으니 우린 갑니다.”

하고 다 갔다.

“참 신기하다.”

고 생각하고, 그날은 거기서 잤다.

그리고 또 조끼입고 통소를 붙어 하늘에 올라가서 도로 나무 하던 자리로 왔다. 지게 벗어놓은데 가서 나무 한 짐 해 가지고, 조끼하고 통소를 감추어서 정승 집에 왔다. 하룻밤을 잤으니 이틀 만에 돌아온 것이다. 돌아오니 정승 딸들이 있는데, 그 둘째 딸이

“저 놈의 새끼 어디 가서 죽은 줄 알았더니 이제 왔네.”

그러고. 셋째 딸은

“고생 많이 했다.”

고 칭찬을 하였다. 그래 모른 채 하고 또 가서 설거지하는 옷을 입고 일을 했다. 그래 부엌에서 불 때고 재 퍼내고 이러니까는 재가 자꾸 묻어서 재복덕이라고 했다. 재가 자꾸 묻어 보기 싫으니까 그 집에서 재복덕이라고 불렀다.

“재복덕아”

그러면

“예”

하고 대답하고. 그래 이름이 재복덕이라 했다. 그래 그럭저럭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했다. 자기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니 어려움이 없었다. 그렇게 나무 해주고 몇 해 있었으니까 좀 컸다.

그런데 정승댁이니까. 정승이 출장을 가는데 말 들이 하나씩 다 있었다. 정승 말, 부인 말, 큰딸 말, 작은 딸 말, 막내딸 말이 하나씩 있고, 남은 말이 백말이 하나 있었다. 그래 자기는 몰라도 셋째 딸은 재

복덕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어디 외출이라도 하려고 두루마기, 옷, 바지 등을 다 해서 장롱에 마련해 두고 있었다. 큰딸들은 뭐 까짓 새끼라고 막 대했다.

“애 재복덕아. 나와 앞드려라.”

하면서 다들 말을 탈 때 등받이가 되곤 하였다. 그러나 셋째 딸은 “너 없을 때도 말 탔으니까. 일어나.”

그러면서 사랑이 무르익어 갔다. 그렇게 몇 해 지난 어느 날 고개 너머 박 정승택에 결혼식이 있다고 다들 말을 타고 갔다. 그래 다들 간 다음에 생각하니

“나도 한 번 그 잔치 집에 가보고 싶은데.”

하다 보니, 백말이 하나 남아 있었다.

“저거나 타고 가자.”

그래서 정승택 집이니까. 벼룩돌도 있고 해서 먹을 갈아서 말을 칠해 검은 말을 만들었다. 그래 갈려고 하니 허름한 재복덕이 옷 밖에 없었다. 남의 잔칫집에 그 옷을 입고 갈 수는 없었다.

“어디 셋째 딸의 옷이라도 입고 가자.”

그리고 셋째 딸의 장롱을 뒤지니 바지저고리에 두루마기까지 아주 근사한 옷이 있었다. 세수하고 옷을 싹 차려 입으니 맘에 꼭 들었다. 다시 검은 말을 하얀 말로 만들어가지고 타고 조끼를 입고 통소를 불면서 단추를 툭툭 채우니, 말 채 하늘로 둥둥 떴다. 하늘에서 보니 잔칫집에 수천 명의 하객이 와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거기 하늘에서 통소를 불며 날리리궁덕궁 놀았다. 그러니 모두 쳐다보면서 “야, 잔칫날이 좋긴 좋구나. 신선이 하강한다.”

“하늘에서 참 신선이 내려온다.”

“빨리 내려와 주시오.”

하고 모두 싹싹 빌면서, 신선이 내려올 자리를 보아 돛자리를 펴고 상을 한 상 차려놓고

“내려오시오.”

라고 했다. 그래 단추를 툭툭 베끼니 내려가서, 모른 채하고 앉았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왔다고 다들 난리였다. 그런데 정승의 셋째 딸이 곁에 가보니, 암만 해도 자기가 손질한 옷이거든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맞나 안 맞나 보려고 바지저고리 있는데다가 표시를 해 두었다. 집에 가서 보면 알 것이기 때문이다. 차려준 음식을 실컷 먹고서

“신선 세계에서는 이런 음식 처음이니, 거 과질이냐 서너 보따리 싸 다오.”

“예”

나가서 하얀 말을 타고 조끼를 입고 단추를 탁탁 걸어 채우니, 공중으로 떠올라 갔다.

“신선님 잘 자시오.”

하고 모두 배웅을 했다. 그래 집에 와서 옷도 벗어 셋째 딸 장롱에 넣고 재복댁이 차림을 하였다. 셋째 딸이 먼저 말을 타고 와서는 장롱을 열고 표시를 해 둔 것을 찾아보았다. 틀림 없음을 알고 좋아했다.

저녁이 되어 집안 식구들이 다 왔다. 큰딸들은 재복댁이를 더럽다

고 놀려댔다. 그러면서 오늘 잔칫집에 신선이 내려왔던 것을 봤다고 자랑이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국상이 났다. 왕이 죽어서 왕을 다시 뽑아야 했다. 정승들이 모여서 왕을 뽑는다고 통보가 와서 김정승도 가게 되었다. 김 정승이 말을 타고 가야 하는데 말뭉이꾼이 필요했다. 집에는 딸만 있으니 재복댁이를 옷을 갈아 입혀 말고삐를 잡혀 갔다.

장안에서 왕을 뽑는데 시험을 보았다. 시험은 짚으로 종을 만들고 질뽕맹이로 쳐서 종소리가 나는 사람이 왕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 정승들이 돌아가면서 종을 치는데 소리가 날 리가 없었다. 아무도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김 정승이 재복댁이를 보고

“너도 이왕 왔으니 한 번 들어가 쳐봐라.”

그래서 재복댁이가 치니 종소리가 났다. 소리가 났으니 왕이 된 것이다. 그러자 김 정승은 꼬리가 빠지듯이 집으로 돌아왔다. 김 정승이 집에 오니 딸들이

“아버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말도 마라. 말도 마라. 말도 마라.”

그래 보니까 재복댁이가 안 왔거든

“이상하네요. 재복댁이가 안 왔어요.”

“아, 그 애가 지금 왕이 됐다.”

그러자 큰딸들은

“내가 어디 갈 적에 그 재복댁이 말 탈 적에 엎드리라고 안 하고 설음주지 않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를 했다. 그러나 셋째 딸은 자신이 한 일이 있어 좋아했

다.

재복댁이 서울에 있다가 궁궐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하들이

“어디 좋은 데가 있습니까?”

옛날에 저 산 너머 큰 기와집이 있던 곳으로 옮기게 됐다. 그때는 왕이 명령을 내리면 뭐든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왕이 됐으니 결혼을 해야지.”

그러니. 신하들이

“어디 색시 있습니까?”

그러니

“거 김 정승댁 셋째 딸이 색시라.”

그렇게 결혼을 하고, 왕이 되고 했으니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왕이 돼서는 도와 줄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데. 옛날에 자기를 살려 준 백정과 의원에게 베풀주고, 자기를 죽이려던 계모는 죽여서 원수를 갚고 그렇게 잘 살았다. 그러니 불쌍한 사람들도 잘 살 때가 있는 것이다.(『강원의 설화』)

용대1리 꼬부랑 할머니에 대한 제사

꼬부랑 할머니제사는 30여 년 전 마을에 거주하던 할머니 한 분이 당신의 전 재산을 마을에 기증하고 사망하셨는데 꼬부랑 할머니의 그 뜻을 보전하고 기리기 위해 지내는 제사이다.

꼬부랑 할머니의 기일인 음력 11월 22일에 맞춰서 경로당과 할머니 묘지에서 마을주민들이 모두 모여 제사를 올린다.

꼬부랑 할머니는 30년 전에 평생 가지고 있던 토지를 마을에 기증하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마을에서 주관하여 고인의 뜻과 좋은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정성껏 제사를 올린다.

제사 당일이 되면 노인회장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를 올리는데, 제비는 마을 운영비로 사용한다. 제물로는 밥과 탕국, 부침개, 각종 전과 나물, 생선, 강정, 과일 등의 일반적인 차례상과 비슷하다.

꼬부랑 할머니 제사는 경로당과 묘지에서 두 번 지낸다. 제를 올리는 순서는 제사장인 노인회장이 향을 피우고, 집사가 잔에 술을 부어 주면 제주가 모샷그릇에 3번 나누어 붓고 두 번 절한다. 경로당에서

는 모샷그릇에 나누어 붓지만 묘지에서는 모샷그릇 대신에 땅에 붓는다.

그리고 제사에 참여한 마을 주민일동이 모두 두 번 절한다. 주민들이 함께 절을 하고 나면 제사장이 다시 술을 받아서 상위에 올린다. 이어서 밥에 수저, 시접에 젓가락을 정돈한다. 정돈이 끝나면 다시 제사에 참여한 주민들 모두 절을 하고, 제사장은 수저를 거둔다. 밥 뚜껑이 있으면 덮고 다시 두 번 절한다. 지방을 불사르고 차례를 종료한 후 안쪽에 있는 음식부터 차례로 음식을 내린 후 음복을 한다.

2010년 꼬부랑 할머니 제사는 1월 6일(음력 11월 22일)에 지냈다. 제비는 마을운영비로 사용했는데 올해는 총 50만원이 사용됐다. (『인제사람들의 마을신앙2』)

제사를 모셔 잘 살게 된 형제

북면 원통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옛날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서로 의종게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형은 하도 가난하게 살아서 부모님 제사를 모실 메쌀이 없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 형은 메쌀만 구하고, 작은 아들은 그래도 좀 살만 해 가지고, 동서가 제사 준비를 다 해가지고 큰 집에 와서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작은 동서가 맏동서한테 제사를 넘기라고 했는데, 한사코 맏동서가 제사를 지내겠다고 했다. 그러니 작은 동서는 매번 제사 준비를 해 가지고 형님 집에 와서 제사를 지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아유, 형님 이거 안 되겠소. 제사를 우리가 지내야 되겠소. 만날 이거 제사 준비를 해가지고 다니기가 번거로우니 우리를 주시오.”

그렇게 작은 동서가 보채니, 맏동서가 자기가 지내지 못하는 죄로 다가, 이제 죽지 못 해서

“그럼 그러게.”

그랬다. 제사가 이월인데, 옛날에는 이월이면 먹을 게 거의 없을 때이다. 그러니 동서네 집으로 시어머니 제사를 지내러 가니까 참 기가 막혔다. 그래 가지고 봄에 밭에 나가면 다북쑥이라고 나온다. 다북쑥이 조금 나온 거를 한 움큼 뜯었다. 그걸 콩을 조금 담갔다가 콩탕을 해서 한 그릇 떠놓고, 작은 집으로 시어머니 제사를 지내러 갔다.

그날 저녁 제사를 지내고 만동서는 집으로 오고, 제사를 지냈으니 잠을 잤다. 잠이 들었는데 작은 아들 꿈에

“야, 나는 오다가 네 형네 집엘 들어가니 네 형수가 쑥을 뜯어다가 콩탕을 뽕양게 해서 한 그릇 떠놓고 네 형수가 웃더라. 그런데 내가 빈집에서 그걸 한 그릇 배가 부르게 잘 먹고 와서 난 운감 안 하고 간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돌아서 나갔다. 작은 아들 꿈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이

“야, 이거 제사를 모시는 집에서 모셔야지. 이게 안 될 일이구나.”

하고 도로 형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밀어 주었다. 그래 가지고는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형도 잘 살고 동생도 잘 살고 두 집이 모두 잘 살게 되었다. (『강원의 설화』)

조롱동서생(鳥弄洞書生)과 장홍노(張弘弩)

기린면 소재지에서 2km가량 가면 조롱고개(鳥弄山)가 나온다. 이 고개를 넘어서 500m정도 가면 국도변 자연석에 새겨놓은 ‘장홍노(張弘弩)’라는 큼직한 글씨를 볼 수 있다.

나이 많은 촌 어른들도 언제 그 글씨가 써 졌는지 알지 못한다. 아득한 옛날부터 그곳에 얹힌 이야기만 전해지고 있다. 이야기는 조롱동 서생과 장홍노에 얹힌 일화이다.

옛날 어느 곳에서 살다가 이곳을 찾아왔는지 그 신분을 소상히 알 수 없는 장홍노라는 사람이 있었다. 장홍노는 이곳에서 후진들의 한 학교육에 여생을 보낼 것을 굳게 다짐하고, 이곳에서 서생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 후 제자들이 자연석에다 스승의 이름 장홍노(張弘弩)를 큼직하게 새겨놓고 가까운 곳에다 묘(墓)를 마련해 놓았다. 지금도 그 현장을 찾아볼 수 있어 감개무량하다.

제자들은 스승의 생전에 그 은혜를 영원히 추념하고 또한 연고인이 언제라도 이곳을 지나면 찾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에 이와 같은 미거(美舉)를 이루었다고 그 부근에 거주하고 있는 이병준(李炳俊, 1939~)은 전해 주었다.

스승님은 영영 가셔도 고색 짙은 그 이름만은 풍우를 가리지 않고 선명하게 보여주니 빛을 잃어 가는 현대인의 애향심을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인제군사』)

주인을 구하고 죽은 개

서화면 가전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加田里)는 38선 이북지역인데 1953년에 휴전이 되면서 완충지대가 되어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옛날옛날 아주 옛날에 이곳 배양(倍養)마을에 어떤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 농부는 여느 사람들처럼 개를 기르고 있었다. 그런데 여느 사람과 달리 개를 무척 사랑하여 어디를 가든 개를 데리고 다녔다. 개 또한 주인을 잘 따랐다. 개는 언제나 주인의 신변을 떠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어느 해 봄날, 농부는 고개 너머 남쪽에 있는 서화리로 장을 보러 갔다. 물론 애지중지하는 개를 데리고 갔다. 장에서 불일을 다 보고는 언제나처럼 주막에 들러 술로 목을 축였다. 농부는 거나해져서 집으로 향하였고 개도 그 뒤를 쫓랑쫓랑 따랐다. 마을 앞의 고개 마루에 이르러 농부는 좀 쉬어가려고 풀밭에 퍼질러 앉아 버렸다. 아직도 술기운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농부는 졸음이 몰려 와 그대로 풀밭

에 누워 마음 편하게 잠이 들었다. 개는 그 옆에 앉아 주인의 잠이 깨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고개 아래쪽에서 산불이 일어나 농부가 잠들어 있는 고개 마루로 번져 올라오고 있었다. 개는 깜짝 놀라서 농부를 흔들어 깨웠다. 그러나 농부는 잠이 깊이 들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불은 계속해서 번져오고, 그럴수록 개는 몸이 달았다. 순간을 다투는 위기 속에서 개는 허겁지겁 고개 밑에 있는 개울로 뛰어 내려가 꼬리에 물을 흠뻑 묻혀 가지고 와서 불이 번져오는 곳에 뿌렸다. 그러나 그것으로 꺼질 불이 아니었다. 개는 또 다시 뛰어 내려가 이번에는 온몸에 물을 적셔 가지고 와 불길이 번져오는 풀밭 위에 덩굴고, 또 그렇게 하고, 필사적으로 이러기를 계속하는 동안 불길은 간신히 잡히었다.

이런 소동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던 농부가 잠을 깨었을 때 바로 옆에서, 등걸불에서 연기가 일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개가 쓰러져 죽어 있었다. 농부는 펄쩍 정신을 차리고 개를 끌어안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농부는 비통한 마음을 누르지 못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장사를 치러 주었다. 그때 그 고개에 개무덤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고개가 바로 지금 가전리에 있는 개고개[浦峴]이다. (『강원의 전설』)

천도리(天桃里)

옛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큰 복숭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것을 본 마을의 한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길 징조라 생각해서 복숭아가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 집을 지었다. 그랬더니 그곳에 집을 짓고 사는지 불과 몇 해가 되지 않아 그 지방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근방에 알려지자 사람들이 모두 모여와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여 몇 해 안 가 이곳에 한 마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웃 마을에서는 이 마을을 하늘로부터 복숭아가 떨어진 곳이라 하여 천도리(天桃里)라고 불렀다 한다.(『태백의 설화』)

풍년을 점치는 합강수(合江水)

인제읍에 소재한 합강리(合江里)부터 멀리 소양강(昭陽江) 하천을 예부터 미륵천(彌勒川)이라 불러왔다.

이 미륵천은 옛 기록에

在懸北自官門五里一波麒麟來一波自雪嶽來至元通合驛瑞和
水流至亭前合江名稱彌勒川

현의 북쪽 관문으로부터 5리에 있다. 한 물결은 기린으로부터 오고 한 물결은 설악으로부터 오는데 원통에 이르러 서화에서 달리는 물과 합한 후, 물길은 흘러 합강의 정자 앞에 이르니 아름답기를 미륵천이라 한다.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강물이 합강정(合江亭) 앞에서 합류하므로 대부분의 이 고장 사람들은 합강천(合江川)으로 통용되고

있다.

천년을 하루 같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이 하천은 장마철에 들어서면 합류지점은 그 수심이 10여 미터나 되며 지형적인 특수한 성인(成因)으로 강물이 역류하고 있음이 기이하다. 그래서 이곳에 온 이는 신비한 감동적인 인상을 갖게 한다.

합류지점에서 건너편 만호대(萬戶臺) 기슭 강변을 지나는 내린천(內隣川, 암물, 자수(雌水)) 수색이 흐리면[이기면] 홍수가 나고, 반대쪽인 서화(瑞和)에서 내려오는 물(수물, 웅수(雄水)) 수색이 맑으면 풍년을 기약한다. 이런 전설이 촌 어른들의 구전에 의해 전해지고 있다.

예부터 강을 왕래하는 뱃사공에 얽힌 사연, 그리고 1930년 경오수난(庚午水亂)을 비롯한 수재(水災)가 빚어낸 갖가지의 슬한 애화를 담고 있는 이 강물은 오늘도 말없이 흐르고 있다.

인근에는 많은 선사와 묵객들이 찾아와 시가(詩歌)를 남기고 간 300년 전에 창건하였다는 합강정(合江亭)이 있고, 석양이 비치는 강물과 고을 주변의 경색과 솟아오르는 연기는 다른 지방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림의 한 폭으로 묘경(妙境)이다. (『인제군사』)

하우고개

이 설화는 인제 가리산에서 전승하고 있다. 하우고개는 화해고개로 것바치에서 덕전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옛날 ‘피래’라는 고장에서 주민들 간에 사소한 언쟁으로 사람을 죽였다. 잘못하여 사람을 죽인 쪽과 죽음을 당한 가족 사이에는 잘잘못을 해결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관가에서 이 사실을 가리고자 피래를 출발하여 백여 리 길을 걸었다. 두 쪽 사람들은 서로 적의를 가지고 마을을 떠났으나 1백여 리를 걸어서 이 고갯마루에 오르곤 보니 서로가 피로하고 기진맥진하여 서로 옆에 앉아 쉬게 되었다. 관가에까지 가려면 앞으로 갈 길이 아득한데다가 또 사소한 언쟁으로 과실치사를 한 사이이고 보니 서로 상대방의 사정을 듣고 혐의한 끝에 서로 하우(화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고개를 하우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 (『태백의 설화』)

행복한 아기장수 사랑이

이 설화는 미산동 개인동 계곡에서 전한다.

개인동 계곡에는 착한 두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 부부는 혼인한 지 10여년이 지났으나 슬하에 자녀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 부부는 어느 날 세상을 떠나 깊은 산에서 살아야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 점괘를 얻어 아이를 갖고자 깊고 깊은 개인동 계곡에 들어가 살고 있었다.

세상을 피해 개인동 계곡에 들어와 살면서 두 부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당을 지어놓고 산신께 자식을 점지해 달라고 빌었다. 부부가 기도를 하는 지당에는 언제나 신성한 서기(瑞氣)가 서려 있었다.

지당에 서려있는 상서로운 기운은 신비하게도 그 형체를 매일 바꾸었다. 어떤 때는 인자한 노인의 형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늘을 나는 용의 형상을 띠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서운 귀신의 형상으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부부는 똑 같은 꿈을 꾸었다. 인자하신 할머니

가 자신들이 매일 기도를 하는 지당에 내려와서 가슴에 품고 있던 아기를 건네주는 것이었다. 부부는 너무 고맙고 놀라서 잠을 깨 보니 꿈이었다. 그런 꿈을 꾸 후 정말 부부가 그렇게 오매불망 바라던 아이가 들어서게 되었다. 부인의 몸에 태기가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좋은 일에는 마(魔)가 낀다고 아이를 가진 부인의 몸이 이름 모를 병을 얻어 많이 아팠다. 배도 아프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등 아이를 가진 부인은 거의 혼수상태에 빠졌다. 남편은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를 가졌는데, 부인이 몸이 아파서 설설 기는 꼴을 그냥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남편은 더욱 지당에 가서 정갈하게 메를 지어놓고 부인의 쾌유를 산신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성심으로 기도하던 남편은 그만 지당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그때 산신이 남편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다.

“야, 이놈아 옆에다 약수를 두고 뭘 그리 애를 먹느냐. 네 부인은 임신성 당뇨이니라. 네 옆에 뽀글뽀글 솟아나는 물을 떠다가 부인에게 먹이거라. 그러면 금방 괜찮아 질 것이니라.”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은 정신이 펴뜩 들어서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래서 꿈에 산신님이 알려준 대로 옆을 보니 정말 물이 뽀글뽀글 솟아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얼른 남편은 그 우물을 파서 바가지에 떠다 부인에게 주었다. 그 물을 마시고 며칠이 지나자 정말 꿈결처럼 부인은 건강해졌다.

부인은 아이를 가진 지 열 달이 되었는데도 아이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열한 달 열두 달 열세 달이 지나 열네 달이 되었을 때 부인은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기골이 장대한 사내아이였다. 부부는

너무 기뻐다. 그런데 더 황홀한 것은 아이를 낳던 날 개인동 계곡에
무지개가 서고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서 아이를 받았다. 고운 선
녀들이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서 아이를 받아 몸을 씻겼다.



“이 아이를 잘 기르세요.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면 험난한 세상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남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 두 부
부가 세상을 피해서 이곳에 산 이유가 이 아이에게 있습니다. 절대
이 아이가 역적이 된다는니 하는 남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렇게 간곡하게 부부에게 부탁을 하고는 아이가 입을 옷이며, 업
고 다닐 포대기 등을 선물로 주고는 선녀들은 하늘로 올라갔다.

부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었다.

아이 는 나서 무럭무럭 자랐다. 하루가 다르게 사랑이는 자랐다. 사랑을 낳고 얼마 지나서였다. 부부는 곡식을 돌보기 위해서 밭에 갔다 돌아왔다. 그런데 안방에 눕혀 둔 사랑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부부는 사랑을 찾아서 주변을 정신없이 찾아다녔다. 그런데 사랑이는 의외에도 개인약수를 마시고 울창한 잣나무 위에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며 무술을 익히고 있는 것이었다. 태어난 지 며칠 밖에 안 된 잣난아가 수백 년 된 잣나무 사이를 타고 다니면서 무술을 익히고 있는 것이었다. 너무 놀란 부부는 사랑을 내려오라고 했다. 그랬더니 사랑이는 천진한 표정을 지으면서 수련을 그만하고는 부부의 품에 안기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가 그렇게 무술을 닦는 것을 약초를 캐러왔던 미산의 한 젊은이가 보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보는 사람마다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 소문이 퍼져나가자 미산에서는 아기장수가 태어났다면 자라면 역적이 되어서 집안이 몰살할 것이니 아기를 더 크기 전에 죽여야한다고 입을 모아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 소문은 세상을 피해 살고 있는 사랑이의 부모에게까지 들렸다. 사랑이의 아버지는 고민이 생겼다. 정말 동네사람들의 말대로 역적이 되어서 집안이 몰살할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와 아기를 받아 산모의 역할을 한 선녀의 말대로 사랑을 키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생긴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자 사랑이 엄마는 모든 친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랑을 죽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사랑이의 아버지는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

“여보, 우리 사랑이를 잘 기릅시다. 잊지 않으셨지요.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아이를 받으면서 부탁한 말ைய요.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사랑이를 잘 기르면 세상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보, 그렇게 합시다.”

그 이튿날 그 부부는 사랑이를 안고 더 골이 깊고 세상 사람들이 모를 방태산 골짜기로 숨어들어 사랑이를 기르는 데만 힘을 쏟았다.

사랑이는 부모의 정성을 몸에 안고, 개인약수를 마시면서 힘을 기르며 무럭무럭 자랐다. 정말 멋진 청년으로 사랑이는 자란 것이다. 그렇게 자란 사랑이는 열일곱 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다. 키는 팔 척에다 눈은 부리부리하며 온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기개를 가진 청년으로 자란 것이다. 거기다 무술로 치면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으며, 무술을 익힐 때 백발인 어느 노인이 나타나서 글공부까지 시켜 청년이 된 사랑이는 몸과 마음이 정말 멋지고 온전하게 자랐다. 무술은 물론이고 삶의 가치관까지 뚜렷한 청년이 된 것이다.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춘 것이다.

사랑이는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다. 나라가 외국에 침략당해서 세상이 워낙 혼란하니, 나라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사랑이는 결단을 했다. 한 목숨 바쳐서 나라를 구하고, 진정 백성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고 싶었다. 개인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할 일이었다. 자유와 민주의 세계를 만들 것을 생각한 것이다.

사랑이는 열일곱 살의 꽃다운 몸을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던졌다.

사랑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먼 훗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백성들이 편하게 살게 되었다.

사랑이는 나중에 미산의 사람들에 의해서 아기장수라 불리게 되었다.(『개인약수 브랜드 상품화 컨설팅』)

효자와 호랑이

남면 어론리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옛날에 이 씨네 집에 효자가 났다. 부모가 돌아가시니 효자막을 치고 묘에서 3년 상을 입었다. 삼년상을 시묘살이를 할 때는 머리도 안 감고 거기서 밥을 해 먹고 해서 이도 끼고 굉장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호랑이가 와서 삼 년 동안 지켜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은 호랑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꿈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현몽을 했다.

“나는 죽게 되었다.”

그래서 꿈을 깨고, 호랑이가 가르쳐 준대로 방향을 찾아갔다.

옛날에는 호랑이 잡는다고 덫을 놓았다. 소나무 큰 걸 잡아서 엮어 놓고 그 밑에 덫을 놓는데 개를 잡아서 미끼로 썼다. 개를 잡아먹으려고 들어가면 덫이 떨어지게 되어 있었다. 효자를 지키던 호랑이가 그 개를 잡아먹으려고 갔다가 덫에 걸렸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그 호랑이를 잡으려고 모여들었다. 호랑이니까 달리 잡을 길이 없어 창

으로 찢러 주었다. 그래 이 사람이 꿈을 꾸고서 꿈에서 알려준 대로 방향을 짜라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래서 멀리서 소리를 지르면서 호랑이 죽이지 말라고 했다. 그래 막 쫓아가니, 그 동네 사람이

“저쪽 너머 어느 동네에서 효자 났다더니, 효자 지켜주는 호랑이가 여기 와서 뒷에 걸렸나 보군.”

하였다.

“잠간만 기다려 보자.”

그러고 나니. 그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여기 호랑이 들어 있느냐?”

“그렇다.”

“이 호랑이 나 하고 같이 있는 호랑이인가 본데, 여러분 이 호랑이 좀 살리게 해 주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꺼내느냐. 이거 나무에 친 거 몇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내가 이야기 하면 호랑이가 사람 해코지 안 할 테니까, 이 뗏을 들어주소.”

그래서 사람들이 뗏을 들고 보니까 호랑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효자가

“이놈아. 어떻게 이런데 와서 개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치였느냐?”하니까. 호랑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나왔다. 그래 효자가 호랑이를 데리고 갔다.(『강원의 설화』)

* 참고문헌

- 강원대학교국어국문학과, 「강원도 인제군 학술답사보고서」, 『강원문화연구』9,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89.12.
- 『강원의 설화』1, 강원도, 2005.
- 김선일, 『인제사람들의 마을신앙2』, 인제문화원, 2010.
- 박유석, 『강원의 효열과 전설』, 춘천문화원, 1997.
- 송운강 외, 『개인약수 브랜드 상품화 컨설팅』보고서, 인제군, 2015.
- 이기원, 「인제군」, 『태백의 설화』, 강원일보사, 1974.
- 이만철, 『인제군 유적·지명·전설』, 인제문화원, 2007.
- 이태두, 『김부사적기』, 갑둔향토사적연구회, 1987.
- 이태두, 『인제조상의 얼』, 강원인제교육청, 2000.
- 이학주, 『내설악 그 명승에 빠지다』, 인제문화원, 2015.
- 이학주, 『인제사람들의 마을신앙』, 인제문화원, 2009.
- 이학주, 『정자리사람들』, 인제문화원, 2016.
- 『인제군사』, 인제군, 1996.
- 『인제군지』, 인제군, 2017.
- 전신재, 『강원의 전설』, 강원도·강원발전연구원, 2007.
- 최병헌, 『설악산 백담사』, 인제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2013.

편저자 이학주

성균관대학교 문학박사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

저서 『류인석』 외 50여권

논문 「<용궁부연록>의 치료관광스토리텔링 전통: 용궁을 통한 치료관광 스토리텔링의 패러다임 구상」(2017) 외 60여편

그린이 조영길

전, 강릉 주간 동녘신문 편집기자 겸 만평, 4단 만화 연재

전, 서울 주간 장애인신문 편집기자 겸 만평, 4단 만화 연재

전, 속초 주간 설악신문 편집기자 겸 만평, 4단 만화 연재

전, 한겨레신문 시사만화초대석 작가

전, 전국시사만화협회 부회장

전, 경민대학교 국제 효 만화 공모전 심사위원

현, 강원도민일보사 편집부 부장(만평 화백)

인제 옛이야기

© 인제문화원 / 강원도문화원연합회

발행일	2018. 2.
발행인	류종수
발행처	강원도문화원연합회
기획	인제문화원
글/삽화	이학주, 조영길
출판	강원일보사 출판기획국
문화원	T. 033-461-6678 F. 033-461-0220

(비매품)

ISBN 979-11-86066-35-5

※ 이 책은 「한국문화원연합회-2017년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